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2월
박사학위 논문

하드 100개
100모조 양면, 페이지 238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윤정

2012년 2월

박사학위논문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이
윤
정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ngbaekhoi Movement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 Focused on the Dynamics of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2012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윤정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오 수 열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이 윤 정

이윤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임채완	
위원	호남대학교	교수	이경희	
위원	경남대학교	교수	신미숙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창영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수영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4
제2장 연구 이론과 분석틀	10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2절 연구의 의의	22
제3절 분석틀: 송백회운동에 나타난 참여와 연대의 동학분석	29
제3장 오월광주항쟁의 구조적 동학	35
제1절 정치적 기회구조	35
1. 유신체제의 몰락과 정치적 기회구조	35
2. 제도 정치체계의 붕괴와 무력화	45
제2절 시민운동의 조직화	47
1.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의 자원과 조직화	47

2. 지역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성화	86
제3절 오월광증항쟁의 조건과 역사적 국면	95
1. 항쟁의 외부적 국면	95
2. 항쟁의 내부적 국면	106
3.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역사적 국면”	126
제4장 송백회 항쟁참여의 인지적 동학	129
제1절 송백회의 인지적 실천	129
1. 송백회의 이념과 가치	129
2. 송백회(원)의 공유된 인식과 신념	132
제2절 송백회의 항쟁경험과 정체성	140
1. 항쟁경험과 인식의 공유	140
2. 송백회의 집합적 정체성: 여성운동가에서 민주투사로	143
제3절 공유된 인식틀로서 프레임 정치	150
1. 신군부의 억압프레임: 안보	150
2. 광주의 대항프레임: 독재타도	156
제5장 송백회운동의 관계적 동학	166

제1절 송백회의 조직화와 항쟁참여	166
1. 조직화	166
2. 운동조직의 발전과정	170
3. 광주항쟁에서 송백회의 역할	176
제2절 송백회운동과 미시동원맥락	181
1. 미시동원자	181
2. 송백회의 이웃연결망	193
제3절 중위동원자로서 송백회의 역할	201
1. 오월조직들의 구조적 통합 : 항쟁공동체	201
2. 오월조직들의 문화적 통합 : 해방광주	209
제6장 결 론	217
참고문헌	219

<표 목차>

<표-1> 5대~7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의 시도별 득표율 ……	107
<표-2> 정부 발표 자료 ……	154
<표-3> 항쟁기간동안 발표된 투사회보와 시민궐기대회 원고 현황 ……	163

<그림 목차>

<그림-1> 송백회운동의 동학 분석틀 ……	29
-------------------------	----

<Abstract>

A Study on The Songbaekhoi Movement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 Focused on the Dynamics of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Lee, Youn Jung

Advisor : Prof. Oh, Soo Yol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ies on the social movement including the May 18 Gwangju Uprising were mostly based on the Collective Behavior theory or structuralism which mainly attempts to explain the reason and significance of the movement in view of structural determinism. Although the perspective of these theories contributed to establish a far-reaching historical meanings of the movement in Korea. However these perspectives have limitations to explain the dynamics of the movement as shown in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social groups as well as individual actors, pattern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discourses of counter hegemony in social movements since 1980s. These studies ignored the beliefs and value, feeling, ideology, and identity of the agents, and had a tendency to simplify the movement in the deterministic framework. Under the critical consider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what kind of factors effected to the micro-feelings and identities of the agents in the process of movement formation and decline among the large-scale social movement, focused on the Songbaekhoi movement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This paper aims at reinterpreting the May 18 Gwangju uprising and the Songbaekhoi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w social movements including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The author insists that the movement was not simple events but was vivid dynamic movements successively embedded in and caused by the region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Meanwhile this study also tries to reveal that the May 18 Gwangju uprising was not only a movement with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especially the solidarity of Songbaekhoi's participation makes the uprising full of cultural

dynamic. Contrary to the previous structural approaches, this paper seeks to revive the historical memory of participation and resistance of Songbaekhoi activists with a dynamic reinterpretation and further to reveal the structural, cognitive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ongbaekhoi movement as well as the important role of in the history of Korean social movements.

Base on the vivid oral testimony materials of the Songbaekhoi activists in the May 18 Uprising, this study analyses the various social, cultural experiences as well as their interaction from the social constructivism and mobilization theory perspectives. The values, preferences, identities, norms, beliefs, political attitudes, and ideologies of Songbaekhoi members were not fixed at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but rather constructed under the certain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This paper exhibits the Songbaekhoi movement dynamically through the analyzing terms such as the shared mentality, frame, identity, and micro mobilization contexts etc.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articipation of Songbaekhoi members in the Kwangju Uprising is autonomous. At the beginning stage, the identity of Songbaekhoi members could be regarded as pro-female activists, however, as the uprising had intensified and the members had deeply involved, their identities gradually changed as pro-democracy fighters. The causes that made their identity changed were the repression of new military power, emergency rescue, the expectation to the uprising leaders and activists and the awareness of the civilian,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Gwangju, etc. so the cultural factors had taken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identity reconstruction. Secondly, the micro-mobilizers had taken a central role in the May18 uprising and Songbaekhoi movement, and they were also the basic resource of the informal organizations such as the progressive pastors and priests in the Christian groups, the culture (missionary) activists groups in Gwangju universities, female activist groups, etc. Meanwhile, through utiliz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Songbaekhoi and some other organizations such as the youth movement, cultural movement, night school movement, it further assured the autonomous power of regional movement and enlarged the civil community. Democratization frame such as abolishing martial law and overthrowing the dictatorship had taken an important role in micro-mobilizing context. Thirdly, it can investigate the status and role of Songbaekhoi in the May 18 Uprising from the term of mesomobilization. Songbaekhoi constructed the Gwangju uprising community through its central linkage role with various organizations in Gwangju. Furthermore, it proposed the slogan 'liberate

Gwangju' which made it more normative and cultural.

We can say that Songbaekhoi movement as a part of Gwangju May 18 uprising was one model case which took an integrated role in the whole social movement, which also meant that the thousands of informal organizations in the regional social movement of Gwangju and Chonnam. Through utilizing the micro and mezo-mobilizing mechanism, Songbaekhoi as the medium prompter had ripened the integrated forces of the uprising. The mobilizing force made Songbaekhoi not only a simple organization, but also the key force of the movement mechanism.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ssessing Songbaekhoi as a new social movement was its strong activist norms and cultural bases including cognitive frame. This factor was one combination of the devotion to mankind and practical value of human based on the maternal love. In conclude, the Songbaekhoi movement shows new possibilities and perspectives to social movement model of regional society.

Key Words : Songbaekhoi, The May 18 Gwangju Uprising, Gwangju Democracy Movement, New Social Movement, Politics of Fram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강력한 국가와 이에 굴하지 않고 활발히 저항하는 사회와의 갈등은 한국현대사의 한 주요 국면이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동을 고려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을 조망할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가 민주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마다 저항해 왔고 결국 이 한국의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집합행동을 통해 민주적 규범의 침해에 도전하고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월광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의 월권을 제어해 가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¹⁾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의의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터이지만,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월광주항쟁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질문은 바로, “유독 광주에서 그토록 가열차게 투쟁이 전개된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항쟁이 갖는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왜 실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을까?” 하는 점 등일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의미와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 증명하듯이, ‘광주’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역사이고, 끊임없는 정치적 역학관계, 사회적 담론, 그리고 학문적 논쟁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5월 광주항쟁에 대한 연구들이 온갖 쟁점과 시각 속에서 전개되어 온 점은 ‘광주’가 갖는 이 같은 역사성과 복잡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집합행동론²⁾이나 거

1) 정철희,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접근과 비교연구,” 『사회연구사』, 2000. 견해 참조.
2) 집합(collectivity)은 공통된 가치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조직되지 않은 군집행동과 조직된 사회운동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개념이다.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은 재해시의 집단행동, 종교의 집단적 법열, 열광적인 대유행, 여론형성이나 유언비어 유포, 인종폭동이나 쫓기와 같은 적의를 분출하는 행동 및 각종 개량운동, 사회 각 분야의 조직 운동 등 조직적인 행동이나 조직적이지 않은 행동 모두를 가리킨다. 집합행동은 크게 집단적 행동과 사회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기존의 규범, 가치, 제도, 체계 등을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그에 저항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들

시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 내지는 불평등한 생산관계로 귀착되는 구조적 산물로 간주되어왔다. 혹은 정치사적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는 폭발적인 민중운동으로서 자리매김 시키려는 시도들도 흔히 있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행동론이나 구조결정론³⁾ 등의 시각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운동참여 방식, 그리고 운동세력의 대항 체계모니와 담론 등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오월광주항쟁⁴⁾을 다루는 정치사적 연구 또한 광주민중항쟁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와 조직들이 갖는 미시적, 중범위적 의미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위자들의 신념과 가치, 감정, 이데올로기, 공유된 인식, 정체성 등을 간과하고 결정론적인 틀 속에서 운동을 단순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태동한 신사회운동론적 설명에서는 운동을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와 구조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산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미시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넓게는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거대한 사회운동의 구조 속에서 행위자의 미시적 감정과 정체성 등이 운동의 형성과 쇠락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규명해줌으로써 딱딱한 운동 분석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이로써 사회운동이 딱딱한 고정화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적 역동성을 지닌 살아있는 역사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조론적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행위자들의 감성과 정체성 등 문화적 단위들은 지역사회의 운동이 가지는 동학은 더욱 풍부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오월광주항쟁이라는 사건 속에서 송백회 활동과 같은 특정 운동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

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대규모 집단의 행위이다. 반면에 집단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며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집합행동의 형태이다. 집합행동론이란 바로 이러한 집합행동을 이론화시키는 것이다.

3) 구조결정론은 상부구조가 나뉠대로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되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하부구조의 규정을 받는다는 입장을 가리킨다.

4)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전개된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칭은 연구자들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하다. 광주사태, 광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5·18)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왔는데, 현재 이 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공식적인 용어로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5월이라는 역사성과 광주라는 지역성 그리고 신군부 세력의 폭압에 대항한 시민들의 항쟁이라는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표현으로 ‘5월광주항쟁’이라고 칭하기로 하겠다.

월민중항쟁과 송백회 활동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생히 계승되고 있는 ‘역동적인 운동’의 역사로 재해석함으로써 오월광주항쟁이 갖는 정치사회학적 의의뿐만 아니라 송백회운동의 참여와 저항에 나타난 생생한 문화적 역동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구조적 설명에서 사라졌던 송백회 활동가들을 새롭게 복원시키고 그들의 참여와 저항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여 한국사회운동에서 송백회운동이 차지하는 운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나아가 한국의 신사회운동⁵⁾으로서 송백회운동이 갖는 의미와 한계도 아울러 규명하고자 한다.

송백회운동을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중범위이론⁶⁾을 통해 파악할 경우, 광주항쟁 국면에서 전개되었던 운동방식을 보다 역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음을 물론, 운동 주체들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조직과 연대중심의 중범위 접근을 통해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송백회를 중심으로 운동 참여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정체성이 어떻게 항쟁 참여자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중범위 이론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적 ‘신사회운동’의 관점이다. 신사회운동에서는 조직원들이 갖는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에 주목하여 그것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진 것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문제의식에서는 사회운동의 정치 경제적 구조요인이 아니라, 사회운동조직 행위자들의 규범과 정체성 등 이른바 ‘문화적 동학

5) 신사회운동은 성숙된 시민사회의 이면에 새로운 한계와 폐단이 누적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종래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시민사회의 복원과 함께 20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신사회운동은 19세기 이후 사회발전의 요체였던 계급주의적 노동운동을 대신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제기하게 된다. 신사회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반핵 및 평화운동, 지역자치 및 공동체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신사회운동은 자본주의의 모순뿐만 아니라 산업주의로 인한 환경파괴에 관한 대안, 관료주의적 체제 개선,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도전 등의 새로운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6) 중범위이론은 비교적 특정한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각 영역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전체적인 이론 형태로 나타내는 이론의 총칭이다. 쉽게 말하여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좁혀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접근방법을 중범위 이론이라 한다. 중범위이론은 연구의 대상범위를 좁혀 제한된 연구대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창한다. 즉 일반체제이론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까닭에 실증적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어려우므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좁혀 연구하자는 접근법을 말한다.

(역동성)'을 중시한다.⁷⁾ 이 논문은 기존의 정치구조론과 자원동원론 및 신사회운동론이 갖고 있는 설명적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오월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⁸⁾이 갖는 문화적 역동성을 분석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활동한 송백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시간적 범위는 1970년부터 1980년 5월까지로 하였다. 특히 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항쟁기간을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오월광주항쟁이 전개되었던 광주, 전남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오월광주항쟁을 다룬 문헌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피고 이 연구의 독창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특히 사회운동에 관한 자원동원론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신사회운동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신사회운동으로서 송백회운동의 동학을 분석하는 문화적 개념도구로서 공유된 인식(shared mentality), 프레임(frame), 그리고 정체성(identity)⁹⁾ 등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오월광주항쟁 속에서 송백회운동의 참여와 연대에 나타난 동학을 규명하기 위한 설명 틀로서 자원동원론적 접근과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성주의적 접근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분석틀을 구안할 것이다. 분석틀에서는 오월광주항쟁의 구조적 동학, (행위자의)인지적 동학, (조직의)관계적 동학에 차례로 초점을 맞추어 송백회운동이 갖는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3장은 오월광주항쟁의 구조적 동학(structural dynamics)을 밝힐 것이다.

1절에서는 장기독재체제였던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

7) 신사회운동론에 관해서는, Offe, Claus,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 4, 1985. 참조.

8) 연구자는 송백회 활동보다는 '송백회운동'이라는 표현이 보다 역사성을 띤 개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조직을 결성한 것 자체가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며 송백회의 문화적 동학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9) 필립 방콕(Philip Babcock)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변화의 상이성으로부터 구별되는 동일성이며, 다양한 실례들 속에 있는 본질적이거나 포괄적인 성격의 동일성이고, 인성과 단일성과 연속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이란 용어는 동일성, 연속성, 소속감, 일체감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다. 임채완(1999),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언어적 정체성과 민족의식", 『국제정치론집』, 제39집 2호, P. 317.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의 태동 배경을 살피고, 강성국가였던 신군부의 등장과 권위주의 재공고화, 그리고 이러한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제도 정치체계가 붕괴되고 무력화 되었던 현상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는 자원동원론¹⁰⁾ 관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 발전의 사회·문화적 자원과 동원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집합적 신념과 가치구조의 사회적, 문화적 근원 등을 밝힌 후, 이 지역 여성운동의 토양과 사회적, 문화적 근원을 규명할 것이다.

3절에서는 오월광주항쟁 발발의 원인을 총체적 구조 속에서 접근하는 개념도구로서 ‘역사적 국면’을 분석한다. 즉, 사회와 역사를 영역별로 나누지 않고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역사적 국면(historical junction)’¹¹⁾을 통해 당시 오월광주항쟁을 가능케 한 국내 정치적 여건, 경제적 여건, 국제관계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조건 등을 밝혀내고 이것들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광주항쟁을 촉발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4장은 송백회운동에 나타난 참여와 저항의 인지적 동학(recognitive dynamics)을 다룬다.

우선 1절에서는 송백회의 인지적 실천을 밝힌다. 송백회 조직의 이념과 가치 지향 및 항쟁의 역사적 국면에서 송백회운동 참여자들의 신념과 조직에 끼치는 문화전통을 구술증언 등을 통해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항쟁’으로까지 발전된 운동 참여자들이 갖던 일반화된 신념, 공유된 의식(shared mentality), 신념과 가치 등을 문헌연구 및 구술생애사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자료들을 동원하여 송백회(원)의 규범과 문화전통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풍토 속에서 활동가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였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2절에서는 송백회의 항쟁경험과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어떻게 재구성

10) '자원동원론(資源動員論)'은 사회운동의 발생원인을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감정의 폭발이나 급작스런 불만(grievance)의 표출로 간주하는 집합행동론과 같은 고전적 사회 운동론이 그런 대중의 비합리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합리성과 운동의 조직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운동을 보편적인 정치과정의 일부로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여기서 ‘역사적 국면’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 여건, 경제적 여건, 국제관계적 측면, 문화적 조건 등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총체적 개념이다.

되었는지를 주제로 설명한다. 우선 송백회원들이 오월광주항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으며 그것들을 공유하였는지를 문헌연구와 구술증언 등을 통해 밝힐 것이며, 송백회 조직원들이 갖는 집합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힐 것이다. 당시 운동참가자들의 성향과 경험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하고, 집합적 역사로서 5·18에 얽힌 기억과 트라우마(trauma) 등을 규명한다. 또한 정체성의 재구성 측면에서 어떻게 이들이 여성운동가에서 민주투사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참여하였는지? 하는 점이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당시 신군부세력의 억압과 긴장구조뿐만 아니라, 활동가나 항쟁지도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인식, 당시 광주의 사회문화적 규범 등 인지적,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절은 공유된 인식 틀이자 의미체계라 할 수 있는 ‘프레임(frame)’의 개념을 통해 당시 항쟁과정에서 나타난 인지적 동학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것이다. 우선 신군부 세력이 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한 캐치프레이지인 ‘안보(안정)’ 논리가 어떻게 항쟁을 진압하는 억압기제이자 도구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연구자는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신군부세력이 내건 비상사태 수습론, 안보위협론 등의 구호에 나타난 ‘안보’ 개념이 억압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하였음을 규명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안보’ 프레임이 광주민중항쟁을 마치 ‘간첩’, ‘불순분자’, ‘북한의 사주’ 등에 의해 전개된 지역적인 ‘사태’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사회운동과 분리시키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논증할 것이며, 이 같은 프레임 정치가 결국 광주항쟁 진압과 신군부정권의 재탄생과 구조화에 기여하였음을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항쟁 진영의 대항적 담론이자 공유된 인식 틀로서 ‘애국’과 ‘민주화’의 프레임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투쟁공동체 속에서 유통된 투사회보 등 전단지, 대자보는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항쟁 진영의 슬로건과 구호 등에 나타난 의미체계가 억압세력의 ‘안보’ 논리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애국’과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특히, 광주시내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등이 의례와 의식의 상징으로 빠짐없이 등장하였던 점은, 당시 신군부 세력이 광주항쟁을 “불순분자”, “북한의 사주” 혹은 “빨갱이”라는 극단적 안보 프레임으로 매도하려 했던 점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애국’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였음을 밝힐 것이다.

또한 운동의 지역성을 탈피하고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 속에서 외신기자, 인권운동가, 민주적 미디어 등을 통해 ‘민주화’의 프레임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음을 소개한다. 연구자는 송백회 조직활동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 같은 애국, 민주화의 구호 및 인식 틀의 확산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신군부세력이 내건 ‘안보’와 대항세력이 내건 ‘애국’의 프레임은 공교롭게도 둘다 국가패러다임에 기반 한 인식체계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당시 광주항쟁 국면에서(실정법의 틀을 벗어난) 항쟁진영과(헌법적 정통성을 잃은) 권위주의 진영간에는 진정한 ‘국가정체성’ 확보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던 바, 이 연구에서는 아울러 이 같은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항쟁과정에서 프레임 정치가 지닌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5장은 송백회운동을 둘러싼 관계론적 동학(relation dynamics)을 규명한다. 이장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원동원론적인 분석도구인 미시동원(micromobilization)¹²⁾과 중위동원(mesomobilization)¹³⁾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여기에 의미틀(frame) 분석이라는 구성주의 이론을 접목시켜 오월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송백회의 조직화와 항쟁참여를 다룬다. 여기서는 송백회가 조직화된 배경과 동인, 여성운동조직으로서 송백회의 발전과정, 그리고 광주항쟁에서 송백회의 참여와 역할 등을 다룰 것이다.

2절에서는 송백회운동을 둘러싼 미시동원기제를 살핀다. 미시동원맥락(micromobilization context)과 의미틀(frame)의 개념을 사용하여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송백회 활동가들의 소집단 조직과 연결망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특징적으로 간과할 수 있듯이, 이러한 미시동원맥락은 당시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대학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글에서는 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시동원자, 즉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을 공급했던 비공식적인 집단들로서 당시 진보적인 목회자, 신부 등 기독교성직자 그룹, 광대 등 문화(선

12) 여기서 미시동원이란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 및 조직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동원은 집합행동에 필요한 동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합적 비판의식과정이 원초적 조직의 형태와 결합된 소집단상황을 말한다.

13) 중위동원이란 개인 아닌 사회운동조직이 중심적 그룹에 의해 연합된 운동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 운동가 그룹, 여성운동가 그룹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송백회운동의 이웃연결망 조직들로서 청년운동을 비롯해 문화운동, 그리고 야학 운동세력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오월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에서 형성된 계엄철폐, 독재타도라고 하는 민주화 프레임이 미시동원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제3절은 중위동원자로서 송백회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원동원론에서 말하는 중위동원(mezomobilion)이란, 사회운동조직이 중심적 그룹에 의해 연합된 운동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데, 여기서는 오월광주항쟁과정에서 송백회가 차지한 위치와 역할을 중위동원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오월항쟁 관련 조직들의 연결구심으로서 송백회가 어떻게 조직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해 항쟁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해방광주’ 건설로 언표될 수 있는 문화적 통합을 달성해내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송백회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내린 후, 송백회운동이 갖는 신사회운동으로서의 역사적 함의와 지평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기존문헌 및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발간자료 등)를 분석개념에 비추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위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송백회 창립 멤버였던 연구자의 경험적 기억(empirical memory)과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 노트 및 관련자들과의 구술면접 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사실 초기 오월광주항쟁이 당시 정치권력과 적대적 관계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실증적인 자료가 많이 소실되고 항쟁 참여자들의 기억도 쇠퇴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오월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 과정에 참여했거나, 이를 목격한 관련자들의 구술자료를 발굴하여 당시 경험을 재구성해내는 방식의 구술사적 연구를 접목할 것이다.¹⁴⁾ 주지하다시피, 구술자료는 연구의 ‘대상’을 ‘주체’로 변형시킴으로써, 역사를 단지 더 풍부하고 더 생생한 것이 아니라 더 진실 된 것으로 만든다.¹⁵⁾ 구술자료는 인류학적, 역사적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 또는 일상적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로서, 구술자 또는 화자가 연구자 또는 해

14) 이러한 민속지학(ethnography)의 연구방법은 송백회의 창립이후 중심회원으로 참여해왔던 연구자의 경험 및 오월항쟁 과정의 참여관찰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를 비롯한 초기 송백회 활동가들의 구술증언 및 구술생애사 채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15) Paul, Thompson, *The Voice of the Pas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17.

석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구술자료는 그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그 자료의 특징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술자료로서 대개 구술증언(oral testimony)¹⁶⁾과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¹⁷⁾ 등이 활용된다. 과거의 흔적들은 현재의 삶에 스며있고, 그 과거가 현재로 불리어져서 의미가 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기존에 역사적 기억은 주로 역사가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역사가는 기억이 재현되는 형태(주로 기록)를 가지고 과거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과거가 현재에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역사적 기억은 소설, 시와 같은 문학적 형태와 영화, 연극 등과 같은 연행 내지 영상의 형태로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적 기억을 재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은 기존의 국가전체사 중심의 역사쓰기를 지방의 입장에서 다시 쓰는 작은 역사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¹⁸⁾

16) 구전과 같이 여러 세대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 구술 증언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 4.3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회고를 하여 진술하는 구술들은 구술 증언이다. 구술증언들은 모두 구술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구술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경험을 통한 구술 증언과 간접 경험을 통한 구술 증언을 구별해 낼 필요가 있다.

17) 구전이나 구술 증언과 달리,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다.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간접 경험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도 포함될 수 있다. 구술 생애사는 사적(史的)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진술 내지 자기 표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8) 윤택림, “구술증언과 역사적 기억의 재현,” 전남대 5·18연구소 제27회 학술집담회, 2004. 6. 4.

제2장 연구 이론과 분석틀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오월광주항쟁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곧 “광주항쟁의 주체세력이 누구였느냐?”의 문제로 귀착되었다. 당시 광주항쟁의 주체세력의 성격규정과 관련하여 광주항쟁을 보는 관점으로는 ‘광주시민항쟁론’과 ‘광주민중항쟁론’으로 대립된다. 초기 80년대의 연구들은 광주항쟁의 구조적 배경요인을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90년대의 연구 성과들은 항쟁의 구조적 요인들을 개인들의 참여 동기와 관련지우고 항쟁의 구체적 역동성을 밝혀주는 수준에 이르렀다.¹⁹⁾ 연구사적 관점에서 보면 90년대의 연구는 80년대 항쟁의 구조적 배경요인에 대한 설명에서 90년대 항쟁의 직접적 동기와 역동성에 대한 연구로의 진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90년대는 물론 2000년 이후에도 광주항쟁에 대한 지배적 담론은 여전히 항쟁의 주체세력을 추상적인 ‘시민’ 전체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중항쟁의 성격을 강조하는 ‘광주민중항쟁론’은 초기 시위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였지만 무장투쟁의 과정에서는 노동자층과 학생층이 참여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 이들은 5·18 당시의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구속된 시민군을 계급,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가두투쟁이 영세 중소기업체와 빈민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부촌지역에 주민들은 거의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⁰⁾

그동안 5월광주항쟁에 관해 쏟아진 연구들은 학자에 따라 시각들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전개되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광주항쟁을 비롯한 한국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항쟁이 시작된 역사적 국면 속에서 그 원인을 밝히려는 발생사적 연구 경향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중시하는 구조론적 관점, 운동조직이 형성되는 데 관련되는 구조적 요인과 그것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피

19) 김성국, “한국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양종희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1998.

20)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pp. 172-178.

는 정치과정적 관점, 조직의 충원과 연대에 초점을 둔 자원동원론 관점, 여성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그리고 부분적으로 신사회운동론적인 관점에서 인식체계와 정체성 등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5월 항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관해서 연구한 발생사적 연구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수십편 발표되었다. 김준(1990)은 신군부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왜 광주에서만 즉각적인 학생시위가 있었고 그것이 쉽게 진압되지 않았는가를 규명한다.²¹⁾ 그에 따르면 80년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민중의 정치적 분위기가 광주항쟁을 확산시킨 원인으로 본다. 즉, 다른 지역과는 달리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계엄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것으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5·17계엄 확대로 좌절되고 계엄군에 의한 시민의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면서 그 어느 누구도 무차별 폭력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두려움이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살기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80년 광주의 5월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월광주항쟁에 대해 계급운동적 구조주의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로는 김진균·정근식(1990)의 연구²²⁾, 김세균(1990)의 연구²³⁾ 등이 있다. 김진균, 정근식(1990)에 따르면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은 지배체제의 재편이나, 근본적인 수정이나를 둘러싼 독점자본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 사이의 투쟁이었으며, 그것은 현상적으로 강경 군부집단과 광주 민중 간의 무력 충돌로 나타났다. 또한 김세균(1990)에 따르면, 현상적으로 보면 광주항쟁이란 이들 군부집단이 저질러진 만행과 민중학살이 지닌 도덕적·윤리적 문제성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항쟁을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것에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사회경제적인 구조적 문제성을 희석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그는 5월 광주항쟁이 발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급적·민족적 모순이 만들어낸 지배층과 피지배 민중간의 대립이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특정 국면 속에서 민주와 독재간의 대립으로 집약되고, 이렇게 집약된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대립이 다른 요

21) 김 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정해구 외,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22) 김진균, 정근식, “광주5월 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광주5월 민중항쟁』, 풀빛, 1990.

23) 김세균,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역사와 현장』, 1990. 5.

인들과의 복합적으로 얽힌 가운데 특정 시기와 장소에서 가장 날카롭고 적대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루게 될 오월광주항쟁에서 보여 지는 특징적인 참여와 연대형성 및 다양한 사회세력의 등장은 단순히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이나 노동계급 중심의 분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석틀을 요구한다.

그런가 하면 발생사적 관점에서 광주항쟁을 진행한 안중철(1997)²⁴⁾은 항쟁의 역사적 배경을 논하면서 구조론적 관점을 결합하고 있다. 5월 항쟁이 왜 광주에서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의 연구는 광주의 구조적, 역사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광주는 종속적 자본축적의 모순과 맞물린 지역적 불균등발전, 반호남 감정 등으로 나타난 소외지역이며 군부의 첫 번째 제거 대상인 김대중과 재야 및 민중들이 위의 요인과 결합함으로써 모순이 폭발될 수 있는 가능지역이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광주항쟁의 또 다른 의의로 켈기대회, 무장시민군 조직, 물자공동체 조직, 항쟁지도부구성 등(무기회수) 해방공간의 형성과 자치노력을 들고 있다. 그리고 오월항쟁과 여성들의 활동을 규명하고 그 중 현신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항쟁활동을 수행했던 송백회 활동과 관련하여 몇 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런가하면 광주항쟁을 무장투쟁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있다. 김창진(1990)은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상이한 입장들을 분석하면서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을 ‘무장투쟁의 발전구조’라는 측면에서 연구하였다.²⁵⁾ 그는 광주지역 사회운동권의 한계로 무장투쟁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주항쟁에 있어서 한계는 무장투쟁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지도력의 빈곤, 무장투쟁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무장해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민중의 정치적 각성 수준의 저급함(변혁주체로서 적극적 행위주체가 아님), 무장력의 절대적인 양적·질적 열세, 항쟁이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사실 등이었다고 지적한다.

사회운동의 발생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들 연구는 그동안 광주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규명하는 데 일조하였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처럼 광주항쟁을 압제

24) 안중철,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 5·18연구소, 1997.

25)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무장투쟁과 ‘민중권력’”, 정해구 외,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적 탄압행위와 폭압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정치적 저항운동으로 규정하게 되면, 광주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투쟁의 잠재력, 전통과 규범적 요소, 사회 문화적 자원, 역사적 맥락 등 문화적 역동성을 간과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1980년을 전후로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저항의 정치적 분위기가 비단 광주에서 국한된 현상은 아닐진대, 어떻게 하여 광주에서 보다 응집력 있고 지속적인 항쟁이 계속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집합행동의 한 원인으로 스멜서(Smelser, 1962)가 정의한 요인들을 대입할 경우 더욱 분명해진다. 즉 80년 ‘민주화의 봄’ 국면에서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특전사 장병을 시위진압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한 긴장 혹은 구조적 유인은 전국의 어느 주요도시에도 팽배해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떠한 기회의 조건이 더 갖추어져 광주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사실 광주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과도한 진압에 따른 폭력시위는 전국의 주요 도시 모두에서 그 불씨를 안고 있었다.²⁶⁾ 문제는 이러한 부가적 조건을 우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가이다. 따라서 역사적 보편성으로서 사회운동의 발전과 진화를 조명하는 발생사적 연구가 광주라는 특수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동시에 폭압적인 정치적 구조 요인을 결합하여 광주항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광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정치과정모형 등을 적용하여 운동조직이 형성되는 데 관련되는 구조적 요인과 그것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연구들도 있다. 나간채(1997:2003)는 맥아담(McAdam, 1982)의 정치과정모형²⁷⁾이나 톨리(Tilly)의 정치체모델²⁸⁾을 통해 오월운동을 분석하였다.²⁹⁾ 그는 맥아담의 정치과정모형에서 제시된 요인- 토착조직적 힘, 주민의 인지적 해방, 정치적 기회구조에 준거하여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토착조직적 힘은 운동조직이 형성될 수 있는 공동체

26) 정상용·유시민 외, 『광주민중항쟁-다큐멘터리 1980』, 돌베개, 1990.

27) McAdam, D.,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28) Tilly, C., 진덕규 역, 1995, 『동원에서 혁명으로』,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78.

29) 나간채, “광주지역 5월운동조직의 형성과 발전: 5·18당사자 조직을 중심으로”,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3. pp. 26-68.

의 하부구조로서 5·18운동단체형성을 위한 이 지역의 사회적 토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여 지는바, 그 근거는 항쟁 직후 이 지역사회는 매우 강한 공동체적 결속력과 일체감을 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간채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강한 결속력이 형성된 배경에는 이 지역사회가 체험한 누적된 소외와 지역차별의 역사적 경험이 작용한 것 이외에 항쟁 자체의 진전과정에서 강화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다음으로, 인지적 해방의 요인과 관련하여 보면,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지역차별과 소외의 결과 이 지역민은 심리적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누적시켜 왔었는데, 항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심리상태가 더욱 진전,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같은 저항과 도전의식은 5·18운동조직형성의 주관적 토대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지적 해방과 관련하여 맥아담(McAdam 1982, 47)은 기존 체제의 정당성 거부, 운명론 대신에 변동의 권리주장,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기운명의 변혁능력에 대한 신뢰의 측면을 강조하는 데³⁰⁾, 당시 5·18운동단체의 형성에 있어서 조직참여자의 의식 상태에서는 변혁능력에 대한 신뢰성보다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규범적 원칙이 더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한다. 세 번째 정치적 기회구조의 측면에서 5·18운동단체형성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항쟁 직후 정치정국의 일반적인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의 최규하 대행체제는 확고한 독자적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정치세력들 간의 치열한 권력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¹⁾ 결국 이러한 정치정세는 도전세력의 저항집단형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 같은 관점은 송백회를 비롯한 다양한 토착조직들이 갖는 힘을 오월항쟁 공동체 형성의 하부구조로서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운동연구의 지역화와 주권회복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또한 ‘인지적 해방’의 개념을 들어, 오월광주항쟁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저항 및 도전의식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문제의식도 내포하고 있어 보인다. 특히 광주항쟁 당시 조직 형성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신뢰보다는

30) McAdam, D.,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31) 나간채,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3, pp.26-68; Na Kahn-chae, 2001,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1997", *New Political Science*, Vol. 23(4); pp. 477-491.

규범적 원칙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밝혀낸 점은 광주항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데 시사 하는바가 크다. 아울러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저항과 도전세력의 조건을 살피고 있어 다양한 운동사례와 비교적 함의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정치과정 모델의 설명변수중 하나인 ‘정치적 기회구조’와 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송백회 운동의 조건과 참여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정치적 기회구조의 수준이 운동 세력에게 유리하게 열려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동의 결과가 성공적일 수는 없다. 운동이 정치체제에 효과적인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 조직의 자원이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효과적 발생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운동 세력에게 있어 정치적 권력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살펴보는 것과 별도로 운동 자원의 조직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론의 설명은 단독으로만 설명력을 완비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중범위(middle-range) 수준의 조직화와 자원동원의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월광주항쟁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때, 제기되는 핵심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항쟁 이전에 특별한 정치적인 동원의 경험도 없었던 시민들 사이에 어떻게 총체적인 연대가 가능했는가? 유독 광주에서 어떻게 그토록 급속도로 시민들이 항쟁의 깃발 아래 결집되어 해방공간 내지는 투쟁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는가? 10일 동안의 항쟁기간 동안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대항폭력(counter violence)의 질서정연한 행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연구들은 대체로 광주라는 정치적 해방공간 내지는 절대공동체 형성을 가능케 한 동인으로서 조직 간의 연대에 초점을 맞춘 자원동원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자원동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광주에서 급속도로 시위의 규모가 커졌던 이유는 개인적이 아닌 일종의 블록충원(block recruitment)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집단적 충원의 근간이 이웃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사회운동은 비정치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확장이며, 다른 형태의 정치적 갈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갈등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운동은 또한 구조화되고 유형화되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제도화된 행위와 같이 조직적 역동성에 의해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치적

동원의 출발점은 정치적 기회구조, 토착적인 조직의 힘, 그리고 집단의식의 변화 등이다. 우선, 권력자와 도전자 간의 권력불일치가 감소하고 도전자의 협상력이 증가할 때 정치적 기회구조가 증가한다. 또한 토착적인 조직의 힘(indigenous organizational strength)은 활동가의 통제 아래 있는 요인이다. 이 요인은 회원, 지도자, 유인, 의사소통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의식은 잠재적인 저항자들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정당하지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집합의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원동원의 중요한 조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자원동원이론의 주장은 개인적, 사회적 불만은 어느 사회에나 편재하므로 불만은 사회운동 발생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집합행동에 필요한 자원(resources)과 기회(opportunity)의 조건이 사회운동 발생과 전개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론은 그동안 발생사적 연구는 물론 계급간의 불평등구조라는 거시구조적 맥락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이며 중범위적인 조직 동원이 갖는 동학을 발견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구조중심의 거시적 연구들이 놓치기 쉬운 문제들 즉, 중범위수준의 비공식적 연결망과 행위자들의 순수한 연대성의 형성이 항쟁을 가능하게 했던 힘의 원천이었다는 점을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일면 진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운동이론도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크게 첫째, 사회운동의 목표, 이데올로기적 내용, 참여자의 동기 등에는 둔감하여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정상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하여 동기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는 '인지적' 전환과정을 간과함으로써 1960년대 말 이후 신사회운동의 '새로운' 내용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둘째, 잠재적 운동집단을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이해하고 엘리트들로부터의 협조를 당연시 하는 엘리트주의적 정치관을 저변에 깔고 있다. 즉 운동대중의 역할보다는 위계적인 공식운동조직과 운동전문가의 역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 운동외부, 즉 엘리트의 지원과 협조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반면, 공식운동조직의 관료화 문제나 후원엘리트들이 사회운동을 통제함에 따라 운동이 쇠퇴할 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집합행동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운동의 또 다른 특성인 정체지향성(identity oriented)을 간과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이고 대규모적인 형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현대

의 사회운동에서 비공식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최근의 사회운동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항쟁의 내부 동학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항쟁의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낸 미시적, 중범위적 차원의 동원기제들과 아울러 행위자를 둘러싼 인지적, 감성적, 문화적 기제들이 아울러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감성적 요소와 관련하여 최정운(1999)은, 절대공동체³²⁾의 개념을 빌어 90년대 이후 축적된 광주항쟁에 대한 논의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이에 대한 해답을 시민들 사이의 순수한 연대형성에서 구한다.³³⁾ 그에 따르면 5·18 민주항쟁이 뚜렷한 이념이나 이론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점이 아니고, 오히려 이론의 진공 상태였던 5·18의 체험을 통해 도리어 기존의 이념, 서양의 이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체험의 원초적 순수성이야말로 5·18의 가장 값진 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는 또한 ‘순수한 혁명’은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전통공동체’가 강한 광주가 5월 18, 19, 20일의 공수특전단의 ‘과잉진압’ 속에 ‘전통’을 넘어 ‘절대공동체’로 발전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는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축하하고 결합한 절대공동체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정운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에 대한 분노가 계급과 지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폭력에 저항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러한 지배적인 담론 속에서는 항쟁이 무장투쟁으로 고양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내적 분화와 무장투쟁 주도세력의 계급성을 논한다는 것은 순수한 연대감을 손상시키는 일로 여겨진다. 그의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5·18은 구조주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만든 사건이었고 모든 인간적, 사회적 요인들을 다시 배열시킨 사건으로서 광주라는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연대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한편,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광주항쟁을 논한 연구물들도 그동안 상당수 쏟아졌

32) 최정운은 1980년 계엄군에 둘러싸인 광주라는 한 시민사회가 시민항쟁으로 전환된 것은 외부자의 대학살에 의한 공동체적 대응이었고, 이것이 바로 절대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절대공동체는 공동체의 ‘절대적 위기상황’에서 투쟁과 저항의 공통감각으로 형성된다. 최정운, “‘절대공동체’의 출현과 소멸 과정에 대한 분석,”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p. 405.

33)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풀빛신서, 1999.

다. 안진(1991)은 『광주민중항쟁과 여성』³⁴⁾에서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여성들이 가졌던 한계와 제약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녀는 광주항쟁 당시 대다수 민중여성들의 주체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여성해방이라는 전체사회의 변혁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었고,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민중여성을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수애(1998)는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삶』에서, 광주항쟁 기간 중의 여성 활동과 광주항쟁 이후의 여성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들이 광주항쟁과 그 이후의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가부장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실하게 하게 되며, 이것은 이후 이 지역 여성운동권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은주(2000)³⁵⁾는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투쟁”에서 5·18민중항쟁 당시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규명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항쟁에 참여하다가 23일 이후에는 YMCA를 거점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힘이 집결되고 조직화·체계화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활동을 크게 다섯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첫째는 운동권 여성들, 둘째는 집단적인 가두투쟁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여성노동자들, 셋째, 조직적인 물적 지원을 해줬던 아주머니들의 활동, 넷째, 중·고등학생들의 투쟁활동,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여성들의 활동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5월 광주항쟁에서 여성의 역할을 조명한 연구들로는 5월여성연구회(1991)와 광주·전남여성단체의 연구(2000), 강현아(2003)의 논문 등이 있다. 앞의 두 연구는 5월 항쟁에 감추어진 여성들의 활동을 가시화시킨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여성들이 무장투쟁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여성들의 의식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등 남성 중심적인 역사해석을 뛰어넘지 못했다³⁶⁾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강현아(2003)의 연구는 남성 항쟁지도부였던 도청과 함께 여성지도부로서 YWCA 투쟁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일반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새로운 역사쓰기를 강조하였다.³⁷⁾ 여성주의 입장에서 연극 텍스트들을 분석한 강현아는 ‘5월 연극’ 텍스트들은 여성의 삶과 경험을 왜곡하고 있

34) 안 진,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991.

35) 이은주,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투쟁”, 『여성·주체·삶』,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00.

36) 안 진, “5·18 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성격”, 『젠더와 사회』, vol. 6 no. 1, 2007. 6. pp. 41-74.

37) 강현아, “문화적 재현과 젠더 이미지”,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2003. pp. 117~147.

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다른 여성주의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은 5·18항쟁의 주변적 존재이고 남성의 보조적 역할만 맡는 것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을 주변적 존재로 재현하는 것은 5·18항쟁의 ‘진실’과도 분명 모순된다고 본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5월 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세력의 성격과 광주항쟁의 젠더화를 도모하는 연구는 2000년대 말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 안진은 “5·18 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성격”(2007)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항쟁의 주체를 추상적인 남성시민 혹은 남성 민중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안진은 지금까지 5·18 항쟁을 무장투쟁과 남성시민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보려는 데서 출발한다. 즉,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항쟁의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가시화하고,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주체들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성운동 단체인 송백회는 시민들이 공유한 분노를 공동체적 연대와 저항행위로 결집시키는데 교량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항쟁지도부와 대중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농민, 문화, 종교, 빈민 등 각기 다른 사회운동 부문을 연결해주는 접착제 역할도 하였다는 것이다. 송백회의 여성들은 시민들의 공유된 분노를 공동체적 연대감 형성과 항거행위로 결집시키는데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은 초기의 가두시위에서부터 YWCA와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남성의 무장투쟁의 역할을 강조한 시민항쟁론이 5·18 항쟁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를 굳혀오에 따라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해왔고 항쟁의 역사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비판한다.³⁸⁾ 안진은 이 연구에서 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의 저항의 경험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항쟁의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밝히고 나아가서 항쟁의 발전과 내적 분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였던 핵심적인 여성집단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이 연구는 1989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항쟁참여 여성들의 구술증언자료(5월여성연구회, 1991)와 그로부터 10여년 후에 이루어진 증언자료집(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2000)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5월 민중항쟁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사료를 찾아

38) 안진, 앞의 논문, pp. 41-74.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료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하고, 광주를 젠더화하고자 한다(안진, 2007)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페미니즘 연구자들이 범하기 쉬운 여성편향적인 사료해석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송백회 운동을 비롯한 당시의 민주화운동을 페미니즘의 틀에서만 갇어둘 경우, 사회변혁운동으로서 광주항쟁과 송백회가 지향하는 범시민적 연대(連帶)와 투쟁공동체의 동학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젠더(gender)의 쟁점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일상적 쟁점과 조직적 특성을 설명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가 하면, 송백회에 관한 구술사 연구로서 이경은의 『송백회, 그 푸른 오월의 누이들-임영희³⁹⁾』가 있다. 200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의 현장민주화운동연구 가족운동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이경은의 이 구술사 연구에 따르면, 송백회는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조직으로 발아하다 광주 5월의 격랑 속에서 그 싹이 잘랐다.

그런가하면 이 논문의 연구자인 이윤정(2011)의 파일럿(pilot) 논문⁴⁰⁾에서는 5월 민중항쟁과 여성운동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 논문은 연구자가 핵심멤버로 참여했던 송백회 활동을 중심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여성들의 활동사례를 다루었다. 개별여성들의 활동과 피해사례는 배제하는 대신, 조직적으로 참여한 여성 활동을 중심으로 한 송백회 역할을 재조명하여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규명해 보고 송백회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송백회가 이끈 YWCA 항쟁공동체가 남성중심의 도청 항쟁지도부와 구분되는 여성중심의 항쟁지도부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급과 지원, 선전선동 등의 역할 분담에 따른 투쟁공동체로 규정해야 할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송백회를 여성운동의 틀 속에 가두려는 이같은 관점은 송백회가 가지고 있는 참여와 연대를 일으키는 힘을 비롯해 광주항쟁에서 차지했던 주도적인 역할과 문화적 동인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⁴¹⁾에 따라

39) 1980년 당시 현대문화연구소 간사였음.

40) 이윤정, “5월 민중항쟁과 여성운동: 송백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4권 1호, 2011. pp. 71-116.

41) 연구자의 파일럿 논문 발표 이후, 이를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키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토론과 논쟁 및 5월 관련단체 및 학자들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5월항쟁을 분석하려는 시도 대신에 이를 자원동원론과 신사회운동론을 결합하여 중범위수준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신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분석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도 전개되어 왔다. 정철희 등(2007)은 최근 발간한 『상징에서 동원으로』에서 통합되고 있는 사회운동이론, 그 중에서도 사회구성주의이론을 기반으로 1980년대 사회운동의 문화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386세대의 눈으로 본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그동안 광주항쟁, 학생운동, 기독교운동,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문화요인에 초점을 두어, 운동사적·정치적·구조적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려 한다. 정철희 등은 사회운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대표적 개념 도구인 의미틀(frame)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상징, 의례, 정체성, 역사적 기억, 생애사, 감정 등과 접목시켜 민주화 운동의 문화적 역동성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사회운동 분석에서 문화적 요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운동이 단순히 객관적인 구조나 자원, 제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 의미, 의례, 헤게모니, 상징 등이 개입되는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철희 등에 따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각종 의례와 감정, 정체성은 운동의 형성되고 쇠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딱딱한 운동 분석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이론에서 사라졌던 행위자들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고 저항의 80년대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적 요인으로 운동의 성장과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무리한 설명을 시도한 측면도 있다. 문화적 의례나 도덕 감정, 집합적 기억 등은 행위자가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좀 더 역동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원인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면 설명도 반박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광주항쟁과정에서 활동가들의 도덕 감정이 운동의 연대를 형성했다는 식의 주장은 그럴 듯하지만 광주항쟁 말고도 모든 운동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허무한 이론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론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개념들은 지나치게 추상 수준이 높고, 저자마다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을 두고도 학자들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탄탄함이 부족하다는 점도 흠으로 지적될 듯 싶다.

한편, 정철희(1995)는 “한국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원: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에서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왔던 80년대 항쟁에서 행위자들의 인지적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규명하고 있다. 그는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이라는 개념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운동 과정에서 비공식적 자율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미시동원맥락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대항 헤게모니 담론이 동원역량의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⁴²⁾ 정철희가 설파했듯이,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관점은 기존의 자원동원론과 정치적 기회구조론의 결정적 약점들을 보완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역동성을 규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공식적 조직의 객관적인 동원능력에만 천착하는 고전적 자원동원 이론의 허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정치적 기회를 단순히 사회운동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구조라고 사고하는 편협한 이해를 넘어서, 운동의 행위자들이 인지들을 매개로 정치적 기회의 생성, 발전,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변증법적 과정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2절 연구의 의의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가장 큰 동력을 ‘운동’에서 찾는 것은 그리 특이한 관점이 아니다. 국민의 정서와 지향을 대변해야 할 제도 정치체계가 무력했을 때, 어떤 희생도 감당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집단적 행위가 운동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항쟁은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이슈와 방향을 설정하고 급기야 한국정치의 민주적 변화를 이끌어 낸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변혁 ‘운동’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살폈듯이, 이러한 사회변혁 운동으로서 5월광주항쟁을 다룬 연구들은 어느 하나의 관점을 취해 접근하다 보니, 광주항쟁이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으로서 총체적인 맥락과 그 속에 숨은 다양한 동학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주류 사회운동 연구는 주로 집합행동이 발생하게 된 정치사적 맥락에서 시기별 운동 흐름을 운동사적으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운동의 발생과 조직

42) 정철희, “한국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원 :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제29집, 1995, 가을.

간 연대과정을 자원동원론적 시각에서 살펴보려는 경향,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계급운동론으로 파악하는 경향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대체로 운동과 혁명을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초기 집합행동연구경향에 대한 반발에서 나타났다. 사회운동의 초기 연구자들은 공황(panic), 폭동, 광란, 집단 히스테리, 유행, 유언비어를 집단행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봤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보다 구조적 맥락을 중시한 연구경향이 등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혁명이나 정치적 폭력을 사회적 불만이나 사회체계의 불균형에 의거해서 설명해 온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구조 기능론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이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은 축적된 사회적 불만의 양보다는 자원동원의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⁴³⁾이 나오게 되었다.

매카시와 잘드(McCarthy and N. Zald, 1977)가 체계화한 자원동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운동으로서 송백회는 젠더정치(gender politics)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운동 과정을 조직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여기에서 송백회운동의 자원동원론적 특성이 나타난다. 초기 여성운동 조직으로서 송백회는 인적 자원, 재정, 운영 프로그램, 네트워크와 연대를 토대로 활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송백회운동은 외부에 존재하는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의 영향을 받는다. 기존 젠더질서 변화를 추구하는 젠더정치의 중요한 주체로서 여성운동은 조직화·전문화·관료화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여성운동 조직으로서 송백회는 초기에 사회의 여권의식 신장은 물론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여성정책 산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여 왔다. 자원운동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송백회는 신사회운동적 이념을 바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정치참여 주체로서 운동을 실천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 절에서 지적했듯이, 이 같은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만 송백회운동을 포착할 경우, 동의 목표, 이데올로

43)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77.

기적 내용, 참여자의 동기 등에는 둔감하여 사회운동을 지나치게 ‘정상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하여 동기나 불만이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는 ‘인지적’ 전환과정을 간과함으로써 1960년대 말 이후 신사회운동의 ‘새로운’ 내용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런가 하면, 계급적 불평등구조, 혹은 억압적인 정치체제에서 원인과 전개방식을 다룬 구조결정론적 연구들도 광주항쟁의 특수성과 내재적 동학을 간과함은 물론, 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운동참여 방식, 그리고 운동세력의 대항해계모니와 담론 등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위자들의 신념과 가치, 이데올로기, 공유된 인식, 문화, 정체성 등을 간과하고 결정론적인 틀 속에서 운동을 단순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 거시적인 결정론적, 구조론적 관점들에서는 행위자들의 신념이나 관념, (군부세력에 대한)분노 등이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서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하지 않았다. 중범위(middle range)에 걸친 미시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이 무시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운동이 지닌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 역동성이 무시되고 단순화 된 채 단지 딱딱한 하나의 사건으로 정형화되어 버린다. 그 결과 송백회 활동과 같은 특정 운동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의 신념과 가치, 이데올로기, 문화, 집합적 정체성⁴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입각한 중범위의 ‘신사회운동’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이른 바 ‘신사회운동론’은 미국식 전통이 경시해오던 이데올로기나 대항 해계모니, 집합적 정체성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사회운동의 문화적 동학을 밝히기에 적합하다. 구조보다 특정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다. 구성주의는 거시적 구조요인이나 합리적 선택론에 집착하는 객관주의를 비판하며, 동시에 탈 역사적 맥락에서 행위자의 가치와 태도에 집착하는 주관주의도 넘어서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44) 집합적 정체성은 행위자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구성하는 의미체계 또는 사회운동의 행위체계이다. 집합적 정체성을 연구한다는 의미는 개인들이 자신의 생존욕구에 근거한 집합적 의무감을 역사적 행위자로서 집합적 정체성을 전환시켜 나아가 사회적 구성의 과정을 밝힌다는 것이다.

중범위이론으로서 구성주의적 신사회운동론의 분석틀에서 볼 때, 송백회 회원들의 운동신념과 성향 등은(기존의 접근론들이 범했던 오류처럼) 미리 ‘주어진 것(as given)’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거시적 요인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as constructed)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각종 의례와 감정, 정체성 등이 운동이 형성되고 쇠락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규명해줌으로써 딱딱한 운동 분석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이론에서 사라졌던 행위자들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고 저항의 80년대를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민중항쟁과 송백회의 활동을 밝히고자 할 때 중요한 분석도구이자 개념들은 바로 참여자들이 가진 프레임(frame)⁴⁵⁾, (광주시민, 혹은 송백회원들의) 집합적 정체성, (구술증언 채록 등을 통한) 생애사적 체험, 활동가들의 신념과 가치, 역사적 기억, 이데올로기, 문화와 규범, 체계모니 담론 등이 중요하다. 가령, 광주항쟁 해석에서 역사적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사회집단 혹은 지역에서 저항적 집합의식이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집합행동이 활발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⁴⁶⁾ 사실에 있다. 19세기말부터 동학농민전쟁을 비롯한 여러 농민운동 및 1929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의 풍부한 집합행동의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 1980년의 광주항쟁이 발생한 사실은 단지 우연이라기보다 역사적 기억에 의한 불의에 저항하는 집합의식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착안한 연구(Wells, 1995)⁴⁷⁾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프레임(frame)이란 어떤 객관적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유사한 인식틀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

45) 미국 캘리포니아대 언어학과 교수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헤드라인'의 틀 안에서만 문제가 인식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프레임(frame)'이라는 인지 구조적 용어를 제시했다. 프레임이란, 현대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직관적 틀을 의미한다. 일단 주도권을 획득한 프레임은 각종 미디어와 소문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그러한 프레임을 반박하려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기존의 프레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안병진, “프레임(frame)의 정치의 시대 : 조지 레이코프 저 <書評>,” 『의정연구』 제 12권 2호 통권 제22호, 2006. 12, pp. 269-274. 최근에는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2007), *Whose Freedom*(2007), *The Political Mind*(2008) 등의 연구에서 프레임 이론을 통해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46) Shin, Gi-Wook,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1596-1624, 1994.

47) Wells, Kenneth, eds.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해 해석한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 낸 메시지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운동조직이나 세력이 연합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주의미틀(master frame)’은 사회운동의 문화적 요소인 것이다.⁴⁸⁾ 레이코프(George Lakoff, 2008)가 주장했듯이, 정치적 경합에서 이기려는 자신의 가치와 옳은 판단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며, 자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찾아야 하고, 이것을 효과적인 논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⁴⁹⁾ 이러한 프레임의 관점에서 볼 때, 송백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할 프레임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가치의 전통적인 의미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사회운동 영역에서 감정, 기억, 분노, 구호 등 정서적, 문화적 단위들이 학문적 팩트(fact)로서 점차 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역사적 기억을 비롯해 감성과 문화적 단위들이 프레임 이론과 결집될 때, 지역사회의 운동이 가지는 문화적 동학은 더욱 풍부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운동 단체로 태동된 송백회의 활동을 규명함에 있어 이러한 개념들은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될 것이다. 특히 광주민중항쟁과정에서 신군부세력의 살인적인 진압과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안보 프레임에 대항하여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모성(母性)적 감성을 결집시켜 항쟁으로 승화시켰고, 광주라는 도시를 ‘애국’과 ‘민주화’의 공동체라는 프레임 속에 재구성하여 운동을 확산시켜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사회 문화적 요소로서 프레임과 같은 분석 도구들은 광주민중항쟁과 송백회 활동을 단순한 구조의 산물이거나 우발적 집합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생히 계승되고 있는 ‘역동적인 운동’의 역사로 재해석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정체성 등의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개념들

48) 프레임이론에 따라 당시 광주민중항쟁과 송백회 활동을 조망해 보면, 당시 전두환 신군부정권의 ‘안보프레임’에 대해 민주진영 일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정권이 오히려 안보의 최대의 적”이라는 식의 대응이 오히려 안보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구실을 한 셈이 될 것이다. 반면, 신군부정권의 마스터 프레임인 ‘안보프레임’에 대한 민주진영의 마스터 프레임으로서 ‘평화프레임’ 내지 ‘민주프레임’ (‘광주시민공동체’, ‘독재타도, 민주쟁취’ 등)이 전단과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어 광주 일반 시민에서부터 항쟁참여자, 지도부 진영을 결집시켰던 점을 주목하자. 이러한 해석이 넓게는 구성주의 신사회운동론의 관점이 될 것이다.

49) 조지 레이코프 저,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 창비, 2007.

만으로 사회변혁운동으로서 광주민주항쟁이 차지하는 특성과 의의를 규명하는데 무리한 점이 없지 않다. 구성주의가 채택하는 문화적 요소나 규범, 감정, 집합적 기억 등은 행위자가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좀 더 역동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지만, 운동만이 가지는 차별성과 인과론적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구술생애사와 구술증언 등을 통해 접근할 경우 빠지기 쉬운 엘리트주의 내지는 대표성의 문제⁵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운동참여자 간의 ‘공유된 인식’과 이데올로기, 규범, 집합적 정체성 형성 등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되, 사회운동 탄생의 정치적·구조적 변수를 파악하는 정치적 구조론과 개인이 조직이 참여하거나 조직 간 연대가 일어나는 동원구조로 파악하는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계승하여 광주민주항쟁에서 송백회 활동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특히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 및 조직을 공급하는 미시동원 기제와 사회운동조직이 중심적 그룹에 의해 연합된 운동세력을 형성하는 이른 바 중위동원의 관점에서 송백회의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한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과 사회운동이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속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상에서의 연구들은 한계가 있다. 애당초 각기 다르게 출발한 개별 행위자들이 송백회 운동을 통해 어떻게 한 목소리로 결집될 수 있었으며, 운동에 내장된 참여와 항쟁의 동인은 무엇인지? 여성운동으로 출발한 모임이 어떻게 민주화로 대변되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사회변혁 운동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지?, 하는 점이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구성주의이론⁵¹⁾이 중시하는 인식적,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오월광주항쟁과 같은 사회운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자원동원론과 정치적 기회구조론의 결정적 약점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들불야학, 녹두서점, 광대, 학생운동 그룹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율적 결사체를 중심으

50) 우리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사회운동연구에서 사라진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과연 이들이 광주민주항쟁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정철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접근과 비교연구”, 『사회연구사』, 2000.

51) 사회운동분야에서 구성주의이론은 기존의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각의 장점을 통합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의 장점을 통합하여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와 운동과정, 행위자와 행위, 그리고 운동의 결과까지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분석한다.

로 미시동원맥락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대항 헤게모니 담론이 동원역량의 증대에 막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은 공식적 조직의 객관적인 동원능력에만 천착하는 고전적 자원동원 이론의 빈 공간을 메워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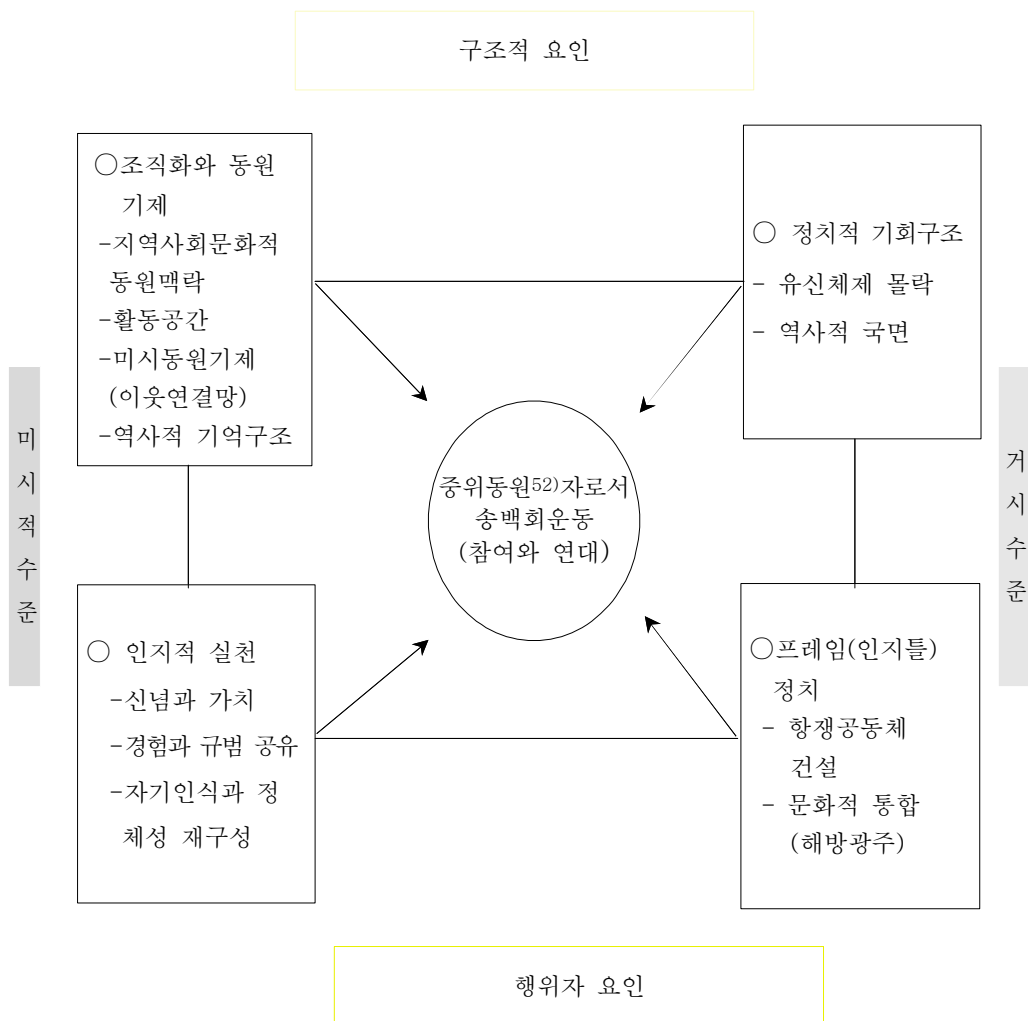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같이 오월광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신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선, 이 같은 탈식민주의적, 탈영미식 접근들은 서구의 개념이나 이론, 현상을 ‘지방화(provincialize)’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들이 거시적인 역사담론에 치우친 채 오월광주가 갖는 특수성과 지역적 의미를 간과하기 십상이었다면, 이 같은 접근들은 오월광주항쟁을 구조적 인과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일반현상이 아니라, 다층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의 동기화된(motivated) 의식적인 행동을 부각시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접근은 항쟁을 지방적 특수현상으로 재해석하고 그 주체적 의미를 격상시키려는 중범위의 구성주의적 접근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사회운동에는 정치적 거시적인 요소, 중리적 조직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개인의 양상들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에 집합적 형태만을 주로 다루어져 온 사회운동연구경향에서 개별 행위자 내지는 조직 행위자의 활동을 드러내 주는 연구를 축적해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동원되는 연구방식 중의 하나가 구술생애사와 같은 민속지학적인 방법이다. 구술은 역사적 기억이 재현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이고, 구술사는 문서 중심의 역사, 국가전체사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지방민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를 쓰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항쟁 원년 멤버들은 물론 참여자들의 ‘기억투쟁’을 자극하여 연구에 동참시킴으로써 시민운동 연구의 주체를 확장시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월광주항쟁의 맥락에서 송백회 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운동연구의 주체회복 및 지역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성급한 일반화의 매혹으로 인해 사회운동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시적·구조적 접근이 간과하기 쉬운 지방적 특수성, 역사적 특수성과 같은 맥락요인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3절 분석틀 : 송백회운동에 나타난 참여와 연대의 동학분석

이 논문은 인식적, 감성적, 문화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분석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되, 매카시와 잘드의 자원동원론과 맥아담(MacAdam)의 정치과정모형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송백회운동에 나타난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1>과 같은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그림-1> 송백회운동의 동학 분석틀

<그림-1>의 분석틀은 광주항쟁과정에서 송백회를 둘러싼 구조적 측면(상부)과 행위자적 측면(하부)을 보여준다. 또한 거시적 차원(우측)의 구조 및 활동과 미시적(좌측) 차원의 구조 및 활동이 어떻게 상호 결합하여 송백회와 광주항쟁 참가자들의 인식틀(프레임)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좌/우, 상/하의 매트릭스(matrix)를 통해 보여준다.

우선, <그림-1>의 상부에 위치한 두 네모 틀은 송백회운동을 둘러싼 구조적 측면을 나타낸다. 우측 상부는 거시적 구조로서 1980년 당시 유신체제의 몰락과 ‘민주화의 봄’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국면을 통칭하는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보여준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도전자 집단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공중의 지원 또는 반대의 분포, 정권의 위기와 경쟁 상황, 억압적 사회통제의 정도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광주항쟁에 적용시켜보자면, 유신체제의 붕괴와 뒤 이은 1980년 서울의 봄은 일견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주어지는 구조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객관적인 구조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민주정부수립’이라는 틀 짜기와 설득적 의사소통을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노력은 운동의 행위자와 대중들의 인지적 기회의 확장을 가져왔다. 즉, 집합행동의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다시 사람들의 운동 참여를 촉진시켰고, 다시 확대된 운동은 전정권의 통제력을 위축시킴으로써 구조적 기회를 더욱 증폭시키는 등 정치적 기회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권의 억압이 강화되는 것은 구조적 기회를 축소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나 5월광주항쟁의 경우에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라는 강력한 의미틀은 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 기회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정치적 기회구조론은 행위자와 기회구조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연구자는 정치적 기회를 구조적 기회와 인지적 기회로 구분하고, 정치적 기회구조론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⁵³⁾ 구조적 기회는 우

52) 시민사회 영역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을 중위동원(mesomobiliz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운동 조직간의 네트워크와 자원동원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개념으로서 운동을 관계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필수적인 분석도구이다. 연구자는 송백회를 중위동원자로 간주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3) 최현, 김지영,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2007, 가을호.

호적 정치표출 기회, 정치세력의 역관계,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또는 정치 과정에 의해 규정되는 중단기적 기호와 위협으로 규정된다. 반면, 인지적 기회는 구조적 기회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틀 짜기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자의 개입에 의해 변화하면서, 역으로 구조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운동집단들은 설득적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운동에 유리한 인지틀을 형성하여 전파하고, 그를 통해 인지적 기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객관적인 구조적 기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이는 구성주의적 기획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좌측 상부는 미시적 수준의 구조로서 송백회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세력의 조직화와 동원기제를 가리킨다. 우선, 지역적 기회구조로서 사회문화적 동원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즉, 광주항쟁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중요한 개념들은 바로 역사적 기억구조와 문화적 자원이다. 또한 그림에서 미시동원기제와 이웃연결망은 송백회와 같은 운동조직이 기초자원들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항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동참시키는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맥아담에 의하면, 미시적 동원맥락은 집합행동에 필요한 동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합적 비판의식(collective attribution) 과정이 원초적 조직의 형태와 결합된 소집단 상황이라고 정의된다.⁵⁴⁾ 미시동원맥락이 여타의 소집단과 구별되는 것은 동원에 필요한 지도자와 구성원, 의사소통 연결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집단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집합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비판적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시동원맥락은 자원동원론의 한계를 보완해 준다. 자원동원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운동은 발생초기에 있어 자원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 집단의 내부에서 충당되며, 사회운동 조직은 공식적 조직의 형태보다는 훨씬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미시동원맥락은 광주항쟁과 같은 운동의 발생 초기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 운동세력의 활동공간과 이들이 사회운동의 기초자원으로서 어떻게 미시동원기제가 활용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선교운동, 청년운동, 야학, 문화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이웃연결망과의 관계구조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시동원맥락에 있어 자원을 동원하고, 잠재적 지지자들과의 설

54) 정철희, “미시동원, 중위동원, 그리고 생활세계 제도”, 『경제와 사회』, 1995, 봄호.

특적 의사소통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레임(fram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시동원맥락에서도 집합적 비판의식이 형성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체계화된 대항 헤게모니 또는 대안적 의미체계가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프레임의 형성은 대안적 의미체계를 제시하여 참여자가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기존의 가치체계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합리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스노우와 벤포드는 집합행동의 의미틀(collective action frame)이 진단적 기능, 처방적 기능, 동기화의 기능 등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⁵⁵⁾ 이러한 맥락에서 좌측 상단의 미시동원구조는 우측 하단의 프레임(frame)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그림-1>에서 우측 하단의 네모 틀은 이러한 거시적 수준에서 행위자들이 갖는 공유된 인식틀, 즉 프레임(frame)이 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과정에서 공유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미 설명했듯이 당시 광주항쟁공동체의 건설과정에서 신군부세력의 ‘안보’ 프레임에 대항한 광주시민들의 ‘계엄철폐’와 ‘독재타도’ 프레임은 광주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저항을 지속시키게 한 중요한 대중적 의미체계였던 셈이다. 이 같은 인지틀은 다양한 조직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였음은 물론 ‘해방광주’로 대표되는 문화적 통합을 이루게 한 동인이었던 것이다. 공유된 인식틀의 형성, 혹은 틀 짜기(framing)는 행위자들이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각하고, 위치적으로 구별하고, 이름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을 구성해 가는 것을 말한다. 5월항쟁과정에서 송백회 활동가들이 투쟁에 의미를 붙여넣기 위하여 제시한 구호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각 상황에서 각기 다른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므로, 흔히 동일한 상황에서 중위동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몇 가지 차원에서 사회운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치적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틀(frame)은 세계를 인식하는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구조로서 운동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운동집단들은 인지적 실천과정으로서의 틀 짜기(framing)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식틀을 형성함으로써 잠재적 지지자를 동원하고, 공중을 잠재적 지지자로

55)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제9장 사회운동의 구성주의 이론, 1999.

전환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범위상 미시동원 맥락이 형성되는 과정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광주항쟁의 미시동원맥락은 당시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대학과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연구자는 광주지역에 이미 형성된 미시동원맥락을 전제하고, 계엄철폐와 독재타도의 구호 속에 내장된 민주화의 프레임 형성이 미시동원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다음으로, 좌측 하단은 미시적 차원에서 행위자들의 인지적 실천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나타낸다. 그런데 구성주의적 설명이 강조하듯이, 이러한 행위자의 인지적 실천은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림-1>의 분석틀의 대각선에 위치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행위자들은 어떠한 역사적 기억과 경험 및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인식 및 정체성이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신군부 정권의 쿠데타와 정치적 탄압 증대라는 구조적 기회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운동 집단들이 적극적인 인지적 실천을 통해서 행위자들이 받아들이는 인지적 기회를 증대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기회의 확대를 가져와 오월광주항쟁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적 실천을 가능케 한 동인의 하나로서 ‘역사적 기억’은 미시적 차원의 행위자들의 항쟁참여 동인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근대사를 돌이켜 볼 때 역사적인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적실성을 갖는 작업일 것이다. 신기욱(1994)이 간파했듯이, 한 사회집단 혹은 지역에서 저항적 집합의식이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집합행동이 활발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⁵⁶⁾ 예를 들어, 광주 전남지역 시민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같은 이전의 투쟁의 경험이 전설과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이것이 역사적 국면에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인지적 실천의 한 측면으로 경험과 규범의 공유과정을 다룬다. 오월항쟁의 과정 속에서 항쟁 참여자들의 경험은 어떻게 전파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규범 창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

56) Shin, Gi-Wook.,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 1596-1624.1994.

는지? 항쟁 참여자들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은 어떻게 재구성되고 변화하였는지를 다룰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월광주항쟁 발생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활동했던 활동가, 조직들간의 연대의 형성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시동원과는 구별되는 상이한 운동 조직들간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중위동원의 과정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미시동원이 운동집단의 내부와 외부의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동원하는 것에 관련되는데 반해 중위동원은 운동집단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운동집단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중위동원의 과정에서 그 담당자인 중위동원자의 역할은 동원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위동원자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여러 운동조직이 공동의 목표아래 함께 동원되는 것을 담당한다. 중위동원자의 역할은 구조적 통합과 문화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⁵⁷⁾ 문화적 통합은 운동의 동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나의 효과적인 마스터 프레임 또는 정치적 상징을 채택하여 이것과 각각의 운동조직들의 프레임을 연결시킴으로써, 조직들간의 화학적 결합도와 운동의 역량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오월광주항쟁이라는 사회운동이 자원을 동원하고, 정치적 기회구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송백회가 어떻게 연루되었으며 그 역할과 동원의 기제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즉, 광주항쟁 과정에 연루된 다양한 부류의 중위동원자들 중에서, 항쟁 훨씬 이전부터 형성된 ‘송백회’라는 중위동원자를 중심으로 이 조직 하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자원동원 및 문화적 통합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광주항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유된 의미틀(frame)의 작용을 구조와 행위자 및 거시수준과 미시수준이라는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1> 분석틀의 한 가운데 위치한 송백회를 중위동원자로 규정하고 이 조직이 광주항쟁과정에서 프레임 형성과 문화적 통합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57) 정철희, “중위동원과 6월 항쟁: 사회운동조직의 구조적·문화적 통합”,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1996.

제3장 오월광주항쟁의 구조적 동학

이 장은 오월광주항쟁의 구조적 동학(structural dynamics)을 살핀다. 이를 위한 연구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재체제였던 박정희 유신체제의 몰락에 따른 정치적 기회구조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의 태동 배경을 살피고, 강성국가였던 신군부의 등장과 권위주의 재공고화, 그리고 이러한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제도 정치체계가 붕괴되고 무력화 되었던 현상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둘째, 자원동원론 관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 발전의 사회·문화적 자원과 동원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광주·전남지역의 사회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집합적 신념과 가치구조의 사회적, 문화적 근원 등을 밝힌 후, 이 지역 여성운동의 토양과 사회적, 문화적 근원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오월광주항쟁 발발의 원인을 총체적 구조 속에서 접근하는 개념도구로서 ‘역사적 국면’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당시 오월광주항쟁을 가능케 한 국내 정치적 여건, 경제적 여건, 국제관계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조건 등을 밝혀내고 이것들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광주항쟁을 촉발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1절 정치적 기회구조

1. 유신체제의 몰락과 정치적 기회구조

유신체제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1979년까지의 정치체제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철저히 말살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였다.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여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였으며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케 함으로써 의회를 대통령 통제 하에 두었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각종 감시와 통제 기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 유신체제는 선거 민주주의적 방식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폭압과 감시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유신체제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잉태되었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1963년 ‘민정이양’을 위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67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969년 박정희 정권은 연임만이 허용되었던 당시 헌법을 3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소위 ‘3선 개헌’이었다. 이는 장기집권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전 국민적 반대투쟁을 촉발하였다. ‘3선 개헌’ 반대투쟁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의 다른 정치사회적 저항과 맞물리면서 박정희 정권은 심대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정치적 위기는 1960년대 말 이후의 경제적 위기와 중첩되면서 전반적인 체제 위기로 전환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는 수출 지향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화의 시동기였다. 박정희 정권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실시하였고, 내부의 경제적 자원과 외국자관을 수출 증진과 성장 촉진에 집중적으로 투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출지향 기업들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일정한 수출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집약적 산업화는 1970년대 초부터 병목지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들 수출지향 기업들은 다수가 차관기업으로 많은 수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 경제에는 전반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의 부채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유예하는 ‘8·3조치’를 1972년에 시행하였지만 전반적인 위기는 수습되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경제적 위기가 맞물리면서 박정희 정권은 유신 전야에 심대한 체제위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체제위기는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위기, 초기 산업화의 모순에서 비롯된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 군부통치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고양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의 만성화,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 동북아에서의 국제적 냉전구조의 해체로 인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위기가 상호작용하면서 확대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출현한 전체주의적 체제가 바로 유신체제였다. ‘3선 개헌’ 직후 치러진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접전을 겪은 후,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부통치 엘리트들은 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아예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간접선출하며 대통령 연임 조항을 없애는 등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유신헌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 유신체제는 바로 이처럼 심대한 체제위기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1인 종신집권체제 구축을 통하여 ‘폭력적인 방식’으로 위기 타개를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유신정권은 1960년대까지 그나마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던 민주주의적 형식성과 절차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억압적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하며, 이를 통해 점차 고양되어 가는 민중적 저항을 억제하는 ‘초 강압적 군부정권’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억압적 재편은 역으로 국민들의 더 큰 정치적 불만과 저항을 촉발하였다. 그러자 정치적 불만을 억제하기 위하여, 언론과 국회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와 탄핵이 자행되었고, 이는 또 다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촉발하는 ‘정치적 악순환’을 낳았다.

이러한 정치적 악순환의 정점에 ‘긴급조치 9호’ 시대가 존재한다. 유신체제의 수립 이후에도 저항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이 제어되지 않자, 유신정권은 유신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긴급조치권을 악용하여 1975년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형태의 말과 행동을 금압하고, 특히 그것을 국민들에게 감추기 위해 언론보도 자체를 통제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비판적 표현과 보도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주의의 최소기준’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억압적 체제였기 때문에 일체의 저항운동은 불법화되었지만, 역으로 저항의 잠재력은 대단히 확장되었다.⁵⁸⁾

그러나 철옹성 같던 박정희 유신체제는 내부의 균열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부마항쟁과 연이은 대학들의 소요 움직임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고 만 것이다. 그것이 10·26정변이다. 그날은 부마항쟁의 불길이 인근 대구로 북상할 조짐을 보이던 중이었다.

부마항쟁은 10월 20일 종료되었으나, 곧이어 대구의 주요 대학들에서 소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경북대와 영남대는 부마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10월 22일과 23일에 각각 휴교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10월 25일 계명대 학생 2,000여 명이 유신철폐를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밤,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만찬장에서 부마항쟁과 대야공작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정보부장 김재규는 미리 준비해 온 권총으로 박정희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을 저격·살해하였다. 사건

5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2』, 돌베개, 2009, p. 19.

직후 김재규는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통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정승화가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김재규는 전두환 휘하 보안사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정변을 일으킨 김재규는 정권 장악에는 실패하였지만 뒷날 법정에서 그 스스로 ‘유신의 심장’이라 표현한 독재자 박정희 제거에는 성공하였다. 그로써 유신체제도 급격히 무너졌다.

김재규의 10·26정변이 박정희의 절명과 함께 사실상 유신정권을 붕괴시켰으며, 체제의 종말을 조금이나마 앞당겼다. 그 철옹성 같던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고, 짧았으나 ‘서울의 봄’을 가져오게 된 것도 엄연히 10·26정변의 결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0·26정변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부산과 마산지역의 시위가 계속 되었다면 피해는 훨씬 더 대규모로 확산될 상황이었다. 김재규의 10·26정변은 그러한 흐름을 일단 끊어준 것이다. 물론 박정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는 신군부체제로 계속 이어졌으며, 오일광주항쟁이라는 유혈투쟁과 6월 민주항쟁 같은 전 국민적 투쟁 등 이후의 오랜 저항을 통해서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김재규 식의 테러 방식으로는 결코 군사독재 해체가 불가능한 것임을 반증한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체제의 출현은, 유신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몰락을 고하였든 그 무렵으로서는 출현할 수밖에 없는 계급적·정치적 조건의 산물임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전자의 주장에 동의 하더라도 당시로서는 박정희 정권의 종식 그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했을 수 있다. 10·26정변이 아니었다면 박정희 정권의 종식이 것처럼 급속히 진행될 수 있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10·26정변과 박정희의 죽음은 유신체제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위기들의 결과였다. 그 위기의 열개는 종속적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중화학 공업화의 과행,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급속히 팽창한 노동자와 중산층 민심 이반, 제도야당을 포함한 반유신 저항연대 구축, 제한적이긴 하나 한미 간 갈등의 심화 등 다양한 수준의 위기들이 겹겹이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바로 이런 위기들의 복합적 작용 속에서 부마항쟁으로 대표된 아래로 부터의 저항이 폭발하였고, 그 대응을 둘러싸고 국가 내 권력 분과들이 갈등과 균열을 일으켜 정권 스스로 무너졌다. 즉 유신체제 붕괴의 1차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국가권력의 내부 갈등과 대립(10·26 정변) 때문이었지만 이러한 권력의 내부 갈등 자체를 불러일으키고 폭발시킨 것

은 아래로 부터의 투쟁(부마항쟁)이었던 것이다.⁵⁹⁾

예컨대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죽음과 더불어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김재규의 10·26정변에 따른 것이었고, 그 결정적 계기가 부마항쟁이었다.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 체제가 다시 반동화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부마항쟁과 10·26정변이 몰고 온 유신체제 붕괴의 역사적 의미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는 박정희 일파의 5·16쿠데타로 체제가 반동화 되었다고 해서 4월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무효화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⁶⁰⁾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 연금조치를 받았던 김대중 등은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움직였다. 10·26정변 이후 총재권한을 되찾은 김영삼은 1979년 11월 4일, 최규하 과도정부에 3개월 이내 헌법을 개정한 후 2개월 이내 신헌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민당은 박정희 사후 정국은 신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의 과도기이며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도 중립적 입장에서 정권교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⁶¹⁾ 또한 10·26정변 관련 수사가 종결된 이상 비상계엄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규하에게 ‘양심적 정치범의 즉각 석방’,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김대중 사면복권’, ‘학원의 자유 보장’, ‘11월 13일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다 연행된 9명의 인사들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⁶²⁾

공화당은 11월 10일 당무회의를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12일 신임 총재로 김종필을 선출했다. 11월 18일에는 김종필과 김영삼이 회동했고, 11월 23일에는 최규하와 김영삼이 회동했다. 김대중은 12월 8일에야 연금이 해제되어 다른 이들보다 정치활동이 다소 늦었다. 최규하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개헌과 총선을 하겠다고 언명했다.⁶³⁾ 이른바 3김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12·12군사반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 개정 및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일정에 관심을 쏟았다.⁶⁴⁾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교동계는 계엄령 즉각 철회, 최규하 대통령 대

59)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 책세상, 2001, p. 194.

6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앞의 책, pp. 350-354.

61) 김삼웅 편저, 『서울의 봄 민주선언』, 한국학술정보 2001, pp. 34-36.

62) 김삼웅 편저, 위의 책, pp. 41-43.

63) 『동아일보』, 1979년 12월 21일자.

64)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pp. 283-284.

행체제의 퇴진, 거국민주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는 11월 12일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⁶⁵⁾(약칭 '민주통일국민연합')의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저지를 위한 국민대회'(YMCA 위장결혼식사건)에는 신민당과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았다.⁶⁶⁾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가 유신헌법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자,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은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11월 12일 민주통일국민연합 공동의장단(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최규하의 특별담화문을 비판하고 민주화를 위해 민주헌법을 3개월 이내에 제정할 것, 최규하 대행체제의 즉각 사퇴와 과도정부로서의 거국민주내각 구성, 반독재·반유신 민주화인사들 석방과 복권·복직, 계엄령 즉각 해제 등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일국민연합'은 당면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상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직교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청년협의회와 동아투위·조선투위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긴급조치 9호와 계엄령 해제, 양심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 성명과 관련하여 서남동, 김찬국, 이우정, 김병걸 등이 조사를 받았고, 이부영은 11월 17일 계엄포고령 제1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⁶⁷⁾

한편, 광주지역의 민주화운동단체들도 11월 28일 통대선거결사반대를 주장했다. 광주기독교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남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전남지부, 민주청년협의회, 기독교장로회 전남청년연합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민주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1월에 들어서면서 발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라는 사기극'에 결사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65)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은 1979년 3월 거의 모든 민주화운동 조직과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을 공동의 장단으로 선임한 '민주통일국민연합'에는 종교계 인사에서부터 정치인사 그리고 교수, 문인 등의 지식인 집단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원로 명망가들도 있었지만, 1970년대 대학생으로서 반유신투쟁을 전개했던 청년층도 주요한 구성원이었다.

66)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2007,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5·18 기념재단 편), 5·18기념재단, p. 19.

6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P. 387.

“과감하고 혁신적인 범국민적 합의 방안에 의한 민주 거국내각이 민주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⁶⁸⁾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은 유신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동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통대선출 저지 국민대회’를 준비했다. ‘계엄령 하에서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YWCA에서 11월 24일 결혼식을 가장한 집회를 준비했다. 그런데 모든 세력들이 여기에 동참했던 것은 아니다. 민주통일국민연합은 10·26정변 이후 국변에 대한 대처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었다. 점진적 입장을 취한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헌법 개정과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데 맞추었다. 반면 민주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이들도 있었다. YWCA에서 개최된 ‘통대선출저지 국민대회’는 후자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민주청년협의회 홍성엽과 윤정민(가상인물)의 결혼식이 있다는 전단이 10여일 전부터 배포되었다. 당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들었다. 신랑입장과 동시에 사방에서 ‘취지문’, ‘통대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 ‘거국민주내각 구성을 위한 성명서’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었고, 곧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출방식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이 낭독되었다. 국민대회를 준비한 주체들은 성명서에서 부패를 자행하고 특권을 향유한 이들에게 합법적 절차를 통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과 민주정부 출범 시기까지 과도기를 담당할 거국민주내각을 수립할 것을 역설했다. 끝으로 민주화 이행에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일체 거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⁶⁹⁾

국민대회를 준비한 주체들은 ‘통대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선 대통령 선출, 후 개헌’이라는 기만적인 정치일정을 내걸고 유신독재의 연장을 획책하고 있는 이들의 계획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대회 장소는 쑥대밭이 되었다. YWCA를 빠져나온 일부 참석자들은 코스모스 백화점 앞으로 모여 다시 시위를 전개했다. 150여명의 시위대열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유신철폐와 통대 반대의 구호를 외치며 조흥은행 본점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 시위대열도 곧 계엄군에 의해 해산되었다. 계엄군은 사건 관련자 140명을 검거하고,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비인

68) 1970년대 민주화운동5, p. 1,629.

69) 김삼용 편저, 『서울의 봄 민주선언』, 한국학술정보, 2001, pp. 218-219.

간적 능욕을 가했다.⁷⁰⁾ 주동자로 분류된 18명 중 14명이 수경사 계엄군법회의에 구속 송치되었고 67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져 15~20일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1980년 3월 2일에는 3·1절을 기념하여 계엄해제를 촉구하는 선언 ‘3·1절 에 고함’을 발표했고, 5월 7일에는 기독교회관에서 문익환, 이문영, 고은, 계훈제, 김승훈, 심재권, 김병권 등 30여 명이 내외신 기자 앞에서 ‘민주화 촉진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재야민주화인사들은 이 선언문에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비상계엄령 즉각 해제, 유신체제 옹호 발언을 일삼는 신현확 국무총리의 즉각 퇴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모든 공직 사퇴, 모든 양심적 정치범 즉각 석방, 독재연장을 옹호하는 언론방송인들의 반성 촉구, 유정희와 통일주체국민회의 즉각 해산, 정부 개헌심의위원회 해산 등을 주장했다.⁷¹⁾ 적극적인 투쟁을 강조한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세대들은 집단적으로 복학하여 학내에서 학생운동을 지도하고자 했다.⁷²⁾

10·26정변 이후 학생들은 유신체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학생활동의 완전한 자율화와 학원민주화를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새롭게 열린 공간에서 학원민주화를 목표로 한 운동을 전개했다. 1979년 11월 22일 서울대에서 10개 서클의 대표들이 모여 ‘학도호국단 폐지’, ‘구속 학생 석방과 복학’, ‘학내 언론자유 보장’, ‘사복경찰의 구내 출입 금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들의 학원민주화 주장에 호응하여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의 학생들도 학원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1980년 2월 29일 최규하 정부의 복권조치로 해직교수와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신학기가 개강되자마자 각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부활했다. 부활한 총학생회는 유신체제 아래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학생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학원운영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흐름은 1980년 4월까지 이어졌다.

1980년 4월 3일 서울대는 부활한 총학생회를 인정하고, 학도호국단 관련 학칙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달 7일 전국 9개 국립대학 학생 처장단은 서울대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대에 이어 학도호국단 규정을 학칙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3월 27일 연세대에서 3월 28일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총학생회

70) 정승화, 『12·12사건 정승화는 말한다』, 까치, 1987, pp. 132~136.

71) 예춘호, 『서울의 봄, 그 많은 사연』, 언어문화, 1996, p. 96.

72)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 기념재단 편), 5·18기념재단, 2007, p. 22.

가 잇따라 발족했다. 서울의 나머지 대학들도 4월 초에 단과대학과 총학생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학원민주화투쟁에 집중하던 학생운동 진영은 대정부 민주화투쟁으로 급격히 전환하기 전인 1980년 4월에 병영집체훈련 거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병영집체훈련 거부는 성명서 형태로 간헐적으로 제시되다가 4월 10일 성균관대학생들이 입영훈련을 거부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던 타 대학들로 곧 확산되었다.

1980년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공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했다. 이로써 그는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군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며 집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⁷³⁾

4월 30일 계엄사령부는 전 군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문제, 학원 소요, 일부 정치인의 정치집회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기존까지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군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계엄철폐, 전두환 퇴진 등의 구호가 대학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5월 초 보안사령부 참모들로 구성된 기획팀은 ‘계엄 전국 확대’, ‘국가 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권력 장악 시나리오를 작성했다.⁷⁴⁾

1979년 말 집권세력이 유신체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들은 유신잔재 철폐를 주창했다. 비록 학생운동의 중심은 학원 민주화에 있었지만 학생들은 11월 말부터 유신체제 해체와 군의 엄정중립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고려대생들은 11월 26일 학원민주화에 대한 강조와 함께 유신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YH사태, 부산·마산민중봉기, 10·26정변 등으로 그 허구성이 확연히 드러난 유신체제는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으며, 이를 유지하려는 어떠한 대내외적인 기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⁷⁵⁾ 11월 30일 전남대생 2,000여 명이 조기개헌과 군의 중립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전북대 학생 1,500여 명도 12월 5일 ‘민주학생선언’을 뿌리고, 유신잔당 퇴진, 통대선거 반대, 거국내각 구성을 외치며 시위

73) 재향군인회 편, 『12·12, 5·18실록』, 1997. p. 223.

74) 조선일보사편, "총구와 권력 5·18수사기록 14만페이지의 증언", 『월간조선』, 1999년 1월호 별책부록, 1999, pp. 202-205.

75) 『1970년대 민주화운동 5』, p. 1,941.

를 전개했다.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가에서는 5월 2-3일을 기해 일제히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5월 초순을 민주화투쟁 기간으로 정해 교내에서 계엄해제와 민주화 일정 촉진을 요구하는 시위와 강연 행사 등을 벌였다. 각 대학의 학생들은 ‘유신잔당 퇴진’, ‘계엄해제’, ‘과도정부 금년 내 종식과 민간정부 출범’,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의 정치투쟁 확산은 그 동안 혼란 상태에 있었던 제도권 정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다.

5월 14일과 15일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대적인 연합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언론의 추계에 따르면, 14일 서울시내 21개 대학 소속 7만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했고, 지방에서는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낮부터 교문을 나온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밤 10시까지 광화문, 종로, 시청, 서울역, 영등포 등 도심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15일에는 서울의 35개 대학과 지방의 24개 대학에서 나온 학생들 수 만 명이 전국주요도시의 거리를 메웠다. 이날 학계·언론계·법조계·종교계·문단의 지식인 134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민주화와 생존을 위한 학생·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은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비상계엄의 장기화로 빚어진 필연적인 사태’라면서 비상계엄령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⁷⁶⁾

서울의 경우 학생들이 서울역과 남대문 사이에 집결하여 일부는 경찰의 시청 앞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고, 나머지 대다수는 서울역 앞 광장에 연좌하여 계엄철폐, 신현확과 전두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언론은 서울역에 집결한 학생 수가 최고 7만여 명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집단은 없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의 생각은 군인들이 개입하면 막는다는 것이 전부였고 현장지도부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은 부재했다. 학생회장단은 농성 몇 시간 만에 내무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여 학교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을 보장받는 선에서 타협을 보고, 학생들을 설득하여 각 대학으로 돌아가게 했다. 서울역 회군과 서울지역 총학생회 회장단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5월 16일 전남지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들이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76) 김삼용 편저, 『서울의 봄 민주선언』, 한국학술정보 2001, pp. 324.

2. 제도 정치체계의 붕괴와 무력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 확인된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로 인해 통행금지가 두 시간 앞당겨졌고, 전국의 대학이 휴교에 들어갔으며, 언론검열이 실시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다. 정승화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올린 합동수사본부 설치안을 승인하고 전두환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27일 오전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미국 정부가 즉각적인 협조와 지지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를 발표했다.⁷⁷⁾

미국 정부로부터 민주화를 위해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들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유신세력들의 입장은 달랐다.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최규하는 담화에서 1980년 1월 25일에 끝나는 권한대행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 이전에 조기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과 대통령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은 채 실시되는 조기선거는 당연히 유신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이는 유신체제 철폐와 민주화로의 이행에 대한 시대적 열망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1979년 11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약 73%가 경제성장보다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⁷⁸⁾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최규하가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하나회’라는 군내 파벌이 형성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 출신 인사들을 정치권력기구에 충원시켜 통치기반 확립에 적극 활용했다. 군 출신 인사들은 박정희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원이었다. 박정희는 주로 군 인사정책을 통해 군부를 관리했다. 박정희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와 군부 내 파벌관계를 고려해 철저하게 상호견제의 원칙하에 군주요 보직을 관리했다. 박정희는 군부지휘 계통을 참모총장으로 대표되는 공식지휘 계통과 보안사령관으로 상정되는 정보 통제 기구 계통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해 나갔다.⁷⁹⁾

77) 『동아일보』, 1979년 10월 28일자.

78) 오창언, 『유신체제와 현대한국정치』, 오름, 2001, p. 283.

민정 이양 이후 박정희는 김종필과 연계 있던 육사 8기생들을 견제하며 자신의 연고인 영남 출신으로 새로운 군 인맥을 형성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경상도 출신 육사 11기생들이었다. 11기는 4년제 정규 군사엘리트 교육을 최초로 받으며 동료의식을 키워왔던 기수였다.⁸⁰⁾

육사 11기 영남계 출신들은 ‘칠성회’를 조직했다. 이후 이들은 정규 육사출신들을 계속 포섭하며 확대한 뒤 ‘하나회’로 개칭했다. 지연·학연으로 뭉친 이들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의 이해를 우선시했고 정계·재계와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박정희는 하나회 회원들에게 특전을 베풀며 자신의 확실한 친위세력으로 만들었다.⁸¹⁾

하나회는 '73년 ‘윤필용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박정희의 묵인 속에 해체되지 않은 채 존속할 수 있었다. 일부 친윤필용계 회원만이 제거되고, 하나회 핵심인 전두환, 노태우 등 친박종규 계열의 소장 장교들은 군에 남았다.⁸²⁾ 이들이 이후 강경 소장파 장성 집단인 이른바 ‘신군부’를 형성했다.

10·26정변 이후 정치적 격변은 기본적으로 유신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의 대립구도로 전개되었지만. 유신세력과 민주화운동세력 내에서도 10·26정변 이후 정국에 대한 대처방안을 놓고 분화가 진행되었다. 유신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은 이후 신군부로 명명된 소장파 정치군인들이었다.

군부는 10·26정변 이후 계엄 상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되었다. 군부는 권력 장악을 추구한 강경파와 민간정부의 집권을 지지한 온건파로 나뉘었다. 전자는 유신정권하에서 박정희가 친위세력으로 양성했던 하나회였고, 후자는 10·26정변 직후 정승화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던 이들이었다.⁸³⁾

10·26정변 이후 단행된 군 인사로 공식지휘 계통을 맡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은 대체로 소위 ‘온건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약하며,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민간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 당시 군의 주된 분위기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⁸⁴⁾

79) 양병기, "한국의 군부정치에 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7집 2호, 한국정치학회, 1993, pp. 183-184.

80) 강창성, 『군벌정치』, 해동문화사 1991, pp. 354-360.

81) 강창성, 위의 책, p. 364.

82) 강창성, 위의 책, pp. 372-373.

83)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주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 pp. 15.

하지만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던 군부 강경파 그룹은 유신헌법 조기철폐를 반대하고 권력 장악을 추진했다. 미국 언론은 1979년 11월 초에 이미 한국 군부의 대표적 매파가 전두환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⁸⁵⁾ 소장파 군인들은 10·26 정변 이후 자신들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위기감은 자신들과 대립적인 군 장성(이건영과 장태완)의 핵심 보직 임명, 전두환 좌천설 등으로 한층 심화되었다.⁸⁶⁾ 11월 중순경부터 전두환, 노태우(9사단장), 황영시(1군단장), 유학성(국방부군수차관보) 등 군내 강경파는 군권장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결국 이들은 12월 12일 군사반란을 단행했다. 이날은 최규하 정부의 새로운 조각 발표가 예정된 바로 전날이었다. 전방 군단장 및 사단장, 육군 최고 정예부대장들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 모여 반란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반란 주동자들은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정식 군 지휘 계통을 붕괴시켰다. 반란이 성공하자마자 신군부는 육군참모총장, 수도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대 핵심 요직을 장악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장기 권위주의 독재에 기반 한 유신체제가 10·26으로 몰락한 정치적 기회구조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12·12쿠데타를 불러왔으며, 2달도 못한 사이에 벌어진 국가적 위기를 통해 제도정치 체제는 붕괴되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2절 시민운동의 조직화

1.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의 자원과 조직화

1) 민주화운동의 태동

1970년대는 두 개의 기폭제가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 하나는 '70년 11월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과 '71년 8월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저항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은 저곡가 저임

84) 강창성, 앞의 책, p. 383.

85) 신현익, "전두환군부정권 성립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고려대 박사 학위논문, 2006, p. 80.

86) 강창성, 앞의 책, p. 385.

금 정책으로 처음부터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의 토대위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도 전인 '66년부터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역전이 시작되고 1966년부터 '70년 사이 매년 60여만의 농촌인구가 대도시, 특히 서울로 몰려들었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광주·전남은 이중 삼중으로 수탈을 당했다. 쌀을 생산해서 생산비 이하에 팔아야 했으며, 아들딸이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다 마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도시로 나가 구로공단이나 평화시장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했고 급기야는 본인들도 보따리를 싸들고 서울 등지로 나가 지게꾼 날 품팔이, 식모살이를 하며 청계천 답십리 판자촌 빈민이 되어갔다. 전라도 사투리는 천민의 표상이었으며 답십리 청계천 판잣집에서 쫓겨나 광주대단지(지금의 성남) 폭동을 일으킨 주축이 전라도 사람들이고 오늘날 성남시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69년 국민투표에서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71년 4·27 대통령 선거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도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하자 김대중 후보의 예언대로 영구집권을 위한 총통제를 획책하였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를 구축하고 '70년대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와 최루탄과 몽둥이로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하였다.

(1) 학원가의 교련 반대운동

1971년 4·27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남대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인 김정길, 정상용, 이양현은 전남대에 본격적인 사회과학 씨클을 만들어 조직적인 학생운동을 준비했다. 정상용, 이양현은 고교시절부터 향토반(후에 광량으로 개칭)이라는 독서회 활동을 해서 일찍부터 사회의식에 눈을 뜬 상태였다. 이들은 조천준, 문덕희, 박형선, 김창남 등과 매주 한 번씩 만나 동학혁명, 4·19 혁명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고 조용범 교수의 후진국 경제론, E. H. Carr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였는데 그 활동이 사찰 당국에 알려져 감시를 받게 되었다. 곧 이어 4·27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고, 선거는 1969년 3선 개헌 국민투표에 성공한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김영삼, 이철승을 누르고 후보가 된 40대 기수 김대중 후보와의 대결이었다. 당시 선거는

대통령선거라기보다는 군사독재와 민주세력간의 싸움이었다. 4월 초에 함석헌, 이병린, 천관우 등 재야인사들이 모여 민주수호 국민회의를 만들었고, 학생들은 민주수호 청년학생위원회를, 백기완 등은 민주수호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총선투쟁을 준비하였고 광주·전남에서는 홍남순을 중심으로 민주수호 전남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전남대는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참관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는 패배였다.

4·27 선거를 전후해서 전국에서 교련반대 시위가 시작되었다. 전남대도 5월까지 문리대와 의예과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 준비를 거쳐 10월초 전국적인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전남대는 고재득, 홍유석, 라병수 등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과 송정민, 허신석, 박연재 등이 주도했고 법대 학생회장 김진이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맡으면서 총학생회가 함께 했다. 민족사회연구회에서는 정상용이 전면에서 나서기로 하고 나머지는 시위 군중 속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당시 ‘녹두’지라는 지하신문이 배포되었다. 녹두지의 창간사는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의 혁명정신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내용으로 박석무가 썼다.

당시 대학교 시위는 학원의 병영화나 교련 문제를 넘어 8월에 일어났던 광주 대단지 폭동 등 민생문제까지 거론했으며 이에 놀란 박정희 군사정부는 고려대에 무장군인을 투입시켜 시위 주동자를 납치해가고 곧바로 위수령을 내려 전남대 등 전국 주요대학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이 시위로 전국적으로 174명을 제적, 무기정학을 시켰는데 전남대만 33명이었다. 그만큼 전남대 시위는 격렬했다. 박정희 공업화 정책의 모순이 가장 심화된 광주·전남에서 당연한 귀결이었다.

(2) 지역 내 최초의 반유신투쟁으로서 ‘함성지 사건’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유신헌법이 발표되었다. 4·27 선거당시 김대중 후보 예언대로 박정희 영구집권 음모가 드디어 구체화 된 것이다. 국회는 해산되었고 국회의원들은 남산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10분도 못되어 모두 각서를 쓰고 나왔다. 각서를 거부한 김상현, 조연하, 조윤희, 김한수 의원 등은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12월 9일 전남대에 ‘함성’지가 뿌려졌다. 8절지를 양면으로 접어 신문 형태로 만들어졌고, 앞면에 나온 창간사는 매우 강렬했으며 명문이었다. 함성지는 전남대만이 아니라 광주 시내 몇 개 고등학교에 뿌려졌으며 내용에 유

신 헌법 뿐만 아니라 박정희 개인에 대한 직접 공격까지 들어있어 박정희가 진노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함성지는 이강, 김남주가 제작 배포하였다. 두 사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듬해 3월 서울 일원에 뿌려 '서울 놈들'(당시 김남주의 표현)을 움직이고, 고발지를 서울에서 광주의 학생운동 지도자한테 부치기 위해, 이강이 광주에서 제작해 서울에 있는 김남주에게 부치려다 수화물이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정보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시 북중학교 교사였던 박석무를 교사하였다는 명목으로 수괴로 만들고, 김정길, 김용래 등의 조직을 붙여서 조작했던 사건이다. 사건은 조작되었지만 이강, 김남주의 함성, 고발지 투쟁은 반 유신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함성지 사건이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번째는 최초의 반유신 투쟁이었다. 1973년 4월 18일 박형규 목사와 기독교학생회(KSCF)가 주도한 남산 부활절 사건을 최초의 반유신 투쟁으로 알고 있는데 함성 고발지 사건은 이보다 5개월이나 앞섰다. 두번째는 이강, 김남주는 전남대 학생운동이 서울이나 특정 대학을 뒤쫓아가는 운동이 아니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은 민청학련과 교육지표 사건, 광주 민중항쟁과 '80년 이후의 전국 운동건설 과정에서 광주·전남의 선도성과 주도성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세번째는 함성 고발지 재판 과정은 '73년 4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 이상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공판 때마다 전남대 학생들이 초만원을 이루었고 법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전폐하고 공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유신 헌법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학습의 장이 되었다.

(3) 지역 청년운동, 민중운동 등의 자양분 : 민청학련 사건

1973년 9월 하순 경 함성지 사건 관련자들은 1심에서 박석무, 이강, 김남주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대학가에 최초로 서울대 문리대 시위가 터졌다. 박형규 목사의 제일교회에 다니던 나병식, 황인성과 광주 출신 고아석과 서울 문리대 학생회가 주도한 것이다. 문리대 교정에는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사진을 찍었으며 주동자는 구속되었다. 국회에서 김대중 납치사건과 구속학생 석방문제를 들고 일어났고 얼마 후 구속 학생들이 풀려났다. 국민과 학생들, 국회의원들이 유신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유신의 견고한 성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의 캠퍼스가 다시 유신정권과 일전의 태세에 돌입했고 재야 민주 인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남대에서는 김상윤이 문리대를 중심으로 함성지 사건으로 제적당한 사람들을 복학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움직이고, 윤한봉은 민족사회연구회의 후신인 교양 독서회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장준하, 백기완, 함석헌, 법정 등 민주 인사들이 100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으로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놀란 박정희 군사정부는 '74년 1월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부정 비방 왜곡한 죄로 장준하, 백기완을 구속시켰다. '73년 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정치재야원로들과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 인사, 지역적으로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곳곳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반유신 투쟁의 열기가 모아지고 있었다.

광주·전남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광주·전남의 대표였던 홍남순 변호사 사랑방에 야당 당원들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이기홍, 김세원을 중심으로 혁신계 인사들이 함께 하였으며 학생운동의 선배 격이었던 박석무, 전홍준이 바빠 서울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특히, 김세원은 우홍선 등 인혁계 인사들과 전국적 연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당시 박석무와 조대 의대생이었던 전홍준은 서울의 조영래, 장기표 등과 연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74년 초 이런 자연발생적 흐름들이 전국적인 대학생들의 연대조직으로 모아질 필요성이 대두되어 윤한봉이 전남대 대표로 서울대 황인성과 연결되고, 학생들은 대표자 모임을 통해서 통일성을 확보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3,4월 대학생 연합시위를 준비하였다. 민청학련의 처음 논의는 1973년 10월 이후 서울대 학생운동의 핵심인물이었던 나병식, 이철, 유인태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대학으로 연결이 시도되었다. 전국적인 연결은 1973년 초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74년 초 서울대와 경북대, 그리고 전남대 등의 학생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4월 3일에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들이 각 대학에 뿌려졌다.

박정희 정권은 3월 29일 각 대학 학생운동 지도부의 대규모 검거에 들어갔으며 연행된 학생들의 강압적인 고문과 폭행 심문을 근거로 4월 3일 오후 4시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였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에서 민청학련사건을 발표하면서 당시 240여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민청학련 배후조종자는 21명,

학생책임자는 39명으로 발표하였다.

민청학련 대학생조직의 주동자는 서울대 국사학과 나병식과 이철, 유인태, 김병곤 등으로, 그들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관련자 169명 모두 무기징역 징역 20년, 15년을 비롯하여 대학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한봉이 전남·북 책임자, 김상윤이 전남대학교 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김정길은 서울과 광주를 연결하였다. 전남대학교 민청학련 조직은 4월 9일을 예정일로 정하고 시위에 돌입하려고 했으나 사전에 시위계획이 노출되어 대기 중인 경찰에 모두 체포되고 말았다. 정부는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민청학련 조직과 전국적인 시위계획이 이미 사찰당국에 노출되어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윤한봉과 김상윤은 내란음모와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 나머지는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 외에도 전남대의 김정길, 이양현, 정상용, 박형선, 박진, 유선규, 정환춘, 이훈우, 최철, 문덕희, 조선대의 김운기 등 수십 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대규모 대학생들의 연행 구속과 중형 선고 등에 대한 국내외 비판여론에 밀려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로 민청학련 관련 학생들을 석방하고 말았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학생들은 2·15조치로 석방되었지만 이미 학교는 제적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들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 동료들과 연결을 끊고 생업에 몰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 각 분야로 파고들면서 청년운동, 민중운동, 인권운동 분야의 운동가로 변해갔다.

광주지역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석방 2개월 후인 1975년 4월 '전남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를 결성, 수감 중인 양심수들의 옥바라지, 청년·학생들의 의식화교육, 각 계층운동간 연대활동 등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현장에 투신하여 민중운동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과학 서클을 조직하여 의식 있는 후배들을 배출하고 종교계, 학계 등 광범위한 세력과의 연대활동에 주력했다.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구속된 후 감옥에서 나온 학생 운동가들은 생계와 민주화운동의 조화를 꾀하면서 활동을 하였다.

윤한봉은 아예 직업 운동가로 나서서 활동을 하였다. 그는 민청학련 동지인 김상윤, 이양현, 이강, 정상용, 박형선 등과 협의하여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청년학생운동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아울러 종교계 및 사회단체와 재야인사들과 동

지적 연대를 형성해갔다. 김상윤은 1978년 계림동 헌책방 골목에 녹두서점을 개설했다. 그는 서점에서 중고 서적뿐만 아니라 소위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였다. 아울러 서점을 출입하는 학생들 중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학습 소모임을 조직하였다. 소모임은 대여섯명씩 팀을 이루어 한국정치와 사회, 세계사와 한국사 등 커리큘럼을 짜서 밀도 높게 운영되었다. 녹두서점의 학습 모임에서 윤상원, 노준현, 문승훈 등 많은 운동가들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민청학련 사건은 이후 청년운동은 물론, 종교계, 노동운동, 농민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운동가를 배출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2) 민주화운동의 확산

(1) 양심적 종교인들의 민주화투쟁

민청학련 사건 이후 당시 학생들만 구속되던 반 유신운동이 인권, 청년, 종교계 등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기독교와 천주교는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을 도덕적으로 엄호해 주었고, 가톨릭은 농민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통해서, 기독교는 도시산업선교회회를 통해서 파탄 난 민중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찾고자 했다. 특히 기독교는 기독교청년회 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 조직과 많은 목사들의 헌신적인 정치투쟁이 있었다. 먼저 서울에서 1974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산하의 인권위원회와 기독교학생총연맹(KSCF),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 단체들이 인권 및 반유신 운동으로 전환하였다.

광주에서도 1976년 8월 10일 양림교회에서 열린 기독교장로회 임시노회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성명서가 낭독되면서 강신석 목사를 비롯한 4명의 목사와 12명의 성도가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77년 4월 부활절을 기해 쫓기하다가 목포에서는 이철우, 광주에서는 배호경, 조봉훈 등이 구속되었다. 당시 기독교는 기청, EYC 등이 정치투쟁에 앞장섰고 YMCA, YWCA가 민주화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 천주교에서도 광주정의구현사제단이 1977년 창립되어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하여 장지권, 김성룡, 조비오 신부 등이 활동을 하였다. 1977년 12월 10일 국제사면위원회 광주지부가 이기홍 변호사, 박석무, 조

아라 회장, 윤영규, 문병란 등이 주축으로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70년대 중반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끼친 모임 중에 빗고을 학생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다. 빗고을 학생교회는 진보적인 해방신학자였던 백영흠 동부교회 목사가 중·고등 학생부를 따로 운영하면서 붙인 명칭으로 스카우트활동, 소그룹학습, 독서 지도 등을 통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일깨어 주고 사회과학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당시 동부교회는 백영흠 목사, 윤영규(前 전교조 위원장), 박경서(前 인권대사), 강신석(목사), 윤장현, 김희택, 최권행, 최연석, 정용화, 이윤정, 이해성, 박인숙, 김성중, 김상집 등이 다녔다.

다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하다 고초를 겪었던 양심적 종교인들의 기록⁸⁷⁾이다.

고 고영근 목사는 1976년 3월 8일부터 13일 아침까지 충북 단양 장로교회의 초청을 받아 부흥집회를 하던 중 고 육영수의 묘지문제와 군 장성의 사치문제, 의화문제 등 시국에 대한 언급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차 구속되었으며, 1977년 11월 21일 전남 강진 장로교회(윤기석 목사)의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한 것과 11월 25일 기장 전남노회가 주최한 농민을 위한 기도회에서 설교한 것이 문제가 되어 2차로 구속되었다. 1976년 3월 1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명동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생생하던 1976년 3월 18일,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장이었던 고 조홍래 목사, ‘교회와 사회위원회’⁸⁸⁾위원장 고 임기준 목사, 그리고 목포 연동교회의 강신석 목사와 고 윤기석 목사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관련 구속자 가족, 구속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도회를 갖고 ‘명동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발표하기로 결의하고, 4월 22일 광주 한빛교회에서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130여 명의 노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정 회복하라”는 등의 결의문을 낭독·채택했다. 아울러 8월 10일, 양림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에서는 정기 회무에 앞서 교사위가 주최하는 ‘고난 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는데, 장광섭 목사님이 선교 자유와 인권문제를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 강신석 목사님이 4·22 결의문을 다시 낭독했다. 이로 인해 고 조홍래 목사, 고 임기준 목사, 강신석 목사와 고 윤기석 목사

87) 우리의 교육지표 기념사업회 엮음,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33주년 기념식 자료집』, 2011, p. 13.

88) 교사위, 전남노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 선교활동자유수호위원회.

가 구속되었다.

류연창 목사는 1976년 4월 말경과 8월 22-23일에 광주신광교회 대학부 소속 학생과 성도 150여명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이 나빠 지방순회를 못하고 있으며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지지도가 낮다.”, “유신체제는 민주체제가 아니고 유신헌법을 통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으므로 민주회복을 위해서는 유신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유신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철폐 등 유신체제를 비방하다가 구속된 이들을 진정한 용자”라고 설교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고 배호경 목사는 1977년 4월4일 21:00경 광주시 YWCA강당에서 수난절 예배를 위해 모인 남녀 기독교인 약150명을 상대로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철폐 등 유신체제를 반박하고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작성 배포 선동하여 조봉훈, 김영종과 같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조봉훈은 교육지표사건과 1979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천영초, 유구영 등과 전국대학 동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정권타도를 목적으로 시위를 공모 기도하여 다시 구속되었다. 1977년 1월 12일 20:00경과 1월13일 13:00경 광주시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남연합회 주도로 참석한 남녀회원 약 200명을 상대로 하여 이철우 목사가 작성하고 고 안철 장로가 그 일부를 수정하여 완성한 유인물,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법과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사회정의와 민주회복을 외치다가 투옥된 목사, 신부, 교수, 언론인, 학생, 청년들을 조속히 석방하라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또한 고 안철·이철우·정동룡·김상근·정영근은 1977년 5월9일 광주 중앙 국민학교에서 있을 부활절 예배행사에 모인 신도들에게 동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공조하는 등으로 문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을 주장 선동하려고 예비했다 하여 구속되었다.

고 김경식 목사는 작천교회(강진군 작천면 소재)에서 서울 청와대를 향해 도보로 대통령을 면담하러 간 세 차례의 일은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와 총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1978년 3월 1일 광주 양림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 설교를 하면서 성당에 기관을 배치하여 예배의식까지 감시한다,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의 요구를 현 정권은 기업의 편에 서서 몽둥이나 고문으로 대답하고 있다 고 하는 내용의 ‘우리의 인권현실’이라는 유인물을 낭독하여 구속되었다.

고 박만철(교사, 강진읍교회 장로)은 1978년 3월 1일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주최한 3·1절 기념 예배에서, “1. 박정희 대통령은 하야하고 민주화 회복하자. 2.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인사 석방하라. 3.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내용을 주창하고 참석한 4백여 명의 성도에게 복창하게 하여 구속되었다. 신용길(사업, 신민당 선전부 차장)은 1978년 3월 28일 14시경에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던 대학생들에게, “종교인, 지식인, 정치인, 학생 등 민주인사 300여명이 감옥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 300여명이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해서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 살인적인 고문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으로 보냈다, 총력안보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있는 자는 해외에 외화나 도피시키면서 어떻게 총력안보를 한단 말인가, 4·19의거는 의로운 것인 데 박정희는 4·19의 학생들을 못 쓴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하여 구속되었다. 1978년 10월 25일 오후 2시경, 해군 함대 항공단 하사였던 최문은 ‘유신 철폐, 박정희 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 3장을 국회의사당 정문 벽과 건물 내부에 전시하려고 시도한 국회 대자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2) 민주교육지표선언사건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고, 그 1주일 후 전국 98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전국 고교 및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대학에서의 군사교육 체제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두 달 후에는 ‘교육관계법개정법률’ 등 소위 4대 전시입법(戰時立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교수재임용제가 신설되었다. 이어서 7월 13일 당시 문교부는 대학 내의 각종 학생서클을 학도호국단 산하에 편입시켰으며 8월 1일부터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예 따라 국립대학의 교수 신규채용이 계약 채용제로 바뀌었다. 9월 1일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집회,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학칙을 제정했다. 또한 1976년 2월 문교부는 교수재임용제를 단행하여 전국 98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로 416명의 교수를 탈락시켰다.

그해 7월부터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서서히 재개되기 시작했으며 1977년 봄과 가을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혈시위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1977년 10월 7일 서울대학교의 시위는 1천 5백여 명의 학생들이 민주회복과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치열한 시위를 벌려 4백여 명이 연행되고 8명 구속, 제적 23명, 정

학 38명 등 대량 학사징계가 이루어지면서 17일간 휴학에 들어가지도 했다. 1978년은 봄에 이르러서는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감시와 탄압은 더욱 노골화 되고 폭력화되어 갔으며 대학 캠퍼스마다 중앙정보부원과 사복형사, 형사기동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당시 전남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도교수제를 시행하였으며, 교수들은 매달 학생들에 대한 지도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교수는 교수대로 당국의 지시와 감사아래 학생들을 지도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교수협의회’의 임원 15명 중 12명이 해직교수가 되고 김찬국, 김동길 교수는 구속된다. 또한 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울대의 백낙청 교수와 경기공전 김병걸 교수가 파면 또는 권고 사직되었다. 그 후 75년 6월 10일에는 이문영, 김용준 두 교수가 해직되고 그해 6월 11일에 한국신학대 안병무, 문동환 교수가, 그리고 6월 12일에는 연세대 김찬국, 김동길, 이계준, 서남동, 성내운, 양인웅 교수가 해직되었다. 6월 16일에는 전북대 남정길 교수와 서울여대 이우정 교수가, 그 다음날인 17일에는 경희대 노명식 교수가 해직되었으며 20일에는 부산교대 우창웅 교수가 해직되었다. 한편, 1976년 2월 28일 교수임용제 실시로 총 416명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탈락된 해직교수들 중 일부가 모여서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1977년 12월 2일 해직교수 13명은 해직교수 13인의 이름으로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한다. 해직교수 18인은 1978년 3월 24일 ‘해직교수 협의회’ 발족을 결의하고 1978년 4월 13일 공식적으로 결성한다. 당시 회원은 18명이었으나,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해직된 교수들이 회원이 되면서 회원이 27명으로 늘어난다.⁸⁹⁾

1978년 봄, 연세대 성내운, 전남대 송기숙, 서울대 백낙청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유신체제의 정신적 이정표 역할을 하던 국민교육헌장의 비교육적, 비민주적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규모의 서명이 무산된 가운데,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교수 11명이 서명한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선언문이 외신을 통해 국내외에 발표되었

89) 회원명단: 성내운(회장), 문동환, 백낙청, 김동길, 김병걸, 김찬국, 남정길, 명노근, 문병란, 배영남, 서남동, 송기숙, 송정석, 안병무, 안진오, 염무웅, 우창웅, 임영천, 이계준, 이문영, 이영희, 이우정, 이재현, 이홍길, 한완상, 김윤수, 정창렬 이상 27명. 최현명, "197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31~32.

다. 이 선언사건으로 서명에 참여한 교수 11명 전원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송기숙 교수는 구속되었으며, 송기숙 교수를 포함한 11명 전원이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아울러 연세대 성내운 교수도 구속·수감되었다.

(3) 교육지표 선언지지 시위와 성명

6월 29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육지표 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11명의 서명 교수들이 연행된 데 항의하여 3일간의 연속적인 대규모 시위를 하였고, 7월 3일 조선대 학생들의 ‘조선대학교 민주학생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이 시위를 주도한 전남대생 노준현 등 14명과 조선대생 4명이 구속·제적되었고 아울러 전남대생 10명이 무기정학 등 학사징계를 받았다. 당시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은 탄압받고 감시당하는 대학에서 신분이 보장된 대학 교수들이 투옥과 해직을 각오하면서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큰 충격이자 울림이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한 전남대 학생들의 투쟁시위 선언에 이어 서울에서 재야 시민단체 종교계 학생층 등에서 보낸 지지성명에 의해 교육지표 선언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⁹⁰⁾

현직 교수 11명이 서명한 교육지표 선언이 발표되자, 대학사회와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운동단체나 재야단체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생, 종교계 및 양심범가족 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한국인권운동협의회 등의 지지시위와 성명이 잇따랐다. 이어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과 전국 교구 사제단도 잇따라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1978년 7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8월 해직교수협의회와 9월 서울대학교 시위 선언문에서도 전남대학교의 교육지표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지표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당시 유신독재 체제 하에서, 부당하게 침해받는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민주회복 운동이자 민주투쟁의 한 결단이었다. 민주운동으로서 교육지표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첫째 그동안 신성시 되어온 국민 교육현장에 대해 처음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여 사회에 공론화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유신독재 체제 하에서 최초로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연대하

90)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신일섭 박병기, 『교육지표사건의 역사적 의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단, 2008, p. 52.

여 민주주의와 민주교육을 위하여 저항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양병우 교수 말에 따르면 “교수들이 정권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는 나치 치하에서 한 건 있었고 교육지표 사건과 같이 적극적인 저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⁹¹⁾. 그 전에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단체에서 서명한 사건은 있었으나 교육지표 사건처럼 현직 교수들이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 대학에서 집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던 만큼 사회적 충격과 파장도 컸다. 셋째,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 이후 침체된 대학의 학생운동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의한 가혹한 탄압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고, 민청학련 사건 이후 더욱 침체되었다. 더구나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실의 부당함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었으며,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었다는 점은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이후, 서울의 재야 및 종교단체, 사회운동단체, 각 대학들의 학생운동에서 지지성명과 시위가 잇따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넷째, 대학교수에 의한 교육지표 선언은 광주지역 사회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을 더 한층 성장시키고 결집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뒤에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 계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역 민주화운동 세력과의 연대가 강화되었으며,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생각된다.

다른 측면에서도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교육지표 선언은 분명 그 당시 사회에 큰 관심과 충격을 주었다. 교육지표 선언은 교육자적 입장에서 매우 온건한 내용이었으며 주장이었다. 3·1기미독립선언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 선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듯이, 교육지표 선언도 살벌한 유신독재 체제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비판하고 저항하는 선언을 하였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민주화운동은 어두운 시대를 깨부수기 위한 용기 있는 실천이었으며, 결코 부정되거나 폄하될 수 없는 고귀한 인간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6월의 ‘교육지표 사건’도 한국의 민주화운동사 차원에서 항상 새롭게 평가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91) 전남대학교 50년사 출판위원회 편, 『전남대 50년(1952~2002) 남기고 싶은 이야기; 송기숙의 교육지표 사건 전말』,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다음은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33주년 기념식 자료집에 실린 ‘교육지표 사건’ 관련자의 형사판결문 및 공소장을 논문의 내용에 맞추어 일부 발췌하였다.

1968년 12월 5일 제정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은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민주정신에 토대를 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978년 5월 16일 21:30경 광주관광호텔에서 동 호텔에 투숙 중인 반체제분자인 연세대학교 탈락교수 성내운과 접선 동인에게 평소 동인과 주고받았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교육헌장과 현재의 교육제도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작성하여 광주 및 서울의 각 대학교수의 찬동 서명을 받아 문교부 및 유관기관과 내외 언론계에 배포할 것을 공포하고, 동년 6월 12일 22:00경 광주시 소재 청명여관 특호실에서 동 성내운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기초한 “우리의 오늘날 교육의 실패는 교육 안팎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일치를 이룩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에 우리의 교육이 뿌리박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바로 그러한 실패를 집약하고 있는 본보기이다”,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에 의한 제정경위 및 선포절차 자체가 민주교육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 “지난 날에 세계역사 속에서 한때 흥하는 듯하다가, 망해버린 국가주의 교육사상을 질게 풍기고 있는 것이다. 부국강병과 낡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조상의 빛난 얼굴 찾는 것은 잘못이며 민주주의에 굳건히 바탕을 두지 않은 민족중흥의 구호는 전체주의와 복고주의의 도구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권력에의 순응을 조장하고 정의로운 인간과 사회를 위한 용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실천이 결핍된 채 민주주의보다 반공을 앞세운 나라는 다 패배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 (제목 우리의 교육지표) 1부를 교부받아 동년 6월 13일 09: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연구실에서 타자기를 사용하여 3부를 은밀히 타자하여 그 시경부터 동월 21일까지 사이에 전남대학교 문리대 영문과 부교수 명노근, 조교수 이흥길을 비롯하여 안진오, 김현곤, 이방기, 배영남, 홍승기, 김두진, 김정수, 이석연 등 교직원 10명의 찬동 서명을 받아 전후 3회에 걸쳐 전시 성내운에게 전달 동인이 그 시경에 이피(AP)합동 통신사 일본국 아사이 신문사 및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 이를 배포함으로써 마치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선포 과정에서 행정부 독단으로 추진하고 내용에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는 양 사실을 왜곡하는 내

용의 표현물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한 것이다.

-송기숙(전 전남대 교수) 공소장-

1978년 당시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교수로 서명에 참여하여 연행되고 해직되었던 홍승기 교수의 회고의 글은 당시의 사회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서 점차 학교에서 안온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학생들에 대한 유신정부의 감시가 점차 그 심화되어 가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학생감시는 주로 학생지도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관철되고 있었다. 그 제도를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 교수였다. 나 역시 그러한 제도를 마주하면서 그것을 이끌어갔던 교수의 하나였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수에게는 학생지도가 커다란 임무의 하나이다. 교수에게는 지도학생이 배정되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에 학년이 단위가 되어 배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내가 전남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의 내용이였다. 학생지도는 학사지도가 주를 이루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지도는 대개 학생의 정치적 태도를 친정부적인 것으로 순치시키는 데 초점이 모아졌었다.”

“어느 교수에게 지도가 맡겨진 학생이 반정부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면 교수는 그 학생의 사고와 행동을 친정부적인 것으로 유도해야 하였다. 학교당국에 요주의 인물로 명단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는 더욱이나 철저히 지도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반정부적인 행동을 못하게 막아야 하였다. 당시에 한국 대학은 모두가 그러하였다. 전남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학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순치시키는 곳일 수는 없다.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민주교육인 것이다. 1970년대 유신 치하에서 이루어진 대학교육은 이 점에서 민주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정부적 성향의 학생을 계도시키는 일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학생지도제도는 1970년대 한국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학생지도제도는 대학의 학생처 소관이였다. 교수는 학생처의 지시를 따라서 학생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학생처에 보고하여야 하였다. 전남대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지도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정부적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도가 교수--(학생과장)--학생처장-

-총장으로 이어지는 누층적 구조 안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학생의 지도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책임진 이가 교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와 구조가 기능하도록 실제적인 힘을 행사한 것은 유신 정부였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학생처의 일반적 기구 이외에 장학관실이 따로 있어서 학생지도에 관여하였다. 게다가 중앙정보부와 경찰이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에 간여하였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학생을 정치적으로 순치시키는 일을 좋아할 교수는 실상 아무도 없었다. 학생지도를 실제 맡아서 시행에 옮겨야 하는 일반 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형식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던 교수들마저도 학생지도에 마지못해 나섰을 따름이다. 그러나 당시의 유신독재 아래서 학내의 교수들은 너나할 것 없이 그러한 제도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놓고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단지 스스로의 무력감에 괴로워하였을 뿐이다.”

아래는 교육지표 사건 참여자의 회고담이다.

학생운동에 기름을 끼었다: “나는 76학번인데요. 76년도에 인문사회대 입학해 2학기부터 ‘민청⁹²⁾’ 선배들이 지도하는 의식화 학습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맨 처음에 같이 공부한 사람이 윤상원, 노준현, 김윤기, 그리고 김상운 민청 선배 그렇게 몇 명들이 모여 이른바 ‘의식화’ 학습을 했죠. 그 때 ‘민청’ 일부 선배들이 학생들 의식화 학습 담당이 있었고 밖에도 재야 종교계 쪽 그때에는 종교 쪽이 켜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이 있었고, 농민운동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대별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김상운 선배가 ‘녹두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김상운 선배 그 쪽 분들과 같이 아까 거명한 사람들하고 책들을 읽었어요. 『전환시대의 논리』⁹³⁾, 농촌문제,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문화일반, 우리나라 역사, 경제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막노동도 하고, 그때의 우리들 주로 이야기 된 부분들이 이런 학교 다녀서 뭐 하느냐 민중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학원이 병영화 되어 있는데 이제 대학생 지식인의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혁명적 분위기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

92)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

93) 리영희(李泳禧 : 1929.12.2~2010.12.5)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1974년 6월 창작과비평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현대사와 국제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고전적 사회계몽서로서, 몇 해 뒤 출간된 선생의 또 다른 저서 『8억인과의 대화』와 『우상과 이성』과 함께 당시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혔다.

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시위를 한번 해야 한다. 빨리 기록권을 버리자 그런 것들이 강박관념처럼 계속 공부하면서 따라다녔죠.”⁹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학생운동을 대비해 꾸준히 유지되어 왔음을 다양한 증언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김상운 선배가 운영하는 녹두서점과 김남주 선배 등이 진행하는 공부랄까 학습이랄까 그런 그룹이 여러 개 있었다. 그때 광주지역 특히, 전남대 씨클 중에 기억나는 게 ‘독서잔디’, ‘루싸’, 70년대 초반에 교양 독서회. 이 외에 드러나지 않고 이름 없이 공부하는 그룹들이 상당수 있었다. 주로 녹두서점 주변에. 그리고 77년도, 78년도 이미 여러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박몽구라든가, 김상집이라든가. 나는 김남주 선배가 진행하는 ‘파리꼬뽀’ 모임에 참여했다. 그게(‘파리꼬뽀’독서모임) 77년인가, 78년도 상반기 6월인가 경찰에 발각되어서 우리 모두 연행되었다. 그때 남주 형은 도피를 했고 우리는 중앙정보부 전남지부 가서 2~3일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다. 나는 그 무렵 삶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특별히 목표를 정해 놓지 않은 채로 대학을 다녔고 그러다가 휴학도 하고. 당시는 김상집을 통해 김상운 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맨 처음에 본격적으로 팀을 이뤄 공부를 했던 것이 지금 여기 중흥동인데 사례지오 고등학교 뒤쪽 상운 형 자취방에서 모여서 모임을 짰다. 그때 함께 했던 애들이 송재형, 류재향, 박동석, 김선출, 김윤기, 그리고 상운 형이 쪽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

“김남주 선배가 주도하는 ‘일어 학습팀’이 일본어 기본을 마치고 일어판 사회과학 서적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정용화를 비롯하여 전남대 영문과 4년 박현옥, 이화여대 출신 정유아, 민청학련 출신 성찬성(전남대 제적), 최권행(서울대 제적), 서울사대 영어교육과 휴학생 김현준(정용화의 광주일고 동창), 노준현(6·29시위 주모자), 안길정,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조봉훈, 박몽구, 김선출, 김윤기 등이 있었다. 이 모임은 결국 일어판 ‘파리코뽀’를 공부하다가 들통이 나서 1978년 2월 말경에 모두 당시 화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에 끌려가 3~4일씩 곤욕을 치루고 나왔다. 이러한 과정

94) 김선출(1978년 전남대 사회학과 3년).

에서 자연스럽게 이 팀은 ‘파리코윈팀’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는데...”⁹⁵⁾

“물론 김상윤 선배도 많은 스터디그룹의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역사·문학·사상사·경제학 등의 분야에 대한 공동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억나는 것으로 조용범의 『후진경제론』,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박현채의 『민중경제론』 등 국내에서 판매금지 되거나 그에 준하는 책들을 구하여 주로 읽었던 기억이 지금 새롭다. 노준현 동지를 가장 많이 만났던 까닭도 이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다.”⁹⁶⁾

또한 지역의 활동가들은 학원의 시녀화와 신민화를 규탄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전대는 사회공부를 하는 씨클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당시에는 ‘루사’(RUSA)⁹⁷⁾하고 ‘독서잔디’가 구성됐는데 ‘루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기승 선배가 만나면서 그랬던 거 같고. 한국 근대사부터 노동조합 문제, 『후진국 경제론』⁹⁸⁾ 요런 책들을 쭉 봤는데, 조영범 선생이 썼던 책 『후진국 경제론』의 머리말에서 ‘후진국 민족 해방’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 될(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할) 방향이 딱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사회의 역사적·경제적 모순이라든가 앞으로 해결방안,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리고 79년도에 (박)병기형, (신)영일이를 만나면서 어떤 조직 속에서 사람들이 커나가면서 운동이 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당시 나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이나 요런 쪽은 관심을 안 가져야겠다 사회운동 쪽으로 일을 모색하는 데만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81년도에 특사(특별사면)로 나왔는데 바로 82년도부터 학생운동 쪽도 활발히 되고 당시에 교도소에서 함께 나왔던 상집이나 (진)용호 등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노동운동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자 요렇게 했죠.”⁹⁹⁾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오월광주항쟁의 사상적 자양분 되었다.

“나는 당시 교육지표사건에 대한 의미를 교육적 관점보다는 반독재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것이 참다운 민주교육의 초석

95) 노준현추모문집발간위원회 엮음, 『남녘의 노뚝돌 노준현』, 미디어민, 2006, p. 58.

96) 앞의 책, p. 58.

97) ‘루사’(RUSA)는 Reading Understanding Study Association 약칭이다.

98) 조영범, 『후진국 경제론』, 박영사, 1975.

99) 노준현(1978년 전남대 공대 화학공학과 2년).

을 닦기 위한 사상, 즉 진짜 훌륭한 운동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 지금도 교육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글입니다. 당시 그런 훌륭한 글을 발표해낸다는 것은 진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일이지요. 모든 운동은 고조기와 침체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6·29 전에는 상당히 침체기였습니다. 그 때 민청학련 사건 이후로 학생들도 침체되어 있었고 시국도 독재정권에 꼭 눌러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6·29 사건은 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이었고 또 운동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큰 활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78, 79년 계속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사건은 5·18 민주화 운동의 사상적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운동에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했지 않았나 생각해요.”¹⁰⁰⁾

1978년 교육지표는 무려 24명 학생과 1명의 교수가 구속, 제적·해임되고 10명이 무기정학을 받는 큰 사건이었다.

“제가 보건데 80년도 과정과 78년도 과정이, 물론 질과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유사한 것도 많아요. 80년도 전남대 복학생과 총학생회는 4월경에 ‘어용교수 퇴진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어용교수 퇴진운동은 78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78년과 80년에도 도서관 점거·농성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백도 중앙도서관 앞, 5·18광장이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고, 78년 6월 30일에 학교가 휴교하니까 정문 앞에서 경찰과 다투다가 시내로 진출하고, 80년에는 5월 14일에 정문을 뚫고 시내 진출하고 5월 18에는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휴교령으로 정문 앞에서 최초로 시위가 전개되어 78년의 그 코스로 시내 진출이 시작되면서 계엄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으로 교수님이 78년에 앞장서시고 80년에도 교수님들이, 시내에 5월 15일이죠, 같이 평화적인 행진하셨고 5·18항쟁에 참여하시고, 78년에도 당시의 재야 어르신과 종교계 등이 연대했는데 이것은 80년에 더욱 광범위한 연대 투쟁의 길을 열었다고 봐요. 78년 4월 말경에 아마 북동성당에서 함평고구마투쟁 때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연대했어요, 80년 5월19일에도 북동성당에서 가농 주체로 전국 가톨릭농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연대 투쟁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또한 78년 교육지표에 관련하여 구속되어 해임 또는 제적당한 교수나 학생 다수가 5·18항쟁과

100) 신일섭(1978년 전남대 사학과 3학년).

관련하여 내란 및 계엄법 위반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데 특히 송기숙·명노근 교수와 정용화·노준현·안길정·김선출·김윤기·박몽구·문승훈·양희승 등은 다시 구속되고 말아요. 결국 78년 교육지표를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의 학생운동권과 해직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 민청학련 등의 청년운동가, 기독교·천주교 등 종교 단체와 변호사·정당인 등 사회 지도층, 농민·노동운동 단체, 문화예술인 등의 연대가 강화되고 민주·민중운동의 부분별 분화가 가속화되면서도 조직화되어 곧 다가올 5·18항쟁의 밑거름으로 발전해갔다고 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¹⁰¹⁾

당시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모든 투쟁은 선행적인 훈련과 조직에 의해 가능해짐을 인식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지표 투쟁이 오월광주항쟁의 선행 학습이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번 부딪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해산이 되더라도 완강하게 다음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년 5·18때에 군대가 학교를 장악하고 정문을 봉쇄했을 때, 2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예정시위를 해봤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유독 광주가 저항의 불씨를 키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시위를 해본, 그것도 완강하고 끈질긴 시위라는 선행학습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위를 준비하고 참여했던 수많은 인자들과 학습씨클이나 야학팀과 같은 소씨클과 광주라는 좁은 도시에서 상호간의 활성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리드할 수 있는 윤한봉 형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애석하게도 이강 형 등은 당시 감옥에 있었지요)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발적인 시민항쟁의 전부에 대한 지도력은 발휘하지 못했지만 윤상원, 박관현, 신영일 등의 들불 야학팀이 선전 선동작업은 물론 항쟁지도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 투쟁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면, 교육지표사건은 5월항쟁과 관련하여 10월 혁명의 예행연습으로서의 2월 혁명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¹⁰²⁾

이상의 증언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신체제의 말기에 주로 종교와 학원가

101) 문승훈(1978년 전남대 국사교육과 3년).

102) 박석삼(1978년 군 제대 후 휴식 중).

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의제를 개발하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월광주항쟁의 인지적, 조직적 토대가 점차 강화되어 왔던 것이다.

3) 유신체제 몰락 후 민주화운동

(1) 학생운동

유신체제의 몰락은 우리 지역 학원가에 큰 정치적 기회구조를 양산하였다. 우선, 전남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979년 전남대 캠퍼스는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로 긴장이 가득 찬 상태였다. 그 해 6월경부터 10·26 박정희 저격 정변사건이 나기까지 대학에서 시국선언문 제작배포사건과 유신헌법반대취지의 편지발송사건, 유신헌법반대 강의실 낙서사건¹⁰³,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

1979년 6월 13일. 전남대 장석웅·조순형·신민정·이세천·박병기는 박병섭, 박순, 김경희와 함께, “학우여, 우리는 오늘날의 민족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말할 수 있을까? 소위 반공과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주학생 시국선언’ 유인물을 작성하여 6월 14일에 전남대 구내에 배포하였다.¹⁰⁴

103) 피고인 신민정은 위 박병기와, 동년 9. 26. 08:30경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3층 화장실에 “우리 모여라 하나가 되자. 9. 27. 오후 2시 도서관 앞에서”, “시대의 부름 외면 말자 민중의 요청”, “무너뜨리자. 전대 여학생들은 각성해야 한다” 동년 9. 27. 11:10경 전남대학교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 “드디어 시대가 요청하는 때가 왔다. 오후 2시” 동년 9. 27. 11:50경 전남대학교 학생회관 여자화장실에 “민중의 부름, 시대적 요청을 외면말자”고 각기 적색 매직펜으로 낙서하여 시위를 선동하는 등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를 반대, 비방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할 것을 예비 음모함.

104) 피고인 신민정은 공소 외 박병섭, 동 유00, 동 박순 등과 공모하여, 1979.6.13. 21: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동구 소재 유00의 자취방에서 “민주학생 시국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학우여, 우리는 오늘날의 민족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말할 수 있을까? 소위 반공과 국가 안보라는 미명아래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의 획일화되어 온 세뇌교육과 물질적인 유혹으로 조정되어 왔기에 진실한 아(我)를 모르는 채 19년 동안 1인 정권하에서 벗어나야 할 절실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중략)… 학원의 민주화 등을 위하여…(중략)…학생 아닌 학생, 어용교수, 형사들을 고발, 물리치고 학생회 부활 등의 학내의 자율을 위해, 그리고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계속 선언문, 벽보, 낙서 등으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선언한다. 1979.6.14. 전남대학교 민주학생일동”이라는 학생들의 불법행위를 선동하여 정치에 관여하는 내용의 표현물 초안을 작성하여 16절지 갱지 약 160매를 유00가 등사하고 박병섭, 박순, 김경희 등이 익일 전남대학교 구내에 살포하여 이를 배포함.

2학기가 되자 이세천, 장석웅, 신민정, 조순형, 최영추, 윤만식 등 학생운동권은 유신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들은 9월에 개최되는 축제 중 탈춤 공연 혹은 10월의 씨클 대항 체육대회 때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학생씨클 90여개 중에서 시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씨클을 선정하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9월 17일 인성다방에서 11개 씨클 회원 48명을 참석시켜서 탈춤 공연일이 9월 27일에 있으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 알렸다.¹⁰⁵⁾

9월 18일 장석웅, 이세천, 신민정, 조순형, 박순, 윤만식, 최영추, 임주형 등이 모여 헌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나 시위를 선동하는 ‘대구대학생협의회 드림’의 편지를 작성, 발송하였다. ¹⁰⁶⁾

10월 17일 밤, 전남대학생 고희숙, 박유순이 유신독재정권을 반대한다는 상징적 표시로 당시 전남대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공간이었던 전남대 상담지도관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으로 고희숙, 박유순, 신영일이 구속되었다.

그 사건들은 한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이 터지자 수사관들이 소위 수십명의 문제학생들을 연행하여 매타작은 물론 물고문과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차마 못할 성추행 고문까지 자행하여 결국 입을 열게 만들

105) 피고인 이세천, 동 신민정, 동 조순형과 공소 외 박병섭, 동 윤만식, 동 최영추는, 동년 9. 8. 21:00경부터 익일 10: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서구 유덕동 소재 최씨 제각 내에서 정부시책을 상호 비판하면서 학생시위를 주도할 책임자에 공소 외 윤만식, 연락책임자에 피고인 신민정과 공소 외 박병섭을 정하고, 동조 세력 규합을 위하여 피고인 이세천은 종교계인사를, 동 신민정은 사범대학 서클을, 동 조순형은 농과대학 씨클을, 공소 외 윤만식은 전통극 연구반을, 동 박병섭은 아카데미회를, 동 최영추는 농대 한농회를 각기 책임지고 9월의 축제 중 탈춤 공연시 또는 10월의 씨클 대항 체육대회 시에 시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장석웅, 동 이세천, 동 신민정, 동 조순형은 전남대학교 학생씨클 90여개 중에서 피고인 장석웅이 시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 적극 참여할 가망이 있는 11개 씨클을 선정하여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동년 9. 17.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동구 풍향동 소재 인성다실에서 전통극 연구반의 10개 씨클회원 48명을 참석시켜서 피고인 이세천이 전통극 연구반장 김경희를 시켜 탈춤 공연일이 9. 27. 14:00이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 학생들을 유도함.

106) 피고인 장석웅, 동 이세천, 위 박병기 등은, 동년 9. 18. 22:00경 박병기의 자취방에 모여 피고인 장석웅이 준비해온 원지에 초안 필경된 내용을 3명이 함께 읽으면서 검토한 끝에 발신인을 ‘대구대학생협의회 드림’으로 추가하고 동일 24: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 피고인 박병기와 동 장석웅은 제1항의 등사기를 사용하여 16절 갱지에 이를 등사하고 피고인 이세천은 그 유인물을 동 장석웅이 준비해온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는 등 하여 헌법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나 시위를 선동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강원대, 계명대 등 학생들의 대통령 긴급조치9호위반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피고인 장석웅, 상피고인 박병기(분리)는 동년 9월19일 09:00 광주고속버스 광주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11:00경 진주에 도착하여 시내 우체통에 5-10매씩 약 100매를 투함 발송하고 다시 하동과 구례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0매씩 도합 270매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학년 공OO 외 269명에게 우송하여 전시 표현물을 배포함.

어 대부분의 사건들이 밝혀지고 말았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악랄한 강압적 고문수사 사건이기도 하는데 이는 형사 판결문과 재심 청구문 등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한편, 1979년 전남대학교 사범대 3학년 재학생이었던 고희숙은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었는데 아래 재심청구서는 당시 학생운동가들의 역사적 인식과정과 실천동기, 그리고 다양한 활동 공간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1.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 "본 재심 청구인은 1979년 10월 당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북도 일대 군부대에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류를 납품하는 군납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운영 자금이 넉넉지 않아서 늘 사채를 끼고 사셨지만 저희 7남매(4남3녀, 저는 넷째였음)는 큰 경제적 고통 없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78년 5월경에 같은 과의 친한 친구였던 김정희의 소개로 당시 역사교육과 3학년이었던 박기순 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언니와 함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처한 모순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차츰 학생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그 해 6월 전남대 교수 11분의 민주교육지표선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전원 연행되자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매일 계속 되었는데 저는 그 시위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 12월 박기순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저는 언니가 몸 바쳐 헌신했던 들불야학이란 곳이 있음을 알았고, 언니의 빈자리를 나라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들불야학의 강학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학교와 경찰들의 끝없는 감시와 탄압, 협박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납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군납권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는 말에 온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저를 극구 만류하였고, 학교 당국과 경찰의 협박과 감시도 더욱더 심해져 가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저녁에는 들불야학 강학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학교에서는 민주교육지표 사건의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기독교학생회의 후신이지만 겉 이름만 성경연구모임이라고 바꾼 의식 써클에 가입하

여, 머리보다는 발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참된 지식인의 역할이라 믿으면서 즐기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좋아하는 친구인 박유순을 만난 것도 이성경연구모임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노동해방 세상에 대한 저의 신념과 의지는 이렇게 커져 갔고 굳어져 갔습니다."

2. 긴급조치 9호 위반 및 방화 사건의 경위 : "1979년 10월,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 통치는 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YH 사건, 동일방직 사건, 부마항쟁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동요하였고, 이것이 전국적인 학생 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찰들의 감시도 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남대 내에도 수많은 형사들이 교내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긴급조치 9호와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 탓에 학내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대형 사건들이 뱅뱅 터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말보다는 행동을,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 중시 여기던 저는 모두들 그저 입으로만 현 상황을 개탄하고 걱정하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대로 눈치만 보면서 조용하게 10월 유신 선포 주기를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저항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며 교내 운동권은 은밀하게 접촉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분위기를 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곳곳의 남·여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벽이나 문 등에 '유신철폐, 박정희 타도' 등의 구호를 낙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조용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유순에게 평소 형사나 기관원들이 늘 상주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감시하여 많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상담지도관실에 방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무렵에 '리벤저'라는 외국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방화 장면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상담지도관실의 방화는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아오던 유신 독재의 주구들에 대한 상징적인 응징임과 동시에 유신정권을 타도하고자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유신 반대 시위가 촉발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박유순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우리 둘은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방화 계획을 짰습니다. 방화가 얼마나 강력한 범죄인지 그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상담지도관실에 대한 상징적인 응징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밤에 마침내 방화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남대는 발각 뒤집혀졌고 방화범을 찾느라 혈안이 된 경찰들에 의해 거의 모든 운동권 학생들이 10월 18일부터 광주 서부경찰서로 연행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10월 18일에 서부경찰서로 붙잡혀갔습니다. 경찰도 처음에는 여학생의 행위라고는 생각을 못했던지 남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남학생들이 참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일 똑같은 진술서를 수없이 반복해서 쓰면서 갖가지 협박과 취조를 당하던 중 5일(?)쯤 지난 저녁 무렵에 5-6명의 형사들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나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저는 무수히 발길질을 당했고 이어서 유순이와 공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어떤 형사 하나가 내 앞에서 자신의 oo을 내보이면서 "순순히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면서 성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고 끔찍스러워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저와 유순이 단 둘이서만 방화에 가담했다는 저희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남 광주의 운동권을 아예 싹쓸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2의 남민전 같은 가상의 조직체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그린 그림대로 조직원들을 짜 맞추기 위해 고문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 나갔습니다. 당나귀처럼 몸을 묶어 의자에 거꾸로 걸쳐놓고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설 새 없이 물을 들이 붓는 물고문이 계속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꿇어 앉혀놓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계속해서 구타하면서 누가 조직책임지, 누가 그 일을 우리에게 시켰는지 순순히 말하라고 하면서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버티었으나 물고문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하는 수 없이 경찰들이 선배들의 이름을 대면서 "000이 시켰지?"라고 하면 "시킨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다"라고 대답하여 간접 시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순진하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전혀 관계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선배들이 경찰서로 끌려 들어와 갖가지 고문을 당하고 있음을 듣고 저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정말 죽고만 싶었고 고문을 당했을 때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온 지 열흘 쯤 되었을 때, 연일 계속되던 고문과 취조가 갑자기 딱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약

2주를 보낸 뒤 저와 유순이는 광주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고, 당시 인권 변호사이셨던 고 홍남순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저희들을 도와준 덕분에 총 구금 45일 후 금 보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2심까지 하였는데 징역 1년 6개월, 집행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둘째, 조선대 학생운동은 전남대학교에 비해 늦게 태동하였다.

조선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이 늦게 태동한 이유는 조선대 사학재단이 유신독재정권 보다 더 심하게 학생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김운기가 관련되지만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재학생들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조선대 학생운동은 1977년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다. 조선대학교 학생운동가들은 김상윤의 녹두서점이나 김남주 시인의 카프카 서점의 사회과학 서적 학습과 기독교청년회 활동, 조선대 기독교학생회, 탈출반 등 다양한 활동과정을 통하여 배출되었다. 조선대 학생운동은 사학재단의 눈을 피하여 합법적인 서클이 아닌 지하서클로 활동하였다.

1978년 당시 조선대에서 활동했던 그룹들은 국문과, 치대, 약대, 법대 그리고 탈출반, 기독교학생회 등이 있었다. 국문과로는 김부수, 조영욱, 김치성, 박병성, 김석도, 그리고 치대는 김무영, 한국재. 약대는 이명희, 류소영. 법대는 김용출, 오익재. 정외과는 양희승, 위승량, 그리고 탈출반으로 신현경, 권광빈. 이 그룹들은 주로 언더 그룹이었다. 그 해에 박형중, 이명희, 양희승, 위승량 등 30여명이 광주YWCA 소심당에서 모여 기독교학생회(KSCF)를 창립하였다.

1970년대 후반 유신독재정권에 반대운동을 하였던 양심적 기독교 신앙인들의 저항운동은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당시 조선대 학생운동의 선도 그룹에 속하는 박형중의 기록에 나타나있다.

“1977년에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으로 장흥 임기준 목사님, 무안 조용래 목사님 그리고 강진 윤기석 목사님, 목포 강신석 목사님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무렵 저는 장흥에 있었는데, 당시 목사님 구속이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회, 교회에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장흥, 강진, 영암에 한국 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장흥, 강진, 영암 청년 연합회(약칭, 장강영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제가 장흥에서 부회장을 맡으면서 <장강영> 연합회 활동을 활

발히 하게 됩니다. …(중략)… 목사님들 재판이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청을 많이 했죠. …(중략)…당시 조대 상황이 박철웅 체제여서 거의 뭐- 학생운동의 맹아가 싹 틀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선배로, 민청에 관련됐던 김운기 선배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김현장(부산 미문회원 방화사건 관련자)씨가 있었는데. 김현장 씨 같은 경우는 ‘무등산 타잔 박홍숙’이라는 르포를 기사화해서, 당시 철거민들의 문제를 사회화시켰던 하나의 중요한 글을 남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셨죠. …(중략)… 조대에서는 기청(기독교청년회)활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유신 때라서 조금 의식 있는 표현이 불가능한데, 어떤 모임을 합법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였죠. 교회 중에서도 한국 기독교장로회, 광주에서 말하면 은명기 목사님이 계셨던 양림교회. 78년도 YWCA 소심당에서 약 30여명이 기독교학생회를 조직했는데, 그 때 저하고 이명희, 양희승, 위승량 등 30여명이 기독교학생회를 조직했어요. 당시 학내 씨클로 등록을 하려면 지도 교수를 선임해야 하는데, 당시만 해도 누가 지도교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 등록 단체가 될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언더 스터디(under-study, 비합법) 그룹으로 활동 했고요.…(중략)… 저는 주로 기독교청년회 장강영 연합회 활동을 했었고, 목사님들이 석방 되시고 나서는 광주에 올라와서 EYC 운동이라고, 에큐메니칼(ecumenical)기독교 청년운동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교회 활동은 단순히 선교활동이라기 보다는, 학생 운동이나 사회 운동이 워낙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활동들을 열심히 했었어요. 78년도에 조봉훈이라는 친구가 EYC 광주 전남 회장을 맡을 때 내가 총무를 맡아서 EYC 활동을 하고 그리고 조대에서는 조대 기독교학생회 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무렵 강신석 목사님이 목포에서 올라오셔서 YMCA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성서연구회를 조직하는데, 초창기 멤버로 참여했었고, 그것이 지금 무진교회의 모태가 됐죠. 함께 했던 사람이 이세천, 임영희, 노준현, 조봉훈, 김영수 그리고 저, 양희승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조선대 학생운동가들은 전남대학교 및 광주지역 민주화운동 조직과도 다양하게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1978년 봄의 함평 고구마보상투쟁 단식농성에 박형중이 참여하고 6월의 전남대 교수들의 민주교육지표 선언과 6·29학생 지지시위 사건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5월 14일 양희승, 유재도 등이 박형중과 전

남대 조봉훈, 노준현과 협의하여 조선대 본관 계단 등에 ‘유신독재타도’라고 페인트로 크게 쓴 사건을 일으켰다. 전남대 민주교육지표 선언, 6·29학생 지지시위 이후 조선대에서 박형중과 5월 14일 조선대 본관 페인트 시위사건의 양희승, 유재도와 김용출의 4명이 7월 3일 민주학생 선언 시위사건을 일으켰다¹⁰⁷⁾.

7월 3일 민주학생 선언 시위사건은 조선대의 조직적인 학생운동으로는 최초였다. 김운기가 민청학련 조선대 책임자로서 활동을 할 때도 아마 그 뿌리를 내리긴 힘들었고, 김현장은 조직적인 활동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조선대학교 ‘성서연구회(기독교학생회)’하고 ‘탈춤반’ 등이 조선대학교 운동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6·29전남대 민주교육지표사건’을 통해서 7월 3일 조대에서 네 명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조대 학생들에게 준 충격은 굉장히 컸다. 그 후 조선대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에게까지 미쳐서 이후 양심적인 민주 교수들도 많이 나타났다. 조선대 학생운동은 대학가의 현안을 중심으로 대학당국을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일상적 실천운동에서부터 ‘민주교육지표’를 지지하는 선언 등 점차 정치적 이슈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청년·문화운동

광주 전남지역 청년 문화운동은 전남민청련, 현대문화연구소, 문학활동, 양서협동조합운동, 들불야학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전남민주청년협의회는 민청학련 출신 활동가들이 1975년 2월 15일 석방이후 ‘광주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해오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들이 양산되자, 1978년 전남민주청년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107) 박형중의 재심청구자료, “7월 1일 제가 광주로 올라오죠. 광주로 올라와가지고 그 때 그 조대 페인트를 사건을 일으켰던 유재도와 양희승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 움직임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최철 선배 집에 있었던 김용출까지 네 명에서 탐을 꾸리게 됩니다. 그 때 인제 그 양희승이라는 친구가 그 때 유엔 학생회(운사, UNSA)를 하고 있었는데 양희승이 운사에서 쓰는 가리방(인쇄)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7월 1일 양희승 집에서 조선대학교민주선언문과 조선대학교 당국에 보내는 걸로 해서 ‘박철웅의 전횡과 횡포,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용교수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등사작업을 합니다. 7월 2일에 결단식을 한다고 지산유원지를 올라갔다가 3일 조선대학교 민주학생 선언문을 본관건물 4층, 5층 강당에서 제가 낭독을 하고 나머지 세 명은 그 때 내 옆에 누가 있었나? 양희승이 아마 내 옆에서 같이 있었고 두 명은 전단지들, 선언문을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다 현장에서 세 명은 잡히고 한 명은 도망갔다 나중에 유재도는 서울에서 잡혀 왔는데요.” 『민주화운동자료집』.

는 조성우, 양관수 등의 ‘민주청년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민청학련 사건 활동가들은 단순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넘어 민족 통일의 문제와 농민들과 산업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사회 변혁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과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변혁과 투쟁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실체적 역사적 발견이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활동가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부문별로 포진해서 활동을 벌였다. 농민운동에 이강, 정상용, 박형선 등이 노동운동에 이양현, 최연석 등이,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에 나상기, 최철 등이, 학생운동 지도에 김상운, 김운기, 김정길 등이 맡아 활동하였고, 전체적인 연결을 위한 청년사회운동 부문에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윤한봉, 정용화, 임영희 등이 활동하였다. 아울러 각 부문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서 활동하였다. 민족자주통일운동은 물론이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교사운동, 종교적 부문운동 등 여러 부문에 관여하고 참여하였다.

원래 문화운동이란 문화예술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운동이란 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문화운동은 1970년대 중반에 태동하기 시작했다. 1979년 초반 현대문화연구소가 윤한봉을 1대 소장으로 광주시 동구 장동 소재 연합빌딩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현대문화연구소는 서울과 광주의 민주화운동 관련 정보교환과 여러 부문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청년사회운동은 물론 문화운동의 태동과 지원을 위해 활동하였다. 현대문화연구소 근처에 김상운이 운영하는 ‘녹두서점’이 있었고, 광주YWCA에 장두석, 문병란 시인, 황일봉 등이 주도하는 ‘양서조합’이 있었다.

당시 조아라, 이애신, 김경천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광주YWCA는 광주전남지역 재야운동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에 비해 광주YMCA는 조금 거리를 두고 활동했다. 현대문화연구소는 호남전기(현 로케트전기), 전남제사, 남해어망, 들불야학, 백제야학 등과 가톨릭 농민회나 기독교 농민회 행사와 교회 및 성당의 관련행사에도 지원을 하였다. 황석영, 김남주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윤만식, 박효선, 전용호, 김선출, 김윤기 등이 주도하는 문화운동에도 지원하였다.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홍남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세력과 그 산

하 ‘민주헌정동지회’ 등과의 소통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 여성으로 구성된 구속자 옥바라지 모임인 ‘송백회’의 창립을 주도했으며, 양서조합운동 등 각종 부문운동의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문화운동의 출발은 문학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유신독재 체제가 굳어져 가는 1975년 2월 광주시 대의동 옛 광주YWCA 강당 구국기도회장에서 중앙여고 교사 양성우 시인은 ‘겨울공화국’을 발표함으로써 1970년 5월 김지하 시인의 ‘오적’, ‘비어’에 이어 두 번째로 필화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 후, 학교에 파면을 당한 양성우 시인은 1977년 일본잡지 ‘세계’에 ‘노예수첩’을 발표하고 수감되었다.

1970년 중반에 문학인들의 사회참여가 필연적으로 대두되었고, 집단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가 결성되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 광주·전남 출신 문인들로는 박봉우, 문병란, 송기숙, 조태일, 이성부, 김남주, 김준태 등이 참여하였다.

1978년, 김남주 시인이 살고 있는 전남 해남으로 소설가 황석영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 당시 해남은 농민운동의 기운이 크게 일어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들은 청년운동을 감당하고 있던 윤한봉과 농민운동 활동가 등과 연결되면서 정치적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이 더욱 대중적이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양식의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전남대를 비롯한 조선대 등에서는 탈춤반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서울의 채희완(탈춤), 임진택(판소리), 김봉준(민중미술), 유인택(연극반) 등이 광주에 들락거리면서 탈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978년 봄, 광주·전남에서는 최초의 대학탈반 ‘민속문화연구회’가 전남대에서 창립하였다. 전남대 문화운동 팀들은 그 해,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아 잠시 주춤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후속 주자들이 중심에 서서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전남대 탈춤반의 등장과 함께 오랜 전통이 있는 기존의 연극반, 국악반 등도 순수 예술에서 벗어나 현실사회에 관심을 두는 리얼리즘 작품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학에서 시작된 문화운동의 싹은 연회패로 옮겨 갔고, 급기야 미술, 노래 등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에 자극을 주어 현장 중심의 리얼리즘 연회예술이 폭발적으로 위력을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1970년 중후반,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의 활동가들은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에서부터 『8억인과의 대화』까지를 섭렵하면서, 중국공산화 과정에서의 대중혁명 전술에서 문화운동이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음을 인지하였다. 1970년대 후반의 문화운동은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져갔다. 문화예술인들과 청년학생운동의 활동가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화운동은 정치사회운동의 문화선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

실례로 1978년 11월 광주 계림동 성당에서 가진 ‘전국쌀생산자대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5백여명의 농민들이 운집했다. 전남대 탈반과 연극반이 모여 전라도 마당극의 효시로 꼽히는 ‘함평고구마’ 공연에 농민들은 열광하였다.

광주의 문화운동 팀들은 전남대와 조선대 탈반, 연극반, 국악반, 미술패 등을 결집하여 마당극 운동의 본류를 여는 극단 ‘광대’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극단 광대는 광주·전남 최초의 문화운동 단체로 소설가 황석영, 채희완의 지도아래 전남대학 탈춤반 김정희, 윤만식, 김빌립, 김선출 김윤기 등과 연극반 출신 김태중, 박효선, 국악반 임희숙 등 활동가들이 연극, 마당극 등 연희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1980년 1월 창립되었다. 1980년 4월 당시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의 희생양으로 돼지값이 폭락한 돼지과동을 회화하여 ‘돼지풀이’라는 마당극을 공연하여 절찬을 받았다. 그 후 소극장을 마련하고 YWCA 2층의 양서조합 사무실을 빌려 공연을 준비하던 중에 오월광주항쟁을 맞이하여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극단 광대의 활동가들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항쟁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광주항쟁 투쟁 의지를 결집한 구도청 앞 분수대에서 5차례의 시민궐기대회를 주관하였다.

투사회보를 제작한 들불야학 구성원과 시민궐기대회를 주관한 극단 광대는 대자보 및 성명서 작성, 취사, 헌혈, 모금 등 활동을 주도한 송백회 회원들과 함께 YWCA에서 항쟁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선전선동활동의 일익을 담당했다.

1979년 9월 윤한봉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홍성담을 중심으로 최열, 김산하 등이 전남대, 조선대 미술학도들과 함께 ‘광주자유미술인협회(광자)’를 결성함으로써 미술문화운동도 조직화된다.

한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운동형태였던 양서협동조합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 주요도시에 설립되었던 협동조합 조직이다. 양서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양서조합은 오랫동안 신협운동을 해왔던 장두석에 의해 1978년 11월 YWCA 1층 휴게실에 책을 진열하고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출범했다.

주요 운영진은 안진오(전남대 해직교수) 이사장, 이일행(법률사무소 재직)부이사장, 이사로는 정규완(신부), 한모길(목사), 문병란(시인), 윤영규(광주여상 교사), 박석무(대동고 교사), 박행삼(대동고 교사), 임추섭(중앙여고 교사) 등이고, 장두석(신협 및 가톨릭농민회 임원)이 이사 겸 집행위원장을 황일봉이 총무 김현주가 간사를 맡았다. 그 외에도 이방기, 김정수, 송기숙 등 전남대 해직 교수와 권광식, 김제안 등 조선대 해직 교수 박현채, 윤광장, 정해직, 김준태, 위인백, 최병인, 이윤정, 정유아 등 많은 재야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양서조합은 1400명의 조합원(가입비 1만원, 학생은 가입비 없음)이 가입하였으며 정부에서 규정한 이른바 판매금지도서인 ‘금서’, 대표적으로는 『타오르는 이란』, 『유한계급론』, 『들어라 양키들아!』, 『민중교육론』,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을 암암리에 보급하고 각종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양서조합은 좋은 책을 읽혀 독서지도와 의식화에 중점을 두고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건강한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본산이 되었다¹⁰⁸⁾고 할 수 있다. 양서협동조합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오월광주항쟁에 참여하였고 그 중 김향득, 김효석 등 수십명의 학생들이 도청과 YWCA에서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항전하다 일부는 사살되고 나머지 살아남은 학생은 구속되었다. 아울러, 들불야학은 노동운동과 교육운동을 결합시킨 광주 전남지역 노동야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8년 5월부터 창립이 준비되었던 들불야학은 1978년 7월 23일, 광주공업 단지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35명의 노동 청소년들과 강학이라 불리는 8명의 교사가 모여서 입학식을 가지면서 출범하였다. 수업은 일주일에 6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씩 진행되었다. 학제는 한 학년을 6개월로 정하여 1년 6개월, 3개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였다. 1기 강학은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인 박기순(사학과 3년), 임낙평(독문과 1년), 신영일(국사교육 2년), 나상진(공대 3년), 김경옥(교육학 3년) 과 서울에서

108)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 『부마민중항쟁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발표 자료집』, 2009.

야학 교사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전복길(서울대), 최기혁(외국어대), 김영철(서울대) 등 광주출신 대학생들이었다. 전복길, 최기혁, 김영철은 마침 대학을 휴학하여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1978년 12월, 들불야학 강학회의에서 광주공단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합의된 결론이었다. 실태조사를 추진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들불야학에서는 1명만 참여하기로 하고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사람을 찾아내기로 하였다. 야학에서는 신영일 강학, 그리고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중에서 박관현, 이세천, 장석웅, 박병섭, 위승량, 박용안, 최금표, 안진 등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반은 들불야학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사업으로 조직의 형태를 갖추었다.

들불야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형태는 '노동야학'이었다. 노동야학은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가 배출을 목표로 하였다. 노동야학 교육의 목표는 노동자의 가난과 고통의 근본원인이 교육을 못 받아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순된 사회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다. 들불야학은 노동야학의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처음 6개월간은 중학교의 교과서를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여 검정고시야학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2기가 입학한 6개월 후부터는 국어와 한문, 사회, 노동법 등의 일부 과목부터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등의 자연과학 영역의 교재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다. 1년 6개월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인 노동운동 과정의 '소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들불야학이 교실로 사용하였던 광천동 성당 옆에는 70호 규모의 3층 연립아파트 3동이 ㄷ자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광천동시민아파트가 있다. 그 곳은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과 부랑민을 위하여 시에서 지었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이름만 아파트지 판자촌과 다를 것이 없었다. 1호당 2개의 방과 부엌을 겸한 통로로 10평도 되지 않았다. 또한 각 층 입구에 화장실과 세탁장을 공동으로 갖추어서 세면과 빨래, 혹은 쌀을 씻는 것도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어서 들어가면 역한 냄새와 메탄가스로 눈이 따가웠다.

들불야학이 설립되기 전인 1977년 10월, 낙후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전남협동개발단(단장, 광주YWCA 조아라 회장)에서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김영철

간사를 지역운동 담당자로 파견하였다. 1948년 출생인 김영철은 당시 30세로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두루 겪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평생 함께 살겠다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충만해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두 살 난 아들을 데리고 1977년 11월에 아파트 A동 216호에 입주를 하였다.

그는 먼저 아파트의 주민들을 종교별, 학교별, 직업별로 나누고 175가구의 각 호마다 수입, 지출, 부채 등의 기초조사표를 만들어 종합개발사업 계획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년회를 부활시켰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어린이 주말학교를 열었다. 또한 적자로 폐업상태에 있던 광천 삼화신용협동조합을 인수받아 차츰 신탁을 정상화시켰다. 그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A동 반장을 맡았지만 나중에는 광천동 11동 합동반상회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78년 7월, 그는 광천동 여기저기에 야간학생을 모집한다는 벽보를 발견하였다. 그가 기획한 종합개발 계획서에도 야간중학교 건립이 있었다. 그 곳이 바로 들불야학이었다. 그는 들불야학의 입학식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강학들과 친해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그는 2기부터 생활강학으로 참여하여 시사 과목과 레크레이션 등을 맡아 수업을 하였다.

오월광주항쟁 지도부 대변인자 항쟁의 마지막 날 도청에서 산화한 윤상원은 들불야학의 대표 강학이었다. 그는 대학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김상윤 등 학생운동관련 선후배들과 만나 역사와 철학에 관한 독서와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관이 바뀌었다. 운동가로서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78년 10월, 그는 '1시간 120원'의 일당 노동자로 공장에 취업을 하였다. 말하자면 광주 지역 최초의 위장취업자였던 셈이다. 10월 중순, 그는 들불야학에 강학으로 참여하였다.

박관현은 19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월항쟁의 불길을 지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78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진행되었던 광주공단 노동자실태조사를 통해서 들불야학과 인연이 맺어졌다. 그는 당시 전남대 법대생으로 사법고시 지망생이었지만 들불야학 신영일 강학으로부터 광주공단 실태조사 참여 제안에 대해 실태조사가 노동자들의 생활에 관한 조사라는 것을 알자 며칠간 고민한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참여하였다. 광주공단실태조사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과 시청 노동청, 노총, 상공회의소, 공단 관리사무소

등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했다. 모든 일은 발로 뛰어야 했으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박관현은 어려운 일일수록 술선수범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상대방에게 믿음직스럽고 정감있게 대하는 예의바른 관현이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조사 전 기간을 거처서 박관현의 초지일관된 성실성과 책임감, 술선수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언행일치는 실로 모든 실태조사반들에게 조용한 감동을 주었다.

박관현은 이 기간 동안 노동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념으로 운동에 투신한 윤상원을 만났으며 지역주민운동에 전념하고 있던 김영철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을 인근에서 지켜보며 강학들과 학생들의 헌신과 정열에 심취했다. 실태조사는 79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79년 5월 조사보고서는 전남대학 신문에 네 차례로 나누어 게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나간 후 내용이 주는 파문이 학교 밖 사회로 번져나가자 사찰당국의 압력에 의해 연재는 중단되고 말았다. 10·26이후 들불야학은 박관현을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윤상원은 야학에서 손을 떼고 광주권 사회운동 전체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모임인 구속자협의회가 모체가 된 현대문화연구소(소장, 윤한봉)와 들불야학, 기타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의를 위한 활동가로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대학시절 시위와 관련한 사건 이력이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다.

오월광주항쟁 기간동안 끊이지 않고 발행되었던 투사회보는 들불야학 팀에서 전담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강학과 학생들 중에서 구속 및 수배자의 숫자가 많았다. 강학 중 윤상원과 박용준이 산화하고 김영철, 박효선, 나명관, 윤순호, 서대석, 정재호, 전용호, 김성섭, 동근식, 김경국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박관현 강학과 오경민 외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배되었다. 들불야학은 운영을 계속하려고 해도 강학과 학생이 없어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은 남은 학생들과 강학들이 가끔씩 모여서 죽거나 잡혀 들어간 강학들을 그리며 슬픔을 달래거나 이후 진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곤 하였다.

80년 10월 하순, 김경국, 서대석, 나명관, 윤순호, 김성섭 등 구속자 중 일부 학생과 강학들이 재판을 받고 풀려나왔다. 그러자 강학과 학생들은 다시 모여 진행하던 학기는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중흥동 성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수업이 계속 되었다. 그리고 81년 2월, 제 4기 졸업식을 끝으로 들불야학은 2년 6개월의

막을 내렸다. 들불야학은 1978년에 설립되었지만 80년 항쟁을 겪으면서 수십명의 사상자와 투옥자를 내고 1981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3) 민중운동

오월광주항쟁의 구조적 동학에 있어 우선 광주 전남 지역 농민운동의 태동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농민운동이 태동하고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70년대 초에 들어오면 그동안 성장한 내외 독점자본들에 의한 농축산물 가격기구를 통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다. 국내 독점 세력들은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농업 정책에 있어서 저곡가 정책, 즉 저 농산물 가격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이농행렬을 통한 노동시장 공급 과잉을 일상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고 수탈했다.

군사독재 권력은 이러한 정책을 가능케 하기 위한 외국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였고 국내 시장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생산비 보장과 함께 수입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투쟁의 조직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으로써 '70년대 초반 가톨릭농민회가 탄생이 되고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 전남기독교농민회가 발족되었다. 특히 기독교농민회는 전남기독교농민회 발족 이후 80년에 전국기독교농민회가 창립이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농민회의 시발점은 전남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운동에 대해 박정희 군사독재권력은 경찰과 중앙정보부 등 물리적 탄압 기구와 독점자본의 대농민 수탈기구인 농협 등 관료기구를 동원하여 농민들을 억압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 사례가 바로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사건이다.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운동은 76년 10월부터 78년 5월 2일까지 3년 동안의 끈질긴 투쟁 끝에 '78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이곳 광주에서 80여명의 농민과 고교생을 포함한, 청년,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죽음을 불사한 단식농성을 전개한 사건이다. 이 단식농성이 전개되면서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하여 단식 보상요구의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함으로써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76년산 생고구마를 정부가 농협을 통해서 구매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해놓고 구매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방출했는데, 정작 이 돈은 고구마 구매자금으로는 한 푼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로가 막혀버린 고구마는 눈비를 맞으며 썩어가고 있었으며 한 포대 당 가격은 1,317원짜리 고시 가격이 2백원, 3백원 대로 폭락해 버리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농가들로부터 고구마를 구매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구매자금은 7개 주정회사에 빼돌림으로써 농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고구마 피해보상투쟁이 전개되는 3년 동안 내내 그 3년 동안에 부산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대전에서 한 번, 이 곳 광주에서 세 번, 농민들의 투쟁 집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의 언론 통제에 의해서 지상에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못했다. 그러나 '78년 5월 2일 사건이 해결된 후 5월 4일 각종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사건, 농협 고구마 구매자금 80억원 유용 등으로 보도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농산부 장관과 농협 중앙회장은 해직되고 농협 임직원 606명이 구속, 해임, 감봉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함평 고구마사건의 피해보상 운동의 승리는 전라남도에서는 광양과 장성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의 농민운동 세력이 이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민회가 조직되었다. 전국적으로도 가톨릭 농민회 같은 경우 회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제 “농민들도 자기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농민들에게 심어준 결과였다.

함평 고구마 사건을 승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연대투쟁의 산물이었다. 당시 농민들의 투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고, 조직력이 막강했다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77년도에 계림동 천주교회에서 고구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 500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갖고 이제 농협 도지부, 도청 앞에 있는 농협 도지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가행진을 하였다. 그런데 계림동 천주교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전경이 막으니깐 더 이상 진출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3백여명 정도가 오후 5시쯤에 농협 도지부 앞에 집결을 하였다. 그런데 집결해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농성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가 경찰 기동대가 경찰 곤봉으로 농민들을 막 때려잡고 휘어 잡아 농민들은 혼비백

산 하였다. 그런 상황을 농민들이 처음 접했던 것이다. 결국은 잡혀간 사람, 도망간 사람, 흩어진 사람, 그래서 밤 9시경에 가톨릭 센터 뒤뜰 공터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다시 농성이 시작되고 밤 10시경 연행자 전원을 석방함으로써 집회는 일단락이 되었다. 초기 농민운동가들의 투쟁력은 지금처럼 강하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한 일주일간의 복동 천주교회 사제관에서 단식 농성자들을 분석해보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학생, 여성, 그리고 노동자와 각계각층인사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약 50여명, 30명 정도는 각계각층에서 지원 차 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단식이 시작되자 이틀 만에 단식 현장이 경찰에 의해서 완전 봉쇄가 되었다. 이유는 외부에서 학생운동권과 윤한봉, 조봉훈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 활동가 및 민주시민들이 현장을 지지 방문하였다. 또 전국적으로는 민주, 민권,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문익환, 윤공희, 함세웅, 정의구현 사제단 등 수많은 재야, 야당 등 전국의 민주, 인권운동 세력이 단식현장을 방문 동참하였다.

정부에서는 단식 현장을 놔두었다가는 이게 어떤 “민주화 운동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해서 피해보상금을 단식 현장에서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직접 중앙정보부가 개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보상금을 단식 현장으로 갖다 주도록 하여 해결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사례들을 볼 때 시위 농민들의 힘보다는 지원 연대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의 힘이 그 사건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마 사건이 해결되었던 해 '78년도에 다시 계림동 천주교회에서 11월달에 추수감사제를 하게 되었다. 이 추수감사제는 단순한 가톨릭 농민회 추수감사제가 아니고 실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학생운동권, 또 민주화운동권 당시 교육 지표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분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 1박 2일 동안의 연대집회였다.

밤에 계림동 천주교 성당(주임신부: 조비오)에서 녹두 위령제를 지냈는데 김남주 시인이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시를 발표하였고 소설가 황석영은 ‘녹두의 피와 넋을 되살려라’ 라는 격문을 보내왔다. 이 시와 격문은 당시 그 집회에 참석했던 1,500여명의 농민들에게 크나큰 질책과 용기가 되었다. 그 다음날 광주의 문화운동 패에서 마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고구마 사건을 소재로 한 마당극

은 큰 대동놀이였다고 말 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74년부터 농민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민주화운동가 이강, 윤한봉, 나상기, 윤강옥, 정용화, 김상윤, 박형선, 조봉훈, 민교협 소속 교수들 송기숙, 문병란 시인, 소설가 황석영, 김남주 시인, 광주YWCA 조아라 회장, 김경천 간사, 양서조합 장두석, 호남전기노조,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노동단체와 전남대, 조선대 학생 등 인적 물적, 지원연대가 이루어졌다.

'80년 5월 19일은, 당시 소위 '민주화의 봄'으로 일컬어졌던 상황에서 농민들도 뭘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민주농촌 실현을 위한 전남 농민대회'를 5월 19일로 예정하고, 준비를 했다. 이 때 농민들이 북동 천주교회에서 농민대회를 갖고 도청 앞으로 집결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과 함께 갖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해서 크게 행사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민주인사들이 예비검속되고 금남로에서 계엄군에 의해 시민들이 살인적인 폭행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등 폭압적인 상황과 교통, 통신두절 상태에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행사 당일인 5월 19일 북동성당에서 간단하게 약식 대회 후 무기한 연기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그것은 당시 농민운동의 한계였다.¹⁰⁹⁾

다음으로, 노동운동 조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농민운동이 선진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산업화가 늦어 노동운동은 더딘 편이었다. 해방 후 자본주의 발전은 여성들을 사회적 생산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특히 '60, '70년대의 산업화는 제조업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2차 산업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판매직 분야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축적의 주된 기반은 저임금 여성노동이었다.¹¹⁰⁾ 1980년 당시 광주 전남 지역의 여성들의 사회적 상황도 기본적으로 한국여성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70년대 말 당시 광주 소재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은 일신방직, 전남방직, 로켓트 건전지 등인데 여기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들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와 YWCA사회문제부를 매개로 한 소그룹활동을 통해 민주노조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운동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었다.

109) 노금노(前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

110) 오월여성연구회편, 안진,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1991, p. 26.

JOC가 섬유업계 산별노조에는 17개의 단위노조 가운데 12개 사업체에 소그룹이 결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70년대 후반에 노조의 민주화를 주도하였다.(들불야학 광주공단실태조사, 1979) 1976년 후반 선진 노동운동을 공부하려고 평화시장에 올라갔던 전남대학교 민청학련 사건 출신 이양현이 광주로 내려오면서 서로 조직적 연관을 가지면서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한편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위한 야학 운동으로 박기순, 임낙평 등의 들불야학과 백제야학이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이 전면적인 무장 항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시민군과 도청 사수를 결의하고 결사 항전한 200여명 가운데는 대기업 노동자들보다는 영세업체나 유통,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컸다는 사실은 이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¹¹¹⁾

2. 지역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성화

1960년대는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공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여성이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여성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의 해산조치로 여성운동은 중단되었다가 1963년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여성운동은 전체적인 침체 속에서 군사 정권에 의해 여성단체가 관변화 성격을 띠고 이재민 보호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선거에 즈음하여서는 캠페인성 행사로 축척자나 부정축재자 추방대회가 열렸으나 실제 사회개혁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60년대 후반 들어 회원간 친목과 지위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광주지역에서도 각종 사회단체가 새롭게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사회단체가 많이 조직화된 반면에 근대적인 성격의 시민단체도 상당수 결성되었다. 광주청년회의소와 광주라이온스클럽이 발족되어 친목과 사회봉사, 그리고 국제친선 도모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유네스코광주지회는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서예백일장, 여성생활 글짓기, 무형문화재 발굴조사, 국제 이해의 증진 등에 노력하였다.

111) 위의 책, 1991. p. 29.

1963년에는 ‘한국부인회 전남지부’가 결성되어 건전가정 육성운동을 펼쳤으며, 초대 회장이었던 류남옥에 이어 안영자회장 이후 이 지역 여성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모역할을 하였다. 뒤이어 1966년 ‘한국여학사협회 전남지부’가 이화여대 동창회 광주지회 회장을 맡고 있던 윤신금 초대회장에 의해 지방의 여류 지식인의 모임으로 발족되어 광주여성회관 건립 기금모금운동과 함께 여대생 의식 보호와 지위향상에 역점을 두고, 윤락여성 선도와 기술지도, 가정법률 상담소 개설, 농촌봉사활동 등에 주력하였다. 1967년에는 YWCA주도로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이 지역여성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은 주로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었으며, 활동내용도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가정과 주부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정부주도로 여성정책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는데, 가족계획실시, 초등교육 의무화, 윤락행위방지법, 가족법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도, 시, 군의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여성정책 체계가 마련되었다.

특히 1977년 7월 8일 국무총리 훈령 제141호에 의해 여성단체 말단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조직으로 통합, 정비됨으로써 생활개혁운동에 여성이 적극 동원되었다. 행정단위별로 조직된 새마을 부녀회는 비록 관제화된 운동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의식주개혁운동을 펼쳐 근검절약과 건전풍토를 이끌어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립자조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함께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 부녀회는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대중적, 체계적인 조직으로 산업화를 위한 자원절약 차원에서 소비자운동을 비롯하여 저축과 소비절약운동을 펼쳤으며, 이에 발맞추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광주지부와 광주YWCA에서도 소비자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소비자운동은 소비자권익보호운동이라기 보다는 경제성장정책의 보조수단으로서 일종의 소비합리화운동으로서 알뜰 운동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여성단체와 여성들은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경제성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아낌없이 내주면서도 헌신과 봉사로 일관하고 정작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제기되는 여성 자신의 인권이나 기본권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일반여성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서 활용된 저임금, 중노동 등의 여성 고용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세계여성해방운동이 고조되면서 1975년을 유엔이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함으로써 여성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모자보건법 및 직업훈련 기본법이 제정되고 결혼 각서제가 폐지되었으며, 제2차 가족법 개정과 더불어 대학에 여성학이 도입되게 되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여성 사회교육 확대, 남녀차별개선을 위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독재정권 하에서 공개적인 활동이 가능한 여성단체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관제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어린이날 행사와 미망인 가족 위문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YWCA는 농어촌 여성과 빈민여성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나 탁아소를 운영하고 강연과 출판활동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국여학사회 전남지부’가 여대생의 역할과 진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고 1977년에는 여성에게 헌신적인 남성에게 시상하는 ‘대륜상’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봉사적이고 시혜적인 활동 차원에 머물렀을 뿐 주체적인 여성 역량교육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대한부인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등 전국적인 중앙여성단체의 영향을 받아 ‘10월 유신계몽사업’을 비롯하여 ‘총력안보범여성월기대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으나 이러한 활동 역시 정권의 통치목적에 동원되는 관제적 성격을 노출하였다.

70년대 광주지역에는 민족통일여성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한국 부인회 광주지부, 대한여학사협회 광주지부, 새마을 부녀회 등과 같은 여성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 근대화 시책에 발 맞춰 정부 시책을 교육하고 실천을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정부 시책을 위한 교육을 제외하면 시민으로써 필요한 기초교육(문자), 집안일의 합리적 처리방식, 좋은 어머니와 아내로써 역할수행방식 등과 같은 여성 교양교육이 자주 실시되었다.¹¹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폭압적 억압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위해 내부역량을 축적해온 각 부문의 사회운동이 1970년 후반부부터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수출주도 산업화과정에서 축적되어온 모순이 표면화

112) 『광주여성발전사』, 광주광역시, 2000, pp. 198-201.

되면서 억눌리고 통제되어 온 노동, 농민, 빈민운동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를 시도하였다. 광주에서도 카톨릭노동청년회(JOC) 광주지부의 여성노동자 모임을 중심으로 민주노조건설이 시작되었고 호남전기, 전남제사, 남해어망, 성화제망 등 저임금 여성노동자가 많은 금속노조, 섬유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투쟁이 전개되었다.

위와 같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운동조직이 뿌리를 내려갔던 당시 상황을 섬유노조인 남해어망과 금속노조 호남전기 사례를 다음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자.

“시골에서 살다가 남동생이 광주상고에 입학했는데 학비조달하려고 제가 (임미령:남해어망분회장) 광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야간 교대로 12시간 일하고 했었는데, 월급이 그 때 2만7천원 3만원도 안됐어요. 그래서 너무 좀 절망스러웠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급여가 이렇게 적은가 여기서부터 문제의식이 출발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남동생 학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둘이 자취를 했는데 먹고사는 문제 정도는 최소한 해결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저녁이면 야간 때 분회장을 했던 김남순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노동문제보다 농촌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을 했고 김남순은 농촌문제보다는 노동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그니까 노동자로서 첫 출발은 노동조합 간부를 맡기 전에 그렇게 해서 분회장하고 계속 토론을 했고 그 때 김남순이 JOC 회원이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JOC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두 가지 그니까 생활비문제, 내가 왜 열심히 일한만큼 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 그리고 농촌문제와 노동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농촌문제 못지않게 노동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나도 노동조합 활동을 나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JOC 교제가 있는데 관찰, 판단, 행동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번 내가 소속이 되어있는 팀에는 한번 나가고 제가 맡아서 진행하는 팀도 일주일에 한번 씩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제가 맡아서 하는 것도 세팀, 네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주어망도하고 성화제망도 하고 이런데 나가서 계속 JOC 회합을 통해서 의식화 학습을 함께 했고, 학습에 내용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게 '노동의 철

학' 그걸 통해서 노동의 의미라거나 왜 노동자가 중요한가? 그런걸 하고 그 때 금서라고 하는 책들을 놓고 복사본 떠가지고 했어요. 노동의 철학은 이 강선생이랑 했고 경제원론, 조선생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조선생하고 막스 자본론 공부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교재로 사용했던 책들이 대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천으로서는 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한번 우리 팀 회합에서 결의가 되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다시 재 실천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가지고 이 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자세로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노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이 세 박자를 통해서 했어요.

“그때는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야간 나눠서 대인동에 그 학원이 있었는데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JOC 활동 같이 하다보니까 대게 많이 힘들었어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향자 언니를 통해서 의식적 발전 활동을 통한 올바른 집행이나 선배로서 정신적 리더 이런 것을 향자언니가 많이 얘기 해 줬어요. 또 김성애 언니하고도 회합을 했거든요. JOC 팀 회합은 성애언니하고 했어요. 계속 학교공부를 할거냐? 노동운동을 할거냐? 이렇게 했을 때 성애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성애언니가 니가 뭐가 부족해서 학교공부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때 공부를 접었어요. 성애언니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활동 방향 제안해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많이 지원 했어요. 그리고 이운정 언니도 자주 못 봤지만 대 선배로 정신적으로 지주역할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방향을 제시를 많이 해줬지요. 윤정언니랑 성애언니랑 간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들의 희망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중략... 그 당시 남해어망 노조 상황은 300명 정도였는데 이친구들을 JOC 방식으로 학습시켰어요. 우리 부서가 세 개 였는데 편망부하고, 보망부하고 연사부, 제가 연사부였는데 각 부서별로 JOC 팀으로 다 조직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노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노조를 깰려고 회사에서도 엄청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오세 활동으로 다 조직이 됐어요. 정향자 언니 사업장도 마찬가지로일거예요 전남제사도, 워낙에 노동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예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한 마음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임금도 워낙 낮았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2만 7천원 받았던 것이 6만원으로 올랐던거 같거든요. 한 이년정도 됐었죠. 그랬기 때문에 노조는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현장에서 느꼈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수시로 욕하고 했는데 욕을 못하게 한

거, 생리 휴가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생리 휴가를 회사에서 안주
 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와서 만져봐라 어떻게 민느냐 생리가 있는지 없
 는지 이렇게 말했을 때 보여줄게 만져봐라 이런식으로 해서 생리휴가는 그
 당시에도 말만 하면 무조건 쓰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할 때 중요
 했던 것이 단체교섭을 3년에 한번씩 하고 임금 협상은 1년에 한번씩 했던
 가 했는데 하여튼 단체교섭 있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런게 있었어요.
 시장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노동조합에 각 부서별로 다 해가지고 그
 걸 기반으로 요구를 하고, 적어도 이런 것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
 과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 할 때도
 지오세 정신으로 지오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니까 한일 합섬에도 지오세 조직이 있었어요. 한일합섬이 담양에서 500명
 이상인가 300명이상 사업장이었어요. 그 때 우리 정말 가슴으로 했어요...
 중략... 그니까 저는요 새로운 세상 그니까 그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세상에서, 지오세나 뭐 노동조합이나 YW
 CA나 그다음에 뭐 섬유 연맹이나 이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
 상, 새로운 희망, 진실 뭐 참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안의 어떤 요구하고 딱
 맞아 떨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내게 되지 않았을까?”¹¹³⁾

’76년에 호남전기에 입사해서 다니는데 (김)성애랑 같이 일을 했는데 나
 (이정희:호남전기지부장)한테 성애가 노조대의원을 한번 나와 보지 않겠느
 냐? 해서 노조대의원이 되었어, 우리가 노동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성애(부녀부장)랑 JOC활동을 하면서 문어발식 소그룹
 (6-7명)을 10팀 넘게 만들어서 맨날 밤 12시 넘어서 까지 자치방을 전전하
 면서 학습을 시키고 조직을 만들었어. 김성애, 이양현씨랑 녹두서점 김상운
 씨, 윤상원씨, 그리고 우리 만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늘 불러 주었던 전남
 대 학생,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렇게 우리 모임도 10명 정도가 같이
 학습을 했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1,2차 받고, 그
 때 한명숙씨가 우리 강사였네, 우리가 빨갱이로 몰리고 용공분자라고 했제.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여성운동에 눈이 뜨이게 되었제. 인간은 평등해야 하
 는데 그동안 여성들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차별받고 살았고 임금도
 물론 남자들 하고 하는 일은 좀 다르지만 남자 여자 다르고 여자들이 남자
 임금 절반밖에 못 받았어. 내가 ‘79년에 내가 노사 협의회 위원이 되어가지
 고 노사협의회가 결렬되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를 5급 사원을 만들어

113) 임미령, 구술증언, 2011.12.22.

가지고 전주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어. 성애는 부산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리고. 그래서 전주에 가 있는데 당시 호남전기 노조지부장이 회사말만 듣는 어용노조위원장이어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우리가 불신임을 때렸제. 그리고 지부장 선거에 나가서 남자 셋이 한사람으로 단합을 했는데도 1:1 선거해서 내가 이겼어. 지부장이 되어 광주로 다시 올라왔어. 그때 처녀 여성이 홍일점으로 여성지부장에 당선되었다고 신동아 3월, 각 월간지 같은데서 많이 나왔어. 그때부터 임금인상투쟁에 들어갔는데 호남전기는 전국에서 최저임금이어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았어. 호남전기가 김남중 것이고 전남일보 언론사 갖고 있으니 아무리 노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임금을 착취당해도 언론보도 한 줄도 안나왔제. 우리가 받은 월급이 2만8천원이었는데 투쟁해서 여자들은 100%임금인상 되어가지고 5만2천원으로 올랐어. 박정희 정권이 두려우니까 감히 임금인상을 위해서 농성이나 파업을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주옥 밀고 나가서 농성 파업에 들어갔어. 이런 우리 호남전기 파업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키는 데 선봉장역할을 했어. 5·18 끝나고 6월 7일 합수부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았제.”¹¹⁴⁾

다음 증언을 살펴보면 당시 광주지역 여성노동자 운동조직을 알 수 있다.

“광주를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저는 성애언니나 주리아(정향자)언니 다음 세대일 수도 있어, 그렇게 보면 광주에는 이강 선생님이나 이양현선생님, 로사리오(김성애) 언니나, 호남전기 이정희 그룹, 그다음 (최)연례 세대, (윤)청자, 그러니까 호남전기는 성애 이정희 그룹에 청자가 있고 연례, 그러니까 윤정이 언니랑 성애언니랑 광주지역 여성노동운동의 물고를 튼거구나.”¹¹⁵⁾

또한 1978년에 발생한 함평 고구마 사건을 계기로 농민운동이 성장하였고 지역대학생들은 농활과 노동야학을 매개로 농민·노동운동의 조직화가 시도되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과 결합하여 포괄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어갔다. 여성농민운동은 해남읍 교회를 중심으로 황연자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임수옥, 고옥희 등과 농민조직을 성장시켜 기독교 농민회를 창립하였다. 기독교 농민회는 마을단위로 기도회, 농민교육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114) 이정희, 구술증언, 2011.12.27.

115) 임미령, 위의 증언.

나갔다.

1978년 결성된 송백회는 이 지역의 진보적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민주화운동의 구속자 부인과 활동가 부인들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점차 의식있는 교사, 간호원, 문필가, 사회단체 간사, 학생 등으로 회원을 확대하여 JOC나 기독교 농민회등 사회운동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송백회는 구속자의 옥바라지를 비롯하여 여성 운동사, 노동문제, 환경공해문제, 기생관광문제 등 여성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어갔다.

'70년대 지역 여성 단체 가운데서 지역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여성들의 문제 상황을 찾아내 시정해 나가는 소위 여성운동체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여성단체로는 YWCA를 꼽을 수 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YWCA는 “여성의 능력을 사회정의 실현에”라는 주제를 '70년대의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단순한 여성단체에서 탈피하여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광주YWCA는 한국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농현상과 농촌의 빈곤화, 도시빈민층의 증가, 계층 간의 불평등의 심화, 노동조건 악화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여성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시빈민지역과 농촌의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펴나갔다. 농촌지역으로는 장운동 지역, 도시빈민지역으로는 광천동 시민아파트 지역을 활동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으로는 '7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미혼의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광주지역 버스안내양들이나 또는 생산업체 근로여성들을 초청하여 위로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의식, 건강, 성 또는 신앙문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이 지역 기층 민중여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의 있는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입장에 그쳤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구조적인 모순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에 기층 민중의 문제에 접근하는 YWCA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YWCA는 산업화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어가는 지배계층과 소외계층 간의 중간집단으로서 두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기층 민

중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봉사적인 차원의 활동에 머무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¹¹⁶⁾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광주YWCA의 역할과 활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그것은 광주YWCA가 일제 치하 항일민족운동의 빛나는 전통과 김필례, 현덕신, 조아라, 이애신 등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YWCA는 1970년대에도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74년부터 양심수를 위한 목요기도회, 양심수 수형자를 위한 모금운동, 기금마련을 위한 물건판매와 속칭 무등산 타잔 사건의 범인인 박홍숙의 구명운동과 가족 돕기, 남영나일론 여종업원 구타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불매운동, 동일방직 똥물사건 후의 해고 노동자 돕기 운동 등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1975년부터 기독교의 민중 논의가 급격히 고조되었으며 그에 부응하여 광주YWCA는 1978년 6월부터 민중논단을 개최하였다. 1978년 전남대 교육지표사건에 관련되어 김정천(당시 간사)이 구속되었고 1979년 11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수요연합예배 사건으로 조아라 회장을 비롯하여 소설가 황석영, 강신석 목사, 명노근 장로, 김영진 장로 등 19명이 연행되어 구류의 고초를 겪기도 했다.

광주YWCA는 70년대 유신시대부터 발생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민주인사, 학생 목사, 신부들이 구속되자 NCC인권위원회, YMCA, 전남자유수호위원회와 함께 기도회를 여는 한편 구속자 가족을 돕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그동안 민중논단, 각종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 회관은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위치상으로도 도청, 금남로와 가까운 곳이기에 모임장소로 늘 개방되어 있어서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의 모임이 YWCA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1980년에는 2층에 임대해 있던 양서조합과 국제 엠네스티 광주지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런 이유로 광주YWCA 회관이 5·18항쟁 과정에서 홍보팀의 본부가 되어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¹¹⁷⁾

광주YWCA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는 홍남순 변호사, 김성룡신부, 조비오신부 등 과 함께 시민수습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하여 5·18항쟁이 끝난 후 재판에

116) 이수애, "광주 전남지역의 여성운동", 1992.

117) 『광주YWCA70년사』, 1992.

회부되어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항쟁 과정에서 YWCA회관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명분으로 독일 에르체의 후원과 대규모의 기금모금 활동으로 YWCA회관을 현재의 장소인 광주광역시 유동으로 이전했다. 한편 광주 YWCA는 오월광주항쟁이 끝나고 전국지명수배중이었던 사회문제부 이운정 간사와 수배중인 농촌문제부 정유아 간사를 해임했다. 이유는 이운정과 정유아 두 간사가 항쟁과정에서 “들불야학, 극단 광대, 송백회 등 운동권을 YWCA회관에 끌어들이 거점으로 사용케 하여 조아라회장, 이애신 총무가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사수투쟁 항쟁과로 너무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것과 이들로 인해 더 이상 YWCA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광주YWCA가 중간집단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여성단체들은 주로 정부에서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 졌던 수준으로 중산층 여성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중간층에 YWCA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적 여성단체인 송백회,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여성노동운동과 여성농민운동이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이로서 여성운동은 그간 지역여성을 이끌어 온 중산층과 지식인 중심에서 탈피하여 여성노동자들과 여성농민, 그리고 일부 의식화 된 여성의 사회활동과 민주화운동이 더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량으로 오월광주항쟁에서 여성운동이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제3절 오월광주항쟁의 조건과 역사적 국면

1. 항쟁의 외부적 국면

1) 국내 정치적 요건

유신체제를 구축한 박정희는 사실상 3부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므로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에 따른 권력의 공백은 정치권에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가 당총재로 있었던 공화당은 공식이 된 총재를 새로 선출해야 했으며,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과 연금조치를 받았던 김대중 등은 정치활동을 재개

하기 위해 움직였다.

10·26정변 이후 총재권한을 되찾은 김영삼은 1979년 11월 4일, 최규하 과도 정부에 3개월 이내 헌법을 개정한 후 2개월 이내 신헌법에 의한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16일 국회에서 신민당의 입장을 이민우가 대표로 밝혔다. 신민당은 박정희 사후 정국은 신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권이 수립 될 때까지의 ‘과도기’이며,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도 중립적 입장에서 정권교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¹¹⁸⁾ 또한 10·26정변 관련 수사가 종결된 이상 비상계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규하에게 ‘양심적 정치범의 즉각 석방’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김대중 사면복권’, ‘학원의 자유 보장’, ‘11월 13일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다 연행된 9명의 인사들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¹¹⁹⁾

공화당은 11월 10일 당무회의를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12일 신임 총재로 김종필을 선출했다 11월 18일에는 김종필과 김영삼이 회동했고, 11월 23일에는 최규하와 김영삼이 회동했다. 김대중은 12월 8일 야 연금이 해제되어 다른 이들보다 정치활동이 다소 늦었다. 최규하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가능한 빨리 개헌과 총선을 하겠다고 언명했다.¹²⁰⁾

이른바 3김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12·12군사반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 개정 및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일정에 관심을 쏟았다.¹²¹⁾ 1979년 12월 27일 신민당이 헌법개정공청회를 개최했고, 1980년 1월 16일에는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첫 공청회를 가졌다. 여기에 홀부르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차관보, 레스터 울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방한하여 낙관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이들은 주요정치 인사와 회동한 뒤, 정국은 안정되어 있으며 ‘민주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¹²²⁾

김영삼은 1980년 1월 19일 정부가 과도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있다고 언급하

118) 김삼웅 편저, 『서울의 봄 민주선언』, 한국학술정보, 2001, pp. 34-36.

119) 위의 책, pp. 41-43.

120) 『동아일보』, 1979년 12월 21일자.

121)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4, pp. 283-284.

122) 『동아일보』, 1980년 1월 16일, 19일자.

고, 필요한 시기에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지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¹²³⁾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능한 정치일정을 단축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동교동계는 계엄령 즉각 철회, 최규하 대통령 대행체제의 퇴진, 거국민주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는 11월 12일의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약칭 범민주통일국민연합)'의 성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YWC A위원장결혼식사건)에는 신민당과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았다.¹²⁴⁾

1980년 1월로 접어들자 신민당 내 소장 의원들이 범민주세력 통합을 촉구했다. 1979년 12월 29일 김영삼과 김대중은 내외신 기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해 두 사람이 단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밝혔지만¹²⁵⁾ 대동단결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소장 의원들은 재야인사까지 포괄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통합을 이루고, 범 민주세력이 단결한 이후 대통령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¹²⁶⁾

1980년 2월 25일 후보단일화 추진을 위 한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양김은 3월 6일 단독회담을 갖고 대통령 후보 과열경쟁을 삼가고, 재야민주화세력과 합심해서 민주회복에 주력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집권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 의사는 전연 없었다. 이는 재야세력 통합에 대한 양 세력의 입장차로 표출되었다.¹²⁷⁾

한편,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도 소장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풍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추진한 당 개혁은 정풍대상자로 지목된 인사들에게 당내 요직을 다시 맡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¹²⁸⁾ 이는 공화당 지도부가 여전히 과거와 절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권교체와 집권 가능성을 낙관했던 신민, 공화 양 정당들은 새 헌법 시안에

123) 위의 신문, 1980년 1월 19일자.

124)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기념재단, 2007, p. 19.

125) 김삼웅 편저, 앞의 책, p. 90.

126) 『동아일보』, 1980년 1월 19일자.

127) 심지연, 앞의 책, pp. 289~290.

128) 『동아일보』, 1979년 12월 26일자.

관심을 쏟았다. 1979년 12월 말부터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주관 아래 개헌공청회가 중앙 및 지방에서 열렸다. 개헌공청회는 대중적 관심을 모으며 기업 하에서 정권교체와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1980년 1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공청회가 열렸고, 이후 공청회는 광주, 대전, 부산 등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었다. 부산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순회공청회는 여섯 차례 진행된 후 1월 29일 완결되었다. 공청회에 참여한 거의 모든 이들이 강조한 것은 사법권 독립, 지방자치제 실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 등이었다.¹²⁹⁾

2월 9일 양당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직선제, 임기 4년에 1차 중임, 통대선 출의원제 폐지 등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서 일치하는 헌법시안을 마련했다.¹³⁰⁾ 2월 25일에는 서울시내 인촌기념관에서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3자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주한 미 대사, 주한 일본대사, 정일권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향후 정국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인식이 분위기를 이끌었다.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부터 영남과 호남의 지역차별이 본격화되었다. 1965년 10월 15일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전국에서 470만 표를 얻어 455만 표를 얻은 윤보선을 15만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서울에서 윤보선에게 2대 1 비율로 참패한 박정희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영남과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정부 인사와 경제시책에서 철저하게 호남을 차별하는 지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나왔다.

지역차별 정책으로는 군부의 장성 진급과 공직 인사에서 두드러져서 4대 권력 요직 중 중앙정보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에 전라도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지역차별 현상은 생존과 직결된 경제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박정희 집권 초기인 민정 제1기의 4년 동안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 공업단지과 산업단지 조성이 영남에 치우치고 고속도로 건설, 도로포장 등 인프라 구축도 영남에 집중되었다. 제3, 제4공화국이 끝난 직후인 1981년 들어 전라도에 500명 이상 고용하는 공장은 36개로 영남 159개의 22%에 불과했다.¹³¹⁾ 1978년 당시 광주 시민 1인당 연간소득은 전국 평균 61만9,037원의 74.5%인 46만1,451원에 지나

129) 『조선일보』, 1980년 1월 30일자.

130) 『동아일보』, 1979년 2월 9일자.

131) 김동욱,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항쟁주체", 『광주민중항쟁연구』, 정해구 외, 사계절, 1990, p. 89.

지 않았고, 같은 해 광주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7만4,121원의 절반이 안 되는 47.3%인 3만5,073원이었다.

이러한 지역차별정책의 결과는 호남 출신 영세민 비율이 전국 최고인 12.6%(1981년)와 16.6%(1990년)로 전국 평균 6.9(1981년)와 7.7%(1990년)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시설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서도 푸대접받는 전라도에서는 가난한 농촌을 지킬 수 없어 고향마을을 떠나는 이농현상이 홍수처럼 벌어졌다. 1940년대 경상도 인구나 엇비슷했던 전라도 인구는 박정희의 지역주의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더니 2000년대 들어 경상도 인구의 40%이하로 격상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의 김대중 탄압은 호남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야당의 신예 정치인 김대중이 장차 자신을 위협하는 도전자로 압박해올 것을 예견했음인지, 김대중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김대중 후보의 자택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정일형 선거대책본부장의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폭력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관권개입과 금품살포, 지방색 조장과 중상모략, 여기에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용공 조작까지 행해졌다.

박정희는 그 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유세를 다니는 김대중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들었고,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납치해 동교동 자택에 연금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초 김대중을 납치해 옆방에서 살해한 후 토막 낸 시체를 바다에서 처치하려고 했으나, 뜻하지 않게 실패하고¹³²⁾ 동교동 자택에 연금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김대중은 정치활동이 일체 금지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는 1974년 2월 김대중이 요청한, 위중한 부친의 병문안은 물론 장례식 참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¹³³⁾ 그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에 대해 구속과 연금을 반복하면서 탄압했다. 김대중은 10·26정변 한참 후에야 연금에서 풀려나고 사면·복권되었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전라도 사람들로 부터 장차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김

132) 김경재, 『김형욱회고록4』, 인물과사상사, 2009, p. 171.

133) 김대중, 『나의 삶, 나의 길』, 산하, 1997, p. 208.

대중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30대 젊은 나이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당시 권위 있는 『사상계』 지에 기고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또한 6대 국회의원 당시 초선의원으로서 계산이 어려운 예산안 심의에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며 예리한 질의를 펼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혼쫌나게 하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부터 김대중의 성가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겨우 2선 출마에 불과한 그를 낙선시키고자 다수 국무위원들을 대동하고 두 차례나 목포 선거구에 내려가 소국무회의를 여는 등 관권·금권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당선되는 기적을 이루어내자, 전라도 사람들은 사실상 김대중을 그들의 영웅 내지 희망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을 치르며 신선한 진보적 남북관계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열광 속에 박정희 후보를 압도했는데도 94만 표차로 패배한 데 대해, 전라도 사람들은 금권 및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당선되었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은 채 김대중에 대한 우상 심리만 더욱 굳혀갔다. 이후 더욱 심해진 박정희의 차별 및 억압정책을 겪은 전라도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줄기차게 벌어나갔다.

10·26정변 이후 김대중은 전라도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1980년 5·17쿠데타와 함께 신군부는 전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지도자’로 여기는 김대중을 체포했고, 이 소식은 전라도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나중에 발표된 혐의는 ‘광주폭동배후조종혐의’, 즉 ‘내란음모혐의’였다. 그리고 사형이 선고되었다.

2) 경제적 여건

1980년이 되면서 서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1월에 환율, 금리, 정유와 공산품 가격 등이 매우 큰 폭으로 올랐다. 도매물가가 2월 한 달 동안에만 14.9%나 상승했다. 이는 1955년 1월의 17.7%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민생대책의 부재 속에 이루어진 물가상승은 곧 서민생활의 악화를 의미했다. 이러한 서민의 처지와 달리 대기업과 정유회사들은 금리인상과 석유가격인상으로 특혜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¹³⁴⁾

134) 『동아일보』, 1980년 2월 6일자.

이를 바탕으로 신규 노조 건설과 기존 노조 민주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체불임금 지급, 휴업 반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투쟁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노동운동이 급격히 분출했다. 1980년에 들어서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809건에 달하는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이는 1979년 1년 동안 발생한 총 105건의 노사분규 건수와 크게 대비되었다.

10년 동안 노조결성이 사실상 금지되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되었다. 일본인 기업체인 북룡주식회사 노동자 150여 명은 1980년 3월 31일 연합노조 경남지부 수출자유지역 북룡분회를 결성했다.¹³⁵⁾ 마산지역의 일본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휴업했다. 노총 경남협의회는 1979년에만 2,300여만 원의 흑자를 내고 6년 동안 과실(果實) 송금액이 총 투자액의 배가 되는 북룡기업이 휴업을 단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3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¹³⁶⁾

청계피복지구 연합노조 노동자 160여 명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최저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며 4월 9일 밤부터 농성을 벌였다. 농성 노동자들 즉 4월 8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가?” 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불황을 구실로 최저 생존을 위한 임금 지불을 묵살하는 사업주의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¹³⁷⁾ 청계피복지구 노동자들은 16인 미만의 영세 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퇴직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4월 12일 농성을 벌이던 청계피복지구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합세하여 노동청과 사업주 측의 무성의를 비난하면서 가두시위에 나섰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어 4월 14일에는 전태일 추모식을 갖고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청계피복지구 노동자들의 투쟁은 17일 노사 양측이 노동청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청계피복지구 노동자들 이외에도 민영탄광 광부, 금융노총 진해화학지구 조합원 등이 임금인상투쟁을 벌였다.¹³⁸⁾

4월 21일 이른바 ‘사북항쟁’이 발생했다. 강원도 정선의 동원탄광 광부 3,500여 명이 ‘어용노조 지부장 사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탄광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하는데도

135) 『조선일보』, 1980년 4월 2일자.

136) 『조선일보』, 1980년 4월 17일자.

137) 김삼웅 편저, 『서울의 봄 민주선언』, 한국학술정보 2001, pp. 458-459.

138) 『동아일보』, 1980년 4월 19일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반면, 민영 탄광업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를 벌미로 정부에 탄값 인상을 요구한 뒤 이를 실제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주들은 정부보조금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리며 부를 축적했다.

한편, 노동자들의 시위도 격렬해져 갔다. 4월 25일과 26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일신제강 종업원 500여 명이 농성을 벌였고, 일신제철, 국제 실업, 통양나일론 울산공장 등 전국에서 분규가 진행되었다. 원진레이용 노동자 50여 명도 28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동강제철 노동자 1,000여 명은 4월 29일 임금인상, 상여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진압경찰과 충돌했다 흥분한 노동자들은 시위 도중에 경리부 등 회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¹³⁹⁾

‘사북항쟁’의 폭력적 양상을 집중보도했던 언론은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과격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학생들은 노동자들의 시위가 과열되자 언론이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폭동 내지 난동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¹⁴⁰⁾

앞서 언급했듯이, 계엄사령부는 4월 30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치안본부도 노동운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안본부는 사북 동원탄좌, 동북제강 부산제강소, 인천제철, 원진레이온 분규 관련자들을 ‘난동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¹⁴¹⁾ 5월 6일에는 ‘사북항쟁’에 대한 군·검·경 합동수사단이 협상타결과 상관 없이 미리 분류한 난동 주동자들을 본격적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을 당했고, 수사과정에서도 반인륜적인 고문을 당했다.¹⁴²⁾ 신군부는 ‘사북항쟁’ 이래 전면적인 사회개입의 명분으로 삼았다.

지역차별 현상은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정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박정희 집권 초기인 민정 제1기의 4년 동안 지나치게 눈에 띄었다. 공업단지 와 산업단지 조성이 영남에 치우치고 고속도로 건설, 도로 포장 등 인프라 구축도 영남에 집중되었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통한 사회간접투자나 항만시설, 철도·통신사업 국고보조금 배정 등 각 분야에서 영남 우대와 호남 소외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3, 제4공화국이 끝난 직후인 1981년 들어 전라도에 500명 이상 고용

139) 『동아일보』, 1980년 4월 30일자.

140) 『조선일보』, 1980년 5월 2일자.

141) 『조선일보』, 1980년 5월 3일자.

1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편, "80년 사북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8, pp. 215-216.

하는 공장은 36개로 영남의 22%에 불과했다.¹⁴³⁾ 1978년 당시 광주시민 1인당 연간소득은 전국 평균 61만9,037원의 74.5%인 46만 1,451원에 지나지 않았고, 같은 해 광주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국 7만4,121원의 절반이 안 되는 47.3%인 3만5,073원이었다.

박정희는 전라도는 입지조건상 농업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농업분야 지원에서도 전라도를 철저하게 도외시켰다. 심지어 농업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도 곡창지대인 전라도보다 경상도에 더 치 중했다. 예를 들면 민정 초기 4년 동안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관개사업으로 완성한 수리조합이 영남에는 72개 소였지만, 호남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23개소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역차별정책의 결과는 호남 출신 영세민 비율이 전국 최고인 12.6%(1981년)와 16.6%(1990년)로 전국 평균 6.9%(1981년)와 7.7%(1990년)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⁴⁾ 특히 공업시설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서도 푸대접받는 전라도에서는 가난한 농촌을 지킬 수 없어 고향마을을 떠나는 이농 현상이 홍수처럼 벌어졌다. 1940년대 의 경상도 인구와 엇비슷했던 전라도 인구는 박정희의 지역주의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더니 2000년대 들어 경상도 인구의 40% 이하로 격감하고 말았다.

3) 국제관계적 조건

미국이 박대통령의 배제를 바란 것은 분명하며 그 대체세력으로 한국 군부의 당시 수뇌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세력을 지지하고 있었음도 물론이다. 10.26 이후 전국의 인권상황이 유신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정승화와 최규하 체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지지하고 있었다.¹⁴⁵⁾

그러면 정승화 중심의 군부 내 주류세력과 경쟁관계에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 중심의 소위 신군부세력을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1988년에 절정에 이른 5공 관련 국회조사 과정에서 이들 신군부세력이 쿠데타

143) 김동욱,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구조와 항쟁주체", 『광주민중항쟁연구』, 정해구 외, 사계절, 1990, p. 89.

144)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1997, p. 213.

145) 이수인, 전원하, "광주5월민중항쟁 전후의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한정책", 5·18기념재단편, 2007.

를 계획한 것은 이미 11월 초부터였음이 드러난 바 있다. 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이미 11월 1일 보도를 통해 일본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 10·26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역할, 실전부대 사령관 다수의 지지 사건수사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의 질서유지에 중심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군의 실권은 정계엄사령관 등 군의 장로그룹이 아니라 전사령관에게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이 같은 평가와 가장 부합되게 움직인 것은 CIA로 보인다. 당시 CIA 한국 지부장이었던 로버트 브루스터는 이미 10월 27일부터 신군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박종규씨(당시 공화당 의원)를 채널로 신군부세력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0월 31일에는 워싱턴에서 CIA 고위관리 두 사람이 한국 지부의 에이전트로 보이는 한 인사로부터 신군부의 부상과 전두환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고 한다.

12'12쿠데타 당시 미국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군부는 주류세력의 신군부 숙청작업에 위기의식을 느껴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 몇 차례의 경고성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쿠데타를 좌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서 신 군부가 미군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전방부대를 미국 측의 사전 인지 없이 서울로 진격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또 당시의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두환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정통한 한국 군부관계 소식통인 「코리아레포트」지 기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975년 8월 슬레진저(당시 국방장관)는 한미안보정례협의를 위해 방한했을 때 위컴 보좌관을 동행시켰다. 이 회의에서 위컴은 이희성, 유병현, 백석주 등 한국 군부와 친교를 맺었다. 전두환을 밀받침하는 선배 장군들과 친교를 가진 위컴과 전두환의 관계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한미 양국의 베트남 파견시대에 들은 베트남에서 같은 계급의 동지로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전두환은 위컴의 증개로 차기 미 대통령이 되려 하는 레이건의 브레인 리처드알렌과 만나왔다.

여하튼 쿠데타는 성공을 거두고 미국은 재빨리 이 현실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다. 12월 15일 클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과 만나 그의 성향을 확인하고

있으며 1980년 2월 21일에는 홀부르크 국무차관보(아태 팍)가 미 의회 증언을 통해 한국에 제공한 해외군사판매 차관 1억 7,500만 달러와 IMET(국제군사교육 훈련)자금 149만 1천 달러를 승인해 주도록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¹⁴⁶⁾ 또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은 1980년 3월 7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은 ‘매우 안정돼 있다’며 10·26이나 12·12사태 등을 통해서도, “미국의 대한지원 공약은 기본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다”¹⁴⁷⁾고 밝혀 사실상 12·12 쿠데타를 승인하였다.

그런 와중에서 유명한 「뉴스위크」지 보도가 나온다. 이 기사는 ‘한 노련한 외교관’이라는 말로 은폐된 미 대사관 관리의 말을 이용해 “김영삼 씨는 덜 유능하고 김대중 씨는 지나치게 과격하다고 간주되며 김종필씨는 너무 때가 묻었다”는 미국 측의 인식을 전하고 있다.¹⁴⁸⁾ 이 기사대로 세 사람 모두가 “이상적인 선택은 되지 못 한다”고 하면 미국의 선택은 어디로 귀결되는 것일까? 이 기사는 당시 이루어져 있던 학생과 군부의 공존관계가 깨져 학생과 노동자들이 폭발할 경우 “이번에는 정부 지도자들이 그러한 소요를 구실로 그들의 통치를 연장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이에 대한 해답을 암시하고 있다. 그 정부지도자들의 중추에 전두환 중심의 신 군부가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항쟁 당시 미국이 취한 정책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광주진압 직후 카터 대통령이 CNN-TV와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그는 이 회견에서 “나의 판단으로는 공산주의의 침략과 전복으로부터 한 나라의 안보를 유지하는 일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일에 선행한다.”¹⁴⁹⁾ 고 전제하고 “우리는 우리의 맹방이나 무역 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소련의 영향력에 내줄 수는 없다.”¹⁵⁰⁾고 말하고 있다. 카터의 이 말은 미국의 일차적 관심이 공산세력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관리들은 광주 항쟁기 전반에 걸쳐 북한의 위협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5월 22일에 열린 백악관의 한 특별회의에서는 “계속되는 소요사태와 폭력의 고조는 외부세력의 위험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합의문을 작성 하였다.¹⁵¹⁾ 5월 23일 항공모함

146) 『조선일보』, 1980년 2월 22일자.

147) 『조선일보』, 1980년 3월 9일자.

148) 『뉴스위크』, 1980년 4월 7일자.

149) 『조선일보』, 1980년 6월 4일자.

150) 『동아일보』, 1980년 6월 2일자.

151) 『뉴욕타임즈』, 1980년 5월 23일.

코랄시호와 공중지휘용 공군기를 한반도 근역에 파견한 것이나 27일 새벽 6척의 군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출동시킨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유지를 바라는 미국의 국가이익은 미군 등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로 파악된다. 자유와 민주주의 등의 극히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 자신의 국가이익을 관철하는 극히 미국적인 수법임을 언급한 바 있다. 카터가 말하는 ‘공산주의의 침략과 전복으로부터 한 나라(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일’이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막대한 정치적·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과 동의어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¹⁵²⁾

2. 항쟁의 내부적 국면

1) 운동세력의 문화적 여건

신기욱(1994)에 의하면, 한 사회에서 집단 혹은 지역에서 저항적 집합의식이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이 활발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월광주항쟁은 매우 유의미한 집합행동의 사례이다. 즉 한국 근현대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비교되는 ‘역사적 기억’,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활동,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여러 농민운동 및 1929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의 풍부한 집합행동의 기억과 같은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은 박정희군사정권시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호남지역이 배제되고, 그 결과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면서 호남지역의 저항적 집합의식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오월항쟁은 단지 우연이라기보다 역사적 기억에 의한 불의에 저항하는 집합의식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표-1>에서 보듯이, 1963년부터 1971년 사이에 치러진 세 번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52) 이수인·전원하, 앞의 논문, 5·18기념재단편, 2007.

<표-1> 5대~7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의 시도별 득표율

지 역	5대(1963년)		6대(1967년)		7대(1971년)	
	박정희	윤보선	박정희	윤보선	박정희	김대중
서울	30.2	65.1	45.2	51.3	39.0	58.0
부산	48.2	47.5	64.2	31.2	54.5	42.7
경기도	33.1	56.9	41.0	52.6	47.2	47.8
강원도	39.6	49.1	51.3	41.4	57.4	37.2
충청남도	40.8	49.4	45.4	46.8	54.4	38.7
충청북도	39.8	48.9	46.6	43.6	51.1	42.4
전라남도	57.2	35.9	44.6	46.6	33.9	58.8
전라북도	49.4	41.5	42.3	48.7	32.3	58.4
경상남도	61.7	29.9	68.6	23.0	68.6	20.7
경상북도	55.7	36.1	64.0	26.4	70.8	24.7
제주도	69.9	22.3	56.5	32.1	53.2	38.8
전 국	46.6%	45.1%	51.4%	41.0%	53.2%	45.3%

출처: 지병문 외, 『현대 한국의 정치-전개과정과 동인』, 2010, pp.153-179의 자료를 재구성함.

1971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역감정이 투표에 본격적으로 발현되었다. 박정희후보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70.8%와 68.6% 등 70%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는 각각 32.3%와 33.9%로 1967년에 치러진 6대 대선에 비해 약 10%정도 감소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각각 58.4%와 58.8%의 지지를 받았다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는 각각 24.7%와 20.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박정희군사정권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상도 지역에 대한 집중투자, 그리고 정부각료의 충원과정에서 영남출신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유발한데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전라도 지역민들은 편향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인 불만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1980년 서울의 봄 국면에서 민중들의 전반적인 정치의식이 성숙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지역의 사람들이 오월항쟁에 참여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무어(Moore, 1978)와 정철희(1993)에 의하면, ‘불의’(injustice)라는 규정과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정치적 저항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형성기제로 작용한다.¹⁵³⁾ 특히 권위주의적인체제하에서는 이것이 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였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 5월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난 저항의 형성과 항쟁의 확산과정에서도 불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시위대가 규정한 불의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진압 및 무차별적인 살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군부의 등장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부정이었다. 다음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8일 오후 4시쯤 되자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위에 공수부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0분정도 시간이 지나자 공수대원들은 골목마다 뛰어 다니면서 주변에 숨어있는 청년들을 잡아 두들겨 패고 손목을 뒤로하여 포승줄로 묶고는 차에다 던져 올렸다. 차 위에는 무전병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발로 차고 몽둥이로 난타했다. 차가 가득차면 어디론가 떠나고 다시 빈차가 왔다. 거리에는 살기가 들고 골목마다 비명이 요란했다. 이를 바라보던 할아버지 한 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세상에 6.25도 경험했지만 이렇게 잔인한 것은 처음봤다. 저놈들은 백정과도 같은 놈들이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러느냐?”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¹⁵⁴⁾

“... 광주는 사실상 그래. 14, 15, 16일 3일 밖에 안 했어. 17일 날은 전혀 안 했어. 그리고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이었어. 경찰이 뒤에서 지켜주고. 그렇게 끝났는데 5·18이 터져버니까. 시민들은 조용한디 군인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렸지. 그래서 실은 군인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더 흥분했어. 5·18이 발생한 이유는 어찌보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길 가던 여자들도 다 두드려 패버리고. 구경나온 사람 다 두드려 패버렸어. 그러니깐 시민들이 흥분하지. 군인들은 말 그대로 광주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그 밤중에 들어왔대. 새벽에. 그래서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공포심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시민들보고 구타한 것이지. 구경나온 여자고 어린이고 하다못해 다방에 쫓아가서 패고.”¹⁵⁵⁾

153) 최정기, “광주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정”,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1997, p. 71.

154)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90, 풀빛; 조대업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운동문화: 이념 및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2003, p. 185.

이러한 불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당시의 정세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1980년 봄은 그때까지의 유신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면서 형성된,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 요구의 분출기였다. 이에 국민들은 ‘유신 헌법의 철폐’와 ‘민주적인 개헌’으로 나타나는 민주화 요구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오월광주항쟁 당시 ‘민주화’라는 정치적 담론은 계엄군의 만행과 억압적인 체제의 재등장이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항쟁 참여자들의 중요한 구호가 되었다.¹⁵⁶⁾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이 구속되자 이를 민주화의 좌절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조치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예컨대, 1980년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대학생들의 시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학생들과의 연대의식이 형성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욕구분출과 정치의식을 확산하고 공유하였다. 아래의 증언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 오월이 오니까 학생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딱 어용교수 문제는 접고, 검침(점침)해 버리고 우리 할 것 했으니까, 하고는 박관현이를 앞세워서 지도부가(를) 형성해가지고 그 때 광주시민 의식화운동에 들어갔습니다. 5월 14, 15, 16 사흘 동안 소위 인제 가두시위를,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로 해서 밤에 횃불시위까지 하면서 요런 축제분위기를 가꿔가면서 국민들, 시민들을(참여시켰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단도 참여했어요, 그 시위에. 우리가 왜 참여했냐면 우리가 있어야 평화적인 시위를 한다, 우리가 완충지대에 있어야(한다 해서 참여한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는 2층 같은 데서는 금남로에 보면 다방이 많았잖아요. 다방 아가씨들이 창문 열고 박수 치고. 공개 그 정도로(시민들의) 의식화가 되야 분(되어버린) 거야.”¹⁵⁷⁾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1980년 5월 25일 오후 10시, 도청에서 결성된 ‘민주시민주쟁위원회’(이하 민주투쟁위)¹⁵⁸⁾는 광주시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

155) 5-18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 - 교육가편』, 2006, pp. 227-228.

156)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당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구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민주정부 구성하자’, ‘비상계엄 철폐하라’ 등이다.

157) 5-18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1 - 교육가편』, 2006, pp. 27-28.

158) 민주투쟁위원회의 명단은 위원장(김종배, 학생수습위 부위원장, 대학생), 내무 담당 부위원장(허규정, 학생수습위 홍보부장, 대학생), 외무 담당 부위원장(정상용, 회사원, 학생운동 출신), 대변인(윤

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투쟁위는 윤상원·정상용·김영철·박효선 등 민주수호범시민권기대회를 주도한 민주화운동세력과 김종배·허규정 등을 비롯한 학생수습위 강경파, 그리고 박남선 상황실장과 시민군 등 무장 시위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민주화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저항 세력은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군에 대해 정부 당국의 공식 사과, 사상자 피해 보상, 저항자 명예 회복과 처벌 반대 등을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항쟁은 민주화를 압살하는 신군부 쿠데타에 대한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광주를 비롯한 전 국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투쟁위는 저항세력의 요구 사항을 외면한 채 무기 반납만을 요구하는 군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무장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광주항쟁에 대한 민주투쟁위의 시각과 해법은 ‘광주 시민 결의 사항’¹⁵⁹⁾에 나타나 있는데, 우선 광주 시민들의 저항 성격을 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저항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피해와 책임을 과도정부가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계엄령 해제, 민주인사 석방, 민주인사가 참여하는 과도정부 구성 등을 요구했다.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투쟁위는 향후 활동계획을 두 가지 방향에서 수립했다. 하나는 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했다. 군은 처음부터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애초에 들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민주투쟁위의 투쟁 주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고 단지 희생을 우려했을 뿐이었다.¹⁶⁰⁾ 지도부는 군 당국의 강경 진압

상원, 사회운동가, 들불야학 강학), 상황실장(박남선, 학생수습위 상황실장), 기획실장(김영철, 빈민운동가, 들불야학 강학), 기획위원(이양현, 노동운동가, 학생운동 출신), 기획위원(윤강욱, 학생운동 출신), 홍보부장(박효선, 문화운동가, 들불야학 강학), 조사부장(김준봉, 시민군, 회사원), 민원실장(정해직, 홍사단 아카데미 활동, 교사), 보급부장(구성주, 회사원) 등이다.

159) 26일 정오 궐기대회를 통해 민투 지도부는 정부에 요구하는 7개 항의 ‘광주 시민 결의 사항’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1)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정부에 있다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2) 무력 탄압만 계속하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3) 민족의 이름으로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형하라. (4) 구속 중인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고 민주인사로 구국 과도정부를 수립하라, (5)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의거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6)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피해 보상과 연행자의 석방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7)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우리 80만 시민 일동은 투쟁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선언한다.”이다.

위협에 대해 TNT를 활용해 대응하고, 무장시위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 전투 조직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TNT는 군에 의해 이미 뇌관이 제거돼버렸고, 예비군을 전투조직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또 하나의 방향으로 좀 더 오랜 싸움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정상 운행, 광주시 비축미 공급, 방송 및 언론기관 가동,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대 조직, 유류 통제 관리 등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투쟁위는 이 계획 또한 시행되기도 전에 최후를 맞는다. 민주투쟁위는 투항적 태도와 수습 성격을 띠었던 이전 지도부와는 달리, 처음부터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적 성격을 분명히 했으며, 저항세력과 광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군 당국의 무력 진압에 맞서 최후까지 투쟁한 무장항쟁 지도부였다.¹⁶¹⁾

2) 운동역량의 조직화

1979년 10·26사건 이후 유신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1980년 ‘서울의 봄’은 민주화운동의 분출기였다. 윤보선·함석헌 등 재야인사 500여 명은 1979년 11월 24일 서울 YWCA에서 결혼식을 위장한 ‘통대에 의한 유신대통령 선출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를 전후해서 유신체제 당시 지하로 잠적했던 민주화운동, 특히 학생운동권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11월 22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서강대에서는 학도호국단 해체, 해직교수 복직과 어용교수 추방, 민주화 억압 총장과 학장 퇴진, 구속 학생 석방과 복학조치 등 학원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학생운동은 학내문제에서 민주회복이라는 정치운동으로 점차 발전되는 가운데 부산·대구·광주 등의 지방으로 확산되어갔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미약한 관계로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기본 축을 구성하고 있었다. 전남대를 비롯한 학생세력은 당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 카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YMCA 등의 종교단체나 민주청년협의회, 현대문화연구소, 녹두서점 등 재야사회단체들과는 매우 밀접한 결속과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있었다.¹⁶²⁾

160) 나희갑, 「5·18의 전개 과정」,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p. 251.

161) 정재호, 「5·18항쟁의 전개과정」, 『5·18 그리고 역사』 도서출판 길, 2008.

1979년 11월 28일, 금남로 1가 광주YWCA회관에서는 광주기독교연합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전남해직교수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전남지부·광주민주청년협의회·기독교장로회 전남청년연합회 등 6개 단체 공동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선거 분쇄 시민대회’가 열렸다. 서울 YWCA의 ‘유신대통령 선출반대 국민대회’ 나홀 뒤였다. 대회는 ‘민주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¹⁶³⁾라는 제목의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처럼 결혼식으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개최하고 ‘통대에 의한 대통령 선출반대’의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참석자들은 YWCA회관 안팎은 물론 도로까지 짝 매워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들은 ‘유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반대’, ‘유신잔당 처벌’, ‘민주세력 거국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3만7,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다. 행인들도 박수를 보내며 속속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광주YWCA집회는 4월 혁명 이후 처음일 정도로 계엄군 및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 끝에 19명이 연행되었다. 11월 30일에는 전남대 학생 2,000여 명이 이틀 전 열렸던 광주YWCA집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재차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광주YWCA시민대회와, 전남대 학생들의 계속된 집회와 시위는 10·26정변 이후 광주에서 열렸던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결정판이기도 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해 5월 들어 잇따라 열린 학생들의 민주성회의 불씨로 작용했다.

대학 교정은 유신체제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학생 어용기구로 발족했던 학도호국단이 해체되는 등 민주화열기로 가득했다. 신학기인 1980년 3월 28일 서울대를 시발로 4월까지 전국 각 대학의 총학생회가 부활함으로써 학내 민주화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5월로 접어들면서 대학가와 재야민주인사들 사이에서는 계엄령 즉각 해제 유신잔당 퇴진, 전두환·신현확 사퇴, 정부 주도 개헌 중단, 정치일정 단축, 노동3권 보장 등 정치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분위기였다.

전남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에서는 3월 들어 유신반대투쟁을 벌이다 구속되었거나 해직 또는 제적되었던 교수와 학생들이 복직·복학되면서 대학가에는

162) 지병문 외, 『현대 한국의 정치-전개과정과 동인』, 박영사, 2010, p. 226.

163)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1』, p. 384.

‘학원자유화’ 또는 ‘학원민주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특히 정동년 등 노장 복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날마다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철폐, 어용교수퇴진 등 학교 안팎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내시위를 벌였다.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가 제적된 후에도 민주화운동은 물론 들불야학운동까지 참여했던 박관현이 3월에 복학함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장에 당선되면서 전남대의 민주화 열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전남대생들은 5월 3일 3,000여 명이 ‘계엄령 해제’, ‘유신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국성토회를 여는 것을 비롯하여 거의 날마다 교내시위를 벌였다. 또한 조선대생들도 5월 9일 2,000여 명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주로 학내문제를 다루었지만, ‘민주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5월 13일 전남대·조선대·동신전문대 등 시내 9개 대학 학생 대표 11명은 15일부터 도청 광장에서 합동으로 민주성회를 연 다음 시내시위를 벌이기로 합의하고, 몇 가지 강령을 채택했다.

이튿날인 5월 14일 오전 10시쯤 전남대 학생 6,000여 명은 교내 운동장에 모여 시국대회를 열었다. 오후 1시쯤 대회가 끝나갈 무렵, 성급한 일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당초 이들은 가두시위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박관현 총학생회장 주도하에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교내시위만을 기진 후, 다음 날인 15일부터 본격적인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일부 학생들이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간 것이다. 교문 밖을 에워싸고 있던 경찰의 저지가 완강한 듯했지만, 학생들은 어쩐지 쉽게 가두로 나갈 수 있었다. 학생들은 광주역 광장에서 일단 대열을 정비한 후 스크림을 짜고 ‘비상계엄 해제하라’, ‘유신잔재 청산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광남로와 금남로를 거쳐 도청 광장까지 진출하여 분수대 주변을 둘러쌌다. 이때가 오후 3시쯤이었다. 총학생회장 박관현은 시민들에게 오후 6시까지 집회를 마치겠다고 약속한 후 민주성회를 진행했다.

전남대생들은 다음 날로 예정된 연합시위에 대비해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지역 9개 대학학생 대표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제2시국선언문’¹⁶⁴⁾ 낭독으로 민주성회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갖가지 성명서와 선언문을 낭독한 다음, ‘계엄철폐’,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오후 6시가 되자 당초에 약속한대로 교가를 합창하는 것으로 민주성회를 끝내고 귀교 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반일 정부가 어떤 특단조치와 함께 휴교령을 내리면, 다음

164) 위의 책, pp. 725-726.

날 아침 교문에 자동적으로 모여 시위를 벌이되, 여의치 않을 경우 낮 12시 도청 광장에 모이자”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학생들은 금남로와 제봉로 두 길로 나누어 갖가지 구호를 외치며 전남대 교정으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귀가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강당에 남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이날 민주성회 및 가두시위를 질서정연하게 진행했고, 경찰은 시위 저지를 포기한 듯 사실상 수수방관한 채 시위행렬을 따라가며 호위하는 모양새였다. 이 같은 일은 곧이어 열린 15일과 16일 햇불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은 경찰의 강력한 저지작전으로 인해 난마와 같았던 종전 시위와는 달리, 그들의 방관 아래 비교적 질서 있게 줄지어 걸어가면서 구호를 외치는 학생시위대에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조하였다. 걸으로는 최루탄과 돌맹이가 난무하던 유신체제 때나 그 전해 11월의 시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날인 15일, 조선대 광주교대와 각 전문대학 등 시내 8개 대학 학생들도 당초 예정했던 대로 시위에 나섰다. 더욱이 전날 전남대 학생들의 질서정연한 시위와 도청 앞 광장의 민주성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소식은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 대단한 부러움으로 여겨졌다. 이날 다시 가세한 전남대생들을 비롯하여 조선대·광주교대, 그리고 시내 모든 전문대학 학생들은 도청 광장을 향해 일제히 자기 학교를 출발했다. 특히 전남대생들은 50여 명의 교수들에게 ‘민주화운동 동참’이라는 리본을 달아주었다.

4월 혁명 이후 처음으로 학생과 교수가 동참하는 시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오후2시 30분, 1만5,000여 명으로 늘어난 각 대학학생들은 도청 광장의 분수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민주성회를 진행했다. 전날의 대회가 전남대생들만으로 열렸다면 이날의 대회는 명실공히 광주시내 대학생 전체의 총회라고 할 수 있었다. 유신체제 이후 숱한 시위가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시내 한자리에 모여 그것도 경찰의 저지 없이 차분하게 시국집회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총지휘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맡았다.

대회는 전남대 대의원총회 이름으로 작성된 ‘결전에 임하는 우리의 결의’¹⁶⁵⁾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조선대·광주교대 민주투위의 ‘선언문’ 전남대

165) 위의 책, p. 728.

의 ‘대학의 소리’ 광주교대 학생들의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 동신전문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 등이 낭독되었다. 오후 6시가 되자 당초 약속대로 민주성회를 끝낸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전날 전남대생들에게 선언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날 시위하자’라는 약속을 시내 전체 대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천명했다. 학생들은 이튿날 밤 촛불시위를 갖기로 결의한 후, 학교별로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자기 학교로 돌아가 해산했다. 특히 전남대 교수들은 학생들 앞에서 줄지어 시위대열을 이끌고 학교로 돌아갔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다음 날 촛불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도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에 관심을 갖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학생들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생각보다 열렬했지만 자기들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잇따라 시위를 벌인 서울의 대학생들이 시위 자체를 결의한 것과는 달리, 광주에서는 이미 계획했던 대로 다음날 촛불시위를 벌인 다음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16일 오후 4시가 되자 시내 각 대학 학생들은 예정대로 도청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동신전문대·조선대공전·기독병원간호전문대·성인경상전문대·서강전문대·송원전문대 등 광주 시내 9개 대학의 학생들과 전남대 50여 명을 비롯한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시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시민들까지 3만여 명이 참여해 도청 광장을 꽉 메운 가운데 시국성토회가 시작되었다. 이날은 마침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19년째가 되는 날이어서, 학생들은 5.16쿠데타를 응징하는 뜻으로 ‘5.16화형식’을 가진 다음,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투쟁을 벌이다 제적되었던 복학생을 대표하여 전남대 정동년(38)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것을 비롯해 갖가지 선언문과 성명서, 그리고 ‘국군에 보내는 메시지’¹⁶⁶⁾가 낭독되었으며, 수많은 구호들이 소리높이 쏟아져 나왔다.

학생들은 어둠이 깔린 오후 8시가 되자 400여 개의 촛불과 피켓·플래카드를 들고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조선대 학생을 선두로 한 1개조는 금남로를 거쳐 유동삼거리(지금은 사거리)를 돌아 광주천변을 따라 현대극장을 지나 다시 금남로로 해서 도청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고, 전남대 학생들이 앞장선 다른 1개조는 노동청과 문화방송 앞길을 통과해 광주교교·계림동을 산수동 오거리를 지나 도청 광장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였다. 시내에는 온통 촛불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166) 위의 책, p. 735.

약 1시간 40분 동안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다시 도청 광장에 모여 갖가지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의 민주성회와 시위진행은 질서정연했다. 특히 16일의 햇불시위는 한 차원 높은 시위문화를 구현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햇불시위대에 박수를 보내 격려했고, 일부는 행렬을 따라 가며 구호를 함께 외치기도 했다. 학생들은 당초 시민들의 호응도를 알아보기 위해 밤 9시를 기해 시내 전역에서 소등을 할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반론에 따라 철회했다.

3일 동안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측 반응과 위해 일단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사흘간의 시위를 이끈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휴식 기간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시위를 벌이자”라는 14일과 15일에 선언했던 공개약속을 광주 시내 모든 학생들에게 또다시 천명했다. 밤 10시쯤 시위를 끝낸 학생들은 타다 남아 버려진 유인물을 비롯한 햇불 뭉치, 종이 부스러기나 담배꽂초 등 온갖 쓰레기를 치우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일부 학생들은 다음날 새벽 다시 나와 덜 치워진 거리를 말끔히 청소했다.

연일 진행된 민주성회와 시위는 해방 후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어느 시위보다 규모와 질서 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투철한 민주 의식과 함께 이번 시위를 지휘한 전남대 등 각 대학 학생회 지도부의 탁월한 리더십과 치밀한 계획성이 크게 작용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유신체제는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부세력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 집권을 도모한 체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샀다.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배경으로 하여 반독재민주화투쟁은 점차 대중적으로 전개되어갔다. 유신체제는 바로 이러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억압하였던 체제였고, 그것은 역으로 국민들의 또 다른 불만과 불신을 촉발함으로써 체제 붕괴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가 국민들의 자유와 저항운동을 통제·억압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두 시기로 나뉜다. 이에 따라 유신체제하에서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개 과정도 크게 두 개의 소시기로 확연하게 나뉜다. 첫째 소시기는 유신체제의 성립부터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는 1975년 5월까지이며, 둘째 소시기는 긴급조치 9호 발동부터 박정희 암살사건이 발생하는 1979년 10월 26일까지의 시기이다.

먼저 간단하게 제1소시기에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지 살펴보자. 1972년 10월 유신이 군대를 동원한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동안 반독재민주화투쟁은 소강국면을 맞았다. 유신이라는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내연(內燃)하는 상황에서,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은 8월 8일 도쿄의 그랜드팔레스 호텔에 있던 김대중이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현해탄 어느 지점에서 살해될 운명에 처하였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살해되지 않고 서울의 자택으로 돌려보내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유신 체제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유신에 반대하는 투쟁을 확대해갔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신헌법 철폐, 즉 개헌을 요구하는 투쟁이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갔다. 먼저 1973년 10월에는 학생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시위를 조직화하였다. 1974년 초부터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개헌청원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개헌청원서명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1월 8일 유신헌법이 부여한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및 헌법의 개폐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전국적인 반 유신시위 시도를 북한의 사주를 받는 좌경용 공사건으로 만든 이른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였다. 1974년 4월 3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시위와 함께 민청학련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과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뿌려지자, 중앙정보부는 이날 오후 “공산주의자의 배후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점조직을 이루고 암호를 사용하면서 200여회에 걸친 모의 끝에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폭동을 유발하였으며, 정부를 전복하고 노농정권을 수립하려는 국가변란을 기도하였고, 그 배후에는 ‘인민혁명당’ 그룹이 있다”고 발표하며 밤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였다. 민청학련사건은 한편에서는 유신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저항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인민혁명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으로 인하여 유신체제의 폭압성에 대한 공분을 더욱 확대시켰다. 1995년 4월 25일 사법제도 100주년을 맞아 문화방송(MBC)이 판사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인혁당 사건이 선정되었다. 1975년 4월 9일 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20시간 만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형이 집행되었는데,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민청학련사건으로 박정희 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세력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는데, 1974년 8·15경축식에서 ‘문세광에 의한 박정희 저격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와중에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유신정권은 육영수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추도 분위기를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제어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였으나, 들불처럼 번져가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민적 저항의 확산을 보도하는 언론들에 대해서까지도 재갈을 물리고자 하였다. 1974년 말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탄압사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동아일보』 지면광고를 원천 봉쇄시켜 언론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였는데, 역으로 언론의 자유를 향한 해직기자들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무렵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대중화는, 유신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의 연대투쟁을 발전시켰다. 그 상징적인 사례가 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창립이다. 여기에는 국회에서 쫓겨난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정치인에서부터 해직언론인, 문화예술인,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는 유신체제 수립 직후의 잠복기를 제외하고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저항의 수준 또한 고양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이러한 발전에 대응하여, 유신정권은 1975년 5월 13일 급기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이는 4월 30일 베트남 패망을 계기로 반공의식과 정치적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데 편승하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긴급조치 9호 선포를 계기로 유신체제는 제2소시기로 진입하였다. 유신체제 시기가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할 때, 긴급조치 9호시기는 그 암흑기 중에서도 더욱 극단의 시기였다. 유신헌법 선포 이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중심 의제가 ‘유신헌법철폐’였다고 하면, 긴급조치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시도 자체를 금압·처벌하고자 하는 법이었다. 긴급조치 9호의 ‘기이한 성격’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자체, 나아가 긴급조치 9호 위반행위를 ‘보도’하는 것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하나의 법이 그

법을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위의 법’이었다는 것이다. 유신정권의 폭압과 그에 대항하는 반독재민주화투쟁과 그 대중화는 1970년대 후반 긴급조치 9호시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긴급조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금압하고자 하는 유신정권의 시도였지만, 반독재민주화투쟁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시기 재야세력들은 3·1절과 같은 경축일에 유신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식으로 투쟁의 물꼬를 이어가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76년 3월 1일에 발표된 ‘3·1 민주구국선언사건’(명동사건)이다. 이 선언에는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용,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문동환, 이우정 등 대표적인 재야인사들이 서명하였는데, 긴급조치 9호 철폐, 투옥 인사와 학생석방, 의회정치복원, 사법권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것들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이슈였다. 이러한 재야인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유신정권은 주동자에 대한 투옥 등의 방식으로 탄압하였다.

긴급조치 9호 하에서의 상황은 대단히 엄혹하였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은 점차 다수의 학생들이 동참하는 학생·대중 운동으로 변화해갔으며, 학내투쟁에서 가두투쟁으로 발전되어갔다. 특히 1977년경부터는 학내시위가 대규모화되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캠퍼스 외부로 진출해 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 예가 바로 1978년 6월 광화문시위사건이다. 6월 12일 서울대캠퍼스에서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를 외치며 캠퍼스를 휩쓸고 다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6월 26일 가두시위계획을 천명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광화문에서의 시위는 실제 성사되었는데, 이는 이미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민들의 이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의 저항도 확산되고 조직화되어갔다. 사실 유신체제는 장기집권체제였을 뿐 아니라, 1970년 11월 전태일의 죽음이 상징하듯 여성 노동자들을 ‘순응적 산업전사’에서 점차 ‘투쟁전사’로 변모시킨 노동자 억압체제이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상징되는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새롭게 결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노동조합을 민주화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임금상승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이슈를 내걸고 투쟁하였다. 전태일의 죽음 이후 결성된 청계피복노동조합(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의 ‘노동교실’ 사수투쟁 등은 1970년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영웅적인’ 투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972년 한국

모방(이후 원풍모방) 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투쟁, 1974년 2월 반도상사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결성투쟁 등 많은 노동자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70년대 말에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이 점차 확대되어갔는데, 유신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늘 국가안보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불온시하는 것은 물론, 간첩작전 수행하듯이 진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였다. 개별 기업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경찰, 안기부 등의 억압기구들이 직접 사용자와 함께 진압작전을 벌이는 식이었다.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권리투쟁이나 노조 결성 자체도 탄압받는 현실에서 산업선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지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6년 동일방직사건은 유신체제 하에서 노조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그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농성 해산에 맞서 노동자들의 ‘알몸저항’이 이루어졌고 공안기관의 지도하에 구사대들은 노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똥물을 투척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¹⁶⁷⁾

긴급조치 9호 하의 엄혹한 상황에서 농민운동의 확산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1976년 11월부터 1978년 5월까지 진행된 함평고구마피해보상 투쟁은 하나의 이정표가 된 농민투쟁이었다. 1978년 여름 경북 영양군에 서는 감자피해보상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이 투쟁을 주도하던 가톨릭농민 회장 오원춘이 안기부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유신체제는 이처럼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을 반정부투쟁으로 간주하여 극단적으로 탄압한, 그래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마저도 곧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시킨 비탄력적인 억압체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 유신체제 붕괴를 앞당긴 정치투쟁으로 전환된 사건이 바로 YH사건이었다. 1979년 8월 9일 YH무역 여성 노동자 187명은 회사의 위장폐업에 항의하여 신민당사 4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다. 8월 11일 경찰의 진압작전이 대단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신민당원과 기자 등이 무수한 폭력을 당하였으며, YH 노동자 김경숙이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YH사건을 문제 삼아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였다. 김영삼 제명사건 발생 3일후인 10월 16일에 7만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청 앞과 광복동 일대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른바 부마항쟁의 시작이었다. 18일에는 부산 일대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마산에서는 18일 밤부터 시위가 발생하였고,

167)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p. 214.

20일에는 마산·창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부마항쟁에는 학생뿐 아니라 도시하층민, 도시자영업자 등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던 계급·계층이 합류하고 있었다. 부마항쟁은 경찰서 11곳에 불을 지르고 경찰 차량 10여대를 파괴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전투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반독재저항운동과 독재국가의 억압적 탄압이 상승작용하면서 체제가 붕괴되고 있었음을 부마항쟁은 잘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1주일이 지난 10월 26일,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의 안가에서 박정희와 차지철을 향해 네 발의 실탄을 발사하였다. 박정희와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이 동석하고 2명의 모델과 가수가 시중을 들고 있던 중앙정보부 안가의 만찬에서 김재규는 권총을 꺼내어 자신이 ‘유신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이른바 1979년 10·26정변이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많은 유산을 남긴 채 종결되었다.

유신체제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다른 시대의 저항운동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1972년 유신헌법과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법으로 금압한 시도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불만과 저항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반독재 정치인들과 각 분야의 비판적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재야, 학생,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의 운동은 조직화된 형태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확산시켜갔다. 유신체제하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이 전면에서 서면서 대중화되고,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기층 민중운동이 성장하면서 더 풍부해져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반독재민주화투쟁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부분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반독재민주회투쟁의 선두에 있었던 학생운동이었다. 유신정권하에서의 반독재민주회투쟁은 민주화가 진행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폭압적 조건 속에서 전개되었다. 유신정권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국민들과 반독재민주회투쟁을 부단히 빨갱이로 매도하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적 전략을 사용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레드콤플렉스(적색공포증)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은 일정하게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독재타도를 요구하고 저항운동을 하는 정치적·이념적 공간 자체가 대단히 협소하였고, 결국 상대적으로 이념적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생운동이 반독재민주회투쟁의

주력으로 선두에 서게 되었다. 유신체제의 전 기간에 걸쳐서 학생들은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투쟁을 선도해갔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을 국민적인 운동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는 재야운동이었다. 재야는 유신체제가 말살한 의회정치공간으로부터 쫓겨나서 거리에서 반독재민주회투쟁에 동참하였던 김대중, 김영삼 등을 비롯한 야당인사들과, 사회 각 영역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반독재민주화투쟁에 적극 나섰던 교수, 언론인, 문화·예술인, 성직자 등 다양한 지식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1974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서부터 매년 3.1절에 민주회복선언을 발표하는 형태로 유신 반대투쟁의 불씨를 이어갔으며, 이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성직자들은 산업선교회와 같은 형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옹호·지원하였고, 유신정권의 반공주의적 공세에 맞서서 열악한 조건에서 막 성장을 시작한 민중운동에 대한 ‘우산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다. 폭압적 조건 속에서 반독재민주화투쟁에 쉽게 동참할 수 없었던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표출하였다고도 말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자와 농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이었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이들 민중에게 강요하였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고통스러운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은 점차 저항적 존재로 변화하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노조건설운동, 어용노조민주화운동, 임금상승을 비롯한 생존권사수투쟁을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민중운동은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단순히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으로서만이 아니라,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독재정권이 기반하고 있던 ‘반민중적인’ 수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투쟁 혹은 개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이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중심을 이루면서,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점차 강화되어갔다. 1960년대의 운동에서는 반독재민주화투쟁 내부에서 지식인운동(학생운동을 포함한)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운동에서는 지식인운동과 구별되는 기층 민중운동이 점차 중요성을 획득하였다. 강준만이 ‘경부고속도로와 전태일 분신’을 1970년대의 최고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된다.¹⁶⁸⁾ 이는 유신체제가 반독재민주화투쟁이 남긴 최대의 유산이었다

168)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1, 인물과 사상사, 2002, p. 5.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 운동적 정체성은 1960년대 이후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이 단순히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배제된 계급·계층운동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서 민중들의 가혹한 현실을 담아내는 리얼리즘적인 작품들, 예컨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객지』와 같은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자 스스로가 쓴 『어느 돌맹이의 외침』은 민중 자신의 변화를 잘 표현한다.

물론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의 투쟁이 개발주의적 프레임과 반공주의적 프레임을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은 반독재투쟁을 소수의 ‘친북적인 빨갱이’들이 주도하는 투쟁으로 몰아 붙였으며, 언론을 통해 그들을 조국의 근대화에 ‘훼방을 놓는 세력’으로 부단히 매도하면서, 반독재투쟁의 대중화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공주의적 프레임과 개발주의적 프레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 엘리트들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⁶⁹⁾ 그렇기 때문에 독재는 오히려 빨갱이들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저항 담론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 유신반대투쟁은 지식인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운동에서 기층 민중 운동적 정체성이 출현하고 부분적으로 급진화 된 인식들이 출현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신체제하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급진적 세력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지향을 갖는 세력들, 온건한 양심적인 세력들까지를 포함하는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도 1980년대식의 ‘혁명적 급진주의’의 지향보다는 ‘저항적 자유주의’의 지향이 강하였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과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극단적인 냉전적 대결에 기초하고 있었고 거기서 발생하는 반공의식을 정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50~1960년대의 조건 속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극우 반공주의적 보수 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포섭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점점 더 폭압적인 체제로 전화되어가면서 자유주의자들의 일부가 반독재민주화투쟁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주의적 지향은 정치세력(혹은 개인)이나 사회운동세력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세력의 경우, 유신체제가 유신에 반대하는 온건한 제도정치인들마저

169) 김보현,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2006, 6장 3절.

배제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배제된 제도정치인들이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이른바 재야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긴급조치 하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구속·투옥된 양심수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여기에는 대학교수들이나 언론인들을 포함하여 정치인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중에는 급진적인 지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에서 보더라도 유신체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 외에 당시 지식인으로서 반독재투쟁에 참여하고 지지하였던 언론인, 지식인, 종교인 등도 대체로 저항적 자유주의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참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즉 광주학살과 제2의 쿠데타로 인하여 군부독재정권의 정당성이 근원적으로 파괴되고, 동시에 지배권력의 폭력성이 투명하게 노정됨으로써 독재정권을 용납하는 것 자체를 도저히 도덕적·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동참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대한 직접적 공감은 대단히 컸지만 유신체제의 폭압성 때문에 직접적인 참여 자체는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부마항쟁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항쟁에 의해서 유신체제가 타도되기보다는, 박정희의 최측근에 의한 암살이라고 하는 일종의 ‘궁중쿠데타’의 형태로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유신체제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또 다른 특징은, 해방 이후 저항운동의 역사에서 최초로 조직적 연대투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유신체제가 반독재투쟁의 조직화를 공안기관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였기 때문에 지속적 조직화는 대단히 어려웠다. 단지 학생들은 동일한 캠퍼스 공간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내의 여러 제도적 기제들을 이용하면서 초보적인 조직성을 갖춰갔으며, 그 결과 준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예컨대 학내에서 이념서클은 학생운동가 양성과 반 유신시위의 동원네트워크로서 학생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1960년대에는 학생운동세력을 제외하고는 독립적인 사회운동세력이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제도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의 연합은 한일협정 반대나 3선 개헌 반대와 같은 사안별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학생운동세력의 저항을 야당

이 지지하는, 혹은 야당의 반대투쟁을 학생운동이나 대중들이 지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제도정치 세력과 구별되는 조직화된 사회 운동세력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11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1975년 3월 ‘동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77년 12월 ‘해직교수협의회’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재야 연합조직으로서는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1978년 민주주의국민연합, 1979년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들 수 있다.¹⁷⁰⁾ 이 조직들은 1980년대 혹은 1990년대의 운동조직들과 비교할 때, 상층 명망가들의 느슨한 연대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독재정권이 운동의 조직적 발전과 확대를 철저히 금지하고 탄압하였기 때문에, 상근직(常勤職)을 갖는 지속적인 저항조직을 운영하기 어려웠다. 1976년과 1978년에 발표된 ‘3.1민주구국선언’ 같은 것도 상층 명망가들이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명으로 결합한 것이었으며 조직화된 운동의 성명서는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기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조직이라도 유지하였다는 것은 이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조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층 민중운동에서도 조직적 성격이 강화되어갔다. 유신체제는 기층 민중운동이 조직화된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하였다. 심지어 기층 민중운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영등포산업선교회나 NCC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탄압을 행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노동자회, 그리고 이들을 돕는 영등포산업선교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NCC인권위원회, 수도권도시선교협의회 등은 1970년대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과 같은 기층 민중운동의 조직적 활동을 상징한다.

1970년대 유신체제는 국민들의 삶을 암흑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은, 한국현대사에서 전무후무한 폭압체제였다. 이 체제와 대결하는 고통스런 저항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그 대중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정점에 이르는 반독재민주화 투쟁은 유신체제기에 형성된 동력과 자양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70) 이우재, "통일전선운동의 전개",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1990.

3.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역사적 국면”

오월광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고갈될 수 없는 역사적 원천이다. 광주항쟁은 1979년 10·26정변 이후 등장한 신군부 권위주의세력과 국가폭력에 맞서 그에 저항한 시민세력 간 무장충돌로써 민주화를 향한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었다.¹⁷¹⁾

1960~70년대 박정희정권 및 유신시기 동안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엄청난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권위주의 국가기구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고해졌다. 이 시기 산업화는 국가의 팽창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세력의 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점에서 당시 상황은 강력한 국가의 성장이 앞서고, 그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뒤따랐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의 광주항쟁은 1960년의 4·19혁명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정부의 권위주의국가체제는 1980년의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허약했으며, 시민사회의 성장 역시 매우 미약했다. 이러한 불평등 조건에서도 권위주의정부와 민주화세력 간의 힘의 충돌은 대규모 유혈사태를 가져왔고, 그 결과 정권은 붕괴되었다. 그 이후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군부권위주의의 강권력도 함께 성장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빠르게 성장해 온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대면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군부권위주의와 민주화세력 간 힘의 균형이 민주화로의 이행을 가능케 할 때까지 무력통제와 유혈항쟁의 전개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1980년 당시의 구조적 조건이었다.¹⁷²⁾ 즉 광주항쟁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와 그에 반하는 민주적 세력 간의 정면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광주항쟁은 민주화への 욕구라는 문화적 지향과 성장주의에 기반한 억압적 군부권위주의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지향이 충돌하는 일종의 문화적 모순이 표출된 역사적 사건(historical event)이다.¹⁷³⁾ 좀 더 구체적으로 광주항쟁의 발발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⁴⁾ 첫째, 오월광주항쟁의 발발은 한국사에서 광주·전남지

171)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와 광주항쟁의 세 가지 의미”, 『아세아연구』, 제50권 2호, 2007, pp. 144-145.

172) 최장집, 위의 논문 p. 146.

173) 조대엽,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운동문화: 이념 및 가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2003, p. 183.

174) 지병문 외, 『현대 한국의 정치-전개과정과 동인』, 박영사, 2010, pp. 233-235.

역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즉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군부세력이 편향적인 지역개발정책 실시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경제적 낙후 및 그에 따른 소외감의 심화이다. 외자의 무절제한 도입과 수출주도형의 성장정책은 경제잉여의 해외유출을 증가시켰고, 산업구조의 파행성과 외채의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농업의 파탄을 가져왔다. 아울러 이러한 축적구조는 지역간·부문간 균등발전을 가속화했으며, 결국 광주 및 전라도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심화시켰다.

둘째, 광주는 1970년대부터 유신독재에 항거해 온 뿌리 깊은 민주운동단체가 많이 존재했다. 이성학 장로나 강신석 목사 등이 중심이 된 개신교 NCC계통의 그룹, 홍남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현정동지회그룹, 카프카서점에서 출발한 남민전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남주 시인과 그 서점을 녹두서점으로 확산·발전시킨 김상윤 등 전남대 민청그룹의 독서를 통한 의식화 작업, 녹두서점과의 유대와 함께 더욱 현실과의 연결에 적극성을 띤 윤한봉, 정용화 등을 중심으로 한 현대문화연구소 팀,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 이기홍씨와 함성지 사건 등으로 옥로를 치르고 출옥한 박석무 씨 등을 중심으로 한 엠네스티 그룹, 장두석 선행과 교내시위사건으로 입대가 거부된 황일봉을 실무진으로 안진오, 문병란교수 등이 지도위원으로 있는 양서협동조합, 명노근, 송기숙교수 등이 중심이 된 전남대 해직교수팀과 권광식 교수 등이 중심이 된 조선대 해직교수팀, 조아라 장로, 이애신 총무 등이 중심이 된 YWCA그룹, YWCA이운정, 이양현, 정상용 등이 중심된 노동운동 팀, 옥바라지 등 부녀자 단체인 송백회팀, 황석영, 문병란 등이 중심이 된 문화운동팀, 서경원, 최성호, 배종렬등이 중심이된 농민운동팀, 박관현 등이 중심이 된 들불야학 팀, 윤만식, 박효선 등이 중심이 된 전남대의 문화팀 광대, 조비오 신부 등이 중심이 된 천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 팀 등 15개 단체들이 광주·전남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75)

셋째,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호남지역민들의 태도이다. 김대중은 1971년에 치러진 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하였고, 그동안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적어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적어도 호남사람들은 김대중의 수난과 자신들의 수난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은 ‘왜 하필 광주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175) 문병란, “절규와 걱정 객관적 관조가 - 5월 문학의 생성과 흐름”, 『예향』, 1988. 5, p. 67; 안중철,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1997, pp. 25-26.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거시적 설명에서 미시적 설명으로 넘어가는 매개요인이 바로 김대중이라는 요인이다. 박정희군부 독재권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해 온 광주·전남지역민들은 이 지역 출신으로 유신체제하에서 탄압을 받아 온 김대중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경제적 낙후와 지역소외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이 내란혐의로 구속되자 시민들의 열망은 분노로 표출되었다. 즉 김대중이 구속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지역소외 극복의 대안을 잃게 되는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광주·전남 지역의 사람들이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격렬한 투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¹⁷⁶⁾

넷째, 박정희독재권력 내의 분열을 계기로 형성된 1979년 10·26사태로 대변되는 1970년대의 정치지형은 민중진영이 유신 파시즘과 대결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유신체제를 일거에 청산할 수 없었던 민중운동 세력 및 제도권내의 반군부, 자유주의자들과 유신파시즘 체제를 재편, 유지시키려는 신군부를 정점으로 한 반동세력간의 대치기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양 진영간의 힘의 대치 상태 기저에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에 이룩한 한국 경제의 불황이라는 축적위기 국면이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위기에 정부의 긴축재정까지 겹쳐 유신 파시즘의 억압 속에 누적되어 온 민중의 반파시즘적 정치성향과 맞물리면서 10·26사태 이후 형성된 권력의 공백기, 대치기에 표출되어 민중의 자연발생적 정치투쟁을 추동했던 것이다.

요컨대, 오월광주항쟁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1979년 10·26 이후 힘의 교착 상태의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유신체제를 복원한 신군부가 집권의 마지막 장애물인 민중세력을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혈 항쟁이었다.

176) 지병문 외, 『현대 한국의 정치-전개과정과 동인』, 박영사, 2010, p. 235.

제4장 송백회 항쟁참여의 인지적 동학

이 장에서는 송백회운동에 나타난 참여와 저항의 인지적 동학(recognitive dynamics)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첫째, 송백회 조직의 이념과 가치 지향 및 항쟁의 역사적 국면에서 송백회운동 참여자들의 신념과 조직에 끼치는 문화전통이 무엇인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송백회(원)의 규범과 문화전통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활동가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였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둘째, 송백회의 항쟁 경험과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조직활동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밝힌다. 우선 송백회원들이 오월광주항쟁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으며 그것들을 공유하였는지를 문헌연구와 구술증언 등을 통해 밝힐 것이며, 송백회 조직원들이 갖는 집합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핀다. 셋째, ‘프레임(frame)’의 개념을 통해 당시 항쟁과정에서 나타난 인지적 동학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것이다. 우선 신군부 세력이 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한 캐치프레이지인 ‘안보’ 논리가 어떻게 항쟁을 진압하는 억압기제이자 도구로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연구자는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신군부세력이 내건 비상사태 수습론, 안보위협론 등의 구호에 나타난 ‘안보’ 개념이 억압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하였음을 규명할 것이다. 당시 광주항쟁 국면에서 항쟁진영과 권위주의 진영간에는 진정한 ‘국가정체성’ 확보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항쟁과정에서 프레임 정치가 지닌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1절 송백회의 인지적 실천

1. 송백회의 이념과 가치

그렇다면 송백회 회원들은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통해 인지적 실천을 전개하였는가? 당시 척박한 사회운동의 풍토에서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송백회가 탄생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여성문제란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자라는 이유 때문

에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사회의 모순구조나 문제구조를 말한다. 여성문제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오늘날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발전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남성에게 종속되며 가족관계에서도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뿐만 아니라 가장인 남성과 다른 남성들간의 엄격한 위계서열, 여성들 내부의 위계서열이 뚜렷이 나타난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과 정립이 필요하다. 가부장제와 여성차별을 궁극적으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하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습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여성차별은 남녀간의 자연적인 차이나 인간의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사회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사회학적 입장들이 있다.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로 보는 입장들 또한 성차별을 정치·교육·직업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단순한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로 보는 입장과 성별 분업체계를 필요로 하는 계급사회의 기본모순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¹⁷⁷⁾ 여성운동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조직화하여 행동해야 하며 여성 자신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은 종래의 관념, 즉 주어진 상황과 역할을 감수하면서 기존 윤리와 도덕률에 부합하고자 하는 태도를 벗어나 여성의 예측된 상태를 지각하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독립된 인격과 생활을 이루기 위해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송백회는 바로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조직화된 단체였다.

제3장 2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70년대는 복음주의를 기본으로 한 여성운동 조직인 YWCA을 제외하고는 우리사회의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가 없던 시기에 송백회는 진보적 여성들이 만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위한 최초의 민주여성 조직이었다. 당시 유신체제에 대항한 조직적인 저항운동은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카톨릭 농민운동이나 JOC, 또는 기독교 농민회에 합류한 농민여성들, 기독교 청년회에 합류한 여성들의 활약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종교의 외피를 쓴 운동이었다. 이 점에서 송백회는 자주적인 시민여성운동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송백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에 이르러 동일방직사건, YH사건과

177) 안진, 『지역여성의 현실과 전망』, 대왕사, 2004, pp. 15-16.

같은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격화되고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여대생들의 참여, 1975년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여성인간선언'과 기생관광 반대, 여성노동자 생존권투쟁을 지원하는 교회여성운동 등이 무르익으면서 광주·전남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위해 여성중심의 운동성과 여성공동체적인 연결구조로서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교적 선진적 의식층인 교사, 간호사, 청년운동가, 노동자들 외에도 민청학련 사건 관련 구속자 부인이나 민주화운동 활동가 부인들로 구성된 송백회는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구속자 부인들은 남편들의 구금과 석방과정을 통해서 유신말기의 사회·정치적 모순에 대해 학습되어 갔고 민주화운동 활동가 부인들 또한 남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다음의 구술증언을 토대로 확인해 보겠다.

“그때 긴급조치 7호 양심수들을 정기적으로 옥바라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 했죠. 외로우니깐 옥바라지를 함으로써 가족들간의 위로나 결속도 되고, 여성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찾아보자 한 거죠. 그런 운동권 남자 부인들이기는 해도 단순히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자율적으로 여성들도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된 거죠. 지향점은 구체적으로 안나왔지만 ‘일단 합의를 해서 회를 만들자, 행동으로 하면서 추구를 하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누가 감옥에 있다하면 같이 쳐들어가서 면회를 하구. 근데 면회를 잘 안 해줬어요. 그런 걸 막 싸우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변화를 시키더라구. 운동이라기보다 하여튼 우리 주부들로서는 외부와 접촉을 하게 되니깐 굉장히 신이 나더라구. 면회 안 되면 막 쳐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재있네’ 그럴 때마다 손으로 양말 떠서 막 보냈거든요. 양말을 무지하게 많이 떠서 보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더라고. 그러면서 변혁운동이 실제감으로 오는 거죠. 막연히 그런 거 있었어요.”¹⁷⁸⁾

“송백회 만들 때 그때는 우리 모두 뜻이 같고 다른 생각 없이 박정희정권을 부수자!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지. 나는 우리선생님(문병란)이 민주화하니까 그 길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뒷바라지 했지요. 여자들도 모두 나라 걱정만 마음이 돼서 같이 운동을 했지. 오로지 마음에 정의가 불타고 날마다 데모하러 다니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제”

178) 홍희윤, 『5·18항쟁 증언자료집4』, 5·18연구소자료총서, p. 29.

“우리집은 학생들 운동권 학생들 윤한봉, 정용화, 조봉훈, 김남주등이 파고 살고 하는 아지트였어요. 하루에 수십 명이 왔다 가고... 모두들 자고 가고 선생님 말씀들 다 듣고 가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어도 학생들이 와서 민주화하고 학생운동 한다니까 힘이 나고 했지요. 선생님이 전교 조운동도 맨 먼저 시작했어요. 농민운동할때도 녹음기 하나 들도 일봉이 데리고 다니면서 시골마을을 쭉-욱 다니셨어요.”

“나도 거의 밥을 못 먹고 힘들게 고생했지만 고생도 모르고 재미가 있어서 신이 나서 운동권학생들 뒷바라지 했제. 우리 집 장맛을 안본 사람이 없을 거요.”¹⁷⁹⁾

이상의 구술자료에서 보듯이 송백회의 궁극적 신념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적 민주화에 있다고 하겠다. 초기 양심수들에 대한 옥바라지 활동에서 보이듯, 모성공동체(母性共同體)로 출발한 송백회는 사회의 구조적 질곡을 통해 더 이상 양심수가 생겨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착취가 없는 구조적 틀로서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화를 실현하고 여성의 성차별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다.

2. 송백회(원)의 공유된 인식과 신념

당시 송백회를 이끌고 간 주요 활동가들은 홍희윤, 임영희, 이운정(연구자), 정유아, 정현애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의 활동 배경은 모두 다르지만 운동의 원칙과 방향에 동감하며 실천을 확산시켜나갔다. 초기에 수감된 남편의 아내로서, 혹은 수감자들의 어머니이자 따뜻한 후원자로서 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지도그룹이 주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사회운동가로서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

특히 지도그룹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여성학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끝에 기생관광에 관한 강의 및 실태 파악, 농촌여성의 실태, 그리고 핵 문제 등도 주요한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송백회 회원들은 기생관광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면서 정신대 문제까지

179) 김숙자, 구술증언, 2011.12.16.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을 간과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이 단체로 기생관광을 하는 것은 단순한 매춘이 아니었음을 인식한 것이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개적인 성 상품화, 일제의 새로운 식민지 정책, 굴욕적인 한일협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이었는데, 송백회 회원들은 스터디 활동과 기초자료들 수집활동을 통해 함께 분노하며 실천의지를 다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송백회 회원들은 당시 사회 현상 뒤에 숨은 본질까지 파고드는 예리한 사회인식을 키워나가는 한편 여성으로서의 모성성도 더불어 키워나갔다. 창립 당시 총무, 제2기 회장을 맡았던 홍희윤은 저명한 소설가인 남편 황석영의 영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홍희윤은 맨 처음 송백회에 대해 단순하게 옥바라지 팀을 하나 만들자는 생각으로 창립에 참여하게 된다.

다음의 구술증언을 통해 송백회원들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인지적 틀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 여성들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송백회 창립과정인데 긴급조치 7호 9호가 있었죠? 긴급조치 7호 세대라고 하는데 그때 학생운동권들이나 재야 쪽이나 많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많이 들어가 갔었다가 ‘그러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옥바라지 팀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 그래 갖고 그때 윤한봉 씨라구 그분이 많이 도와줬죠. 그거 결성한 게 78년도인가? 송백회 결성을 했어요. 대개 구속자 가족들 하고 여교사들 하고 중심으로 해서. 그때 나는 1회 총무였어요. 총무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열성적으로 옥바라지를 했지요. 양말 모으고, 책 모으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80년 5월을 겪으면서 일반적으로 평소 있던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0년 5월 광주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별 의식이 없이 공분(公憤)에 의해서 갑자기 확 혁명적 그걸루 끄시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혁명이 다 그렇지만 갑자기 시민들이 다 죽고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막 공분을 느껴갖고, 거기 확 투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류하구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고를 하고 의식이 있는 대개 지식인 출신이지. 그렇게 분명한 운동 목적이나 변혁에 대한 열정을 갖고 쪽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80년을 맞이해갖고 자신을 전적으로 투여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결합해가지고 5·18이 어떤 의미에선 항쟁의 의미를 띤 거거든요.”¹⁸⁰⁾

“..... 80년대 지나서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도 없어지고, 소설 『남

부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70년대 서울에 있을 때 극비리에 이제 우리 핵심 멤버들이 『임격정』 같은 소설을 읽거나 또 좌익서를 노래를 우리끼리 부르고 막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좌파들이 60년대 이후에 다 당하고 막 그랬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좌파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순결하게 죽었다는, 어떤 혁명에 헌신하고 죽었다는 이상한 환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그런 환상도 사라졌는데, 그때는 좌익도 다들 지식인이었어요. 가장 순결하게 한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북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상한 그리움들이 서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면면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숨겨진 정서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송백회 활동하면서 어떤 끈을 잡았다고나 할까. 어떤 한 부분에서 헌신을 한다는 자기 위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송백회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굉장히 목직하게 여성운동 이런 거 공부하고 여선생들이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송백회에서 방학 동안에 막 짜고 그랬어요.”¹⁸¹⁾

송백회는 신분, 직업 등의 구분을 뛰어 넘어 다양한 부류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현직 교사들도 송백회 활동에 결합했다.

“정현애 선생님 중심으로 여교사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한쪽에는 아줌마 부대들, 그 식구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여교사 중심으로 학습을 했는데 정현애 선생님이 많이 했고,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제 방향설정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돈도 자치적으로 회비 내서 옥바라지했고. 절대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끌어갔고. 그런 거 보면 대단히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저거였는데 5·18로 맥이 끊겼다고 할까. 맥이 끊긴 건 아니고 5·18로 해서 그런 역량이 분출된 거죠.”¹⁸²⁾

당시 송백회 서기를 맡았던 활동가 이윤정(연구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독교청년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을 맺기 시작한다. 이윤정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사회와 역사인식의 틀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민청학련 사건 등을 통해 운

180) 홍희윤, 앞의 책, p. 29.

181) 위의 책, p. 29.

182) 위의 책, p. 29.

동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쌓게 된다.

“그 때 제가 함석헌 선생님도 만나게 되거든요. 함석헌 선생님께서부터 간디 공부 학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심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동부교회를 다니던 많은 선후배들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거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왜 박정희 유신정권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감옥에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눈이 화악 뜨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만들어진 사건이고 학생운동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거기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운동을 했었어요. 정용화라고 있거든요, 전남일보 기사를 하시기도 했던 정용화 씨. 그렇게 하면서 운동하는 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윤한봉 씨, 김상운 선배 또는 김남주 시인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저한테도 어떤 새로운 열정 같은 게 크게 솟아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 때가 유신말기였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쪽에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자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옥바라지를 위해서 구속자협의회 가족들하고 우리 여성들이 뭔가를 해 보자, 또 우리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송백회라고 운동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윤한봉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구요. 또 녹두서점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여러 개의 조그만한 운동조직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인제 장기적으로 변혁운동을 고민해 보자고 결심한 거죠.”¹⁸³⁾

송백회 회원들은 단순한 공분에 의해 사회운동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활동과정을 통해 점차 한국 사회의 변혁에 대한 신념을 키워나갔으며 광주항쟁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갔던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적 단체로 머물지도 않았고, 자유주의 여성운동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운동에만 매몰되지도 않았다. 옥바라지라는 일상적 투쟁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 인류애, 헌신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였으며, 나아가 사회변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며 인지적 실천을 하였다.

183) 이윤정, 『5·18항쟁 증언자료집4』, 5·18연구소자료총서, pp. 50-51.

“그니까 80년 5월에 투여할 수 있는 조직 체계는 송백회, 문화팀으로서 광대, 그리고 들불야학 팀들이었고 이제 하여튼 민청 세대들, 학생운동 출신들이 있었죠. 그 당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송백회를 재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운동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서울 쪽도 없고, 광주에도 여성운동이라는 게 유신체제가 너무 엄혹하니까 기독교 운동이라든가 가톨릭 운동같이 어떤 종교성을 빌려갖고 운동했던 게 참 많았잖아요? 그런 데서 돈도 많이 빌려 쓰고. 여성운동이라는 게 그때는 참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었지. 자발적으로 변혁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구체적 현실에 옥바라지를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전망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식을 못했지만 여성운동이 전체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상당히 주체적으로 뿌리를 내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5·18이 나지 않았다면 이런 여성운동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전국적인 효과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조직이 있었으니까 5·18이 탁 난 거죠.”¹⁸⁴⁾

이상에서 보듯이, 송백회 창립멤버들은 여성들의 역할을 장기적인 사회변혁에 있다고 판단하여 송백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인물과 단체들을 아우르는 사회운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송기숙)이 감옥에 갔는데 난 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애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울기만하고 그랬어요. 하도 막막하기만 하고 다들 그때는 살아서 돌아 온 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죠. 옆에서들 홍희윤씨 호준이 엄마랑, 이강씨 부인이랑 주변에서 많이들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지나니까 선생님이 나왔어요. 김밥도 말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 모밀집을 한다고 벌였는데... 그 뒤에는 화장품가게도 하고... 서로 의지가 많이 되었제... 송백회 사람들 차암 고마웠어요. 명노 근교수 사모님 안성례랑 이웃들 많이 도와주는데 대단하더라구요.”¹⁸⁵⁾

이처럼 공동체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속된 송백회는 특별한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주화와 정의의 가치를 몸소 체득하였으며 뭉쳐야만 큰 힘을

184) 위의 책, p. 29.

185) 김영애, 구술증언, 2011.11.23.

낼 수 있다는 자각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옳은 일이다. 내가 짠 양말을 신으면 추위에 조금이라도 견디겠지. 그런 마음에 했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남편(박행삼)이 계속 이런일, 민주화한다고 하고 정의로운 일, 하니까 그저 따라 다니면서 했어요. 그때도 송백회 처녀들 대단히 열심히들 하고 한 식구처럼 지냈던 게 넘 좋아... 요즘처럼 운동권이 갈등도 없고, 누가 뭘 하자 하면 다 한마음 돼 갖고 하고...”¹⁸⁶⁾

당시 송백회에서 활동하였던 한 회원은 주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엘 많이 가게 되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기위해서 창립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⁸⁷⁾ 그녀는 송백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를 보는 눈이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바뀌었고, 세상의 어두운 쪽, 꺾박받는 쪽을 돕고자 하는 의식이 전환되었다고 한다. 송백회 활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서적, 경제적인 지지를 해주어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송백회 회원들의 성향은 가정에서 가사에 종사하다 남편이 해직이나 구속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던 부류(김영애, 김숙자, 윤경자...), 남편 또는 주변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의식이 싹튼 경우(선점숙, 전삼순...), 그리고 여성운동에 대한 의식이나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서 있었던 경우(조아라, 이애신, 김경천, 임영희, 홍희윤, 이윤정, 정유아, 정현애...)등이 혼재해 있었다.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이들의 일치된 신념과 활동은 이후 수감자 출신의 운동세력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송백회가 민주화 운동의 중심연결고리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당시 교도소에서 양말이나 영치금을 받았던 학생들은, 송백회에서 짠 양말이나 영치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소감을 회상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 4차례나 구속이 되고 이런 모진 세월을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특히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186) 김서운, 구술증언, 2011.11.25.

187) 김영삼, 구술증언, 2011.12.1.

모으고 해서 우리 구속자들에게 영치금 책 또 옷가지 등 이런 것들을 지원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큰 용기를 주었는데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우리 후원자가 있다.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위로와 안도를 얻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마루 바닥에서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 온기 한점 없는 그런 방에서 몇 년씩을 버티고 살아 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중략) 사실은 독방이 상상을 초월하게 열악한 환경이에요 전구는 5층짜리 전구를 24시간 켜놓지...저는 독방에 살면서 동상 걸리고 시력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 5층짜리 전등 하에서 어두컴컴 한데서 독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털양말이 아니라 종이 한 장만 넣어 쥐도 감사할 정도인데 우리 송백회에서 넣어준 털양말은 털양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었어요. 단순히 털양말 하나가 아니지요.”¹⁸⁸⁾

이처럼 송백회는 이념 중심보다 ‘고난받는 사람들’¹⁸⁹⁾이 인간적으로 결속되어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함께 공동체적인 운명을 나누었고 이러한 실천적 태도가 조직의 인지도를 높이고 운동가로서 회원들의 신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던 것이다.

당시 옥중에서 송백회의 옥바라지를 통해 회원들과 접촉하게 된 한 사람의 구술증언을 통해 송백회 운동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송백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송백회 역사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홍희운여사, EYC에서 나와 같이 활동했던 임영희씨, 지금 목회하고 있는 김은경씨 이윤정씨 등등 이런 분들이 송백회를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운동의 한 부분을 맡아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민주화운동이 그야말로 나와 나가 아닌 하나의 큰 공동체로 공동체 개념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백회 같은 활동이 또 발전해서 결국은 민가협이라고 하는 운동단체로 발전하게 되고 또 유가협이라고 하는 단체도 탄생시키게 되었죠.”¹⁹⁰⁾

188) 조봉훈, 구술증언, 2011.12.7.

189) 당시 송백회 회원들이 기독교적 사명감에서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았음을 시사하는 표현.

190) 조봉훈, 위의 구술증언.

초기 옥바라지에서 시작된 송백회의 활동은 이렇게 해서 차츰 민주화운동 진영의 외연으로 확장 되었다. 유신체제의 억압 하에서 일반학생, 지식인들, 농민, 노동자들까지 구속되는 상황으로 발전 되면서 교회계통 뿐만 아니라 특히 구속자 가족들 위주로 구속자 뒷바라지가 자연스럽게 모임으로 운동단체로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송백회는 바로 이러한 와중에서 탄생된 최초의 여성 운동조직인 셈이다.

송백회는 창립 후 본질적인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권위주의 유신체제 속에서 날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데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회원들은 거의 매일 현대문화연구소와 홍희윤씨 집에 모여 정세를 공유하고 양서협동조합, JOC, YWCA, 가톨릭센터, 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관 활동가들과 유기적 연대 속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활동을 넓혀 갔다.

함평고구마 피해보상투쟁 같은 민주화투쟁 집회나 시국강연회에는 조직된 사회운동 단체 성원들의 동원은 즉각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구속 구금자가 발생하면 송백회뿐 아니라 현대문화연구소를 비롯한 각 사회운동 단위에서의 지지 지원 또한 자발적 동원이 되었다. 예컨대 가족 공동체와 같은 연대는 굳은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강고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규범이 되었다.

1980년 이전에는 여성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그때의 논리는 여성해방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해 여성들이 열심히 투쟁할 때만이 여성은 해방된다는 논리였다. 송백회원들은 그 논리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운동권 내부에서도 남녀 불평등의 문제와 논의기구 속에서 여성들의 소외현상 등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고, 권위주위적 가부장적 체제하에서 여성들이 이중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은 송백회원들에게 주체적으로 서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¹⁹¹⁾ 결국 송백회는 여성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사회변혁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식을 공유하였던 것이다.

191) 정유아,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82, p. 883.

제2절 송백회의 항쟁경험과 정체성

1. 항쟁경험과 인식의 공유

신군부세력에 의한 항쟁 탄압은 운동가로서 송백회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이들은 평화로운 인간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운동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규범을 습득해 나갔다. 다음은 송백회 운동에 참여하였던 한 회원의 구술증언이다.

“21일, 집단 발표할 때 내가 목격한 것이 노동청 앞에서 우체통 있잖아요. 광여고 있는데, 집단발포하면서 퇴각하면서 쓴 총에 한 사람이 탁 거꾸러지더라고요. 이걸 완전히 전쟁이잖아요. 아수라장이죠. 사람들 피가 흘러서 툭툭툭 흐르고 난리가 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시위를 해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투석전을 해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뭘 해야 하는지 이걸 도대체 다들 울분만 차 가지고 팍팍 잡고 울고 이걸 도대체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다. 이걸 정말 6·25때도 이렇지 않았었다.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애국가 부르고 그때 부르는 노래는 뻘하잖아요. 아리랑 부르면서 퍽퍽 울면서, 시위대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아무튼 꿈인지 생인지 모르게 며칠을 보냈어요. 시체를 보는 것도 충격이면서도 자꾸 보니까 이제는 덤덤해져 버리더라고요.”¹⁹²⁾

오월 광주항쟁과정에서 송백회 활동가들의 구술증언에서는 이들의 인간적 고뇌와 불안감에서 시작하여 처절한 죽음을 목도하며 점차 혁명가로서 인식을 공유하는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다. 다음은 당시 활동가였던 윤경자 회원의 증언이다.

“79년 창립된 송백회 활동에 열심이던 나는 80년 5월 민주화 열기가 뜨겁게 분출되고 학생시위가 잦아지자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시위에 참여하였다. 정말 민주화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5월 18일 0시를 기해 계엄확대조

192) 임영희, 『5·18항쟁증언자료집3』, 2005.

치를 선포하여 예비검속이 시작되었다. 새벽 2시에 들이닥친 4-5명의 형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월장해 들어와 남편(박형선)을 개 끌듯이 끌고 갔다. 나는 가두시위에 참여하면서 19일부터는 윤상원 선배와 함께 화염병 제작을 위해 시외로 나가 휘발유를 구해오고 녹두서점 뒷방에서 화염병을 만들었다. MBC방송국이 불타던 20일 밤에는 화염병을 가슴에 숨겨 시위대에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행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아이를 장롱 속에 감추는 절박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길을 가는 사람까지 총칼로 살상하는 상황이라 남편의 생사에 대한 불안감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오빠(윤한봉)에 대한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¹⁹³⁾

"5월 21일 그날도 시위에 참여하고자 방림동 자택을 나서는데 도청에서 총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대거 기독병원으로 실려 오고 있었다. 기독병원 간호감독이 나에게 헌혈을 부탁하여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헌혈을 호소하였다. 구구한 설명 없이도 순식간에 수백명이 쇄도하는 것을 보면서 벽참 감격의 시민공동체를 실감하였다.¹⁹⁴⁾

이처럼 송백회원들은 절박한 공포감을 실천을 통해 극복하면서 시민공동체를 함께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글은 연구자가 당시 항쟁과정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구술증언 형태로 기록한 내용이다.

"5월 26일 오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가슴에 피가 맺히는 날이다. 그날 Y소심당에서 대자보를 한창 쓰고 있는데 윤상원, 정상용 선배가 나를 급하게 찾는다고 하여 나가보니 '오늘 저녁 계엄군이 들어온다! 어떻게 했으면 하나?' 정상용이 말하였고 윤상원은 '이대로 진압당하면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해체를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YWCA에 작업을 하던 사람들, 송백회, 광대, 뒷방에서 투사회보 제작을 위해 등사기를 밀고 있던 박용준, 박몽구, 나명관, 임영희, 정유아 언니, 이수자, 기동타격대원, YMCA에 있던 사람들 20여명이 YWCA 소심당으로 모여 바닥에 총을 앞에 놓고 원으로 둘러앉았다. 나(이운정)를 비롯한 우리 여성들은 '우리는 해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자! 부마사태, 사복사태를 보시오. 항복하면 우리는 의미 없이 죽소!' 울부짖었다. '도청지하에 있는 TNT를 터트려 마지막에 산화합시다!', 'TNT는 정보기관원들이 도청을 들락거리며 뇌관을 다 빼냈다'는 좌

193) 윤경자, 현대사료연구소 구술증언, 1991년 3월.

194) 홍희윤, 현대사료연구소 구술증언, 1991년 3월.

결과 공포 속에 분노에 찬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가고 싶은 사람은 잡지 말고 집으로 보냅시다. 떠나고 싶은 사람은 가게하고 남은 사람으로 병력을 나눕시다.’, ‘남은 총기 M16, 칼빈을 YWCA, YMCA, 도청, 지원동 외곽, 서방외곽, 백운동 외곽으로 나누어 배치하자!’, ‘죽음으로 광주를 지키자!’, ‘우리 모두는 끝까지 계엄군과 맞서 싸우자!’며 마지막 남은 사람들끼리 결의를 하였다. 나(이윤정)는 이 마지막 회합에 남아 맹세한 사람들을 ‘동지’라 부른다. 회합이 끝나고 도청 안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의에 찬 윤상원선배의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¹⁹⁵⁾

“너무 지쳐 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뛰고 악쓰고, 사람이 죽어가고 옆에서 다치고 그러니까, 나도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녹두서점 현애 언니, 이윤정, 정유아 Y간사 광대 멤버 김정희, 최인선, 조대 간호학과 졸업한 고미영, 김영희 이런 애들하고 모여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 대자보를 쓰고 플랜카드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20일이 넘어간 거예요.”¹⁹⁶⁾

“그 때가 18일 아침이죠. 18일날 아침부터 학생들이 밀려오면서 상황을 물어보는데,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좀더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 때 박관현씨하고 계속 연락이 됐어요. 박관현씨가 회장단 일행이 대지호텔에서 있다가 그때는 아직 담양으로 안 나갔을 거예요. 18일 날은 안 나가고 19일이나 20일쯤 담양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통화는 계속 해 왔거든요. 학생들도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확하게 상황 전달을 해주고, 상황 분석을 해 주고 현재 진행된 사람들이 몇 명이고 어젯밤에 진행되어 간 사람이 몇 명이고 진행돼 갔을 때 이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알려주게 되구요.”¹⁹⁷⁾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송백회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시민군과 함께 ‘동지’로 결속되어 투사회보 작성, 대자보 작성, 플랜카드 제작, 상황분석과 전달 등 항쟁을 함께 주도해 나갔다.

195) 이윤정, 『5·18항쟁증언자료집3』, 2005.

196) 임영희, 『5·18항쟁증언자료집3』, 2005.

197) 정현애, 『5·18항쟁증언자료집3』, 2005.

2. 송백회의 집합적 정체성: 여성운동가에서 민주투사로

신사회운동론자의 한 사람인 멜루치(Melucci, 1988)는 1970년대 이후 근대 서구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의 형성과 유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참여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확보하는 집합적 정체성의 구성은 사회운동의 성공을 위한 수단보다는 목표로서 성격이 더 강하며, 이것은 정치적 목표의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성취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멜루치는 또한 집합적 정체성의 구성을 “다양한 행위지향성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상(negotiation)과 적응(adaptation)의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한다. 행위자들은 ‘우리(we)’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함에 있어 행동의 목표(ends), 행동의 수단(means), 환경(environment)과 관련된 행위지향들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협상하고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집합적 정체성 구성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스콧에 의하면 집합적 정체성은 사회운동의 활동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집합적 행위자들에게 일정한 특성을 부여하고 행위자들을 범주화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cott, 1994).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의식(consciousness) 즉, 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의 신념의 종류와 수준과 그 집단의 전략적, 정서적, 관계적 특성들에 의해서 각각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¹⁹⁸⁾

정체성이란 객관적이거나 보편타당한 개념이 아니다. 이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을 지닌 용어이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변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른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고정되거나 유일한 것이 아니며 가변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산물임을 인식한다면, 오월항쟁 당시 송백회의 정체성은 광주라는 공동체와 혹은 조직 내외의 활동가들과 끊임없는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송백회 초기에는 박정희 유신체제의 폭압적 억압과정에서 태동한 민주화운동 속에서 여성운동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갔다. 이들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자

198)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대출판부, 1999, pp. 165-167.

라는 이유로 당하는 억압과 차별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지지 않고는 여성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가로서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민주투사로서 정체성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편(이훈우 : 민청학련 관련자)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할 생각이었으니까 남편의 권유로 송백회라고 운동하는 사람들 모임에 나가 보라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임에 갔는데 감옥 뒷바라지도 하고 언니들이 주제를 정해서 발췌해 가지고 와서 학습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해야하나? 여성운동을 하고 자각심을 갖고... 여자들이 각 분야를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송백회 들어가고 나서 나도 일을 하고 싶어 졌어요. 내가 주부로서 아내로서 역할도 있지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25세에 대학시험을 쳐서... 대학에 가게 되었고 유치원교사가 되었어요. 송백회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 자체를 귀하게 존중해주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5·18이 일어나 전두환 일파에 대해 분노가 너무 컸어요. 머리 속에 온통 다른 생각은 없었고 오로지 이겨야 한다... 광주를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게... 어떤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것 같이 가슴이 벅찼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지요. 도청에 들어갔을 때 구름다리 밑에 시신이 주-욱 있었잖아요? 시신이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함께라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생각 했지요...”(중략)

"5·18은 참으로 처절했어요. 저는 당시 도청 안에 수위실 입구에서 자기 자식들 시체 찾으러 오는 사람들 접수 받는 일 그런 일을 했어요. 며칠인가 기억이 안나는 데 몸이 그야말로 뼈쩍 마른 노인이 속이 다 닳고 타서 입술이 다 갈라져 가지고 덜덜 떨면서 자식을 찾으러 왔어요 너무나 처절했어요. 그 아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송백회를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세상 꿈꾸고 인간자체가 어떤 지위나 직위가 아니라 존귀한 건데 모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했고, 그런 의식을 느꼈어요. 윤경자 언니 집에서 같이 김밥을 말아서 시민군들한테 가져다주고 했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마음이 되는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

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이런 게 현실이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¹⁹⁹⁾

위 증언에서 나타나듯이 송백회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은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평화로운 공동체로 요약된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을 놓지 않고 시민군과 함께 한 이들의 활동은 오월광주항쟁을 구조적, 문화적으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는 거지. 집에 애들 두고 어머니두 계셨는데 나갔다 오구. 딴 사람들, 처녀들은 거기서 다 갔지. 영희까지 유아랑, 이운정. 이런 사람들이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처녀들은 다들 거기서 자고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했죠. 그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서 저녁때 집에 오구. 그때 내가 두고두고 안 잊혀지는 게 도청으로 들어가는데, 시민군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아주 험상궂지, 그야말로 깡패나 그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 내지는 충격이야."

"시민 대표라든가 여성 대표라든가 그걸 하나 읊으라 그러데, 문화팀들이. 그 때 박효선씨랑 김태종이랑 문화팀들이 '내가 다 아니까 읽으쇼!' 하면 가서 그냥 읽는 거지. 그러구 빠라 나오면 또 뿌리구, 대자보 붙이구 같이 그냥 그런 거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데 그니까 두 가지야. 자기 내부에 그 두 가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 하나는 민중들의 그 역량 있죠. 그니까 그 절대적 신뢰! 어떤 계기가 왔을 때 민중의 절대적 신뢰는 진짜 무조건 가져야 되겠더라구. 그 열기와, 같이 막 나누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죠 음식도 나눠 먹구 아줌마들 쌀두 가져오구. 그런 거 보면서 '민중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청 앞 분수대에서의 열정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간다는 거. 그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하면서 또 하나는 끊임없이 계엄군이 쳐들어오네 마네 하는 그 초조함과 공포라고 할까?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그냥 그니까 낮에는 엄청난 환희, 글고, 밤에 각자로 들어갔을 때는 총소리 들으면서 이걸 갑자기 들어와서 언제 죽이지 않을까, 그때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두 가지 교차점이 있죠. 이 두 가지 교차점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하구 혼자 있을 때는 공포스럽구. 이 분열증,

199) 박두리, 구술증언, 2011.12.8.

이 분열증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이야. 난 심리를 분석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늘 우리가 자신감 없어 하구 무서워하나? 그 공포감이 어떤 땀 핑장히 더 강할 수가 있어. 그래갖구 암튼 그런 와중에서 역할이 그 정도였는데 와갔구 이제 5월 27일 함락이 되고 끝났잖아요. 끝나고 살아난 사람도 있구 그렇게 된 거죠 그니까 그 거대한 역사에서 한을 엄청 또 지배하는 게 있더라구."²⁰⁰⁾

"송백회를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같은 거, 그런것 같아요. 좋은 세상 꿈꾸고 인간자체가 어떤 지위나 직위가 아니라 존귀한 건데 모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했고, 그런 의식을 느꼈어요. 윤경자 언니 집에서 같이 김밥을 말아서 시민군들한테 가져다 주고 했는데 한마음이 되는게 너무 좋았어요. 한마음이 되는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꿈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이렇게 현실이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²⁰¹⁾

항쟁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이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투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갔다. 그리고 운동에 참여하게 된 대부분의 동기도 주체적인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다음 구술증언을 통해 확인해 본다.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탄압의 구조니까 이제 역으로 분출된 거죠. 거기에 이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려는 원칙들이 첨가되는 거지. 여성 스스로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후로 송백회도 보면 물론 처음엔 남편에 의해서 다들 시작했지만 다들 주체적으로 해 가더라고. 이런 분들이 다들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잖아요. 임영희도 그렇고. 다들 보면 단순히 어떤 자연발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주체적인 역량으로 해결 수 있는 그런 저력들이 이미 80년 전에 스스로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잘 나가다가 80년 5월에 이제 터진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질 줄은 몰랐어. 나중에 굉장히 비판도 하구 했는데 나 자신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변혁운동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쫓아다녔던 게, 그것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것 같

200) 홍희윤, 앞의 책, 2005.4.

201) 박두리, 구술증언, 2011.12.8.

애. 낭만적 혁명이고 사상이라구 해야 하나? 내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게 80년 전인데 굉장히 근사한 거야. 하여튼 낭만적 혁명이 주는 그런 것, 가슴 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택동, 중국의 혁명. 이상한 환상인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고양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80년 사건으로 이제 눈앞에서 막 터진 거잖아요. 이거는 혁명도 아니고 잔학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후회지, 후회 막연히 갖고 있던 낭만적 혁명이 확 벗겨지고 자기 실체를 들여다보는 거고. 그나마 갖고 있었던 허위의식 요것들의 감수성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5·18이라는 게 그 운동 실체라는 것도 다 보인 거구. 더불어서 자기 개인이 갖고 있던 그 허위의식들도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한 십 몇 년 허우적거린 것이 지금까지 허우적거린 거예요."202)

정유아는 1980년에 송백회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여성으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구속자 옥바라지를 주된 활동을 시작한 송백회에 대하여 운동단체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송백회에서 추천하여 YWCA 농촌부 간사가 되었고 5월항쟁에 참여하였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뒤지기를 싫어하고 남달리 지적 욕구가 강했던 나는 대학시절에 많은 책과 사람들을 접했다. 그때부터 사회구조의 불평등과 인간의 부재에 대해 고민했고 서서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정식으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다. 1980년 이전에는 어머니가 위암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병간호 및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1979년 어머니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시자 사회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1980년 3월부터는 YWCA 농촌부 간사로 활동했다. 그때 농촌부 사업의 일환으로 무공해 두부를 만들어 팔았으며 농촌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박 3일 동안 1회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로 외부 강사나 기존의 농촌 여성운동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형식이었다."

"농촌부 간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1980년 이전의 유일한 여성단체인 송백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송백회는 각계각층의 의식있는 여자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옥바라지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현대문화연구소의 윤한봉 선배가 주도가 되어 개

202) 홍희윤, 앞의 책.

개인의 여자들을 묶어 만든 민가협 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단체였다."

"이념적으로 투철한 서클이거나 투쟁적인 조직은 아니었다. 1980년 40여 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회장은 강신석 목사 사모님이었고 총무는 홍희운씨가 맡았다. 주로 활동한 사람들은 정현애, 이운정, 임영희, 홍희운, 윤경자, 선점숙씨 등이었다."

"나는 항쟁기간에 YWCA에서 들불팀, 광대팀과 함께 홍보활동에 관계했다. 홍보팀 중에는 비조직 인사인 일반 여학생들도 몇몇 있었다. 구체적인 일로서는 대자보와 플래카드를 작성했다. 플래카드에 쓴 구호내용은 주로 '전두환이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이었다."

"대자보는 광대팀이 담당했고 우리 집에서 풀을 썬어 대자보를 직접 붙이기도 했다. 주로 시내 중심가에 붙였다. 그리고 YWCA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했다. 21일 이후부터는 도청에도 식사를 들여보낸 것 같다. 쌀과 반찬은 시민들이 가져다준 것이 많았다. 또 대인시장에서 김정천을 구해 리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직접 달아주기도 했다. 그때 거의 철시를 했으므로 가게문을 두드려 돈을 주고 김정천을 샀다."

"홍보활동이나 취사 켈기대회 준비 등에 소요된 돈은 처음에는 송백회에 있었던 기존의 회비와 개인 돈으로 충당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금해 온 것으로 충당하였다. 우리가 직접 모금함을 만들었으며, 나는 김상집, 이현주 등과 함께 전남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며 가두방송을 했다. 방송은 이현주 씨가 직접 했다. 방송내용은 '광주 시민들은 나와서 함께 싸우고 거리질서를 확립하자'는 등 시민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투쟁열기를 고양시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우리는 직접 총을 든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잠은 거의 못 자다시피 했고 집에도 자주 들어가지 못했다.'

이운정은 1978년 송백회 창립부터 참여하였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교회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송백회에서 추천하여 YWCA 사회문제부 간사가 되었고 오월항쟁에 참여하였다.

"제가 운동적 삶에 대한 눈을 다시 뜨기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요. 현대문화연구소나 송백회 이런 활동을 하면서 황석영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 제가 살아온 삶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환경을, 문화적인 배경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석영씨 집에서 거의 날마다 모이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 당시에는 박정희 유신정권에 대해 말만 잘못해도 잡아가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말도 못하고 현대문화연구소 같이 회의하면은 써가지고 찢어버리고 말로하고 손으로 하고 이런 정도로 저희가 보안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활동했던 시절이었어요. 동지들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연대의식이 엄청 강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운동에 대한 열정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서로 확인하면서 운동적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70년대 말쯤 되겠죠?"

"그러면서 Y에 들어가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스물다섯이었나 넷이었나 이때쯤 됐었는데요. 그 때 저희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겠다, 앞으로 Y운동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의 뭔가를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Y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의를 다진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서울에 이영순, 여노회 회장 했던 그런 언니들이라든가 이런 몇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가지고 그런 결의가 좀 더 높아지게 됐었거든요. 제가 Y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현대문화연구소라든가 송백회라든가 녹두서점이라든가 또 기존에 나와 있던 유인물, 또 사회과학서적을 통해서 접했던 그런 환경과 Y하고는 참 달랐어요. Y는 거의가 지식인, 중산층 이상 계층의 여성들의 기독교적인 장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를 통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늘 저에게 의식적 교양을 주고 했던 윤한봉 선생님을 비롯한 황석영씨라든가, 황석영씨부인, 홍희담, 홍희윤씨, 또 정용화라든가 김선출, 김윤기, 김상윤 선배라든가 이런 여러 선배들이 저에게 의식적 교양을 주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교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²⁰³⁾

"5-18을 맞게 되었는데요. 근데 박정희 시해 사건 이후로 계속 긴장됐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조를 하고 어떻게 되든지 뛰어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모으고 또 각자가 자기 현장에서, 저는 Y를 중심으로 노동형제들을 만나고 또 다른 소비자 보호현장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달려가

203) 이윤정, 「5·18항쟁 증언자료집」,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5.

고 상담해주고 이런 생활들을 쫓 하면서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결의를 굉장히 깊게깊게 다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송백회 활동을 통해서 옥바라지를 하고 또 모여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운동에 대한 꿈을, 우리들의 변혁에 대한 의지를 다져가던 시기에 5·18이 터진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5·18을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과정,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5·18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그래도 운동을 좀 조직적으로 해보고자 했던 분들의 결의와 암묵적 합의, 박정희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졌던 결의, 하여튼 애국적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 상당히 마음속에 환상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불란서 혁명과정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런 과정이나 그들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많이 다져 있었던 시기였고 응축되어 있던 운동을 어떻게든지 펼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출되지 못하고 굉장히 응축되어 있었던 게 붓물 터지듯이 5·18과 함께 화약 터져버린 거예요."

제3절 공유된 인식틀로서 프레임 정치

1. 신군부의 억압프레임: 안보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저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갑작스러운 국가원수 부재사태로 인하여 초헌법적 통치수단이라 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0월 27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정승화(鄭昇和) 육군 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이 선출되면 계엄을 해제하고 군인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의 비호 하에 군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정호용(鄭鎬溶)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은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10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던 최규하 대행은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鄭昇和)를 연행하고 군사반란을 단행하였다. 이날은 최규하 정부의 새로운 조각 발표가 예정된 바로 전날이었다. 전방 군단장 및 사단장, 육군 최고 정예부대장들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0 경비단에 모여 반란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반란 주동자들은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정식 군 지휘 계통을 붕괴시켰다. 반란이 성공하자마자 신군부는 육군참모총장, 수도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대 핵심 요직을 장악했다.

12월 21일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하였지만 실권은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신군부의 군권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유신독재체제에 이은 신군부 세력의 탄압정치는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학생 시위가 이어졌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민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이후, 신군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주둔시켰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5·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안보’ 논리로 권력을 유지해왔다. 박정희 피살 이후 비상계엄령 상황과 신군부의 군권정치 치하에서도 ‘안보’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박정희 피살 다음날 발표된 최규하 권한대행의 ‘국가비상시국에 관한 특별담화’의 “...지금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책임에 투철하여 침략도발의 틈을 노리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며...(이하 생략)...”,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담화’에서도 “...한국 정세의 추이에 따라서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략)... 사회 내부에 혼란과 분열이 조성될 경우, 이를 재침의 기회로 삼으려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대남적화전략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략)... 사회혼란이 일어날 경우 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이하 생략)...”라고 강조하고 있다. 12월 21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4월 14일 ‘내외정세에 관한 담화’에서 학원소요 확대에 유감을 표명하였고, 그 날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4월 29일 중앙정보부장 서리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다음날인 4월 30일 계엄사

령부가 과격한 학원소요나 노사분쟁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월 17일, 정치일정을 밝히려는 대학가의 시위가 더욱 확대되자 정부는 제주도 제외되었던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당시 최규하의 특별성명 내용은 “... 첫째는 국제정세에서 동서 긴장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태 및 소련의 군사력 증강 등 불안요인의 증대...(중략)..., 둘째는 국내적으로는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적화책동과 무장간첩의 침투...(중략)..., 셋째는 학원의 소요사태, 넷째는 일부 정치인, 학생 및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 노사분규...(이하 생략)...”이 주요 내용이었다. 위 성명에는 안보 논리를 바탕으로 학생시위와 재야 정치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항쟁이 격화되자 5월 21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의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담화문의 주요 내용은 “... 지난 18일 수백명의 대학생들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 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데 기인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량배들로서...(이하 생략)...”으로 ‘불순인물’, ‘고정간첩’ 등 안보 논리를 펴고 있다. 오월항쟁이 최고조로 격화되고 있던 5·23일에는 박충훈 국무총리가 취임직후 광주 시찰 후 발표한 내용에도 “...북괴가 광주사태를 악용하여 남침하거나 후방을 침투할 우려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태를 무한정 방관할 수만은 없다...(이하 생략)...”는 내용으로 ‘안보’ 프레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5월 24일자 문화공보부에서 신문사에 보낸 기사에는 간첩 체포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기사 제목부터 ‘북괴 파괴 폭력선동격화’라고 적고 부제로는 ‘광주시민들, 간첩 3명 잡아 신고’라고 적고, 내용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에 속지 맙시다. 북괴는 간첩과 오열을 침투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방화와 파괴, 유혈사태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략)...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남녀 간첩 용의자 3명을 붙잡아 당국에 넘겼습니다. 순천에 잠입한 간첩 1명도 붙잡혔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작성하여 섬뜩한 용어를 쓰고 있다.

5월 25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방송특별담화가 발표되었다. 이 담화에서도

“이것이 오래 계속된다면 누가 잘못이라는 것을 가릴 겨를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중대사태가 될 위험성…(중략)…,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세계정세 속에서 그리고 국제경제상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중략)…,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이러한 우리들의 대결상황을 북한 공산집단이 악용하고자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하 생략)…” 운운하며 안보 논리를 펼치고 있다.

6차례의 대통령 담화문과 계엄사령관, 문화공보부 등의 정부가 내건 성명서에는 모두 소련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침공, 무장간첩의 침투, 사회혼란 등의 ‘안보’ 개념이 바탕에 깔려있다.

신군부는 정부의 성명서나 담화문 외에도 실제로 북한간첩의 침투, 5월항쟁지도부가 있던 도청 건물에서 독침사건 발생 등의 사건을 조작하였다. 신군부는 그러한 논리로 5월항쟁이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하였다.

공유된 인식틀이자 의미체계라 할 수 있는 ‘프레임(frame)’의 개념을 통해 당시 항쟁과정에서 나타난 인지적 동학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 신군부세력은 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한 캐치프레이지인 ‘안보(안정)’논리로 항쟁을 진압하는 억압기제이자 도구로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당시 신군부세력이 내건 비상사태 수습론, 안보위협론 등의 ‘안보’개념이 억압적인 프레임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러한 ‘안보’ 프레임이 오월광주항쟁을 마치 ‘간첩’, ‘불순분자’, ‘북한의 사주’ 등에 의해 전개된 지역적인 ‘사태’로 인식을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사회운동과 분리시키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이 같은 프레임 정치가 결국 광주항쟁 진압과 신군부정권의 재탄생과 구조화에 기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26이후 남북관계에서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발령한 비상계엄확대선포는 명분이 없는 조치였다. 계엄령이 국가적 환란 때문에 발령되기보다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된 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발동된 경우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8월에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2월 초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고, 1981

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신군부의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표-2> 정부 발표 자료

번호	제 목	날짜	단체
1	국가비상시국에 관한 특별담화	1979. 12. 27	최규하 대통령 대행
2	내외정세에 관한 담화	1980. 4. 14	최규하 대통령 대행
3	성명	1980. 4. 30	계엄사령부
4	특별성명	1980. 5. 18	대통령 최규하
5	담화문	1980. 5. 21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6	질서회복에 앞장설 때	1980. 5. 23	문화공보부
7	북괴 파괴, 폭력선동격화	1980. 5. 24	문화공보부
8	일시적 잘못 최대한 관용·불문	1980. 5. 25	문화공보부
9	방송특별담화	1980. 5. 25	대통령 최규하

출처 :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1980년 5월 24일, 그날은 5월 21일 도심에서 계엄군이 퇴각한 이후 4일째 되는 날로 광주 시내 일원은 시민자치의 해방공간이었다. 그날 남파간첩 이창룡을 검거했다는 서울 시경의 발표가 있었다.(조선일보 1980. 5. 25) 서울 시경은 광주 시위를 무장폭력으로 유도하는 한편,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반정부선전 및 선동임무를 띠고 남파된 북괴간첩 이창용(46, 평양시)을 서울역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5월항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5월 24일 발표된 이창용 간첩 검거 사건은 5월항쟁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로 정부가 조작했다고 의심하기 쉬웠다.

1998년 11월 호 ‘말’지에 오연호 기자의 1980년 5월 24일 당시 남파간첩 이창룡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말지 '광주사태 선동간첩 이창룡은 조작되었다.'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이창룡은 남파되긴 했지만 광주사태 시민선동이 목적이 아닌 고정간첩과 접선이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5월 11일 북한에서 고

정간첩 조직과의 접선을 위해 남파되었다. 그가 남파된 5월 11일은 5월항쟁이 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항쟁기간에 광주에서 시민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남파되었다는 당시 서울 시경 발표는 날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1998년 7월 20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당시 정상용 국회의원이 이춘구 당시 내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자리에서 남파간첩 이창용의 수사 및 재판결과에 대한 질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가 1990년 5월 월간 다리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하여 1998년 말지에서 이창용을 직접 인터뷰함으로써 조작되었음을 밝혀냈다.

1980년 5월 25일 광주의 도청에서 독침사건이 발생했다. 수습대책위원회 기동대원이었던 장계범(24세, 광주시 금동)이 도청 농림국장실에 쓰러지듯 들어오면서 어깨를 움켜쥐고 ‘독침을 맞았다’라고 소리쳤다. 이때 경비중이던 시민군 신만식이 상처부위인 어깨를 살펴보려고 하자 장계범이 뿌리치면서 옆에 서있던 정향규에게 치료를 부탁했다. 정향규는 장계범의 옷을 벗겨 상처 부위를 몇 번 빨아 빨는 시늉을 한 후 부축하여 전남대 병원으로 급히 실어갔다. 조사부장 김준봉과 순찰대원들이 전대 병원에 갔더니 장계범의 가족과 기자들이 이미 와 있었다. 김준봉이 간호원한테 물으니까 “저 환자가 직접 집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서 전화를 해 가족들이 왔다.”고 대답하였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장계범은 “도청에 순전히 빨갱이들만 있으니까 그 놈들만 잡아서 조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약물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자 병원 11층으로 장계범을 옮기고 4명의 경비병을 세워 감시했으나 그는 오후에 몰래 사라져 버렸다. 독침은 채수생이었던 사람이 호신용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독침 끝에 묻어있는 노란액체는 독극물이 아니었다. 독침사건으로는 도청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수습대책위원회는 독침사건은 도청내부에 불순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당국에서 보안사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게 만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계범의 아버지는 보안대 문관으로 도청진압 이후 시민군이 체포되어 상무대 영장으로 연행되었을 때 장계범은 얼굴에 복면을 하고 항쟁지도부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보안사 꼬나폴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²⁰⁴⁾

조선일보 취재일지에는 ‘09시 도청 안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자칭 시위대 특공대장 장계범씨(24세, 광주시 황금동 186번지)가 괴한에게 독침으로 등을 찔

204) 오연호, “광주사태 선동간첩 이창용은 조작되었다.”, 『말』, 1998. 11월호.

려 쓰러졌고, 장씨와 같은 대원 정향규(23세)가 장씨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다가 역시 중독, 전남대 부속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오후에는 둘 다 행방불명이 되었다. 기자들이 의사에게 문의하였으나, “독약 침투 사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였고 학생들이 독침 맞은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었다. 사태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독침을 맞았다는 ‘장계범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종적을 감춰 조작 가능성이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당시 신군부세력에 의해 유포되는 광주항쟁은 ‘북괴의 지령을 받은 폭도들이 일으킨 소요사태’에 지나지 않았다. 전두환 세력은 광주를 ‘빨갱이들이 활개치는 도시’로 지목했고,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옮겨 쓰기 바빴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자 했다. 원래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은 반역의 고장이요, ‘전라도’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주를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과 격리시키고 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한 철저한 ‘안보’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이다.

2. 광주의 대항프레임: 독재타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군부 세력은 광주를 타 지역과 고립시키고 운동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매체를 동원하여 오월광주항쟁을 비상사태 수습론, 안보위협론 등의 ‘안보’ 의식을 바탕으로 마치 ‘간첩’, ‘불순분자’, ‘북한의 사주’등에 의해 전개된 것처럼 몰아갔다.

이에 시민 투쟁공동체는 ‘애국’과 ‘민주화’ 논리로 대항하였다. 당시 공식적으로 발행된 투사회보 등 전단지과 시민궐기대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등 문안과 대자보에 나타난 슬로건과 구호에서 투쟁공동체의 이러한 애국과 민주화의 프레임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투사회보와 시민궐기대회 낭독된 원고 중 애국’과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전남 애국 청년들이여 총 쫓기하라! 전남 애국 근로자들이여 총 쫓기하라! 전남 애국 농민들이여 총 쫓기하라! 60만 민주 시민들이여 총 쫓기하라!” <광주시민총궐기문, 1982. 5. 21, 전남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민

주청년 민주구국 총학생연맹>

“공산당보다 더 흉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의 사병 특전단은...(중략)…, 민주군대여! 말하라. 저 흡혈 살인마 전두환과 유신 잔당 놈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민주를 외치는 순박한 애국시민을 죽일 것인가를? 민주경찰이여! 대답하라? 우리 아들딸들이 다 죽어가도 그들에게 최루탄을 쏘아 댈 것인가? 아니면 민주국민에의 편에 서서 무참히 죽어가는 애국시민을 살릴 것인가를?...(중략)…” “민주군대여 말하라. 우리 아들딸들이 죽어도 전두환의 꼭두각시가 되겠는가?...(중략)…, 민주경찰이여 공수특전단은 우리 전라도 사람의 씨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들을 용서할텐가? 애국시민이여! 파괴와 방화를 금지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발휘하여 각 동별로 프랑카드를 들고 질서 있게 도청 앞으로!...(이하 생략)…” <민주수호전남도민 총 쉼기문 1982. 5. 21 전남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민주청년 민주구국 총 학생연맹>

“애국시민이여, 동별로 프랑카드를 들고 전시민이 참가합니다.” <투사회보 제7호 1980년 5월 24일, 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김일성은 순수한 광주의거를 오판하지 말라 광주시민 일동 ” <민주시민 회보 제 9호 (뒷면) 1980년 5월 26일>

“민주시민으로서의 해야 할 일, 군인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왼쪽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온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고 사리사욕에 광분하는 전두환 일당을 위해서인가. 우리가 지난날 국토방위임무에 충실했던 국군이었던 그대들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민간인이 아니란 말인가. 당신 일개인의 반기가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민주시민회보 제10호 1980년 5월 26일 광주시민 학생 구국위원회 (구, 수습대책 위원회)>

“민주화여! 권력안보 동냥 말고 총력안보 지지하자. 유신잔당 뿌리 뽑고 김일성도 격퇴하자.” <제 2차 민주수호 범시민 쉼기대회 원고>

“최규하 대통령 각하! 우리 광주 시민은 김일성의 오판을 대단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현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일성의 오판을 막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의 바램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온 국민은 각하와 계엄 당국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제 5차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 원고 5. 26>

이상에서 보듯이 광주항쟁 당시 유포된 투사회보와 시민결기대회 등의 구호 내용에서 나타난 의미틀(frame)은 바로 신군부 억압세력의 ‘안보’ 논리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애국’과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주수호시민결기대회 행사장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등이 의례와 의식의 상징으로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오월광주항쟁하면 태극기가 연상될 정도로 태극기 아래 결집을 이루었던 광주시민들의 의미틀은 무엇일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당시의 장면을 운동 참여자들의 ‘신호’체계로 해석하려는 넌센스도 등장할 정도이다.

“5·18측에서 제공하는 광주비디오를 보면 태극기가 유독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21일 광주 외곽지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과 광주지역을 돌아다니는 트럭에는 태극기가 1개~2개~3개씩 보입니다. 태극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간혹 관을 덮는 과정에서 태극기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특이한 점은 21일로 추정되는 장면을 보면 차량에 태극기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KBS푸른눈의 목격자 유르겐 힌츠페터의 영상에서 21일 또는 이전으로 설명되는 동일한 장면) 태극기가 혹시 무슨 암호같은 것이 아닐까요?...”²⁰⁵⁾

이처럼 보수진영에서 광주항쟁의 의미를 왜곡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는 이러한 글들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반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광주항쟁과 애국가, 태극기의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의 기자의 눈으로 상황을 정리한 자료집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청 옥상에 네 방향으로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의 리듬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애국가에 때를 맞춘 듯 ‘따따따, 따다다.’ 요란한 총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몇 발씩의 총성이 울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총소리가 일제히 울려나온 것은 처음

205) http://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53112

이었다. 애국가 리듬이 발포 명령이었던 것이다. 왜 하필이면 신성한 애국가가 국민을 죽이라는 발포 명령이 되었을까? 나로서는 마음이 아팠다. 물론 이 때의 발포는 사전 예고성을 띤 듯 모두가 공중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러나 이 총성은 광주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임에는 틀림없었다.²⁰⁶⁾

그런데 오일항쟁 과정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애국가는 계엄군의 최초 발포 신호였다.

발포가 시작되자 군중들은 다소 동요의 빛을 보이는 듯 했으나 오후 1시 10분에는 1천여 명이 다시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 집결한다. 이때부터 공수부대는 장갑차 1대씩을 금남로와 노동청 쪽으로 돌려놓고 사격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격수들은 ‘앉아 쏘’ 자세였다.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 층간로 지하상가 위의 큰길에 모여든 시위대원들은 대형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최 돼지 물러가라.’, ‘끝까지 광주를 지키자.’, ‘연행자를 석방하라.’등 그 동안 외쳐온 구호는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 뿐이 아니었다. 시위대원들은 차분하고 장중하게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애국가의 노래 소리는 시위광장을 구경하고 있던 시민들도, 이들과 대치하여 사격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수부대원도 듣고 있었다. 어떤 행사를 시작하려는 듯 노래 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애국가이기나 한 듯 했다. 잠시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몇 사람이 구호를 다시 외치기 시작하고 5-6명의 젊은이들이 각각 태극기를 들고 큰 길 한복판으로 뛰어나갔다. 도청 광장으로부터 300여 미터 떨어진 길 한복판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 건물 저 건물에서 시민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따당, 따당!’ 총성이 울려 나왔다. 순식간이었다. ‘앉아 쏘!’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수부대의 사격수들이 정조준해서 사격을 한 것이다.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던 5, 6명이 그대로 쓰러졌다. 머리와 가슴과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다. 땅에 떨어진 태극기에도 피가 흥건하게 젖어

206)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들었다. 아스팔트 길은 시체와 신음소리와 태극기가 피로 덮여 있었다. 그러자 몇 사람이 쓴살같이 시체와 부상자들을 끌어내고 있었다. 그러더니 또 다른 5, 6명이 여자가 태극기를 들고 나가 흔들면서 또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일제히 사격이 가해졌다. 그들이 다시 맥없이 쓰러졌다. 사격수들의 사격 숨씨는 조금도 오차가 없었다. 정확하게 5, 6명을 맞추어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러면 또 다시 끌어내고 다시 태극기를 들고 나가 흔들면 또 여지없이 총알이 날아와 그들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하기를 대여섯 번을 하였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칠 뿐인, 다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왜 총을 쏘아대는 것인가? 시위 학생들이 무기를 들고 대항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순수하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대체 왜 총을 쏘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지도 않고 있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태극기를 들고 나가 흔들며 구호를 외치다가 금방 시체로 변하는 사람들, 그 시체를 보면서 자신도 또 시체로 변할 줄 뻔히 알면서 뛰쳐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인가?

13시 30분 시위 군중의 장갑차 1대가 쓴살같이 공수단이 있는 도청 광장 앞을 통과했다. 공수부대가 집중적으로 사격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장갑차 위에서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만세’를 외치던 그 청년은 옷통을 완전히 벗어버린 채였다. 공수부대가 쓴 총에 맞아 그의 고개가 폭 숙여졌다. 장갑차는 학동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 때 이 장갑차를 향해 일제히 가해진 사격에 총장로 입구 도심빌딩 4층에서 머리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던 황효성(60세)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장형태 지사는 도청 마이크를 통해 “공수단을 철수시키고 연행자를 석방토록 최선을 노력을 할 테니, 학생 여러분! 자제하고 해산하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눈물어린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었다.

이 때 동구청 앞에서 학생 4명, 처녀 1명, 노인 2명 등 7명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는 보고가 광주 시청으로부터 도청에 들어왔다. 그 시체는 동구청 1층 바닥에 있다는 것이다. 1시쯤 발포명령과 함께 쏟아진 총알을 맞고 쓰러졌음이 분명했다. 바로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엄청난 상황이었다. 이 날은 사월 초과일, 부처님 오신 날. 광장의 분수대 앞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대형 아치가 금남로 길을 굽어보고 있었다. 하필이면 한 평생 살생을 하지 말라고 설법하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이 같은 대규모

살상이 제 나라의 국군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니 저승에 계시는 부처님은 무어라고 설법하실 것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²⁰⁷⁾

이처럼 항쟁진영과 진압세력들이 모두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오월항쟁의 정치적 동학이 나타난다. 강준만에 따르면, 5·18당시 광주시민들이 항쟁의 현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함께 불렀던 상황을 돌이키면서, 국가적 폭력 앞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함께 제창한 사실에 대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여주기’로 해석된다.²⁰⁸⁾ 이는 곧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봐라, 우리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행위였다는 것이다. 광주가 마치 불순분자의 도시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틀의 도구로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가까이 했던 것이다.

당시 신군부 세력이 광주항쟁을 ‘불순분자’, ‘북한의 사주’, 혹은 ‘빨갱이’라는 극단적 안보 프레임으로 매도하려 했던 점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애국’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애국’ 프레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통치할 헌법적 정통성을 잃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을 퇴출시키기 위해 ‘민주화’라는 보다 큰 프레임으로 연결된다. 송백희는 ‘애국’과 ‘민주화’의 프레임을 시민 공동체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명서를 작성하고 대자보를 통해 곳곳에 확산시켜갔다.

당시 송백희의 서기였던 이윤정이 작성한 ‘민주화여!’라는 선언문과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중에서 김일성오판을 글에 넣었던 이유는 당시 쿠데타 신군부세력이 광주항쟁을 북한정권과 연계한 불순세력이라고 언론플레이한 전략에 대응한 문구이다. 북한정권과 연계된 불순세력이 아님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전두환 화형식과 김일성 화형식을 같이하자고 이윤정이 제안하여 구 세무서 마당에서 제작한 화형식을 하기도하였다.²⁰⁹⁾ 이윤정에 따르면, 당시 송백희원들이 중심이 되어 최규하 과도정부에게 성명서 형식의 글을 썼던 배경

207)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208)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80년대편 상』, 인물과 사상사, 2003.

209) 연구자의 항쟁 당시 기억과 참여관찰 기록에 근거함.

은 최규하 과도정부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통치권으로 군부와의 사이를 결단하고 계엄군이 더 이상 폭력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자는 의미에서였다. 당시 이윤정 등 항쟁 세력이 작성한 시민궐기대회원고²¹⁰⁾ 중 ‘미국에게 보내는 글’에는 미국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돕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편에 선 우방이 되어달라는 내용이였다. 이 선언문이 낭독된 후 미항공모함이 우리(시민군)를 도우러 부산항으로 오고 있다는 대자보를 썼는데, 이 내용을 누군가(박석무)가 사실로 말하여 YWCA 소심당에서 있었던 대자보 팀에서 대량으로 이 내용을 작성하여 시내 곳곳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두환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는 권력을 탐하면 무인도로 보내줄 터이니 섬에 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민주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윤정은 당시 이란 혁명을 생각하면서(타오르는 이란) 광주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외국기자를 인질로 삼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항쟁 지도부에 제기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다.²¹¹⁾

항쟁의 지역성을 탈피하고 ‘민주화’ 프레임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매일 오후 3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열어 시민들의 상호 소통과 연대의식을 강화하였다. 신문 보도가 통제된 데다 광주의곽에서 차단되고 항쟁 상황을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방송 때문에 정부의 보도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210) 전용호 증언, 2011.8.17.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 시민궐기대회 육필 원고가 남기까지 술한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원본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5월항쟁 과정 중 시민궐기대회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궐기대회는 박효선, 김태중, 이현주, 임영희, 최인선, 임희숙 등 YWCA극회 ‘광대’ 단원들이 진행하였다. 김태중과 이현주가 사회, 임영희, 최인선 등이 민주시낭송, 임희숙이 노래지도 등을 맡았다. 1차부터 5차까지 진행되었던 궐기대회 사회를 맡았던 김태중은 그동안 궐기대회에서 낭독되었던 시민, 시민군, 대학생, 노동자, 농민 등 각 분야 대표자들의 원고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27일 새벽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궐기대회, 투사회보, 대자보 작성, 가두방송 등 선전 팀이 숙식하면서 본부로 사용하고 있던 YWCA에서는 먼저 여성들과 궐기대회 사회를 맡아 얼굴이 널리 알려진 김태중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다. 김태중은 YWCA에서 출발하기 전에 투사회보 팀인 나(전용호)에게 궐기대회 낭독 육필원고를 넘겨 주었다. 김태중이 떠난 후 나(전용호)는 무기를 보급받기 위해 도청으로 가다가 총격전 과정의 위험 때문에 녹두서점에 피혜 있다가 계엄군과 시민군의 전투가 끝난 후 친척집에 숨어 있다가 김선출과 함께 서울로 도피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나는 김선출, 임영희와 함께 당시 황선진(서울대 탈출반 팀 중 책임자) 등 서울 민주화운동가들과 협의하여 궐기대회 원고를 복사하고 테이프로 제작하여 비밀리에 전국의 민주화운동 단체, 대학가 서점, 인권기관 등으로 배포하면서 궐기대회 문안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1980년 이후 궐기대회 원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의 민주화운동권에서 2004년에 원본 자료를 광주로 보내왔다. 원본 자료는 2008년 5월 항쟁 당시 홍보팀으로 활동하였던 전용호, 김태중, 김선출, 김윤기는 전남대 5·18연구소에 기증하였다.”

211) 연구자의 항쟁 당시 기억과 참여관찰 기록에 근거함.

<표-3> 항쟁기간동안 발표된 투사회보와 시민궐기대회 원고 현황

번호	제 목	날 짜	단 체
1	광주시민 총 궐기문	1982. 5. 21	전남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민주청년 민주구국 총 학생연맹
2	민주수호 전남도민 총 궐기문	1980. 5. 21	전남 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전남 민주청년 협의회/전남 민주구국 총 학생연맹
3	선언문	1980. 5. 22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전남민주청년 연합회 전남 민주구국 학생 총연맹
4	투사회보 제2호	1980. 5. 22	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5	투사회보 제5호	1980. 5. 23	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6	투사회보 제6호	1980. 5. 23	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7	투사회보 제7호	1980. 5. 24	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8	민주시민회보 제9호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9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광주시민 · 학생 구국위원회
10	광주시민 장송곡		
11	궐기대회 원고 - 광주 애국시민에게	1980. 5. 23	근로자 대표
12	궐기대회 원고 - 민주시민여러분!	1980. 5. 23	시민대표
13	궐기대회 원고 - 시국 선언문	1980. 5. 23	전남대학연합대표자회의
14	궐기대회 원고 - 민주화여!	1980. 5. 24	
15	궐기대회 원고 - 국민에게 드리는 글	1980. 5. 24	광 주 시 민 일 동
16	궐기대회 원고 - 희생자 가족에게 드리는 글	1980. 5. 25	전 남 광 주 시 민 일 동
17	궐기대회 원고 - 전국 종교인에게 보내는 글	1980. 5. 25	광 주 시 민 일 동
18	궐기대회 원고 - 전국 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	1980. 5. 25	광 주 민 주 학 생 일 동
19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1980. 5. 25	시 민 군 일 동
20	궐기대회 원고 -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21	궐기대회 원고 -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22	궐기대회 원고 -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23	궐기대회 원고 - 한국의 정치보복사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24	궐기대회 원고 -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25	궐기대회 원고 -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1980. 5. 26	광 주 시 민 일 동

출처 :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서 투사회보와 시민궐기대회는 시민들에게 항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었다.

투사회보는 20일부터 항쟁 상황을 보도하고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발행되다가 24일 저녁부터는 ‘민주시민회보’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동안에는 ‘투쟁’이 당면한 목표였지만 25일부터는 항쟁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시민궐기대회도 25일부터는 동별로 모여서 현수막을 앞세우고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행렬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조직력이 확대된 형태였다. 대회의 마지막에는 참여한 시민들을 선도하여 시가지를 순회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활동가가 시민들을 선도하여 전남대 버스를 앞세우고 금남로 신역을 돌아 공용터미널 쪽으로 해서 다시 도청으로 돌아왔다. 약 5천명의 고교생·대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만세와 민주 정부수립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였다.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항쟁이 단순한 사태수습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즉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5월 26일 오전 11시에 윤상원 대변인이 도청에서 외신기자 초청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내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해봤자 신군부의 검열로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신기자에 한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수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상용의 구술기록에 외신 기자회견의 내용이 있다.

“(답변)윤상원이가 (외신)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과 자유 우방국가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외신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요청은 윤상원씨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중략)… (질문) 미국이나 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토론이 있었는가요? (답변)토론은 없고 주로 그런 문제는 나하고 윤상원이하고 상의를 했고, 다른 사람들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겠다. 그때는 우리가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끌어가야 하는데 며칠간 더 버티어 가야 하는데 좀 늦었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도움이든지 요청해야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어요.…(이하 생략)…”²¹²⁾

이처럼 투사회보, 시민궐기대회, 외신기자회견 등 민주적 미디어 등을 통해

212) 정상용, "투쟁을 하는데 희망을 주어야", 『5·18항쟁증언자료집1』, 2003. 6.1, p. 70.

‘민주화’의 프레임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신군부세력이 내건 ‘안보’와 대항세력이 내건 ‘애국’의 프레임은 공교롭게도 둘 다 국가패러다임에 기반한 인식체계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당시 광주항쟁 국면에서 실정법의 틀을 벗어난 항쟁 진영과 헌법적 정통성을 잃은 신군부의 권위주의 진영 간에는 진정한 ‘국가정체성’ 확보를 둘러싼 프레임 정치를 통한 헤게모니 싸움이 전개되었다.

제5장 송백회운동의 관계적 동학

이 장은 송백회운동을 둘러싼 관계론적 동학(relation dynamics)을 규명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원동원론적인 분석도구인 미시동원(micromobilization)과 중위동원(mesomobilization)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여기에 의미 틀(frame) 분석이라는 구성주의 이론을 접목시켜 오월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백회가 조직화된 배경과 동인, 여성운동조직으로서 송백회의 발전과정, 그리고 광주항쟁에서 송백회의 참여와 역할이 무엇인가? 둘째, 송백회운동을 둘러싼 미시동원기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연구자는 미시동원맥락(micro mobilization context)과 의미틀(frame)의 개념을 사용하여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송백회 활동가들의 소집단 조직과 연결망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시동원자, 즉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을 공급했던 비공식적인 집단들로서 당시 진보적인 목회자, 신부 등 기독교성직자 그룹, 광대 등 문화(선교) 운동가 그룹, 여성운동가 그룹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또한 송백회운동의 이웃연결망 조직들로서 청년운동을 비롯해 문화운동, 그리고 야학운동세력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셋째, 중위동원자로서 송백회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즉, 광주항쟁의 다양한 운동조직들을 동원하고 항쟁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연결구심으로서 송백회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1절 송백회의 조직화와 항쟁참여

1. 조직화

송백회는 1978년 11월 교사, 간호사, 노동자, 주부, 청년운동가 등 각 분야의 여성들과 민청학련 관련 구속자 가족들로 30여명이 광주YWCA에 모여 결성되었다. 초기 회원의 구성은 소설가 황석영의 부인 홍희운, 기독교 장로회 청년회 임원인 김은경, 윤경자, 부활절벽화사건과 3·1절유인물배포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임

영희, 동부교회 빛고을학생모임 청년회원인 이윤정, 박인숙 그리고 교사 윤영숙, 정황희, 김여옥 및 민청학련 관련 부인들 등 전남·광주지역 민주인사가족들로서 이미 민주화운동선상에서 고초와 폭압을 당한 여성들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송백회 창립은 민청학련사건이후 구속자 부인들이 남편들의 석방운동을 하다가 사회운동의 분화발전에서 있어 부분운동으로서 여성운동과 공동체적인 연결구조로서 자주적 여성 시민조직이 필요했다.

회원이 50-8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교사, 사무직노동자, 주부 등 분과모임을 통해 한국근현대사, 여성운동 일반 및 여성 운동사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농촌문제, 환경, 공해문제, 기생관광 문제 등을 학습하고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송백회는 오월광주항쟁 초기부터 광주·전남 민주역량²¹³⁾을 이웃연결망으로 결집하여 'YWCA항쟁지도부'를 만들어 신군부 권위주의 체제에 조직적으로 대항한 유일한 여성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5월27일 새벽까지 사수투쟁을 전개한 여성들로는 송백회 회원들 외에도 들불야학을 비롯하여 문화운동단체인 극단'광대' 등에서 활동한 여성들과 현대문화연구소, 들불야학 등 사회운동단체에서 활동한 여성들이었다.²¹⁴⁾ 이들이 항쟁발발 직후부터 송백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YWCA항쟁지도부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 말부터 여러 미시동원자²¹⁵⁾에서 활동했던 구성원들이 송백회 총무인 홍희운을 중심으로 늘 유기적이고 집체적인 연대 속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향한 전의를 다져온 휴머니즘적 동지애가 토대가 되었다.

당시에 송백회 회원²¹⁶⁾에 가입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물론 교사는 학교에서

213) 민주역량이란 1970년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한 학생, 청년, 노동, 농민, 기독교운동,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농민회, 현대문화연구소, 녹두서점, 극단광대, 들불야학, 백제야학, 양서협동조합, YWCA, YMCA, NCC, 엠내스티 등 총체적 역량을 일컫음.

214) 안진,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1991.

215) 미시동원자는 사회운동단체를 말함.

216) 송백회 회원은 여성숙(목포의원 원장), 조아라(YWCA 회장), 이애신(YWCA 총무), 김경천(YWCA 프로그램 간사), 홍희운(주부), 이윤정(청년운동가), 정유아(석산고 교사), 임영희(현대문화연구소 간사), 김은경(기독교청년 활동가), 김영심(간호사), 박경희(간호사), 김귀례(계림신협 직원), 윤영숙(교사), 정황희(교사), 박인숙(교사), 김여옥(교사), 박두리(유치원 교사), 김현주(양서협동조합 간사), 전삼순(전일방직 노동자), 목포연동교회 청년회원(2명), 나주지역회원, 강진지역회원 등으로 30여명이었다. 민주화운동 구속자의 부인으로 정희옥(정상용 부인), 선점숙(이양현 부인), 윤경자(박형선 부인), 김종희(문덕희 부인), 김영자(윤강옥 부인), 고 이소라(이강 부인), 이향란(김운기 부인), 정현애(김상운 부인), 노영숙(노준현 누나) 등이었다. 민주화운동 활동가의 부인으로는 나혜영(강신석 목사 부인), 김영애(송기숙 교수 부인), 김숙자(문병란 시인 부인), 김서운(박행삼 선생 부인), 이명숙(김준태 시인 부인), 임영천 교수 부인, 이귀임(고 윤영규 선생 부인), 박석무 선생

해직을 감수해야 하고 어느 때든지 긴급조치 9호 또는 반공법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각오해야 했다. 송백회 회원이었던 임영희는 민주청년협의회의 현대 문화연구소 간사이고, 송백회 간사를 겸직하였던 활동가였다. 그녀는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아래 구술을 살펴보면 당시 송백회가 조직화된 배경과 동인 등을 알 수 있다.

"수피아 여고를 다니면서 학교전통인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 왔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1월 3일 학생의 날에 내가(임영희) 광주 전남에서 1명에게 주는 선행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없애 버렸다는 거야. 무슨일이고 했더니 박정희 정권이 학생의 날 기념 같은 걸 못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이래가지고 내 의식이 눈이 뜨는 계기였어. 그리고 내가 박몽구(문필가:투사회보팀)랑 문학회 활동을 했는데 무등문학상을 광주학생탐이 있는 일고에서 받았어."

"그날 무등문학상을 일고에서 받았는데 일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일고 아이들이 '야! 너희학교는 왜 데모를 안 하나?' 나라 상황이 이러는데. 이런 말을 듣고 마음 속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교교육원에를 갔는데 내 운동의 시작이 어찌면 기독교 운동으로 시작이었제. 기독교운동은 곧 민중운동이었어. 하나님의 정의가 민중구원이었고 억압받은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였고, 당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그렇게 선교했고. 그러다가 내가 부활절 벽화사건, 유인물 배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고 서부경찰서에 감금되었어. 그 뒤론 경찰한테 늘 추적당하고 집안 뒤지고 가고, 1년 365일 감시당하는 주요인물이 된거지. 나의 신앙은 곧 운동이었어."

"기독교 장로교 EYC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강진읍교회로 광주에서 유인물(반독재유인물)을 해 가지고 뿌리다가 들켜서 광주로 압송되어 왔는데 그때도 뒤지게 두들겨 맞고 감금당했네."

"그 후 1978년 홍희윤씨가 송백회를 창립하는데 영희 너 간사일을 해보면 어떠겠느냐? 해서 간사일을 맡았지. 그때는 특별히 지도부 체제가 따로 있었다기 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맺어져 있었잖아."²¹⁷⁾

부인, 윤광장 선생 부인, 안성혜(고 명노근 교수 부인), 고 박만철(강진읍 교회)부인 등이었다. 217) 임영희, 구술증언, 2012.11.7.

"나(임영희)는 진학하는 걸 포기를 하고 신학 2년 반 수료를 했는데, 그때 광주에서 여성들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광주에서는 그래도 YWCA가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로 활동을 했었어요. '옥바라지 팀들을 만들어보자', '우리들이 양심수와 연대를 좀 해보자' 그래서 78년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논의를 거쳐 가지고 12월 말에 YWCA에 세 창립식을 가졌어요. 여성 송백회라는 것이 탄생했죠. 송백회 주 멤버들은 처음에는 그 많은 구속자협의회 부인들이 중심이 되가지고 만들었는데, 몇 달 후부터는 진보적 성격을 띤 여교사들 간호원들, 회사원들, 학생은 참여할 수 없었고 일반 직장인들, 신협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50여명 정도 모아 났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현대문화연구소라는 데가 생겼거든요. 현대문화연구소가 광주 사는 사람들 옥바라지용으로 책을 3,000권 가량 공급해 주고 돈을 영치해 주고 겨울에 추울때 담요나 양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넣어 주었어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거 같아요. 서울에서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나 카톨릭농민회 이런 게 탄생되던 시기이었고, YH여공 사건이라든지 원풍도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서울은 상당히 시대적 상황이 무르익어 가는 때였죠."

"송백회, 구협(구속자협의회) 사람들은 항상 연말이 되면, 운동권 사람들이 많질 않고 해서, 많이 모아 봤자 한 40, 50명 이렇게 되요, YWCA에서 닭죽 같은 거 써서 먹고 밤새우고 1월 1일 날 산에 올라가는 망년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주 정례화 돼 갔어. 아무튼 이렇게 연합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나서게 된 거죠."

"그룹 스터디를 한달지, 한 달에 한번 연사를 초청해서 핵문제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기생관광 추태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농촌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고, 여성으로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송백회 멤버로는 YWCA 조아라, 이애신, 김경천하고, 강신석 목사 사모님 나혜영씨, 윤영규 선생님 부인 이귀님씨, 소설가 황석영씨 부인 홍희담씨, 김상윤씨 부인 정현애, YWCA간사였던 정유아, 사회문제부 간사였던 이윤정, 사실 정유아 이윤정은 운동권에서 심어준 경우였어요. 기독교병원 간호사였던 박경희, 신협에 근무하던 김귀례 언니라든지 양서협동조합에 있던 김현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핵심 멤버들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동 현장이나 농민 현장 이런 데를 가보자. 그래 가지고 구로공단에도 가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려와 마음을 잡고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여성운동에 한번 몸을 바쳐 가지고 일을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 간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²¹⁸⁾

이상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당시 송백회 회원들은 광주지역의 종교, 문화 활동가 등 다양한 운동가들과 일상적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고, 송백회는 이러한 지역의 운동적 토대 위에서 점차 조직화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운동조직의 발전과정

창립 후 현대문화연구소에 사무실을 갖기 전까지 YWCA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초대회장에는 강신석 목사의 부인 나혜영, 총무 홍희윤, 서기 김은경이 맡았다. 1976년 3·1민주 구국 선언사건으로 인해 전남지역 기독교장로회 소속 강신석 목사 등 4명이 구속되어 1977년에 석방되었다. 강신석 목사는 석방된 후 목포 연동교회에서 광주로 올라와 개척교회를 하면서 부인인 나혜영이 송백회에 참여하여 회장을 맡게 되었다. 나혜영이 회장을 맡게 된 것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는 사찰당국으로부터 민간인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 총무 홍희윤은 윤한봉, 정용화등 운동권활동가들과 긴밀한 유대로 실제적인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광주YWCA는 유신독재치하에서 정치사회활동의 공간을 제공한 유일한 단체였다. 프로그램 주무간사였던 김경천은 ‘전남대 민주교육지표 선언 지지 대학생 시위사건’의 유인물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구금되기도 했고 건물주들이 사회운동단체를 기피하여 사무실 임대기 어려웠던 인권단체 엠네스티 광주지부와 양서협동조합의 사무실을 YWCA 회관에 유치했을 뿐 아니라 시국 기도회, 탈출 강습, 해직교수와 진보신학자들의 강연이 주로 YWCA회관에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항일독립투쟁을 했던 조아라 회장, 이애신 총무,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둔 송희성 이사 등이 임원진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유신독재에 항거하고 민족 계승운동의 선상에서 민주화운동이 수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아라, 이애신, 김경천은 송백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송백회는 초기에 광주YWCA를 활동 공간으로 삼고, 주로 양심수를 위한 옥바

218) 임영희, 앞의 인터뷰, 1999.9.6.

라지사업으로 털양말 뜨기와 영치금 모금을 중점으로 전개하였다. 옥바라지 사업은 털양말 뜨기에 기독교장로회 소속 양림교회, 한빛교회, 계림교회 등 여신도회가 대거 참여하면서 양심수 돕기 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고난 받은 자들을 돕고자 하는 양림교회 여신도인 이영애(YWCA이사), 문예원 등 교회여성들의 참여로 송백회의 활동은 교회조직들과 연대가 깊어졌다.

해가 바뀌어 1979년에는 유신말기의 정치적 억압은 최악의 사회적 상황으로 치달아 송백회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현대문화연구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기관에 보고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회운동을 하는 성원들끼리 하는 회의나 만남조차도 도청이나 정보기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종이에 써서 의사소통을 하고 찢어버리는 등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분위기였다. 회원이 60여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진보적 지식인여성그룹이 대거 참여하였고 여름방학을 기회로 4팀의 사회과학과 여성문제 학습 모임이 만들어졌다. 『페다고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등 기존의 남성위주의 사회변혁운동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학습과 함께 루이제 린저, 베티 프리탄, 시몬느 보봐르 등 여성운동가의 삶을 다룬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자주적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갔다. 이미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동일방직사건, YH사건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문제 대한 의식이 짙은 텃으나 아직 본질적인 여성 문제나 급진적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관심은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당장 눈앞에 직면해 있는 기생관광이나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주는 성차별문제 수준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민주화운동 기금을 마련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다. 구속되었다 석방된 학생운동 출신들은 학교가 제적되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부인들은 가부장적 이중적 질곡속에서 살아야 했다. 육아 책임과 남편 옥바라지 등을 위해 채소장사, 꿀 장사, 월부 책장사, 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민주화운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송백회는 소설가 황석영, 화가 여운, 국중효 등의 문화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 도자기를 구운 작품과 미술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어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재정은 후일 광주항쟁당시 초기 사업비로도 사용되었다. 유신

체제의 억압기제가 점점 강화 될수록 사회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는 굳건해 지고 있었다. 송백회는 당시 돼지가격 파동을 풍자하여 만든 극단 광대의 공연 ‘돼지 풀이’ 입장권 판매와 사회운동 활동가 가족 야유회 및 새해 등반, 함평고구마 피해보상투쟁 등 각종 시위 현장지원과 더불어 월례 강좌를 개최하였다.

1979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송백회는 민주화운동 외곽지원이나 보조적 역할을 뛰어넘어 전문적인 사회운동가 집단으로 성숙되어갔다. 1979년 가을 광주YWCA에서 독일 에르체 프로젝트(한국 여성노동자 농촌여성들의 교육) 수행을 위한 실무자(간사) 채용이 있었다. 송백회는 광주운동권 및 현대문화연구소 윤한봉 소장 과 논의하여 정유아(농촌문제부), 이윤정(사회문제부)을 조직적으로 Y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송백회는 점차 전문적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문제의식을 확산하는가 하면 국내외적으로 연대를 형성하며 성숙된 조직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의 당시 기억에 의한 참여관찰기록으로서 남해어망 분회장이었던 임미령과의 인터뷰 과정에서의 내용이다. 이는 송백회가 단순한 옥바라지 모임으로서 활동이 아니라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계급적 관점에 따른 여성운동으로 발전 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운동을 할려고 YWCA에 들어갔어. 나는 내 삶을 민주주의에 바치겠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YWCA를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하겠다!, Y가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바람막이 역할로 Y를 많이 생각한 거지, 그래서 Y를 들어 간 거지. 그래서 Y사회문제부 간사로 가 가지고 광주지역 민주노조건설을 해 보려고, 양현이형이랑 날마다 모이고, 만나고 성애랑 날마다 만나고 학습하고, 호남전기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자취방 돌면서 학습시키고 학습하고 나도 그렇게 생활 한거지. 그러다 광주항쟁을 만난 거지. 그 전에 이제 송백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²¹⁹⁾

두 간사의 파견으로 송백회, 사회운동권과 YWCA는 보다 긴밀한 연대가 형성되어갔다. 예컨대 민청학련 출신 이양현은 출소 후 청계피복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 광주로 내려와 YWCA 이윤정, JOC 김성애, 호남전기, 남해어망, 광주어망

219) 이윤정, 증언.

등 여성노동자들과 소그룹 학습 모임을 만들어 연결망을 구축하고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의식 계발 교육활동에 주력하였다. 당시 광주권 여성노동운동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1960년대부터 소그룹을 통해 활동해오고 있었다. 이운정은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김성애와 연대하여 소그룹학습모임을 조직하고 YWCA 공개 노동자 합동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상호 조직적 활동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농촌문제부 정유아는 가톨릭 농민회와 연계하여 여성농민의 의식계발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송백회는 자주적 시민여성조직으로 발전해 가면서 사회운동과의 연결망 구축, 저변확대를 위해서 실무자과견만이 아니라 임원진으로 홍희윤은 YWCA 이사로 임영희는 농촌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YWCA 사회문제부와 농촌문제부에 핵심회원을 과견한 것은 송백회가 양심수 후원 등 민주화운동 외곽 지원조직이라는 틀을 벗어나 여성 노동자와 여성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여성운동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다음 두 여성노동자의 증언을 통해서 위와 같이 송백회가 여성운동조직으로 변화 발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남해어망 분회장이었던 임미령과 호남전기 지부장이었던 이정희는 송백회와 연대하고 있었던 JOC 김성애, YWCA 이운정, 사회운동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양현, 이강, 김상윤, 윤상원등과 소그룹학습을 토대로 미시동원맥락을 만들어 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가치, 여성노동자로서의 삶이 사회화 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니까 저는요 새로운 세상 그니까 그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세상에서, 지오세나 뭐 노동조합이나 YWCA나 그다음에 뭐 섬유 연맹이나 이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 진실 뭐 참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안의 어떤 요구하고 탁 맞아 떨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내게 되지 않았을까....”²²⁰⁾

“성애(호남전기 부녀부장)랑 JOC활동을 하면서 문어발식 소그룹(6-7명)을 10팀 넘게 만들어서 맨날 밤 12시 넘어서 까지 자치방을 전전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조직을 만들었어. 김성애, 이양현씨랑 녹두서점 김상윤씨, 윤상원씨, 그리고 우리 만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늘 불러 주었던 전남대 학생,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이렇게 우리 모임도 10명 정도가 같이 학습을

220) 임미령, 앞의 구술증언.

했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1,2차 받고, 그때 한명 숙씨가 우리 강사였네, 우리가 빨갱이로 몰리고 용공분자라고 했제.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여성운동에 눈이 뜨이게 되었제.”²²¹⁾

시대적 폭압에서도 송백회는 ‘여성운동조직’으로서 80년 민주화 봄과 함께 성숙해 가고 있었다. 1980년 3월이 되자 송백회는 2차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 홍희운, 총무 정현애, 회계 및 서기 이윤정, 책임간사 임영희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보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에 정보형사의 감시를 받으며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가능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은 폭압적인 정치권력에 항거하는 레지스탕스 운동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직의 핵심멤버였던 임영희는 항상 광주경찰서 종교담당 강형사와 송백회 담당 이형사의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었고 그밖에 회원들도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시기에 10·26 정변이 일어났고 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에게는 잠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정치적기회로 오는 듯 하였지만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에 의해 대대적인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의 서곡을 준비하고 있었다.

송백회는 점차 사회전반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핵문제와 환경문제, 농촌여성문제 등을 학습하고 일본 기생관광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기생관광에 대한 자료조사와 강의 및 한국여성의 수탈정책에 대한 일본의 야만성을 세미나를 통해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하게 된다. 1980년 학원민주화 봄이 암울한 기운으로 다가 올 무렵 광주운동권은 5월 5일 광주 댐 근처로 야유회를 간다. 야외 공간에서 모임은 유희의 성격이 아닌 다가올 계엄군부의 폭압에 대한 발언과 향후 운동권이 대처해야 할 걱정으로 휩싸여 있었다.

인간적 유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송백회는 하나의 모성적 공동체로 개인적 신뢰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정체성으로 80년 5월과 마주하게 된다. 정보당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송백회와 현대문화연구소에 있었던 모든 서류는 소각과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시국사건으로 항상 연계되어 구속되거나 사건의 연루성에 끊임없이 주목받아 왔던 장소로서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였다. 이러한

221) 이정희, 앞의 구술증언.

상황에서 신군부의 5·17비상계엄선포가 되고 운동권의 예비검속과 더불어 송백회 여성들은 군부에 맞서 싸우는 전위조직으로 오월광주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송백회가 여성운동조직으로서 광주지역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과의 연결망이 보다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아래 기록은 5월 18일 당시 YWCA 사회문제부가 주관하여 진행된 광주지역 여성노동자 중간 간부교육 과정에서 계엄군과 맞닥뜨린 상황이다. 당시 상황을 설명한 현대사자료연구소의 기록이 남아있다.

“1980년 5월 18일 10시 사레지오 수도원(전남대 정문 입구 사레지오 고등학교 내 소재)에서는 JOC가 주최하는 노동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참석자는 호남전기, 삼양제사 노동자 70여명으로 연사는 이창복 씨였다. YWCA에서도 삼양제사, 전남제사, 전남방직, 일신방직 여성노동자 90여명이 문병란 시인을 연사로 노동교육 실시 중이었다. 양쪽 노동교육은 오후 4시까지 계속된 후 해산되었다. 원래는 주요 활동가들이 오후 4시 가톨릭센터 JOC 사무실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계엄군과 시내의 충돌이 심각해지자 함께 모이지 못하였다. 당시 호남전기에는 13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었고 2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시위 등에 동원 가능했다. 또한 이 팀들은 노동조합 대의원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

다음은 당시 YWCA 회관에서 교육 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공수들의 모습을 증언한 내용으로 송백회가 여성노동자, 극단 광대와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0년 5월 18일 YWCA 4층에서 그때 문병란 선생님이 강사로 와서 교육 하고 있었는데 밖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우리 다 같이 밖을 내다 봤는데 학생들 막 돌 던지고 그날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우리 교육 중간에 공수 부대들이 건너편 학원 와가지고 지근지근 밟아서 학생들 신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악쓰고 이 ‘개새끼들아’ 악쓰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 교육을 못하게 한거지. 분위기가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중간에 밀려나와 가지고 데모대로 결합을 해서 계속 데모를 하게 된거지.”²²²⁾

당시 자료를 보면, 5월 18일에는 광주YWCA 회관에서 사회문제부가 주관하는 여성노동자 교육이 열리고 있었다. 또 청년부 회원인 문화패 ‘광대’는 소극장 개관 공연을 앞두고 양서조합 사무실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YWCA에서 행해진 노동자 교육은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다. 오후 3시경 주위가 소란하여 밖을 보니 공수군들이 곤봉으로 학생을 초죽음이 되도록 무차별 구타하고 여학생도 옷이 찢긴 채 포승줄에 굴비처럼 엮이어 어딘가에 끌려가고 있었다. 당시 회원들은 일제히 악을 쓰며 야유를 퍼부었는데 그들은 들은 체도 안하고 가혹행위를 계속하였다. 잠시 후 전경들이 들어와 행사를 빨리 끝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반 협박조로 경고하였는데, 회원들에 따르면 그래도 전경의 태도는 공수부대에 비해 부드러운 편이었다²²³⁾고 기록하고 있다.

3. 광주항쟁에서 송백회의 역할

1) YWCA 항쟁공동체 결성

송백회 회원들은 신군부의 광주·전남 지역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으로 현대문화연구소를 폐쇄함에 따라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임영희의 문화방송국 화염병 투척, 이운정, 정유아, 김영철, 김상집 등의 차량확보와 전남대 물품확보, 박경희, 홍희운의 기독교병원 헌혈운동과 함께 가두투쟁을 하였다. 민청련 관련자들은 대부분 예비검속이 되어 남편들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윤경자, 김영자, 선점숙, 정희옥 등도 가두시위에 합류하였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5월 23일에는 베이스캠프를 YWCA로 옮겼다. 첫째는 공간이 넓어 시민군들이 취사와 숙식이 가능하였고, 둘째는 계엄군에게 포위되는 마지막 상황이 되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결정되었다.

다음 증언을 살펴보면 송백회가 항쟁 중반기인 5월 23일 YWCA로 거점을 옮기고 항쟁의 장기화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홍희운, 정유아, 이운정, 임영희 정

222) 임미령, 구술증언.

223) 『광주YWCA70년사』, 1992.

현애 등은 극단 광대 등과 함께 YWCA항쟁공동체를 결성하고 도청지도부의 윤상원, 정상용, 윤강옥 등과 함께 결사항쟁투쟁의 전의를 다져 감을 살펴 볼 수 있다.

“23일 YWCA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조를 편성했는데 가두홍보조, 모금조, 리본조, 대자보조, 취사조 등으로 조직화했다. 여성들이 YWCA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갖춰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비타협적인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성들은 끝까지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²²⁴⁾”

“점차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이 때 홍보와 모금활동은 여성들 몫으로 되었다. 조직 결성은 5월 23일 YWCA 소심당 강당에 모여 정하였는데 모금조(임영희), 대자보조(김정희), 선전홍보조(이윤정, 정현애), YWCA취사조(박승채), 가두방송조 등으로 구성했다. YWCA항쟁지도부는 무기를 반납하자는 수습파들과는 달리 ‘끝까지 싸우자’는 항쟁파의 한 중심에 서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25일부터는 도청 취사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YWCA는 여성들 활동의 거점으로 투사회보 제작, 취사, 홍보, 선전 등 모든 활동이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가는 상태가 되었다. 처음부터 5·18은 민중항쟁 자체가 계획적이지 않았지만 점점 확대되어 갔다.²²⁵⁾“

송백회를 중심으로 한 YWCA항쟁지도부는 5월 26일 오후 계엄군의 최후통첩을 받은 후 도청지도부와 ‘죽음으로 광주를 지키자!’며 YWCA 소심당에서 마지막 회의를 하였다. 윤상원, 정상용, 이양현, 윤강옥, 김영철 등 도청팀과 이윤정, 정유아, 임영희, 정현애 등 YWCA팀, 극단 광대팀의 김정희, 최인선, 김영희, 투사회보 팀 전용호, 박용준, 민청협 박몽구, 안길정 등과 결사항전을 결의 했다.

아래 증언들을 살펴보면 YWCA항쟁공동체는 회의구조를 통해서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계엄군 진압의 최후통첩에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견인해 내었으며 광주시민투쟁위원회와 사수투쟁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YWCA항쟁공동체가 광주시민투쟁위원회의 일원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도청만 지도부였던 것이 아니다. 도청만 지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YWCA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다 지도부였다. 왜냐하면 송백회 여성들이

224) 임영희, 5·18연구소와의 인터뷰, 1999.9.6.

225) 정현애, 5·18연구소와의 인터뷰, 1999.8.3, 2000.4.1.

항쟁 발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거든. 단지 여성들이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에 들어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여성들이 도청 지도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도청 항쟁지도부만이 지도부가 아니었고 YWCA를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들이 주체세력이었다.²²⁶⁾”

“남자들이 하라마라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내용을 만들어서 대자보 쓰고, 프랑카드 쓰고, 쉼기대회 준비하고 그랬다. 여성들이 선전활동을 많이 했다. 총은 안 들었지. 총을 들고 안 들고 차이였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총을 들고 도청으로 들어갔고 여성들은 YWCA에 필경조하고 홍보조가 남아 있었다. YWCA가 필요성이 없었으면 왜 도청 항쟁지도부의 남성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YWCA에 와서 회의를 했겠느냐.²²⁷⁾”

“5.18에 참여했던 여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수류탄 투척 작업(연습)도 해보고 총 쏘는 것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남성들보다 훨씬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정현애, 정유아, 이윤정, 저까지 포함해서 주축 멤버들이 없었다면, 항쟁과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갔을까 의심스러워요. 남자들도 자기들이 왜 YWCA에 들어와서 회의를 했겠어요. Y에서 회의를 해서 Y에서 기획 회의를 개최했어요. Y에서 기획회의를 한 것은 Y에서 그만큼 동지를 틀어 주어서 가능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청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강경하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여성들이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뒷받침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자들이 정리하는 역할을 단단히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²²⁸⁾

이상에서 항쟁과정에서 송백회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항쟁의 지도부에서 주체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선전 홍보 활동 등 남성들과 분업적 구조를 가지면서 운동을 확장시켜 나갔다.

226) 이윤정, 앞의 책, 1999.8.10.

227) 임영희, 앞의 인터뷰, 1999.9.6.

228) 임영희, 위의 인터뷰.

2) 선전·선동활동

송백회는 들불야학의 투사회보와 극단 광대가 진행했던 시민궐기대회, 대자보 작성 부착 등 선전선동활동에 깊이 참여하였다. 광천동에서 빈민운동을 하며 들불야학을 만들어 활동했던 Y신협의 김영철, 박용준은 YWCA에서 정유아, 이윤정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송백회와 자연스레 연대하였다. 극단 광대도 ‘돼지풀이’ 공연 당시 송백회가 입장권 판매 등 지원활동을 통하여 서로 연대하고 있었다. 5월 항쟁기간 중 농촌현실을 고발한 돼지풀이 공연 후 다음 작품인 광대의 ‘한씨 연대기’의 연습실이 YWCA의 양서조합 사무실이었기에 항쟁이 발발하자 극단광대, 송백회, 들불야학, 양서조합 팀은 자연스럽게 항쟁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들불야학의 ‘투사회보’ 발행도 광천동 야학 교실에서 22일까지 8호를 내고 22일 YWCA로 옮겨 작업을 하였다. 송백회는 홍희운 집에 있던 등사기를 가져와 투사회보의 인쇄 작업을 지원했고 회원들이 대자보 작성, 성명서 작성, 추모 리본 제작, 관 구입, 모금 등의 조직을 편성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등 항쟁을 치밀하게 주도했다.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5차례 열렸다. 궐기대회는 YWCA항쟁공동체의 회의에 의해 극단 광대 팀이 송백회와 들불야학 회원 및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학생들과 함께 추진하였다. 24일 2차 민주수호궐기대회에 임영희, 25일 제3차 민주수호궐기대회에 홍희운이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과 민주시 등을 낭독함으로써 홍보활동을 했다. 당시 이윤정이 지은 시 ‘민주화여!’²²⁹⁾는 송백회의 오월투쟁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5일 도청 분수대 궐기대회에서 임영희와 최인선이 낭독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3) 자금지원과 물품조달

송백회는 물품지원 및 자금지원, 식량공급, 화염병제작, 부상자 파악, 시체수습(염)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항쟁초기부터 송백회 집행부는 회의를 통해 항쟁의 장기화를 대비한 자금지원과 물품조달을 맡았다. YWCA와 녹두서점에서 화염병제작과 YWCA와 도청 시민군 취사를 위한 인원을 발굴·조직화하였고, 각종 물품

229)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pp. 131-132.

을 조달하여 도청, YWCA, YMCA 등에 제공하였다. 송백회는 쌀, 김치, 생필품 등과 함께 항쟁초기에 자금 70만원을 전달했다.

이 초기 자금으로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검은 리본제작, 시체 염에 필요한 솜, 가제 천, 관 구입, 시민군들 취사를 위한 된장, 쌀 등 식료품 구입과 시민권 기대회 준비를 하였다. 초기에 도청 취사팀은 주소연을 비롯한 10대들이 맡고 있다가 YWCA항쟁지도부는 장기투쟁을 대비하여 취사조를 YWCA사회문제부 교육생과 JOC회원들을 조직화하여 이정을 조장으로 최정임, 김순이, 윤청자, 남동성당 정경숙(분다)을 도청으로 파견하였다. 도청 취사 팀은 1일 3개조 팀이 교대하였고 YWCA취사는 박승채가 군대에서 취사반에 있었던 경험으로 총괄하였다. 박승채와 25일까지 YWCA취사를 함께했던 류선영은 26일 도청으로 들어가 27일 새벽에 사망하였다.

“19일 오전이 되자 학생들이 서점에 모여 화염병을 처음 제작하였고 이 화염병은 가두시위에 사용되었다. 나는 장성소재 삼계중학교에 출근하였지만 조급한 마음에 조퇴를 하여 공용정류장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공수대원이 시위 중 쫓기는 사람을 죽여 화장실에서 시체 2구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서점으로 출달음쳤다. ‘대한민국 군대가 양민을 학살하다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사람들을 피신시키기 보다는 사람들을 모아 적들에게 대항해야 하겠다는 다짐이 뜨겁게 솟구쳤다. 다시 아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싸우자!’고 연락을 취했다. 20일 오전에 당시 전남대 학생이 서점에 와서 맨손으로 공수부대의 총칼에 맞설 수 없다면서 화염병을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²³⁰⁾

“22일 상황이 격화되어 언제 은행업무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개인예금 50만원, 송백회 공금 20만원을 인출하여 쫓기대회 팀에 전달하였다. 이 기금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이후 YWCA에서 선전활동, 모금활동, 취사활동에 참여하였다. 25일 쫓기대회에서 여성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사회적 명망성이 있는 분들이 낭독을 거절하여 YWCA활동 팀 가운데 연장자인 내가 수십만 인파가 운집한 분수대 연단에 올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다.”²³¹⁾

230) 정현애, 현대사료연구소, 1991.3.

231) 홍희윤, 앞의 책.

"YWCA에서 취사조를 조직해서 도청에 들어갔다. JOC 가톨릭 노동청년회 소속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됐다. 조직적으로 안 된 것 같지만 실은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²³²⁾

이상의 다양한 구술증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송백회는 항쟁초기부터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는가 하면 시민군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투쟁에 필요한 화염병을 제작하였으며, 시내 일원에서 부상자들을 파악하고 희생자 수습을 담당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2절 송백회운동과 미시동원맥락

1. 미시동원자

1) 기독교 성직자 그룹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특징적으로 간파할 수 있듯이 미시동원맥락은 당시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대학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송백회운동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시동원자, 즉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을 공급했던 비공식적인 집단들로서 당시 진보적인 목회자, 신부, 등 기독교성직자 그룹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송백회 회원들은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의식화가 되었고 성직자들과 깊은 연대 속에서 민중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연대를 송백회 간사와 현대문화연주소 간사를 지냈던 임영희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교육원에 다녔어. 내 운동의 시작이 어찌면 기독교 운동으로 부터였다. 기독교운동은 곧 민중운동이었어. 하나님의 정의가 민중구원이었고 억압받은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였지, 당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그렇게 선교하였고. 처음에 무돌교회 다니다가 양림교회로 옮겼는데 은명기 목사님 우리 송백회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내가

232) 윤청자, 5·18연구소 인터뷰, 2000.1. 6.

부활절 벽화사건, 유인물 배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고 서부경찰서에 감금되었어. 그 뒤론 경찰한테 늘 추적당하고 집안 뒤지고 가고, 1년 365일 감시당하는 주요인물이 된거지. 나의 신앙은 곧 운동이었어."²³³⁾

"그 당시에 활동을 같이 했던 그룹들이 이세천, 박병기, 김금해, 박현옥. 전남대 내에 KSCF(기독교학생회)라고 있었어요. 밖에 있는 학생들하고 연합한 단체가 나사렛성서연구회였어요. 그 전에 '장·강·령'이라고 장홍, 강진, 영암 청년 모이는 시찰회가 있었어요. 시찰회에 내가 광주에서 김명수, 김금해 이 두 사람한테 유인물을 받아다가 내가 뿌리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연행돼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구금을 당했었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죠. 경찰의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구금을 당해서 일주일 만에 풀려났었고, 부활절 사건이라고 한번 또 있었어요. 벽에다가 '독재정권 물러가라' '박정희 타도!' 이런 것 썼었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한번 끌려갔었어요."²³⁴⁾

민청학련 사건이후 2·15조치로 학생들은 전원 석방이 되어 서울에서 나병식, 최권행, 나상기, 문국주 등이 광주로 내려와 올 라운드 플레이 형식으로 농민운동, 청년운동, 문화운동, 신협운동을 시작한다. 당시는 의식화 서클이나 사회과학 서클을 대학에 등록할 수 없었기에 나상기는 전남대학교의 최철, 조봉훈, 이세천, 장석웅, 김근호, 박현옥, 김명수, 정준용, 김영중, 이청조, 이일승 등과 조선대학 약학대의 김소진, 의대의 우효 등과 기독교학생회를 만들어 류현창 목사 신광교회에서 그룹스터디를 했다. 이 그룹들이 성장하여 KNCC(한국교회협의회) 산하 EYC(기독교청년협의회)로 활성화되어 광주EYC가 만들어진다. 광주 EYC가 만들어지고 송백회운동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시동원자, 즉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을 공급했던 비공식적인 집단들으로써 당시 진보적 목회자, 신부 등, 기독교 성직자 그룹들과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아래 조봉훈의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자.

“우리 신광교회 류현창 목사님이 참으로 고마운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공간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룹모임이 탄로가 나서 김영중 윤한봉 씨가 구속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더

233) 임영희, 구술구술, 2011.12.17.

234) 임영희, 구술증언.

집중된 감시를 받다가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 때문에 결국은 유연창 목사님도 77년 그해 11월쯤인지 일시는 분명하지 않지만 구속되는 아픔을 겪으셨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유연창 목사님 신광교회는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보수진영에 해당하는 그런 교단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훌륭하게 역할을 하셨고, 그 아들이 류동훈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류동훈 학생이 우리가 거기서 공부할 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 이렇게 사회참여 정의를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성결교단 신학교를 가지 않고 기독교 장로회 소속 한신대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한신대에 진학을 해가지고 2학년 때일 겁니다. 80년 5·18이 발생을 하게 되고 5·18항쟁에 도청 시민군에 적극 활동을 해서 특히 도청 앞에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훌륭한 유연창 목사님도 자기 아들의 안위가 너무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기도 했는데 아들은 유연창 목사님 손에 끌려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도청 현장에 돌아왔다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을 진입할 때 도청 정문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유연창 목사님은 고향이 대구인데 사랑하는 아들 동훈이를 잃고 그 기억을 잊기 위해서 결국은 광주를 떠나서 고향인 대구로 돌아가셔서 목회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광주에 한 번씩 오기 힘드신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번씩 기회 있으면 초빙을 하고 연락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²³⁵⁾

광주EYC(회장: 조봉훈, 총무: 박형중)는 권위주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종교단체인 YWCA, YMCA 공간을 거점으로 각종 강연, 기도회를 조직화하여 송백회 회원을 비롯한 민주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연대를 만들어 나갔다.

송백회 회원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활동했던 이성학 장로(제현의회 의원), 이영생 집사를 중심으로 한 NCC는 YMCA를 거점으로 목요기도회를 열면서 유신독재 타도를 위해 활동하면서 민주진영의 소식을 교환하고 감옥에 있는 민주인사들의 뒷바라지와 가족을 위한 기도회 등을 하였다. 양림교회 은명기 목사는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와 송백회의 옥바라지 사업인 양말 뜨기에 이영애 집사 등 여신도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유기적 관계를 맺어갔다. 기독교 청년운동의 양축이었던 EYC나 기독교 장로교 청년회 전남연합회의 모든 집회나 기도회는 은

235) 조봉훈, 구술증언, 2011.12.7.

명기 목사의 활동으로 가능했었다.

“양림교회 은명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시게 됩니다, 77년도에 우리가 EYC 연합예배로 구속될 당시에 성명서 유인물을 우리 배호경회장이 원고 작성을 하고 저하고 배호경회장이 가리방에 필경을 긁어가지고 낭독을 해서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둘이 유인물을 등사기에 미는 작업이 끝난 지 일본도 안돼서 정보과 형사가 나타났는데 그 작업이 진행 중에 나타났으면 우리는 사전에 성명서 낭독도 못하고 구속 됐을텐데, 그런 아슬아슬한 추억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양림교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은명기 목사님이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기장·청 전남연합회가 거의 모든 집회나 기도회 이런 것들은 주로 양림교회에서 은명기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양림교회에서 주로 집회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양림교회 이후에는 한빛교회가 활동의 장이 되었는데 한빛교회가 또 그렇게 된 것은 강진읍 교회에 계시다 올라오신 윤기석 목사님이 한빛교회에 시무하시게 되면서 한빛교회 청년회라던가 NCC 집회라던가 이런 집회들을 한빛교회에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당시에 움직이셨던 목사님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식 목사님, 윤재현 목사님 은명기 목사님 전임이셨고요 김경식 목사님은 처음에는 작천교회인가에 시무하고 계시다가 워낙 개성이 강하시고 혼자 걸어서 청와대 진정하러 가신다고 세 차례나 하시고 이런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속도 당하시고, 그래서 김경식 목사님이 윤기석 목사님이 광주 한빛교회로 올라오시니까 강진읍교회에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광주 계림교회로 올라와서 광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일찍 돌아가셨구요...”²³⁶⁾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상당히 많은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이 교회 신자 여부를 떠나서 교회를 무대로 활동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줌으로 해서 광주가 초창기에 민주화운동이 발전하고 성숙되는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종교인 비종교인을 떠나서 교회 조직의 후원과 지원 하에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종교운동으로 국한해서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억압의 체제 하에서 아무도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송백회를 비롯한 지역

236) 조봉훈, 구술증언.

운동세력들은 지역의 교회나 종교기관의 엄호 하에 민주화 운동을 함으로써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해나갔고 확산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증언자들에 따르면, 이는 결코 종교운동의 일환이 아니라 광주 전남 전체 민주화운동의 선상에서 초기에 기여한 그 공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²³⁷⁾

“그 이후에 이런 초기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알지 못하는 2세대 3세대 운동권 후학들은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이것이 종교운동의 일부였다고 애써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실은 조아라 회장을 저의 어머니같이 생각을 했고 또 이성학 장로님을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가족 같은 느낌과 관계로 생각을 했지 교회 장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시다.”²³⁸⁾

위의 증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회나 영치금, 또는 양말 뜨기 등으로 송백회를 도왔던 성직자 그룹은 양림교회와 한빛교회 윤기석 목사가 시무하면서 민주인사들의 활동의 장이 되었다. 이외에도 YMCA 김천배 선생, 동부교회 백영흠 목사, 고영근 목사, 김경식 목사, 윤재현 목사, 성결교회 문정식 목사, 방철호 목사, 강신석 목사, 이철우 목사, 박만철 집사, 안철 집사, 등의 성직자들의 그룹이 있었다.

가톨릭은 정의평화위원회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민주인사 및 구속자 가족들 모임이 이루어졌다. 북동성당에서 함평고구마 피해보상투쟁이 승리로 대미를 장식하고 이 사건을 주제로 마당극을 만들어 계림동 성당(주임신부: 조비오)에서 공연을 하였는데 이 투쟁을 통해 송백회는 가톨릭과 더 깊은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동성당과 가톨릭 노동청년회 주임신부인 김성룡 신부는 저서 ‘사람 낚는 어부’ 등을 통해 가톨릭을 통한 노동자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1979년 호남전기 사건이 발단이 되어 김성룡신부를 중심으로 노동운동가 이양현, 조아라, 이애신, 김경천, 이성학, 김성애, 이윤정등 이 남동성당에서 해직노

237) 조봉훈, 구술증언.

238) 조봉훈, 구술증언.

동자 대책기구를 결성하였다. 이 대책기구에 정의평화위원회, JOC, YWCA, NCC, 엠네스티, YMCA가 참여하였고, 아세아자동차 해고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회합과 각종 시국 강연회 및 기도회가 남동성당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함성지 사건을 주도한 박석무 선생은 이기홍 변호사, 조아라 회장, 명노근 교수, 윤영규 선생, 문병란 선생 등과 엠네스티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들의 부인들은 대부분이 송백회 회원이었고 70년대 사회운동 미시동원자들로 그 역할이 컸다. YMCA를 중심으로 박석무, 송문재, 임추섭, 고진형, 윤광장, 윤영규, 박행삼 등이 중등교사협의회²³⁹⁾를 만들어 교육운동이 시작되었고 대학 Y가 결성되는 등 한 걸음 더 나아가 Y독서회활동에서 많은 청년들이 배출되었다.

2) 문화 운동가 그룹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미시동원맥락은 당시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대학과 교회 이외에도 오월광주항쟁과 송백회운동을 둘러싸고 형성된 미시동원자, 즉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을 공급했던 문화운동가 그룹은 대학 탈출반, 연극반, 극단 광대 등 이다. 이 문화운동가 그룹은 송백회의 이웃연결망 조직으로 굳게 연대해 있었다. 또한 이 문화운동가 그룹은 오월광주항쟁과정에서 송백회와 함께 YWCA투쟁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수투쟁의 대열을 형성하는 핵심 대오에 섰다.

광주에서 ‘문화운동’이라는 말은 1970년대 후반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운동의 사전적 개념은 ‘문화를 활용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억눌림이나 억매임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연하면 ‘문화운동’은 ‘문화’+‘운동’인데 ‘문화’는 문화예술, 즉 문학, 미술, 노래, 연극 등 예술을 통칭하고, ‘운동’은 1970년대 유신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미술, 노래, 연극 등 예술행위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미시동원으로서 문화운동은 저항을 위한 기초적 자원 및 조직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시동원은 집합행동에 필요한 동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합적 비판의식과정이 원초적 조직의 형태와 결합된 소집단상황을 말한다.

239) 오늘의 전교조운동으로 발전을 하였음.

광주·전남 지역에서 1970년대 문화운동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1974년 문학인들이 서울에서 결성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다. 광주에서 참여한 작가로는 문병란 시인, 송기숙 소설가와 김남주 시인, 김준태 시인, 양성우 시인 등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문화운동을 표방하고 활동이 시작된 것은 정치사회현실을 탈춤, 마당극, 현장 촌극 등의 전래 민속 연희 양식으로 고발하고 풍자하는 공연을 활발하게 펼친 대학의 '탈춤 동아리'라고 할 수 있다. 광주에서 탈춤 동아리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77년 겨울 광주YMCA에서 서울 '놀이패 한두레' 회원의 강사 지원을 받아 시작된 탈춤강습이 연원이다. 그 후 78년 4월 전남대에 탈춤반이 결성되고, 탈춤반의 주요 회원들의 6·29시위 참여로 등록이 취소되자 79년에 '가면극연구회'로 재건되고 다시 연극반과 국악반 출신 연희 활동가들과 결합하여 'Y극회 광대'를 창립하여 '돼지풀이' 마당극을 공연하는 등 확대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탈춤반의 창립과 활동은 광주권 문화운동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탈춤반의 창립과 활동, 연극반의 리얼리즘 연극 활동으로 배출된 문화운동가들에 의해 'Y극회 광대'가 만들어지고, 'Y극회 광대'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5월 항쟁 시민궐기대회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 일지형식으로 정리하였다.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광주 출신 문학인으로는 박봉우, 문병란, 송기숙, 조태일, 이성부, 김남주, 김준태, 양성우 등이 참여하였다.

1975년 2일 구국기도회가 광주YWCA회관에서 열렸다. 그 행사에서 양성우(당시 중앙여고 교사) 시인이 자신의 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양성우 시인은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학교에서는 해임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소위 '운동가요'가 대학가 의식서클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당시 운동가요는 주로 구전가요, 항일 독립군가, 농민운동가, 외국 곡에 개사한 노래, 김민기, 양희은의 노래 등이었으며 대학생과 청년들의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1977년 가을에 해남에서 소설가 황석영의 주도로 정광훈(농민운동가), 윤기현(농민운동가), 김남주(시인) 등과 함께 서울의 '놀이패 한두레' 팀을 초청하여 민요, 판소리, 마당극, 시낭송, 깃발, 현수막 등 여러 장르의 연희 양식과 선전방법

이 활용된 추수감사제 굿판을 벌렸다. 광주에서도 민청학련 사건 관련 청년운동가들과 대학 문화운동권 학생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1977년 겨울부터 광주YMCA에서 탈춤강습회가 열렸다. 강습회는 서울의 ‘놀이패 한두레’(서울대, 이대 탈춤반 출신들이 모여 결성한 문화운동팀) 소속의 채희완, 김봉준, 류인택의 지도로 윤상원, 박효선, 김태중, 김선출, 김윤기, 윤만식, 김정희, 조길예 등이 참여하여 봉산탈춤 먹중과장을 이수하였다.

1978년 4월에는 전남대에 탈춤반(민속문화연구회)이 창립되었다. 전남대 탈춤반은 YMCA 탈춤강습회를 통해 배출된 김선출, 김윤기, 김정희, 윤만식, 윤성석, 조길예 등이 주도하였으며 김연중, 신경화, 최인선, 전용호, 하경량, 현수정 등이 신입회원으로 참여하였다.

1978년 8월에 전남대학교 학생처에서는 탈춤반(민속문화연구회)의 씨클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 이유는 전남대 11인 교수 민주교육지표선언지지 시위 참가로 당시 탈춤반 회장 김선출과 부회장 김윤기가 시위의 주동자로 수배되고 학교에서 제적되었다는 것이다. 1978년 10월 전남대 연극반은 학교 축제 때 러시아혁명을 다룬 까뮈의 희곡인 연극 ‘정의의 사람들’ 공연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나지 않자 리허설 공연을 기습적으로 주도하였다. 당시 공연은 나중에 ‘Y극회 광대’의 주축 회원인 박효선이 연출하고 김태중, 이현주 등이 출연하였다. 1978년 11월 계림동 성당에서 열린 가톨릭농민회의 전국 쌀 생산자대회에서 광주 최초로 마당춘극이 공연되었다. 당시 500여명이 모인 농민 집회에서 마당극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마당춘극 ‘함평 고구마’가 나중 ‘Y극회 광대’의 주축회원인 박효선, 김태중, 이현주, 전용호, 김연중, 최인선 등이 출연하였다. 1978년 12월에는 들불야학 강학이었던 박기순의 죽음으로 재야민주세력이 참가한 대규모 장례식이 열렸다. 들불야학이 있는 광천동 성당에서 장례식이 시작되어 전남대에서 노제를 하고 망월동 묘지에 묻혔다. 소설가 황석영 등 조사와 김민기의 ‘상록수’ 조가가 불렀으며 민주화운동 의례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하였다. 1978년 12월에는 전남대 씨클 등록 취소된 탈춤반을 당시 신입생이었던 전용호, 김연중, 최인선, 신경화, 하경량, 현수정 등이 조선대 탈춤반을 준비중이던 김부수, 변서호 등과 함께 통영오광대 탈춤 전수활동을 통해 재건준비를 하였다.

1979년 3월 전용호, 김연중, 최인선, 신경화, 하경량, 현수정 등이 탈춤반을 가면극연구회(지도교수 이상식외 1인)로 이름을 바꾸어 등록에 성공하였다. 1학

년으로 이규현, 박영정, 김상전 등 3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1979년 9월 홍성담, 최열, 김산하 등 조선대 미술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광주자유미술인회가 결성되었다.

1980년 1월 'Y극회 광대'가 결성되었다. 1978년 6·29민주교육지표선언 지지 시위 사건으로 수배되었다가 1979년 9월경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다 10·26사건이후 구속중지로 석방된 김선출, 김윤기와 전남대 탈출반 출신의 윤만식, 김정희, 최인선 등과 윤상원, 박효선의 영향으로 리얼리즘 연극, 혹은 사회현실 참여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전남대 연극반 김태종과 이현주, 김영중과 전남대 국악반 출신의 연희예능의 끼가 많은 임희숙, 조선대 탈출반 출신 김영희 등이 광주 YWCA 소속 극단 'Y극회 광대'를 결성하였다. 'Y극회 광대'는 소설가 황석영과 현대문화연구소와 송백회의 지원을 받았다.

1980년 3월 'Y극회 광대'는 당시 농촌에서 돼지의 과일 사육으로 가격이 폭락한 농정을 풍자한 마당극을 YMCA 무진관에서 공연하였다. 2회의 공연에 약 2천여명의 관객이 관람하고 뒤풀이에 관객 모두가 참여하여 걸판진 춤판이 벌어졌다. 마당극은 기존의 무대극과는 달리 공연 장소가 원형의 무대를 이루고 관객이 둥그렇게 앉는 연희양식으로 70년대 문화운동 과정에서 창출된 민중적이고 전통적인 공연형식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3월부터 'Y극회 광대'는 무안, 강진, 해남 등 농촌현장을 순회하며 수차례 돼지풀이 공연을 가졌다. 1980년 4월 소설가 황석영의 재정지원으로 동명동에 전용 소극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 개관기념으로 '한씨 연대기(황석영 작)'를 YWCA 2층의 양서조합 사무실 등을 전전하며 연습하다 5월 18일을 맞게 되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YWCA항쟁 공동체에 참여하여 시민권기대회를 5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Y극회 광대'의 박효선, 김태종, 이현주, 김선출, 김윤기, 최인선, 김영희 등은 23일부터 시민권기대회를 조직하고 진행하였다. 극단 광대의 시민권기대회 팀은 송백회의 홍희운, 임영희, 이윤정 정유아 등과 들불야학의 박용준(열사), 전용호, 김경국, 나명관, 김성섭 등 투사회보 팀, 홍성담, 김정희 등 대자보 팀과 함께 YWCA에서 선전선동활동 중심의 항쟁공동체를 결성하여 27일 새벽 계엄군이 진입할 때까지 투쟁하였다. 이 세 팀의 선전·선동활동은 도청의 수습위원회에서 윤상원, 박남선, 이양현, 정상용, 김영철 등 투쟁적 운동가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논리적이면서 현실적인 기반을 제

공했다고 할 수 있다.

3) 여성운동가 그룹

송백회운동을 둘러싼 미시동원체로서의 여성운동가 그룹은 광주YWCA와 가톨릭 노동청년회 여성노동자, 여성농민운동가, 전남대, 조선대 여학생 그룹들이 있었다. 앞서 미시동원자로서 성직자그룹, 문화운동가 그룹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YWCA는 기독교라는 기반위에 유신독재 체제에 대항하던 운동단체들의 사무실조차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바람막이 역할로서 집회장소로 중요한 공간이었다. YWCA의 여성운동가로서는 조아라회장, 이애신 총무, 이기봉 회장, 이사로는 이영애, 김영숙, 송희성, 안행강, 박순이 등과 간사는 김경천, 고정희, 김원자, 안희옥, 이윤정, 정유아, 양현숙등이 있었다. 이들의 일부는 송백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아라회장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 해방이후에는 건준부인회 활동을 하며 YWCA재건, 수피아여학교의 재건 등 일제에 의해 맥이 끊긴 우리의 일을 되찾고자 노력하였다. 1947년부터 26년간을 YWCA총무, 1973년부터는 회장을 역임하면서 NCC, 송백회활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가들을 지원하였다.

이영애 이사는 YWCA재건자로서 유치원원장, 광주어머니회 회장으로 건전한 국민운동에 앞장섰고 전남여신도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 기독교여성으로 남편 문천식과 함께 송백회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도 하였다. 이애신 총무는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엘리트 여성으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광주사범학교 교사를 하였고 NCC활동등 민주화가족과 구속자들을 지원하였다. 광주YWCA역사에서 여성 인권 민주화운동 단체로서의 전성기를 만든 여성운동가이다.

송희성 이사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인 부친 송봉해선생(제헌국회의원)의 자녀로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 최초 대학생 농촌계몽대를 본인이 조직하여 농촌계몽 및 봉사활동(농활)을 펼쳤고 1961년 대학졸업 후 유달영 박사와 농촌 재건운동과 광주YWCA 프로그램 수석간사에 이어 이사를 역임한 여성운동가였다. 박순이 이사는 사회복지사업에 평생을 헌신한 여성이었고 김경천간사는 주무 프로그램간사로 교육지표 사건으로 복역을 한 여성운동가였다. 이외에도 YWCA는 많은 엘리트 중산층 여성들이 기독교운동을 배경으로 활동을 하였다.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사회적 인식과 조직은 초기단계였지만 가톨릭 노동청년

회활동을 하고 있던 여성노동자, 기독교여성농민, 유신반대운동을 했던 전남대 박현옥, 김금해 등과 조선대 여학생 그룹들이 있었다.

가톨릭 노동청년회 여성노동자들은 송백회와도 깊은 연대 속에서 김성애, 호남 전기 이정희, 윤청자, 최연례, 남해어망 임미령, 서금실, 전남제사 정향자 등은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이나 YWCA사회문제부, 산업선교회와 연결되어 17개 산별 섬유노조중 12개 현장에 소그룹이 결성되어 있었다.

다음은 연구자가 남해어망 임미령과의 구술 증언에서 발췌하였다. 아래내용을 살펴보면 송백회가 여성운동 조직으로서 발전하면서 YWCA, JOC, 가톨릭 성직자그룹등과 연결망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단체와 단체를 엮어내는 일을 YWCA, JOC, 사업장, YWCA는 기독교 단체니까 그 밑에서 우리가 현장 조직을 해가지고 Y에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해고 노동자 문제나 인권 탄압문제나, 임금인상문제 그 다음에 그때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비일비재 했잖아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사회문제화 시키는 것을 YWCA나 남동성당 남신부님, 김성룡신부, 해서 이렇게 남동성당, NCC, YWCA, 이런 단체들이 연대해서 당시 해고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대책위원회를 만든거지. 79년도 80년 민주화의 봄 있기 전에 그러면서 아세아 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그다음에 호남전기 해고 노동자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켜냈지.”²⁴⁰⁾

아래는 암울하고 어둡던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스런 현실을 송백회를 비롯한 사회운동단체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와 새 세상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불태워왔던 여성노동자의 증언이다.

“YWCA 교육이나 연대 사업이 그니까 주로 합동 교육이었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우리가 공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억눌림과 억압과 고통스러운 어떤 노동 환경만 접했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문화, 희망이 있는 문화적인 것을 많이 느꼈고 좋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게 참이었구나, 진실이었구나, 이런걸 많이 느꼈던거 같아요. 공장의 세계 속에서만 내가 살다가 공장이 아닌 정말 좋은거, 문화적으로도 더 좋고 진실 된

240) 이윤정, 증언.

것, 참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맛봄을 사실은 JOC 활동이나 YWCA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저는 많이 맛볼 수가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어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섬유노조였으니까 섬유노조 연맹에서 이현보 선생님이나 조성준 이런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때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거구나, 사실 제 성격이 고지식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고 이게 참이고 이거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거다. 라고 했던 것들을 접했을 때는 그게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²⁴¹⁾

여성 농민운동가로는 황연자(조선대학생운동 박형중 부인), 고옥희(농민운동가 김성중 부인), 임수옥(함평카농 정병원 부인) 등이 기독교 농민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해남읍교회(김경식 목사)출신으로 정광훈의 영향을 받아 여성농민 활동을 시작하였다. 카톨릭 농민회가 먼저 창립되었고 함평 고구마사건 이후 기독교 농민회는 회장 배종렬, 부회장 문경식, 부회장 황연자를 중심으로 해남군 부평면 교회에서 창립되었다.

황연자는 태평양화장품 미용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정광훈, 배종렬, 서경원과 함께 농민회 활동을 하였다. 기독교 농민회교육은 마을별로 이루어졌고, 황연자는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농민 교육과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김종삼, 조계선과 함께 남민전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카톨릭 농민회의 여성회원들, 기독교 농민회의 여성회원들, 대학가 여학생운동 세력들 및 여성노동자 등은 송백회운동의 중요한 미시동원자로서 다양한 비공식적인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통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훗날 조직적 차원에서 점차 공식적인 이웃연계망에 포함되게 된다.

2. 송백회의 이웃연계망

70년대 광주·전남 운동권의 문화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이웃공동체로서 가치를 우선하는 연대구조였다. 유신체제의 혹독한 탄압아래서의 활동은 상호의존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였다. 오늘날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

241) 임미령, 구술증언, 2011.12.22.

응하는 부문운동으로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운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올 라운드 플레이 형식으로 한사람이 노동, 농민, 문화, 기독교운동에 소속되어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송백회는 창립이후 오월광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 운동조직들과 이웃연계망을 구축하여 광주항쟁에서 중위동원자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앞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송백회의 이웃연계망은 ‘민청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운동, 현대문화연구소, 극단광대, 대학 탈춤반 등 문화운동, 그리고 들불야학, 백제야학 등, 야학운동 단체들이었다.

1) 청년운동과 관계

청년운동이란 무엇인가? 청년운동의 주체인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청년운동이 갖는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한 시대의 시대적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한 시대정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청년운동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과 문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관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남민주청년협의회는 민청학련 출신 활동가들이 1975년 2월 15일 석방이후 ‘광주구속자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해오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들이 양산되자, 1978년 전남민주청년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이며,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는 조성우, 양관수 선배 등의 주도하에 ‘민주청년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현대문화연구소는 1979년 초반 전남민주청년협의회의 근거지로서 광주시 동구 장동 소재 연합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과 광주의 정보교환과 여러 부문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청년사회운동은 물론 문화운동의 태동과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다. 현대문화연구소 바로 옆에 김상윤이 운영하는 ‘녹두서점’이 있었고, 여기서 멀지 않은 대의동 광주YWCA에 장두석, 문병란 시인, 황일봉 등이 관여하는 ‘양서조합’이 있었다. 당시 조아라, 이애신, 김경천, 이운정, 정유아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던 광주YWCA는 광주전남 지역 재야운동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에 비해 광주YMCA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당시 민청학련 출신 활동가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여러 부문별로 포진해서 활

동을 벌였다. 농민운동에 이강, 정상용, 박형선 등이, 노동운동에 이양현, 최연석 등이,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에 나상기, 최철 등이, 학생운동 지도에 김상윤, 김운기, 김정길 등이 맡아 활동하였고, 전체적인 연결을 위한 청년사회운동 부문에 윤한봉과 정용화, 임영희 등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청년운동은 청년정치운동과 청년사회운동으로 대별되었다고 보는데, 서울의 민청협이나 전남 민청협은 다방면으로 각 부문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직이었다. 왜냐하면, 민족자주통일운동은 물론이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교사운동, 종교적 부문운동 등 안걸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 부문에 관여하고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현대문화연구소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청년운동가 윤한봉은 모든 부문운동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홍남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운동세력과 그 산하 ‘민주헌정동지회’ 등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연대활동 또한 열심히 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문화운동의 태동에서부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도 소통과 연대활동을 강화하였다. 실제로 이양현, 최연석을 지원하여, 노조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호남전기(현 로케트전기 전신), 전남제사, 남해어망, 들불야학, 백제야학, 가톨릭 농민회나 기독교 농민회 행사와 교회 및 성당의 관련 행사를 지원했다.

그런가하면, 황석영, 김남주로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윤만식, 박효선, 전용호, 김선출, 김운기 등이 주도하는 문화운동의 후견인 겸 스텝으로서의 역할까지를 감당하였다. ‘송백회’의 창립을 주도했으며, 양서조합운동 등 각종 부문운동의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런 연대활동은 각종 모임이나 시위 때 모든 역량을 연결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실제로 그런 역량을 도출해 냈다. 함평고구마 사건 때라든가 그 이후 벌어진 북동성당에서의 (단식)농성 등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런 연대와 참여의 전통은 줄곧 이어져서 5·18민중항쟁으로까지 연결되었다.

1970년대 후반, 청년운동의 전개와 그 과정에서 보듯이 청년운동은 각 부문운동의 유희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연합전선이나 공동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였다.

청년운동의 장점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역동성과 재야 명

망가와 종교지도자들을 견인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각 부문운동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론적 무장과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청년운동의 이러한 강점과 장점은 전통적으로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고, 좌우로 수평적 연대를 강화시켜, 역사의 고비마다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작용했다.

2) 문화운동과 관계

광주에서 문화운동이 태동한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소설가 황석영의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전남대 탈춤반의 창립이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민주화운동가가 배출되었지만 문화예술을 수단으로 하는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던 시절에 소설가 황석영이 김남주 시인이 살고 있는 해남으로 이사를 와서 문화운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해남은 정광훈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의 기운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들은 청년운동을 감당하고 있던 윤한봉과 농민운동 활동가 등과 연결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이 더욱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양식의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의 채희완(탈춤), 임진택(판소리), 김봉준(민중미술), 유인택(연극반) 등이 광주에 들락거리면서 탈춤을 지도하여 1978년 봄, 광주·전남에서는 최초의 대학탈춤반 ‘민속문화연구회’가 전남대에서 창립하였다. 전남대 탈춤반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연극반, 국악반 등도 순수 예술에서 벗어나 현실사회에 관심을 두는 리얼리즘 작품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탈춤반에서 시작된 문화운동의 싹은 연극반으로 옮겨 갔고, 급기야 미술, 노래 등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에 자극을 주어 현장 중심의 리얼리즘 연희예술이 폭발적으로 위력을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1970년대 후반의 문화운동은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져갔다. 문화예술인들과 청년학생운동의 활동가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문화운동은 정치사회운동의 문화선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백회는 1978년 11월 창립되었다. 송백회가 창립된 것은 그 시점이 광주권 민주화운동 공동체에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가 절실히 필요했다. ‘여성’이 가부장적 구조에서 ‘남성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닌, ‘남성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거친 투쟁과정에 있는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어머니처럼 포용하고 보살피는 존재’가 절실했던 것이다.

실례로 1978년 11월 광주 계림동 성당에서 ‘전국쌀생산자대회’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5백여명의 농민들이 운집했다. 그 행사에 광주권 민주화운동 조직들이 모두 동원되고 기꺼이 참여했다. 민청협 등의 청년운동 단체들은 장소를 교섭하고, 타 지역 민주화운동가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재정을 모금하였다. 전남대 탈춤반과 연극반 등 문화활동가들은 전라도 마당굿의 효시로 꼽히는 ‘함평고구마’ 공연을 하여 농민들을 열광시켰다. 송백회 회원들은 부엌에서 수백명이 먹을 밥을 했다.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 대부분은 송백회 회원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단체 소속인지도 몰랐다.

당시 송백회 2기 회장인 홍희운이 구술했던 내용에 송백회와 민주화운동 단체와의 연대했던 내용이 잘 나타나있다.

“현대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윤희봉씨가 있는, 거기에 다 회원으로 들어갔죠. 거기 민청 중심으로 해서 광주 운동권이 결합된 건데 이제 행사 있으면 다 투입되고. 뻘히 다들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 있으면 몰려가고. 농민운동 같은 행사 있죠?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함평고구마 사건이 있었고, 내가 광주에 있을 때는 전국 기념대회였든가 남동성당인가, 암튼 79년도에 어마어마한 전국농민대회가 있었어요. 또 송백회 팀이 다 가서 밥세도 록 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밥을 쫓아다니는 거야 아주 밥하면 막 쫓아가서 하구 그런 걸 즐겁게 하구. 나도 그냥 막 죽어라고 쫓아다니고, 나보고 ‘밥순이’라구 해두 그게 참 좋았던 거 같아 역할 분담 그런 게 다 연대로 돼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뻘하고 남자 민청 세대들이 다 연계가 돼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땐 이념중심보다 고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결속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몰려가서, 그런 아주 공동체적인 운동을 했죠.”²⁴²⁾

광주의 문화운동 팀들은 전남대와 조선대 탈반, 연극반, 국악반, 미술패 등을

242) 홍희운, 『5·18항쟁증언 자료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결집하여 마당극 운동의 본류를 여는 ‘YWCA극회 광대(Y극회 광대)’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Y극회 광대’의 여성 활동가 이현주, 김정희, 임희숙, 최인선, 김영희 등은 송백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그들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YWCA투쟁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5차례의 시민궐기대회를 끌여가는 중심에 섰다. 전남대 연극반 출신으로 ‘Y극회 광대’의 배우였던 이현주는 시민궐기대회의 여성 사회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Y극회 광대’ 소속 마당극 연출가이자 안무 담당이었던 김정희는 현수막과 대자보를 작성했으며 역시 ‘Y극회 광대’ 소속의 최인선은 시민궐기대회의 분수대 연단에 올라 낭랑한 목소리로 송백회 이윤정이 작시한 ‘민주화여!’를 낭독하여 심금을 울렸다. ‘Y극회 광대’ 소속 임희숙은 시민궐기대회 연단에 올라 군가 ‘전우가’에 개사한 노래를 시민들에게 가르쳤다. ‘Y극회 광대’ 활동가들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항쟁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광주항쟁 투쟁 의지를 결집한 구 도청 앞 분수대에서 5차례의 시민궐기대회를 주관하였다.

시민궐기대회를 주관한 극단 광대는 투사회보를 제작한 들불야학 구성원들과 함께 대자보 및 성명서 작성, 취사, 헌혈, 모금 등 활동을 주도한 송백회 회원들과 함께 YWCA에서 항쟁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선전선동활동의 일익을 담당했다.

3) 야학운동과 관계

1978년 5월부터 창립이 준비되었던 들불야학은 1978년 7월 23일, 광주공업 단지를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35명의 노동 청소년들과 강학이라 불리는 8명의 교사가 모여서 입학식을 가지면서 출범하였다. 수업은 일주일에 6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씩 진행되었다. 학제는 한 학년을 6개월로 정하여 1년 6개월, 3개년을 마치면 졸업을 하였다. 1기 강학은 전남대학교의 학생들인 박기순(사학과 3년), 임낙평(독문과 1년), 신영일(국사교육 2년), 나상진(공대 3년), 김경옥(교육학 3년) 과 서울에서 야학 교사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전복길(서울대), 최기혁(외국어대), 김영철(서울대) 등 광주출신 대학생들이었다. 전복길, 최기혁, 김영철은 마침 대학을 휴학하여 군 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1978년 12월, 들불야학 강학회의에서 광주공단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것이 합의된 결론이었다. 실태조사를 추진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들불야학에서는 1명만 참여하기로 하고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사람을 찾아내기로 하였다. 야학에서는 신영일 강학, 그리고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중에서 박관현, 이세천, 장석웅, 박병섭, 위승량, 박용안, 최금표, 안진 등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반은 들불야학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사업으로 조직의 형태를 갖추었다.

들불야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형태는 '노동야학'이었다. 노동야학은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한 노동운동가 배출을 목표로 하였다. 노동야학 교육의 목표는 노동자의 가난과 고통의 근본원인이 교육을 못 받아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순된 사회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다. 들불야학은 노동야학의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처음 6개월간은 중학교의 교과서를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여 검정고시야학과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2기가 입학한 6개월 후부터는 국어와 한문, 사회, 노동법 등의 일부 과목부터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등의 자연과학 영역의 교재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다. 1년 6개월의 과정을 마친 후에는 본격적인 노동운동 과정의 '소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들불야학이 교실로 사용하였던 광천동 성당 옆에는 70호 규모의 3층 연립아파트 3동이 ㄷ자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광천동시민아파트가 있다. 그 곳은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과 부랑민을 위하여 시에서 지었지만,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이름만 아파트지 판자촌과 다를 것이 없었다. 1호당 2개의 방과 부엌을 겸한 통로로 10평도 되지 않았다. 또한 각 층 입구에 화장실과 세탁장을 공동으로 갖추어서 세면과 빨래, 혹은 쌀을 씻는 것도 모두 그곳에서 이루어졌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어서 들어가면 역한 냄새와 메탄가스로 눈이 따가웠다.

들불야학이 설립되기 전인 1977년 10월, 낙후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전남협동개발단(단장, 광주YWCA 조아라 회장)에서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김영철 간사를 지역운동 담당자로 파견하였다. 1948년 출생인 김영철은 당시 30세로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두루 겪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평생 함께 살겠다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충만해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두 살 난 아들을 데리고 1977년 11월에 아파트 A동 216호에 입주를 하였다.

그는 먼저 아파트의 주민들을 종교별, 학교별, 직업별로 나누고 175가구의 각 호마다 수입, 지출, 부채 등의 기초조사표를 만들어 종합개발사업 계획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년회를 부활시켰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어린이 주말학교를 열었다. 또한 적자로 폐업상태에 있던 광천 삼화신용협동조합을 인수받아 차츰 신탁을 정상화시켰다. 그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A동 반장을 맡았지만 나중에는 광천동 11통 합동반상회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78년 7월, 그는 광천동 여기저기에 야간학생을 모집한다는 벽보를 발견하였다. 그가 기획한 종합개발 계획서에도 야간중학교 건립이 있었다. 그 곳이 바로 들불야학이었다. 그는 들불야학의 입학식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리고 강학들과 친해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형제처럼 가까워졌다. 그는 2기부터 생활강학으로 참여하여 시사 과목과 레크레이션 등을 맡아 수업을 하였다.

오월광주항쟁 지도부 대변인자 항쟁의 마지막 날 도청에서 산화한 윤상원은 들불야학의 대표 강학이었다. 그는 대학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된 김상운 등 학생운동관련 선배들과 만나 역사와 철학에 관한 독서와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관이 바뀌었다. 운동가로서 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78년 10월, 그는 '1시간 120원'의 일당 노동자로 공장에 취업을 하였다. 말하자면 광주 지역 최초의 위장취업자였던 셈이다. 10월 중순, 그는 들불야학에 강학으로 참여하였다.

박관현은 19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월항쟁의 불길을 지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78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진행되었던 광주공단 노동자실태조사를 통해서 들불야학과 인연이 맺어졌다. 그는 당시 전남대 법대생으로 사법고시 지망생이었지만 들불야학 신영일 강학으로부터 광주공단 실태조사 참여 제안에 대해 실태조사가 노동자들의 생활에 관한 조사라는 것을 알자 며칠간 고민한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참여하였다. 광주공단실태조사는 자료를 입수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과 시청, 노동청, 노총, 상공회의소, 공단 관리사무소 등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모든 일은 발로 뛰어야 했으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박관현은 어려운 일일수록 솔선수범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상대방에게 믿음직스럽고 정감 있게 대하는 예의바른 박관현이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조사 전 기간을 거쳐서 박관현의 초지일관된 성실

성과 책임감, 솔선수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언행일치는 실로 모든 실태조사 반들에게 조용한 감동을 주었다.

박관현은 이 기간 동안 노동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념으로 운동에 투신한 윤상원을 만났으며 지역주민운동에 전념하고 있던 김영철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을 인근에서 지켜보며 강학들과 학생들의 헌신과 정열에 심취했다. 실태조사는 79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79년 5월 조사보고서는 전남대학 신문에 네 차례로 나누어 게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나간 후 내용이 주는 과문이 학교 밖 사회로 번져나가자 사찰당국의 압력에 의해 연재는 중단되고 말았다. 10.26이후 들불야학은 박관현을 주축으로 운영되었다. 윤상원은 야학에서 손을 떼고 광주권 사회운동 전체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모임인 ‘구속자협의회’가 모체가 된 ‘현대문화연구소(소장, 윤한봉)와 들불야학, 기타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의를 위한 활동가로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대학시절 시위와 관련한 사건 이력이 없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다.

오월광주항쟁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발행되었던 ‘투사회보’는 들불야학 팀에서 전담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강학과 학생들 중에서 구속 및 수배자의 숫자가 많았다. 강학 중 윤상원과 박용준이 산화하고 김영철, 박효선, 나명관, 윤순호, 서대석, 정제호, 전용호, 김성섭, 동근식, 김경국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박관현 강학과 오경민 외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배되었다. 들불야학은 운영을 계속하려고 해도 강학과 학생이 없어 수업을 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은 남은 학생들과 강학들이 가끔씩 모여서 죽거나 잡혀 들어간 강학들을 그리며 슬픔을 달래거나 이후 진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곤 하였다.

’80년 10월 하순, 김경국, 서대석, 나명관, 윤순호, 김성섭 등 구속자 중 일부 학생과 강학들이 재판을 받고 풀려나왔다. 그러자 강학과 학생들은 다시 모여 진행하던 학기는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중흥동 성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수업이 계속 되었다. 그리고 ’81년 2월, 제 4기 졸업식을 끝으로 들불야학은 2년 6개월의 막을 내렸다. 들불야학은 1978년에 설립되었지만 ’80년 항쟁을 겪으면서 수십명의 사상자와 투옥자를 내고 1981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송백회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야학으로 백제야학이 있었다. 백제야학은 들불야학과는 달리 근로청소년의 검정고시를 준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송백회는

백제야학 운영비와 비품 등을 지원하였고 박용성이 주도하여 손남승, 신경화, 최문수, 김동희, 김홍곤 등이 활동을 하였다. 손남승의 증언을 들어보자.

“1978년 10월 말 쯤 나는 친구의 권유로 야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랑의 교실이라는 이 야학은 당시 들불야학과는 달리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검정고시를 시켜주는 곳이었다... 1979년 이 학교의 졸업생이었던 여자 형제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손이 잘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대문화연구소, YWCA, YMCA, JOC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동야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 팀은 1980년 백제야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남동성당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²⁴³⁾

이처럼 송백회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야학운동 세력과도 힘을 연결되어 향후 오월조직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제3절 중위동원자로서 송백회의 역할

1. 오월조직들의 구조적 통합 : 항쟁공동체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백회는 미시동원맥락에서 기독교성직자그룹, 문화운동그룹, 여성운동가그룹, 청년운동, 야학운동과의 이웃연결망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신군부세력의 폭력진압과 살상이라는 억압구조를 극복하고 대대적인 집합행위를 창출하여 절대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송백회는 오월광주항쟁에서 '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그물망과 같은 관계 형성으로 반독재투쟁을 해 왔던 현대문화연구소, 광대, 들불야학, NCC, 엠네스티등과 연대한 오월조직들을 구조적 통합을 하여 YWCA항쟁공동체를 결성하였다. YWCA항쟁공동체는 광주시민투쟁위원회와 광주시민이 하

243) 손남승, 『오월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고령, 2001, p. 221.

나가 되는 절대공동체를 형성하여 5월 27일 새벽까지 사수투쟁을 전개하였다.

송백희는 중위동원자로서 연결구심 역할을 한 것이다. 자원동원론에서 말하는 중위동원이란 사회운동조직의 중심적 그룹에 의해 연합된 운동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중위동원자는 비공식적인 연결망과 공식적 조직이라는 이원적 형태로 되어 있다. 비공식적 연결망은 그 모임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공식적 기구에 기반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친밀함에 기반하여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를 취한다.²⁴⁴⁾

5월 22일 까지 YWCA, YMCA, 녹두서점, 가톨릭센터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활동했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5월 23일 거점을 YWCA로 옮기고 항쟁공동체가 결성되면서 전 시민적 참여는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물자공급과 모금 등이 증폭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시민조직들도 YWCA항쟁공동체와 연락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고 도청 시민투쟁위원회, 시민수습대책위 구성원들과도 보다 더 친밀한 유기적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5월 22일부터 외곽지역 경비를 맡았던 자발적 자치조직인 기동순찰대, 26일 사수투쟁을 전개했던 기동타격대²⁴⁵⁾, 시민군들에게 김밥을 맡아 주었던 시민여성들, 헌혈에 동참했던 시민들, 광주시민 모두는 살아남기 위해 광주를 살리기 위해 완전한 구조적 통합을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완전한 구조적 통합으로 이루어진 항쟁공동체에서 시민군 양동남은 자발적 조직이었던 기동순찰대가 시민들을 자치적으로 안전하게 보살피고 마지막 계엄군의 진압 시에는 기동타격대로 자원하여 목숨을 건 투쟁으로 광주시민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다.

“도청을 우리가 점령하고 나서 처음에 재춘이랑 동네 선후배 몇 명이서

244) 정철희, “중위동원과 6월항쟁: 사회운동조직의 구조적·문화적 통합”,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1996. p.75.

245) 박남선은 활동 중인 순찰대를 재편성하여 기동타격대를 조직하였다. 기동타격대는 윤석루를 기동타격대장 이재호를 부대장으로 하고 5, 6명을 1개조로 하여 각 조에는 조장 1명, 타격대원 4, 5명, 군용지프 차 1대, 무전기 1대, 개인 무기로는 카빈 소총 1정, 실탄 1클립씩을 배정하여 무장하였다. 기동타격대는 7개조를 편성되고 계엄군의 동태파악, 계엄군의 진압저지의 임무를 부여되었다. 각 조에대한 순찰구역을 1, 2조는 지원동 방면, 3, 4조는 전남대와 서방 방면, 5, 6조는 돌고개와 백운동 방면 등 지역을 순찰하였다. 기동타격대 1조는 조장 이재춘으로 양동남, 등은 금남로 - 학동 - 방림동 등지를 순찰하였다. 2조는 조장 박승렬, 대원 김삼규, 박명국, 박영수, 안성욱, 김두전으로 구성되어 서방, 양동 시장 일대를 순찰하였다. 4조는 조장 이성주, 대원 김공휴, 성명미상 3인으로 광주공원 - 양동 시장 - 전남 방직 - 금남로 등 지역을 순찰하였다. 5조는 조장 남승우로 금남로 - 광천동 - 양동 복개상가 부근을 순찰하였다. 6조는 대원이 김여수, 나일성 등으로 도청 - 금남로 - 충장로 - 전남매일신문사 등지를 순찰하였다. 7조는 조장에 김태찬, 조원 염용섭, 장승희, 김재귀, 기타 성명 미상 3명으로 편성되어 금남로 - 백운동 - 신안동 - 양동 등지를 순찰하였다.

도청상황실에 가 있었어요. 기동 순찰대가 뭐 첨에 조직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 하니까 계엄군들 상황도 살펴야 하고 정찰해야 하니까 우리가 수시로 시내 외곽으로 돌고 정찰도 나가고 그리고 시민들이 전화가 와요 지금 얘기가 나올려고 해요... 우리 영감이 배가 아파서 궁글고 있소. 빨리 좀 어떻게 해야겠소... 급한 연락이 오면 임산부 병원수송도 하고 갑자기 환자가 생기면 우리들이 맡아서 병원수송 했어요. 또 술먹고 행패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잡아다가 도청 김준봉 조사관한테 인수인계해주고, 총기도 회수해서 도청으로 가져다주고, 26일 날, ‘오늘은 계엄군이 진입해 온다.’고 아침부터 그런 말을 하고 다닌 놈들이 있어 가지고 아침부터 설왕설래 했제. 점심먹고 나서 오늘 진격해 온다고 기동타격대를 모집한다. 1층 회의실로 모여라 하니까... 기동 순찰대 활동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동타격대로 갔죠. 광주를 지켜야 하니까... 도청이 광주의 심장부니까... 도청을 끝까지 사수해야 우리가 사니까. 내가 광주를 지켜야 하니까 했던 것이죠”²⁴⁶⁾

“우리 순찰대는 지원동을 주로 돌았는데 군인들이 진격해 온다는 디 어떻게 집에 가졌어요? 우리동네 동생들 놔 두고 혼자 갈수도 없었고... 비겁한 생각이 들어서 못가고 기동타격대 가서 그냥 싸웠제. 그날 26일날 순찰도니까 벌써 지원동에 군인들이 와 있더라구요.”²⁴⁷⁾

YWCA항쟁공동체가 구성된 후 예비검속으로 잠시 피신해 있던 구성원²⁴⁸⁾들이 돌아와 무기반납, 조건부 항복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던 도청지도부를 ‘광주 시민투쟁위원회’로 재구성, 편재되어 항쟁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었다. 이로써 광주시민투쟁위원회와 YWCA항쟁공동체는 회의를 통해서 조직적 관계가 보다 긴밀하게 형성되어 구조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극단광대 ‘돼지풀이’ 마당극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고 그 결과물로서 신채호 이름을 딴 동리소극장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작품은 황석영 작품 ‘한씨연대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백회와 광대는 티켓판매나 공연 연습실 등으로 보다 더 친밀한 관계망을 갖게 되었다. ‘한씨연대기’ 주인공 역 한영숙 역할은

246) 양동남, 구술증언, 2011.12.10.

247) 이재춘, 구술증언, 2011.12.11.

248) 광주항쟁 이전까지 민주화운동을 했던 운동권 성원들을 일컬음.

송백회 회원이고 현대문화연구소 간사였던 임영희가 맡았다.

양서협동조합 또한 제 3장 2절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광주·전남 사회운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하면서 운영진 구성은 당시 지식인 그룹들로 교수, 목사, 신부, 교사, 시인, 송백회 회원이면서 YWCA간사였던 이윤정, 정유아가 창립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들불야학은 신군부 안보프레임에 대항하여 광주시민에게 미디어역할로서 대항프레임인 투사회보를 만들었던 주력군이었다. 구성원은 YWCA 신협직원이었던 김영철, 박용준, 극단 광대였던 박효선, 전용호, 윤상원등이었다.

청년운동가 윤한봉은 학생운동이 사회운동과 연대할 때만이 변혁운동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용화, 임희택 등과 현대문화연구소를 창립해서 송백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 기독교 청년운동, YWCA, YMCA, NCC, 엠네스티, 기독교장로교회등과 다양한 연대구조를 만들어 갔다.

아래에 기술한 송백회 야유회 광경에 대한 증언은 오월광주항쟁에서 오월조직들이 항쟁 훨씬 전부터 함평고구마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집회와 시위에 있어 강한연대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동을 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26이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가 인제 그때 ‘꽃피는 봄이 올 것이다.’ 낙관을 했는데 우리가 80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광주지역에 있는 구속자 그룹들 하고 운동권 그룹들하고 소위 말한 송백회하고 같이 야유회를 갑니다. 그 때 40명 정도 갔었는데 거기서 윤한봉 선배가 약간의 좀 특이한 발언을 했어요. ‘꽃피는 봄날인데 뭔가 피바람이 몰려올 것 같다.’ 발언을 했고 그때 부르던 노래가 ‘두어라 가자’ 이런 노래를 고개를 떨구어 감서 부르면서 그런 발언을 했어요.”²⁴⁹⁾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상근간사 김성애는 호남전기 해고노동자 출신으로 민주노조 결성과 노조활동가 육성을 위해 소모임 학습이나 공개교육을 YWCA 사회문제부와 산업선교회 등과 연결하고 있었다. 개인적 연결망으로는 이양현, 최연석, 윤한봉, 이윤정 등과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도청 취사팀의 주축이 된 JOC 구성원인 이정, 윤청자, 김순이, 최정임 정경숙(분다:남동성당 근무), 이들은

249) 임영희, 2008년 민주화운동 구술자료, 5·18기념재단, p. 29.

주로 YWCA 사회문제부 5월 18일 교육생들로 이 교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오월광주항쟁에 동원되었고 도청 안 취사를 맡아 조직적 활동을 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미시동원맥락에서 송백회를 중심으로 구조적통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송백회원들이 기독교뿐 아니라 각급 사회운동단체에서 항쟁 이전부터 활동을 해온 연결망이 있어 가능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추구와 신념이 강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이 강한 연대고리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군부 공수부대 억압에 대항 할 수 있는 항쟁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창출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내용을 다음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은뎌를 다 해서 일을 해도 남동생 학비도 마련할 수 없고 자취를 하는데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JOC(가톨릭노동청년회)에 가입해서 노동조합활동을 하게 되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12시간 주야로 일을 하니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애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공부를 할래? 노동조합을 할래?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언니(이윤정: YWCA 사회문제부 간사)도 대선배로서 우리들한테는 정신적 지주역할,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었잖아요. 후배들의 지주역할... 언니들은 우리들의 희망이었어. YWCA교육이나 연대 사업, 그 당시했던 합동교육을 통해서, 좋은 강의를 받을 때 마다 이것이 참이구나, 진실이구나, 희망이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뭐랄까 희열... 기쁨... 맨날 억눌림과 억압만 받다가 현장에서 그때는 성희롱이나 폭력도 그냥 보통이었어요... 암울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데 참여는 나를 바꾸어 줬고 내 안에 들어 있는 요구가 있어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중략... 그날 5월 18일 YWCA에서 합동교육을 받다가 계엄군들 땀시 다 못 마치고 우리 남해어망 서금실언니, 광주어망, 성화제망 회원들하고 데모대에 합류했어요.”²⁵⁰⁾

YWCA항쟁공동체는 모금조, 홍보조, 가두방송조, 대자보조²⁵¹⁾등으로 나누어

250) 임미령, 구술증언, 2011.12.22.

251) 대자보는 중국문화혁명 당시에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 붙였던 대형 게시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언론이 아예 통제되었던 광주상황에서 시민홍보 매체로 활용되었음.

장기대항을 위한 체계를 즉각적으로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광주 전남 재야 명망가 지도급 인사들은 주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도청지도부와 YWCA 투쟁공동체와는 투쟁방향에 있어 사뭇 다른 입장을 갖고 갈등이 있었다.

앞의 제5장 송백회운동의 관계적 동학, 제1절 광주항쟁에서 송백회의 역할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주항쟁 발발 전 5·17계엄령으로 예비 검속되었거나 피신중인 민주화운동가 부인들과 송백회 회원들은 현대문화연구소가 폐쇄함에 따라 녹두서점과 YWCA에 모여 연락을 취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신군부세력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18일, YWCA 사회문제부는 광주지역 노동자교육을 문병란 교수를 강사로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시간 극단 광대는 한씨연대기 연습을 YWCA 2층 양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의 진입으로 더 진행을 못하고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할지의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구조적 통합에 있어 중위동원자로서 송백회의 자금운영은 중요한 역할이었다. 기본재정은 광주항쟁 전 도자기 및 그림 전시회, 회원회비, 비공식집단들의 성금으로 모은 것으로 초기자금에 활용되었고 항쟁기간에는 시민 모금과 시민 회사 물품으로 운영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주먹밥과 쌀, 된장, 고추장등 필요한 물품을 YWCA로 가져다주었다.

다음 증언을 살펴보면 송백회 회원들이 광주항쟁에 참여해 가는 과정과 YWCA로 집결하여 항쟁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구조적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벽 4시? 5시? 정도되니까, 예비검속 된 사람들의 부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서점으로 궁급해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죠. 박형선씨 부인이랄지, 김덕희씨 부인이랄지 와 가지고 전부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정동년씨 부인도 처음으로 오고, 정동년씨 부인은 인제 처음 나타났죠."²⁵²⁾

"날짜별루 잘 기억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 송백회가 한 달에 한번 씩 모였는데 그것 끝나고 전남대 거리행진하고 그랬는데. 운동권 가족들이 5월초

252) 정현애, 『5·18항쟁 증언자료집3』, 전남대학교 출판부, p. 186.

에 한번 일어나고 싶었고, 그때 운동권이 두 파로 갈라지고 그랬었는데 한
 쪽에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촉발이 있을 거다, 피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네들이 설마 그러겠느냐’ 이런 식의, 느낌으로는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이런 것, 공포스러운 거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었어. 이
 제 5·18이 나고 공포스럽고, 싸울 엄두도, 일단 시내를 나가는 거지, 막 몰려
 서 외치고. 그런 게 한 2-3일 계속 됐죠, 장악하기 전까지 그때 당시엔 나는
 양림동에 살았거든요. 매일 시내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애들하구 양림동 근처에 기독교병원에 갔다가 오는데 막 총소리가 어마어마하
 게 나드라고. 그래서 시내를 갈 엄두도 못내는 거지. 이제 막 부상병들이 기
 독병원으로 피 흘리면서 쳐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막 미쳐 버리겠드라고, 그
 걸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병원 담에서 그걸 보다가 나도 모르게 ‘헌혈’
 하자고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하구 다녔던 것 같애. 나는 너무 화가 나갖고
 생각도 없이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
 드래. 애들이 그 애길 해. 지네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전하고 그런 엄만 데
 갑자기 막 악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 헌혈하라고 하니깐 순간적으로 사
 람들이 막 나서는데 갑자기 몇 십 명이 확 모이더라구요. 그래서 기독교병원으
 로 같이 가 갖고 다 같이 헌혈하구 울고불고 했지. 부상자들도 기독교병원 거
 기 응급실 앞으로 오구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 그래도 이제 그거하구 더불어서 오는 게 공
 포예요. 공포와 더불어서 분노하고 이 두 가지가 사람이 막 하나니까 이제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다시 시내로 나갔다가 무섭게 쫓겨서 집으로 들어
 오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헌혈! 5·18 시민군이 장악하기 전까지는 대개 이
 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송백회에서 조직적으로 만나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영희랑 만나서 현대문화연구소 가서 자료들 다 빼내고 그랬는데.
 남자들은 예비검속이 있었잖아요. 다 잡혀가고 윤한봉씨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야, 여자들 몇 명밖에 그래 가서 집에 있는 자료
 들 다 숨기고 빼내고, 이런 과정들로 어수선하게 며칠 보내다가 시민군들이
 도청을 장악했죠. 무작위로 갑자기 공분에 의해서 혁명적 전사로 되는 프롤
 레타리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에서는 사람도 없었고, 윤상원 열사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제 하나하나 장악을 하면서 운동권에 걸 갖은 명분을 얻은 거지. 5·18혁명에
 서 윤상원 열사가 없으면 항쟁이라고 이름하는 데 세 운동권은 어디 얼굴도
 내밀 수 없는 부끄럼을 갖게 된다고. 5·18로 인해 탄생된 윤상원에 대해선

제고할 여지도 없이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고. 아무튼 현애는 현애대로 그 쪽에서 도청으로 연결을 하니깐 그 쪽 본부가 하나 형성돼 있구 YWCA에서 여성, 주로 송백회 팀들이 그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이윤정, 정유아, 임영희, 그 외 들불야학 문화팀들이 YWCA에 집결을 하죠. 집결을 하면서 투사회보 이런 거 나오고, 투사회보 등사를 몇 군데 이렇게 분산을 시켰어요. 거기 하나하구 우리 집에도 하나하고. 박효선씨가 와서 등사를 하구 이렇게 등사를 시키고.²⁵³⁾

다음 증언은 구조적 통합으로 하나가 된 항쟁공동체가 추구해 갔던 이념과 가치가 오로지 민주주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저는 안에서 대자보를 쓰고, ‘검은 리본 만들자’ 그러면은 대인시장 가가지고 검은 리본을 산 게 아니라 주인이 줘서 그냥 가져오고.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가져오고. 또 밤에는 내일 시위에 내놓을 선전문,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정세호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견해에 대한 제안,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첩이 조종한거다! 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김일성에 고함’을 써서 시민들한테 공포를 해서 정권에게 알리고. 김일성 화형식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발악하게 하지 말라는 ‘국군장병에게 고한다.’ 이런 거, 뭐 전두환, 노태우에게 한 것도, 저는 안 썼어요. 하여튼 그런 호름, 정세 ‘이 상황에 뭐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의견 제안들을 많이 했었어요. 김일성에 고함은 김일성에게 경고한다는 그런 것인데 그 문건이 아마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 사료집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에 동조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희망인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박정희 유신 독재, 신현확 총리, 그 다음에 계엄령 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민주화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북한의 조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공수부대들의 잔악한 이런 것, 국군장병에게는 ‘우리를 도와라! 너희들은 우리가 세금을 낸 우리 국군 아니냐? 우리 국군인데 왜 우리를 죽이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군장병에게 경고하고 탄원, 호소를 하는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²⁵⁴⁾

253) 홍희윤, 앞의 책, 2003.

254) 이윤정, 앞의 책, 2005. 5.

다음 증언을 살펴보면 YWCA항쟁공동체와 광주시민투쟁위원회가 구조적 통합을 이루어 회의구조 속에서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앞에서도 주지한 바와 같이 YWCA항쟁공동체와 광주시민투쟁위원회는 도청지도부로서 동일조직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되요! 도청만 지도부였던 게 아니에요. 도청만 지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송백회를 중심으로 우리 여성들이 다 지도부였어요. 왜냐?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할려고 했던 대로 다 그 의견을 수렴해 갔거든요. 관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단지 우리가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 안으로 들어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나 뭐 현애나 성애나 일시적으로 도청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서로 보고하고 교환하고 도울 건 돕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남성 중심 영향이 컸겠죠. 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도부를 짚고, 우리는 지도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우리가 지도부 역할을 했구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 대로의 생사를 넘어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결합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청 항쟁에 우리가 지도부였다고 생각하지 외곽에서 활동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 저는 외곽에서 활동했다라고 한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광주항쟁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광주지역에 그 동안에 활동했던 송백회라든가 문화팀들이라든가 또 녹두서점이라든가 그런 모든 분들의 역할들이, 그런 맥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광주항쟁 끝에 결합, 좀 늦게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결합하기는 했지만은, 결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²⁵⁵⁾

2. 오월조직들의 문화적 통합: 해방광주

운동조직들간의 연대는 구조적통합 뿐 아니라 문화적 통합이 병행되어야 비로

255) 이윤정, 위의 책.

소 완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월광주항쟁에서 송백회는 들불야학, 녹두서점, 광대, 학생운동, JOC그룹등과 같은 비공식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미시동원맥락이 형성되고 구조적 뿐 아니라 문화적 통합을 통해서 해방광주를 건설하는 한 축으로 활동을 하였다. 오월조직들의 문화적 통합으로 광주가 하나로서 끝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무기반납과 항복을 거부하였다. 본 연구자는 오월광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던 사수투쟁정신’이라고 본다.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의 말처럼 5월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도청에서 사수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민들이 역사적으로 면면히 내려온 그 저항력과 오월조직들의 구조적 문화적 통합이 가져다 준 저항력으로 견지할 수 있었다.

사수투쟁의 한 중심에 섰던 기동타격대도 앞에 구조적 통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화학적으로 용해된 문화적 통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죽음으로 광주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 기동타격대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이 기정사실화 된 직후 꾸려진 군사조직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노동자 출신으로 20살 전후로 윤석루를 대장으로 한 자발적 조직으로 이재호, 양동남, 김태찬 등이 진압작전 새벽까지 계엄군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등 군사조직으로 기능했다. 오월광주항쟁을 마감한 충정작전²⁵⁶⁾은 5월 27일 01시에 계엄군이 시내에 잠입, 02시에 작전개시, 탱크 장갑차를 앞세우고 외곽에서 시내로 진입하였다. 02시 15분 첫 총성과 함께 시가전이 시작되고 이후 계속 총소리가 들려왔다. “시민여러분!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으로 모여 주십시오” 다급한 가두방송이 밤의 정적을 가르며 시가지를 울렸다. 도청에 비상이 걸리자 김종배는 박남선으로부터 시민군 49명을 무장시켜 5개조로 편성 한 후 도청 밖 외곽에 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영철, 이양현은 도청 2층 식당에서 각 칼빈 1정을 휴대하고 계엄군과 대치하였다. 타격대장 윤석루는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김공휴등 기동타격대원들에게 계엄군에 대항 사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타격대원 이재호, 양기남, 임성택, 오정호는 도청에서 카빈과 실탄을 휴대한 채 계엄군과 대치하였다. 기동타격대 3조원인 정광호, 염동유는 도청

256) 은밀 침투 기습 및 동시 목표 제압작전, 외곽도로 및 배치선 차단작전(봉쇄선 형성), 특정 목표 은밀 침투 타격작전(도청, 공원, 관광호텔, 전일빌딩), 내곽에 대한 동시공격 및 특공부대와 연결 공격 후 주요지점 배치 및 작전 소탕 계속적인 무기 회수 및 선무활동을 의미했다. 『말 26호』, 광주 진압 계엄군의 작전일지.

정문 앞 화분대 뒤에서, 김태찬은 도청에서 지원병력이 시민군 15명을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계림초등학교 후문까지 수송하였다. 김동환은 계엄군 진입으로 비상이 걸리자 약 20여명의 시민군들과 함께 도청 시민군을 지원하기 위해 도청으로 들어가 도청무기고에서 카빈 1정과 실탄 15발을 지급 받고 조정근과 함께 도청 정문 왼쪽에서, 이충영은 계림초등학교 후문에서 계엄군과 대치하였다. 새벽 03시 30분 계엄군이 광주를 전격 기습하였다. 각종 중화기, 소형화기의 발사음이 도청을 원심으로 반경 2km의 일원까지 2-3초 간격으로 계속 울려 퍼졌다. 총격전이 시작됐다. 도청주변과 금남로 쪽에서는 M1 카빈 소총, M16소리가 범벅이 돼 들려왔다. 또 폭음이 요란해 수류탄 폭발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전단은 도청 담을 넘어 진입, 30분 동안 청사 내에 있던 학생들에게 사격을 계속, 쿵북는 듯한 총성과 간간이 폭음이 들려왔다. 04시 10분 도청은 계엄군에 의해 점거되었고 양측은 마지막 불꽃 튀는 접전을 벌였다. 04시 15분 헬기와 정찰기가 뜨기 시작하였다.²⁵⁷⁾ 이렇듯 새벽 마지막 가두방송이나 기동타격대 활동은 문화적 통합을 통해 형성된 해방공간 절대공동체 안에서 기존에 형성된 연결망이 아니었다라도 국가폭력이나 민주적 가치에 국가가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집합행위를 통해 저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공동체 안에서 광주시민은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적 통합으로 하나가 된 절대공동체 안에서 도청을 사수한 기동타격대 시민군 김태찬의 증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가치가 그대로 녹아나고 있다

“모집방송을 듣고 모인 초면의 사람들이었어요. 동네 친구 4명이 모여서 만든 1조를 제외하면 나머지 조들은 서로 이름도 나이도 몰랐으니까요. 대학생이나 교수 등 나머지 지식인이 없었다는 것은 나중에 잡혀가고 나서 알았던 것이죠.”²⁵⁸⁾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도청을 사수하는 일 밖에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마음이 담담해지고... 내가 지켜내자. 도청을 끝까지 사수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새벽에 총격전이 벌어 졌는데 무서움이 다 없어지고 영화에서

257) 조선일보 취재일지.

258) 김태찬, “잊혀진 시민군, 도청 기동타격대”, 『한겨레21』, 2010.5.21. 제811호.

본 것처럼 ‘군인들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렇게 죽는구나.’ 했어요.”²⁵⁹⁾

다음은 절대공동체가 신군부의 광주 학살과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안보프레임에 대항하고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모성적 감성을 결집시켜 항쟁으로 승화시켰고 광주라는 도시를 ‘애국’과 ‘민주화’의 공동체란 프레임 속에 재구성하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5.16쿠데타와 계엄령선포, 공수부대 투입, 집단발포로 인한 살인적 진압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운명체인 절대공동체가 만들어 갔던 문화적 통합 프레임으로 광주항쟁 기간 동안 유포되었던 각종 선언문, 투사회보를 살펴보자.

다음 1항~3항은 전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한 국가폭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월조직들의 구조적 문화적 통합은 신군부의 잔학상을 고발하고 민주수호를 위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민들이여!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광주시민 총 쫓기문은 전두환 타도와 4백만 전남도민이여 총 쫓기하라!요구를 담고 있다. 분노와 원한과 구국 민주 일념으로 승리의 그 날까지 전 도민은 무기를 들고 매일 정오를 기하여 전남 도청 앞 광장, 광주공원, 금남로, 신역 등, ‘광주로 광주로 모이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리에게 분노와 원한과 구국 민주 일념뿐이다. (국민연합회와 민주청년 민주구국 총학생연맹광주시민 총쫓기문 1980.5.21)

2. 민주수호 전남도민 총쫓기문은 민주군대여 말하라. 우리아들 딸들이 죽어도 전두환의 꼭두각시가 되겠는가? 민주경찰이여 공수특전단은 우리 전라도 사람의 씨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들을 용서할텐가? (1980.5.21전남 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 전남 민주청년 협의회전남 민주구국 총 학생연맹)

3. 선언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다.
쫓떼기 최규하 정부는 즉각 물러가라.
살인마 전두환을 즉시 처단하라.
구국과도정부를 민주인사들로 구성하라.
구속중인 학생들과 모든 민주인사들을 즉시 석방하라.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휴교령을 즉각 철폐하라.

259) 양동남, 앞의 구술증언.

언론은 광주시민의 참상을 철저히 보도하라.

정부와 언론은 전남이과 경상인의 지역감정의 왜곡보도,

허위조작하지마라.

천인공로할 발포명령을 즉시 중단하라.

이 길만이 현 시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히 선언한다.

(1980. 5. 22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전남민주청년 연합회전남 민주구국 학생 총 연맹)

다음 투사회보 5호를 보면 살인적 폭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지만 해방광주 절대공동체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질서있는 투쟁으로 협력하자는 도덕적 승고함을 살펴 볼 수 있다

4. 광주 시민은 하나로 뭉쳐 더욱 힘을 내어 싸웁시다!계엄군이 발포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 광주 시민은 대학인들의 질서있는 투쟁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투사들이여! 끝까지 투쟁하자 (1980년 5월 23일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다음 <민주시민회보> 제9호에 실린 5항 6항을 살펴보면 조기와 검은리본 착용, 분향독려 등의 의식으로 목숨을 걸고 먼저 희생된 동료에 대한 절대공동체안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 도덕성이 녹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우리 다 같이 애도합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가신 영령들,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문에 조기를, 가슴엔 검은 리본을 모두 애도합시다.

6. <다 같이 분향합시다.>

도청 앞 상무관에 분향소를 설치했사오니 다 같이 분향합시다.

다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7항-10항(5월26일배포, 16절 갱지에 프린트,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행불자, 파손 건물 복구, 생필품 확보등 기본적인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질서 유지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해방공간에서 직접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 매일 오후 3시 도청 앞 광장에서 민주수호 범시민 쉼기대회가 개최됩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행방불명자를 찾고 있습니다. 행불자가 계신 가정은 홍보차나 동사무소에 신고 바랍니다.

8. 각 동별로 매일 오전 10시 동사무소로 집결, 거리 청소와 파손 건물 복구, 상가수리, 시장은 문을 엽시다.

10. 각 운수기간 차량운행,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정상생활로 복귀합니다. 각 동별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생필품 확보에 적극 협조합니다.

11.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광주의 5·18투쟁은 연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다. 또한 그 안에 있어서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끝까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계엄 당국은 진지하고도 순수한 시위 대열에 무차별한 사격을 가하며 600여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 및 연행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모든 시민들은 자기 방어 수단으로 때로는 무장하고 때로는 보급품 공급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의 민주 의사를 묵살함은 물론 라디오, TV 등 매스컴을 이용 사태의 왜곡 보도와 다양한 흑백선전으로 민주투사들을 소수 난동자 폭도로 몰고 있다. 이에 우리 광주 시민은 전 국민과 더불어서 모든 정부의 언행을 믿지 않을 것이다.(민주시민 회보 제 9호 뒷면. 광주시민 일동)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민 쉼기대회 등에서 유포된 결의문, 성명서를 분석하면 전두환 타도, 민주주의 쟁취, 계엄령해제 등은 시민들과 오월조직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의미틀로서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앞에서 고립무원의 광주 시민들은 서로를 부여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운명체로서 해방공간 안에서 절대공동체가 되었다. 폭력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넘치는 환희와 희망이 융합된 그런 하나 됨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이 주는 희열을 다음 증언을 통해 들어보자.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 받는게 ...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이 가슴이 벅찼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지요... 중략... 한마음이 되는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꿈이 아니고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영화가 아니고 이렇게 현실이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²⁶⁰⁾

“저는 그날 시민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총을 들고 다니는 우리 들한테 어느 누구 하나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모두가 박수를 쳐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죽어도 아니 혹시나 죽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줄 거다. 그런 생각뿐이었죠.”²⁶¹⁾

“김성애 언니한테서 ‘YWCA랑 도청에 시민군들 밥을 해 줘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너희들(JOC활동가)이 와서 해야 될 것 같다. (김)순이한테도 연락을 했다’고 해서 25일 아침에 YWCA모여서 도청으로 갔어요. 낮에는 모금도 하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도청 구름다리 밑에 관두 경이 열린 시체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이정언니 등애다 얼굴을 꼬옥 묻고 눈을 따악 감고 지나갔어요. 저녁을 먹고 난 이후 상황실로 계엄군들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쪽 시민대표자를 바꿔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양현씨여서 바꿔줬어요. ‘오늘 지금 쳐들어간다. 너희들 바로 철수해라!’ 이런 전화가 또 계속 전화가 계엄군들한테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꾸지 마라 해서 시민들한테 걸려온 전화 말고는 안 바꿨어요. 그 후부터 긴급한 상황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고. 새벽 1시 즈음 어떤 시민군이 ‘지하에 있는 여성(취사담당)들까지 모든 사람 모여라!’ 했어요. ‘계엄군이 거의 다 들어오고 있다 여자들은 지금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하니까 못나간다, 또 나가라하고 끝까지 우리 여자들도 싸운다. 우리들한테도 총 쏘는 것을 가르쳐 달라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도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총을 그냥 지급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쏘는 총에 우리가 맞을 수 있다. 줄 수 없다며 총을 안 줬어요... 새벽이 되어 여자들만 우선 피신시키기로 해서 이정언니, 순이랑 우리 팀(13명)을 두 명의 학생(명지대 박병규외 1인)이 인솔해서 2인 1조로 나누어 도청을 나왔어요. 다른 팀도 또 있었어요.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도청을 나오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미안함... 함께 있어야 하는데... 만감이 마음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도 문화예술회관 담벼락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가면서 가정집 문을 마악 두들었어요. 떨리고 두렵고 했어요. 몇 집이고 두들었어도 문을 안 열어 줬어요. 진압은 점점 우리를 포위해 오는데...

260) 박두리, 구술증언.

261) 양동남, 위의 구술증언.

어떤 집에서는 우리가 위험하니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 왔어요. 동명교회에서 문을 열어 주어 동명유치원 거기서 밤을 썰었어요. 날이 좀 밝자 교회 종탑에 올라가 도청을 보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옥상에 서 있더라고요. 두 명의 학생은 우리를 동명교회에 데려다 주고 다시 도청으로 간다고 했어요. ‘총소리가 이미 나고 있다. 계엄군이 다 와 있는데 함께 여기에 있자’ 했지만 안 된다. 그래도 가야한다 ‘여성분들을 안전하게 피신시켰다’고 보고해야 하니까 가야 한다 했어요. 그런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소리가 났는데 그 학생들 죽었어요. 그때 마음은 곧 뛰쳐나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겁이 났어요. 지금도 보고 한다며 되돌아가던 두 학생이 눈에 선하네요. 초초하고 맑은 눈빛이 가슴에...”²⁶²⁾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0일간의 해방공간에서 오월광주항쟁의 잠재력은 방화나 약탈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며 매일 수만의 시민이 분수대 앞으로 모여 죽음을 넘어 선 결의에 찬 투쟁을 전개하였고 완전한 해방 자치공간에서 너와 나의 목숨이 하나가 된 절대공동체를 형성하였다.

262) 최정임, 구술증언, 2011.12.27.

제6장 결 론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동을 고려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을 조망할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가 민주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마다 저항해 왔고 결국 이 한국의 시민사회가 자율적인 집합행동을 통해 민주적 규범의 침해에 도전하고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월광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사회가 국가의 월권을 제어해 가는 능력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집합행동론이나 거시적 결정론에 입각하여, 권위주의적 정치 구조 내지는 불평등한 생산관계로 귀착되는 구조적 산물로 간주되어 왔다. 혹은 정치사적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는 폭발적인 민중운동으로서 자리매김 시키려는 시도들도 흔히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행동론이나 구조결정론 등의 시각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운동참여 방식, 그리고 운동세력의 대항체계모니와 담론 등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오월광주항쟁을 다루는 정치사적 연구 또한 광주민중항쟁 과정에 참여한 행위자와 조직들이 갖는 미시적, 중범위적 의미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위자들의 신념과 가치, 감정, 이데올로기, 공유된 인식, 정체성 등을 간과하고 결정론적인 틀 속에서 운동을 단순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거대한 사회운동의 구조 속에서 행위자의 미시적 감정과 정체성 등이 운동의 형성과 쇠락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월광주항쟁 과정에서 송백회운동을 분석하였다. 송백회운동에서 보이듯이, 사회운동은 딱딱한 고정화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적 역동성을 지난 살아있는 역사로 재구성된다. 즉 기존의 구조적 설명에서 사라졌던 송백회 활동가들을 새롭게 복원시키고 그들의 참여와 저항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여 한국사회운동에서 송백회운동이 차지하는 구조적, 인지적, 관계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특히 운동의 한 가운데 있었던 송백회 활동가들의 생생한 구술증언 자료를 토대로 조직원들이 갖는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에 주목하여 그것이 처음부터 미리 정해진 것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보여주었다.

본문을 통해 밝혔듯이 1970년대 운동은 대부분의 운동가들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게 되어 학생운동과 연결되고 탈반, 연극반, 사회조사연구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곳에서 성장한 성원들이 문화운동 농민회 활동, 야학, 노동운동, 사회운동을 인간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한 구성원이 전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결고리의 중심에 송백회가 있었다.

송백회는 광주 전남지역의 부문운동을 오월광주항쟁 과정을 통해 통합운동(all-round play)으로 승화시킨 모범적 사례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의 기초 자원이었던 수많은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미시적 동원기체로서 성장하였고, 이들 미시적 동원기체를 활용하여 송백회는 중위동원자로서 운동의 통합적 역량을 성숙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송백회의 이러한 동원역량은 송백회를 단순한 단체 내지 조직이 아니라 운동체로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었다.

송백회운동이 부분운동으로써 여성운동 조직으로 출발하였지만 민주화운동 선상에서 광주 항쟁에서 사수투쟁을 할 수 있는 연결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 활동가들의 공유된 신념과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신체제와 신군부체제의 폭압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모성(母性)을 바탕으로 한 인류애적 헌신과 실천의지가 결합된 송백회의 강한 운동가적 규범과 문화적 토대들이 신사회운동으로서 송백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송백회운동’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신사회운동으로서의 모델(model)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송백회운동이 공간적으로는 광주 전남지역에 국한된 운동이었지만, 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통합적인 운동의체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아울러 송백회의 일상적 실천과 항쟁의 경험은 시공간을 초월해 민주, 인권, 평화라는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수렴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80년대편 상』, 인물과 사상사, 2003.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 광주광역시, 1998.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1권~2권, 1988.
- 광주매일 5·18특별취재반, 『正史 5·18上』, 사회평론사, 1995.
- 金良五, 『光州보고서』, 청음, 1988.
- 김 문, 『찢어진 것 폭-5·18투쟁 체험기』, 남풍, 1989.
- 김영진,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동광출판사, 1989.
- 김영택, 『10일간의취재수첩』, 사계절, 1988.
- 김재균, 『5·18과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2000.
- 나간채,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나간채,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3.
- 나간채·염미경·김혜선, 『5·18광주민중항쟁 영상채록-기억에서 영상으로』, 광주 YMCA 영상기록특별위원회, 1999.
- 박남선, 『광주의 절규, 그날의 소리 오월 그날』, 샘물 1988.
- 부마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 아놀드 A, 피터슨, 정동섭 옮김, 『5·18 광주사태』, 풀빛, 1995.
- 안진, 『광주민주항쟁과 여성』, 민중사, 1991.
- 월간조선사, 『한국을 뒤흔든 光州의 11일간』, 월간조선별책부록, 2005년 1월호.
- 윤재걸, 『작전명령 -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7.
- 윤한봉, 『운동화와 똥가방』, 한마당, 1996.
- 이광영·전춘심 외, 『광주민중항쟁 증언록-광주여 말하라』, 실천문학사, 1990.
- 임낙평, 『광주의 녀-박관현』, 사계절, 1987.
-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대 출판부, 1999.
- 임희섭,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 임희섭·양중희,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1998.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윤상원 평전-들불의 초상』, 풀빛, 1991.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5·18광주민주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 전남사회운동협의회·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 정동년 외, 『5·18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1996.
- 정상용·유시민 외, 『광주민중항쟁-다큐멘터리 1980』, 돌베개, 1990.
- 정상용·유시민 외, 『광주민중항쟁-다큐멘터리 1980』, 돌베개, 1990.
- 정수복 편,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3.
- 정해구 외,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 정철희 외, 『상징에서 동원으로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 이학사,
2007.
-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참여와 저항의 동학』, 나남, 1999.
- 조비오,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세상-사제의 증언』, 빛고을 출판사, 1994.
- 조지 레이코프 저,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 창비, 2007.
- 찰스 킬리, 진덕규 옮김, 『동원에서 혁명으로』, 학문과 사상사, 1995.
- 최정운, 『5월의 사회과학』, 풀빛신서, 1999.
-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1999.
-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사·광주시민연대, 『5·18 특파원 리포트』, 풀빛, 1991.
- 한국사학회,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5·18 광주민주항쟁의 재조명』,
나남출판.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5·18민주항쟁10주년기념학술대회』, 풀빛, 1990.
-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부마에서 광주까지』, 샘물 1989.
- 5·18기념재단, 『5·18 기억과 역사』 제1권~3권, 도서출판 심미안, 2006.
-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부마에서 광주까지』, 샘물, 1990.
-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도서출판 남풍, 1989.
- 5월여성연구회,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1.
- 80년 오월항쟁 소설집, 『일어서는 땅』, 인동, 1987.

<논문>

- (좌담회) "광주 15년; 총, 누가 먼저 쏘았나", 『한국논단』, 1996년 5월호.
- (좌담회) "폭동진압 잘못된 것 없다", 『한국논단』, 1996년 5월호.
- George Katsiaficas, "역사속의 광주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전남대학교

- 5·18연구소, 2002.
- 강만길,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과 광주", 『5·18 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 위원회, 2001.
- 강현아, "5·18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여성참여와 배제", 『여성·주체·삶』, 티앤씨, 2000.
- 강현아, "문화적 재현과 젠더 이미지",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2003.
- 光州日報社 씨리즈, "5·18, 9년", 『광주일보』, 1989년 1월 25일~7월 3일.
- 광주YWCA, "80년대, 희망과 좌절", 『광주YWCA 70년사』, 광주YWCA, 1992.
- 권태환·이재열,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분석", 『한국사회과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1998.
- 金容徹, "광주민주화운동-10일간의 투쟁, 군부정치 終熄의 씨앗으로", 『한국일보』.
- 김병인, "5·18과 광주지역사회운동: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 위원회, 2001.
- 김성국,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이론",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 김성국, "한국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양종희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 1998.
- 김세균,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역사와 현장』, 1990. 5.
- 김영수, "광주항쟁지도부의 정치권력적 성격-레닌과 현대혁명의 혁명적 민주주의 권력론을 토대로 본 광주항쟁", 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과, 1991.
- 김영역, "5·18 광주민중항쟁의 초기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 김영택,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_____, "광주사태 의문의 여인 - 전옥주", 『여성동아』, 1987년 10월호.
- _____, "광주사태의 다섯가지 의문", 『신동아』, 1987년 9월호.
- _____, "光州의 眞想 아직도 隱蔽되고 있다", 『신동아』, 1989년 2월호.
- 김 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정해구 외,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 김진균·정근식, "광주5월 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1990.
-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무장투쟁과 '민중권력'", 정해구 외,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 김창진, "시민의 저항과 무장항쟁",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2001.
- 김호기·정태석·유팔무, "사회민주화의 미시적 과정", 『한국사회학평론』, 2호, 1995.
-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나간채, "5·18항쟁의 진전: 승리한 항쟁의 역사", 『5·18항쟁의 이해』, 광주광역시, 2002.
- _____, 『광주민중항쟁과 오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마크 피터슨, "光州는 全斗煥 집권의 단계적 쿠데타였다", 『신동아』, 1989년 5월호.
- 서선희, "한국여성운동과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1991.
- 안 진, "광주항쟁시의 사회구조적 배경에 관한 일고찰", 『광신농촌』, 광신대학교, 2004.
- 안병욱, "한국현대사에서 5·18항쟁의 의의", 『5·18항쟁의 이해』, 광주광역시, 2002.
- 안병진, "프레임(frame)의 정치의 시대 : 조지 레이코프 저 <書評>", 『의정연구』 제 12권 2호 통권 제22호(2006.12).
- 안종철,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 5·18연구소, 1997.
- _____, "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01.
- _____, "광주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 _____,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시민군의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0.
- 안 진, "5·18 광주항쟁에서 여성 주체들의 성격", 『젠더와 사회』, 2007.
- _____,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오월여성연구회』, 민중사, 1991.
- _____, "한국사회 여성문제의 인식의 틀", 『지역여성의 현실과 전망』, 대왕사, 2004.
- 오현오, "광주간첩 이창룡은 실존인가, 조작인가", 『월간다리』, 1990.

- 윤재걸, "쟁점, 무엇이 '광주'의 진상인가", 『신동아』, 동아일보사, 1988.
- 이기봉, "폭동인가, 좌절된 무산혁명인가", 『한국논단』, 1996년 5월호.
- 李三成, "광주학살 미국·신군부의 협조와 공모", 『역사비평』, 1996.
- 이상우, "12·12세력과 광주", 『신동아』, 동아일보사, 1988년 2월호.
- 이수애, "광주전남지역의 여성운동",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오월여성연구회, 민중사, 1991.
- 이시재, "사회운동과 사회구조의 제수준 :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운동과 사회계급』, 전예원, 1992.
- 이윤정, "5월 민중항쟁과 여성운동: 송백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4권, 1호, 2011.
- 이은주,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투쟁", 『여성·주체·삶』, 광주여성단체연합, 티엠씨, 2000.
- 이재의, "1980년광주:10일간의 민주공동체", 『기억과 전망』, 한국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05.
- 이정노,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전환", 『월간 노동해방문학』, 1989.
- 이종범, "광주민중항쟁의 배경에 대한 연구", 『5·18민중항쟁에 대한 재조명』,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0.
- 임현진·공석기,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 운동조직 분석", 권태환·임현진 송호근 공편,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세계적 추세와 한국』, 서울대 출판부, 2001.
- 장을병, "광주5월 민중항쟁에서의 무장투쟁", 『광주5월 민중항쟁』, 풀빛, 1990.
- 장하진, "5·18과 여성",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 전국학생총연합,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사적 조명", 『전학련 심포지움 자료』, 1985. 5.
- 정근식,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배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 1991.
- 정철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운동론적 접근과 비교연구", 『사회연구사』, 2000.
- _____, "미시동원, 중위동원, 그리고 생활세계제도: 사회운동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경제와사회』, 1995, 봄호.

- _____, "중위동원과 6월 항쟁: 사회운동조직의 구조적·문화적 통합", 『한국사회학』, 제30집, 봄호, 1996.
- _____, "한국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기원: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제29집, 1995, 가을.

眞鍋佑子, "韓國民衆運動의 한 가운데 있는 光州", 『月刊百科』, 東京 平凡社, 1996.

최정운, "절대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2001.

최현·김지영,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2007년 가을호.

편집부, "5·18 계엄군의 작전상황 보고서", 『말』, 1988년 5월호.

_____, "광주항쟁의 주역은 누구인가", 『말』, 1988년 5월호.

황 효, "1980년대 광주지역 노동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영문자료>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77.

Shin, Gi-Wook,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94.

McAdam,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aul, Thompson, *The Voice of the Pas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자료집>

○ 기본자료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光州五月民衆抗爭使料全集』, 풀빛, 1990.
- 한국기독교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980년대민주화운동』, 1987.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28권』, 1997~2004.

- 편집부, 『80년 전후 한국사회 1~2권』, 사계절, 1984.
『광주여성발전사』, 광주광역시, 2000.
- 부상자·구속자 증언(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1권)
 - 박남선, "광주시민은 왜 총을 들었나", 『신동아』, 1988. 5.
 - 나의갑, "그때 그 목소리의 주인공, 전옥주는 누구인가?", 『월간예향』, 1988. 5.
 - 김 성, "광주전남 '의식권' 탄생주역 윤한봉", 『월간예향』 1988. 11.
 - 김희경, "광주항쟁 가두방송의 여인 전옥주의 충격 고백수기", 『신동아』, 1996. 9.
 - 정현상, "광주민주화운동 가두방송 두 여인 전옥주, 차명숙", 『신동아』, 1998. 5.
- 참여 관찰자 증언(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1권)
 - 위성삼, "죽은자가 산자에게 말한다", 『국민신문』, 1988. 10.
- 사망자관련(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2권)
 - 임낙평, "윤상원 열사의 삶과 투쟁", 『말』, 1989. 5.
 - 박노해, "광주무장봉기의 지도자 윤상원 평전", 『노동해방문화』, 1989.
 - 이재의, "윤상원 열사 친구들의 오늘", 『말』, 1991.
 - 오기문, "시민군 윤상원 그의 실체/80년 5월광주의 진실규명은 국민모두의 몫", 『한국논단』, 1997.
-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17권
 - 김상집, "증언! 5월의 광주, 그 육필수기/죽음의 공포를 넘으며", 『엔터프라이즈』, 1988. 6.
 - 정상용, "증언! 5월의 광주, 그 육필수기/그 날의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엔터프라이즈』, 1988. 6.
 - 윤영규, "증언! 5월의 광주, 그 육필수기/살육의 낮과 밤, 그 암흑의 240시간", 『엔터프라이즈』, 1988. 6.

- 오연호·김훈, "감옥살이 면제받은 광주간첩의 정체/광주사태 선동 간첩 이창용은 조작됐다", 『말』, 1998. 10.
- 오연호·김훈, "특종인터뷰/광주사태 선동 간첩 홍종수 18년 만에 입 열다/광주사태 무장 폭동 유도 위해 급파는 완전 조작", 『말』, 1988. 11.
- 박현채, "누적된 계급적 모순 민중적 저항으로/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배경", 『월간예향』, 1989. 4.
- 김창진, "차량시위 계기 질적비약, 시민투쟁역량에 자신감", 『월간예향』, 1989. 4.
- 이태희, "세계민중사에 길이 빛날 너·나 없는 사랑의 공동체 이룩", 『월간예향』, 1989. 5.
- 조일준, "오월연극인 고 박효선씨의 마지막 5·18증언", 『월간예향』, 1998. 11.

○ 5·18광주민중화운동자료총서 18권

- "5·18광주민중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독침사건의 진상", 『월간조선 별책부록』, 1999, 1.
- 윤석진, "광주 재조명/윤상원 통해 본 광주항쟁", 『월간중앙』, 1989. 5.
- 김재명, "80년 광주시장 구용상이 증언하는 격동의10일/5·18광주에 폭도는 없었습니다", 『월간중앙 WIN』, 1996. 1.
- 이경식, "대통령도 폭동을 항쟁으로 고칠순 없다", 『한국논단』, 1998. 12.
- 광주민중항쟁당시 현장의 교회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했나(1), 1993.
- 광주민중항쟁당시 현장의 교회들/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했나(2), 1993.
- 이수애,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의 삶: 여성의 눈으로 삶 읽기", 『목포대 여성문제연구』, 1996. 5.

○ 5·18광주민중화운동자료총서 19권

- 이태호, "특집/5월 민중항쟁과 문학·미술운동/80년대 민족 민중미술 운동과 5월 미술", 『지역사회연구』, 1989. 11. 29.
- 김경주 외2, "5월 민중항쟁과 문학·미술운동/80년대 민족 민중미술 운동과 5월 미술", 『지역사회연구』, 1989. 11. 29.
- 강만길, "광주사태의 역사성과 호칭문제", 『현대사사료연구』, 1988.

- 이용연, "5·18의 종말/실패로 막내린 신군부 쿠데타", 『주간조선』, 1995.
- 신승근, "12·12및 5·18관련 판결문 요지/자위권 발동 사실상 살인명령", 『한겨레21』, 1996. 9.
- 윤택림, "구술증언과 역사적 기억의 재현", 전남대 5·18연구소 제27회 학술 집담회, 2004. 6. 4.

<구술증언>

- 김영애, 2011년 11월 23일.
- 김숙자, 2011년 12월 9일 광주.
- 김서운, 2011년 11월 25일.
- 김영심, 2011년 12월 1일.
- 조봉훈, 2011년 12월 7일 예능교회.
- 박형중·황연자, 2011년 12월 10일 서울.
- 박두리, 2011년 12월 8일 일산.
- 임영희, 2011년 12월 17일 서울.
- 양동남, 2011년 12월 10일 광주.
- 이재춘, 2011년 12월 11일 광주.
- 임미령, 2011년 12월 22일 서울.
- 이정희, 2011년 12월 26일 광주.
- 최정임, 2011년 12월 27일 광주.
- 김순이, 2011년 12월 27일 광주.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정치외교학과	학 번	20057351	과 정	박 사
성 명	한글: 이 윤 정 한문: 李 玬 姪 영어: Lee Youn Jung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3차 302동 1801호				
연락처	E-MAIL : gjmirae@hanmail.net				
논 문	한글 : 오월광주항쟁의 송백회운동에 관한 연구 - 참여와 연대의 동학을 중심으로 - 영어 : A Study on The Songbaekhoi Movement in the May 18 Gwangju Uprising : Focused on the Dynamics of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112년 2 월 일					
저작자: 이 윤 정 (李 玬 姪 또는 인)					
<h3 style="margin: 0;">조선대학교 총장 귀하</h3>					

